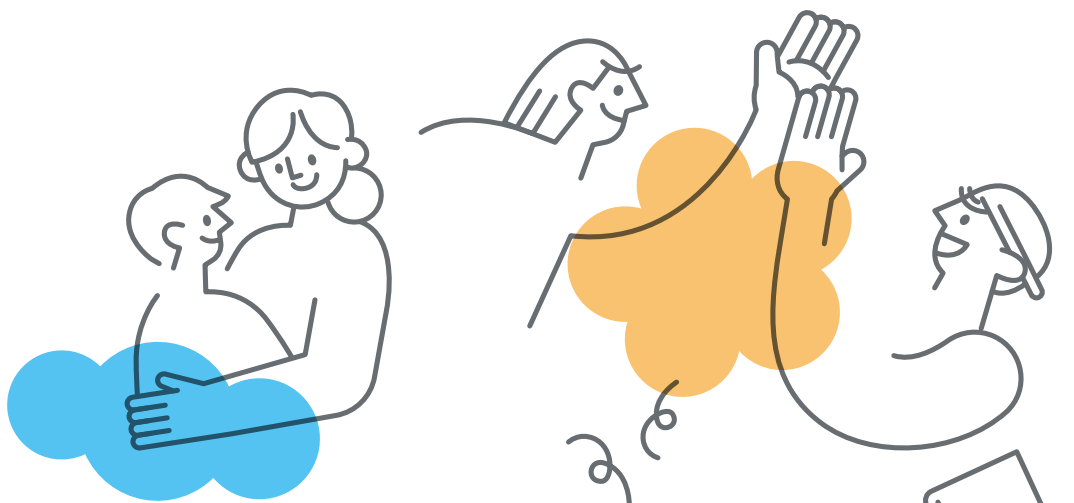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연구기관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연구진

책임연구

이수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팀장, 사회복지학 박사)

공동연구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수정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진 (김희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복지학 박사)

권순범 (성남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생활과학 박사)

강명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

이원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연구보조

명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주휘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문예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생)

총괄자문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간사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아동의 행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성장해 행복하기 쉽지 않고, 그런 구성원이 많은 사회를 건강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초록우산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초록우산은 아동의 일상에 주목하여 2016년부터 '아동행복지수'를 분석해 왔고, 올해는 민간 차원에서 보기 힘든 규모인 전국 1만140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 행복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초록우산 <2024 아동행복지수_아동청소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에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과 행복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언이 담겼습니다. 우선, 생활단위를 10분 단위로 기록하는 시간일지(time diary) 방식을 통해 세부적인 일상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이 살아가는 현실을 실제에 가깝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수면·공부·운동·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 통계, 가족과 함께 하는 질 좋은 여가 시간이 아동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아동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참고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전국 지역별 일상 특성이 아동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17개 시도별 비교 분석'도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아이들 일상과 행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아동의 행복에는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세심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지역 균형 차원의 고려, 나아가 아동 행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문제'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록우산은 이번 보고서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동 행복을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아이들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민간 영역에서 학술적, 실무적 노력과 함께 대중적 합의와 평가를 주도하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연구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록우산이 향후 진행할 아동 행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2024 한눈에 보는 아동행복지수 020

1. 아동행복지수 020

2. 생활시간을 통해 본 아이들의 일상행복 021

3. 아이들이 더 행복한 지역 025

4. 강남권 거주 아동 일상 028

5. 시설거주 아동 일상 029

I. 아동행복지수 추이 및 하루 생활 소개 031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비교 032

2. 전반적인 생활시간 050

3.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 053

4. 지역별 시간 사용 비교 081

5. 장소, 활동,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사용 084

II. 아동행복지수 관련 영향 요인 분석 093

1. 요즘 아이들 생활 특성과 아동행복지수 094

2. 학교급(연령)과 아동행복지수 105

III.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27

1. 지역별 아동행복 지수 비교 128

2. 상·하위지역 비교 141

3. 미디어 여가와 온라인 학교폭력 169

IV. 강남권 거주 아동의 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73

1. 요약	174
2.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반적 사항	175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영향요인 비교	182
4.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상	195

V.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259

1. 요약	260
2. 초록우산 지원 시설거주(양육시설·그룹홈) 아동 일반적 사항	262
3. 시설거주 아동의 생활시간과 일상	267
4. 생활시설이라는 환경이 주는 맥락 속에서의 아동 일상	268
5. 시설거주 아동이 맺는 주변인과의 관계	276
6.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	282

VI. 시사점 287

1. 아동행복지수와 관련 영향 요인 분석	288
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293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298
4.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304
5. 종합 제언	308

참고문헌 324

부록 330

표목차



<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033
<표 2> 4개년 주요 시간량 비교	033
<표 3> 4개년 주요시간 균형정도	034
<표 4>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행복감	035
<표 5>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	036
<표 6> 행복지수별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	037
<표 7> 수면시간 × 수면시간 인식	038
<표 8> 공부시간 × 공부시간 인식	039
<표 9> 운동시간 × 운동시간 인식	039
<표 10> 집콕 선호 여부	040
<표 11> 집콕 선호 이유	041
<표 12>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041
<표 13> 혼밥 여부	042
<표 14> 평일 혼밥 시간대	042
<표 15> 저녁혼밥 장소	043
<표 16> 어머니 직업유무별 혼밥 여부	043
<표 17> 어머니 직업별 혼밥 여부	044
<표 18> 어머니 직업별 혼밥 장소	045
<표 19> 불면 여부	046
<표 20> 학교급별 불면 이유	047
<표 21> 충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048
<표 22> 심리정서 4개년 추이	049
<표 23>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포함)	051
<표 24>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제외)	052
<표 25>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에 따른 필수시간 차이	054
<표 26> 성별, 학교급별 취침 및 기상 시각	055
<표 27>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056

<표 28>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057
<표 29>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차이	060
<표 30>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061
<표 31>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062
<표 32> 학교급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063
<표 33> 학교급별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064
<표 34> 방과 후 시간대별 사교육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065
<표 35> 방과 후 시간대별 혼자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066
<표 36>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시간 차이	068
<표 37> 대면교제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069
<표 38> 방과 후 시간대별 친구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	071
<표 39> 방과 후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072
<표 40>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074
<표 41>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1)	076
<표 42>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2)	076
<표 43> 방과 후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077
<표 44>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078
<표 45> 방과후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079
<표 46> 방과 후 시간대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080
<표 47> 지역규모별 시간 사용 및 차이	083
<표 48> 방과 후 학교급별, 장소별 머무른 시간	084
<표 49>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저학년생)	085
<표 50>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고학년생)	085
<표 51>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중학생)	086
<표 52>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고등학생)	086
<표 53>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	087
<표 54> 집콕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별 행위자 비율(방과 후~잘 때까지)	088
<표 55> 시간대별 수면 행위자 비율	089
<표 56> 학교급별, 방과 후 함께한 사람별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090

<표 57> 방과 후 시간대별 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비율	091
<표 58>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095
<표 59> 학교급별 불면 여부	095
<표 60> 학교급별 불면 이유	096
<표 61> 불면경험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096
<표 62>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해여부)	097
<표 63>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097
<표 64>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098
<표 65>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고민상담자 여부)	098
<표 66>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099
<표 6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100
<표 68>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100
<표 69>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101
<표 70>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102
<표 71>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102
<표 72>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해여부) 비교	103
<표 73>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자살생각) 비교	103
<표 74>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104
<표 75>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고민상담자) 비교	104
<표 76>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105
<표 77> 주행동 시간요인(증가시간)	106
<표 78> 주행동 시간요인(감소시간)	107
<표 79> 심리정서 요인	108
<표 80> 학교급별 자해 여부	109
<표 81> 학교급별 자살생각 여부	110
<표 82> 학교급별 자살생각 이유	110
<표 83> 학교급별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여부	111
<표 84> 부모 및 관계요인	112
<표 85> 정규수업 후(방과 후) 제일 먼저 가는 곳	113

<표 86> 방과 후 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	113
<표 87>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114
<표 88>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115
<표 89>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방과 후 학교)	115
<표 90>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116
<표 91>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117
<표 92> 학교급별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	118
<표 93> 학교급별 가족과의 대화주제	118
<표 94> 학교급별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 대화	119
<표 95> 집콕 선호 여부	120
<표 96> 학교급별 집콕 선호 이유	120
<표 97> 학교급별 고민상담 대상	121
<표 98> 학교급별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122
<표 99> 학교급별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123
<표 100> 학교급별 과도한 미디어 사용	123
<표 101> 학교급별 결석 여부 및 일수	124
<표 102> 학교급별 희망하는 직업 유형	125
<표 10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및 순위	129
<표 10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132
<표 105-1>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136
<표 105-2>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137
<표 106>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	140
<표 107> 17개 시도별 행복지수 및 순위	142
<표 107>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하위 5개 지역 선정지역	142
<표 109> 상·하위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143
<표 110>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143
<표 111>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144
<표 11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차이 및 상관관계	146
<표 11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148

<표 11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시간 간의 상관관계	148
<표 11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비교	149
<표 11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방과 후 시간 간의 상관관계	149
<표 11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운동시간 비교	150
<표 11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간의 상관관계	150
<표 11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비교	151
<표 12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	155
<표 12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지역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157
<표 12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159
<표 12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59
<표 12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요인 간의 상관관계	159
<표 12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차이비교	160
<표 12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주거열악 상관관계	160
<표 12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부모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1
<표 12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간의 상관관계	161
<표 12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2
<표 13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기관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163
<표 13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163
<표 13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등록이유 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4
<표 13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원 등록이유 비율 간의 상관관계	164
<표 13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7
<표 13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개인요인 간의 상관관계	167
<표 13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불면여부	168
<표 13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9
<표 13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	169
<표 139> 지역 규모별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171
<표 140> 강남권, 비교군(경기도 읍면) 아동 그룹의 일반적 사항	178
<표 141> 강남권, 비교군(경기도 읍면) 각 그룹별 개별심층면접 참석자 프로파일	179
<표 142> '강남권' 그룹 전반적인 시간사용	180

<표 143> ‘비교군(경기도 읍면)’ 그룹 전반적인 시간사용	181
<표 144> 아동행복지수: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비교	183
<표 145> 방과 후 취침 시까지, 함께한 사람	183
<표 146> 고민이 있을 때, 대화 나눌 상대	183
<표 147> ‘놀이터’ 이용 편리성	183
<표 148> ‘공원’ 이용 편리성	184
<표 149> ‘산책로’ 이용 편리성	184
<표 150> ‘관람 및 체험시설’ 이용 편리성	184
<표 151> ‘도서관’ 이용 편리성	185
<표 152>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편리성	185
<표 153> ‘실외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	185
<표 154> (정성조사)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186
<표 155> (정성조사)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187
<표 156> (정성조사)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189
<표 157> (정성조사)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190
<표 158> (정성조사) 공부에 대한 태도	192
<표 159> 보호자(아버지) 직업군	193
<표 160> 전문직 관련 직업 희망 비율	193
<표 161> (정성조사)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194
<표 162> 공부시간	196
<표 163> 주말 사교육	197
<표 164> 주말 사교육 개수	197
<표 165> 혼자 공부하는 시간	197
<표 166> (정성조사) 학원 공부 시간	198
<표 167> (정성조사) 학원 외 공부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포함)	199
<표 168> 양육자의 교육열의 (4점 만점)	200
<표 169> (정성조사) 양육자의 교육 열의	201
<표 171> 양육자의 교육 관여	202
<표 170> (정성조사) 양육자의 교육 관여	203

<표 172> 수면시간.....	204
<표 173> 불면 여부.....	205
<표 174> 불면 이유.....	205
<표 175> 수면시간.....	206
<표 176> 여가시간 사용 현황.....	207
<표 177> 미디어 여가시간.....	208
<표 178> 게임 주행동 시간량.....	208
<표 179> 시간대 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209
<표 180> (정성조사)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209
<표 181> 미디어 외 여가시간.....	211
<표 182> (정성조사) 미디어 외 여가시간.....	211
<표 183> 운동 시간.....	213
<표 184>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213
<표 185> (정성조사)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214
<표 186> 방과 후 함께한 사람.....	216
<표 187> 고민 시 대화상대.....	217
<표 188> (정성조사)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217
<표 189> (정성조사)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219
<표 190> (정량조사) 강남1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20
<표 191> (정성조사) 강남1 아동 발화내용.....	222
<표 192> (정량조사) 강남2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23
<표 193> (정성조사) 강남2 아동 발화내용.....	225
<표 194> (정량조사) 강남3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26
<표 195> (정성조사) 강남3 아동 발화내용.....	228
<표 196> (정량조사) 강남4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29
<표 197> (정성조사) 강남4 아동 발화내용.....	230
<표 198> (정량조사) 강남5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32
<표 199> (정성조사) 강남5 아동 발화내용.....	233
<표 200> (정량조사) 강남6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35
<표 201> (정성조사) 강남6 아동 발화내용.....	237

<표 202> (정량조사) 비교군1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38
<표 203> (정성조사) 비교군1 아동 발화내용	240
<표 204> (정량조사) 비교군2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41
<표 205> (정성조사) 비교군2 아동 발화내용	243
<표 206> (정량조사) 비교군3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45
<표 207> (정성조사) 비교군3 아동 발화내용	247
<표 208> (정량조사) 비교군4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48
<표 209> (정성조사) 비교군4 아동 발화내용	250
<표 210> (정량조사) 비교군5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51
<표 211> (정성조사) 비교군5 아동 발화내용	253
<표 212> (정량조사) 비교군6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254
<표 213> (정성조사) 비교군6 아동 발화내용	256
<표 214> 시설거주 아동의 전반적인 시간 사용	263
<표 215> 시설거주 아동 그룹의 일반적 사항 (전체 조사자 대비)	264
<표 216> 시설아동그룹 개별심층면접 참석자 프로필	266
<표 217> 시설아동 그룹 주요 시간사용 비교 [강남권 vs비교군(경기도 읍면)]	268
<표 218> 시설아동의 시간 및 활동 제약과 변화	269
<표 219> 시설거주 아동의 공동생활과 공간사용의 양상	270
<표 220> 시설거주 아동의 개인 여가활동과 미디어활동	272
<표 221> 시설아동의 단체여가활동과 공동 활동이 주는 의미	274
<표 222>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277
<표 223>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거주 아동과의 관계	279
<표 224> 기타 주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281
<표 225> 학업에 대한 흥미와 태도	283
<표 226> 진로선택과 자립의 경계에 선 시설거주 아동	285
<표 227> 지역 인프라 원점수	330
<표 228> 시도별 과밀학급 학생 비율 및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32
<표 229>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연간 누적 학생 수 및 비율	334
<표 230> Compulsory Instruction Time (의무교육시간) In General Education 2022	335

그림목차



[그림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032
[그림 2]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주관적 행복감	036
[그림 3] 총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048
[그림 4] 우울·불안 4개년 추이	049
[그림 5] 정서학대 4개년 추이	049
[그림 6] 전반적인 시간사용	050
[그림 7] 전반적인 시간사용 세부내용	050
[그림 8] 학교급별 비교	051
[그림 9] 성별 비교	051
[그림 10] 빈곤 여부별 비교	051
[그림 11] 학교급별 필수시간	053
[그림 12] 성별 필수시간	053
[그림 13]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053
[그림 14] 학교급별 취침시각	055
[그림 15] 성별 취침시각	055
[그림 16] 학교급별 기상시각	055
[그림 17] 성별 기상시각	055
[그림 18]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056
[그림 19]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058
[그림 20] 학교급별 학업시간	059
[그림 21] 성별 학업시간	059
[그림 22]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059
[그림 23] 학교급별 학업시간 세부	060
[그림 24]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세부	060
[그림 25]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061
[그림 26]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063

[그림 27]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064
[그림 28] 성별 혼자공부	067
[그림 30] 학교급별 혼자공부	067
[그림 29]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067
[그림 31] 학교급별 대면교제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070
[그림 32] 빈곤여부별 미디어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073
[그림 33]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전체 평균시간	075
[그림 34]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	075
[그림 35] 지역별 시간사용	082
[그림 36]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094
[그림 3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099
[그림 38]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101
[그림 39]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105
[그림 40]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방사형)	128
[그림 41]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막대형)	129
[그림 4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상·중·하위 시도	130
[그림 43]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131
[그림 4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영역별)	133
[그림 45]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균형정도(꺾은선형)	134
[그림 46] 17개 시도별 수면시간	138
[그림 47] 17개 시도별 공부시간	138
[그림 48]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138
[그림 49] 17개 시도별 운동시간	138
[그림 50]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방사형)	139
[그림 51]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막대형)	140
[그림 5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중위, 하위 지역	141
[그림 53]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평균비교	142
[그림 54]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143
[그림 5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145

[그림 5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147
[그림 5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149
[그림 5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150
[그림 5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151
[그림 60] 상·하위 지역별 안전 및 문화 인프라 수준	152
[그림 6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세부 항목별)	153
[그림 6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비교	158
[그림 6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160
[그림 6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161
[그림 6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162
[그림 6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163
[그림 6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165
[그림 6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범죄율	168
[그림 69]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170
[그림 70] 17개 시도별 미디어-여가 비율	170
[그림 71] 17개 시도별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170
[그림 72]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복 시도(강원, 인천, 충북)	170
[그림 73] 수도권 내의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구분	177
[그림 74] 공부시간	196
[그림 75] 주말 사교육	197
[그림 76] 양육자의 교육 관여	202
[그림 77] 불면 이유	205
[그림 78] 미디어 여가시간	208
[그림 79] 방과 후 함께한 사람	216
[그림 80] 고민 시 대화상대	216
[그림 81] (정량조사) 강남1 아동 하루 생활시간	221
[그림 82] (정량조사) 강남2 아동 하루 생활시간	224
[그림 83] (정량조사) 강남3 아동 하루 생활시간	227
[그림 84] (정량조사) 강남4 아동 하루 생활시간	230

[그림 85] (정량조사) 강남5 아동 하루 생활시간	233
[그림 86] (정량조사) 강남6 아동 하루 생활시간	236
[그림 87] (정량조사) 비교군1 아동 하루 생활시간	239
[그림 88] (정량조사) 비교군2 아동 하루 생활시간	242
[그림 89] (정량조사) 비교군3 아동 하루 생활시간	246
[그림 90] (정량조사) 비교군4 아동 하루 생활시간	249
[그림 91] (정량조사) 비교군5 아동 하루 생활시간	252
[그림 92] (정량조사) 비교군6 아동 하루 생활시간	255

일러두기

정량 조사

- **조사 지역** | 전국
- **조사 방법** | 이메일/모바일을 이용한 웹조사(time diary, 설문 조사)
※ 초등 저학년: 양육자 대리 조사,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청소년 본인 조사
- **조사 대상**
 - 일반 가구: 초록우산이 직접·간접(협력기관) 관리를 하지 않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초등 1학년~고등 2학년)
 - 저소득 가구: 초록우산이 직접·간접(협력기관) 관리 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초등 1학년~고등 2학년)
- **표본 크기** | 10,140명(일반 가구 10,020명, 저소득 가구 120명)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법(95% 신뢰수준에서 $\pm 0.97\%p$)
- **조사 기간** | 2023년 12월 4일 ~ 2023년 12월 29일(4주)
- **조사 수행** | ㈜한국리서치

정성 조사¹⁾

- **조사 대상**
 - 강남권·비교군 조사: 강남권(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비교군(경기도 읍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12명²⁾
 - 양육시설·그룹홈 조사: 서울·경기 지역 소재 시설에서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8명
- **조사 방법** | 개별심층면접(IDI: In Depth Interview) 방식
- **조사 시간** | 개인당 약 1시간 내외 소요
- **조사 기간** | 2024년 2월 29일 ~ 3월 9일(10일)
- **조사 내용** | 평소 시간활용 및 사회적 관계,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

1)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정량조사 주요 결과인 '시간양'으로 파악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특별한 일상 맥락'을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개별심층면접(IDI: In Depth Interview)을 활용한 정성조사를 추가 실시함. 이때 정성조사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즉, 강남권 아동·청소년과 양육시설·그룹홈 아동·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2) '강남권 아이들'이란 의미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라는 거주지역으로서의 특징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화적 자본, 자녀 양육방식 등 다양한 인식적인 특성이 내포된 개념임. 이에 '강남권'과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군'은 우선 같은 수도권이나 강남권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도시 환경적으로 대조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문화적 자본 등을 고려해 집단을 구성하였음

일러두기

용어 및 기준집단

2024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생활시간) 결과에서 사용한 용어 및 기준집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량) 및 비율

- 시간 | 전체 대상자(특정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의 평균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 행위자들의 평균시간

● 필수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행동분류

- 필수시간 |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

① 수면 ② 식사 ③ 개인유지

- 학습시간 | 학교수업, 학교수업 외 학습 등 해야 하는 공부와 관련된 시간

④ 학교 수업: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과목들 / 쉬는 시간 /
기타 학교수업(창의체험,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⑤ 학교 수업 외 학습: 학원·과외 수업(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과목들),
학습지 / 방송, 온라인 수업(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과목들),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 여가시간 |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

⑥ 대면교제: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 /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
⑦ 미디어 외 여가: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 / 춤추기 / 악기연주 / 그림 그리기,
종이책 읽기(만화, 잡지, 신문 포함),
운동 및 신체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⑧ 미디어 여가: 게임(PC,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영상시청(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케이블 / 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대화 및 연락(인터넷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전자책 읽기(만화, 잡지, 신문 등)

⑨ 기타

2024 한눈에 보는 아동행복지수

1 아동행복지수

● 2024 아동행복지수

2024 아동행복지수 45.3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과소수면·과다공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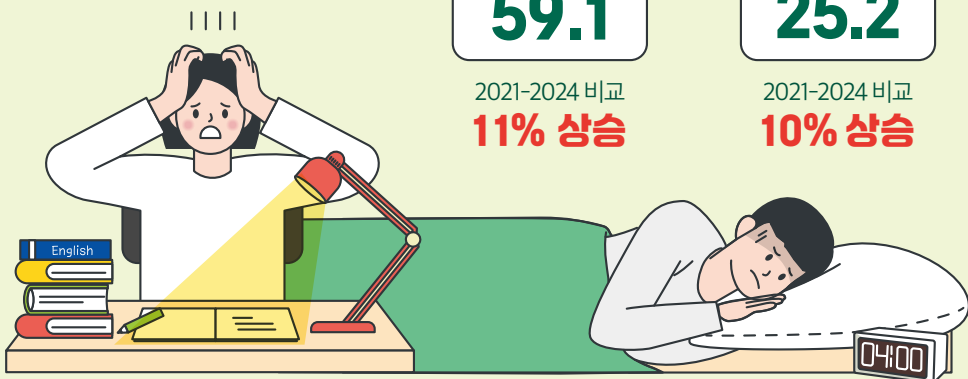
(총 100점 만점)

전체 평균 (점)

45.3



● 2024 주요 시간양 비교



공부시간



28분 증가
2:27 ▶ 2:55
2021-2024 비교



수면시간



15분 감소
8:14 ▶ 7:59
2021-2024 비교



2 생활시간을 통해 본 아이들의 일상행복

(1) 수면시간

● 학교급별 수면시간과 불면비율

수면시간

초저와 고등 비교 **-3시간 7분**



불면 비율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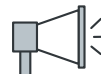
전체 비율 (%)
13.1



28.9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 시청



19.4 내일 할 일 등 다양한 걱정



15.2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



13.7 기타



13.6 공부, 과제 등 해야 할 일 과다



4.9 카페인이 있는 음료 섭취



4.2 운동시간 부족 (운동을 해야 잠이 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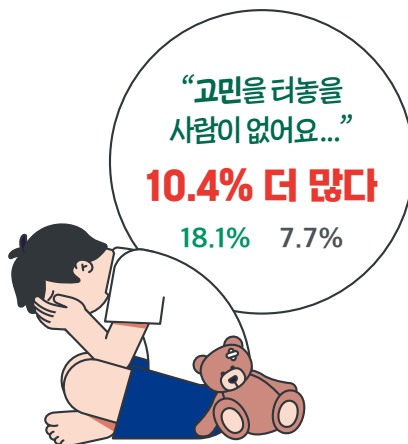
학교급별 비율

초저	초고	중등	고등
9.3	11.0	15.3	18.7

● 나타나는 문제

● 불면 O ● 불면 X

자해	10.4% ▲	14.2%	3.8%
자살생각	17.8% ▲	24.8%	7.0%
우울·불안	0.3점 ▲	1.54점	1.24점



10.4% 더 많다

18.1% 7.7%

(2) 공부시간

● 학교급별 학업시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수업, 학교수업외 학업시간이 모두 증가함

고등학생 하루 평균 공부시간



학교 7:14
학교 외 3:08

● 학교수업 ● 학교수업 외



고등학생 평일 하루 평균

초저와 고등 비교 **+3시간 12분**



초저
7:10



고등
10:22

사교육 비율



하교 후, **32.2%**는 곧장 학원

초등 저학년 중, **30.4%**가 곧장 학원

초등 저학년 부모 중, **23.8%**는

돌봄을 목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함



● 부모의 교육열의 및 공부압박

부모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육열의’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함

반면, 자녀에 대한 ‘공부압박’은 점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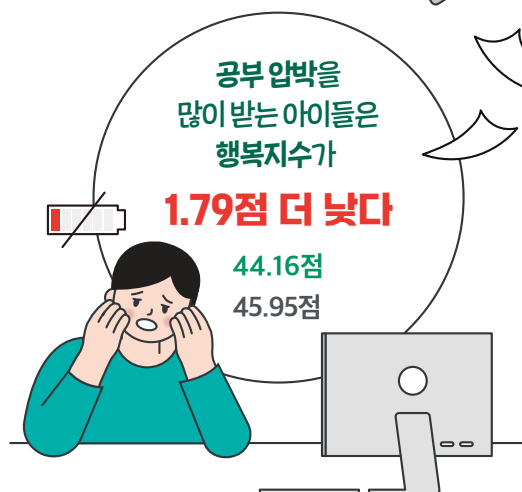
● 교육열의 ● 공부압박

초저	초고
2.56	2.39
2.29	2.26
중등	고등
2.19	1.97
2.54	2.49

초저와 고등 비교

교육열의 **0.59점 ▼**

공부압박 **0.2점 ▲**



● 나타나는 문제

● 공부압박 O ● 공부압박 X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36분 ▲ 3:08 2:31

자살생각

2% ▲ 10.8% 8.8%

우울·불안

0.04점 ▲ 1.31점 1.27점

(3) 심리정서

●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부정정서는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 증가**, 반면, 긍정정서는 **지속감소함**



초저와 고등 비교

편안함 **1.00점 ▼**

초저	초고	중등	고등
8.16	8.17	7.6	7.16

주관적 행복감 **1.77점 ▼**

초저	초고	중등	고등
8.27	8.01	7.13	6.5

024

초고와 고등 비교

고립감 **0.53점 ▲**

초고	중등	고등
1.86	2.15	2.39

미래불안감 **2.72점 ▲**

초저	초고	중등	고등
3.26	4.37	6.11	7.09



● 나타나는 문제 ● 초고 ● 중등 ● 고등

초고와 고등 비교

자살생각

10.1% ▲ 5.3% 9.9% 15.4%

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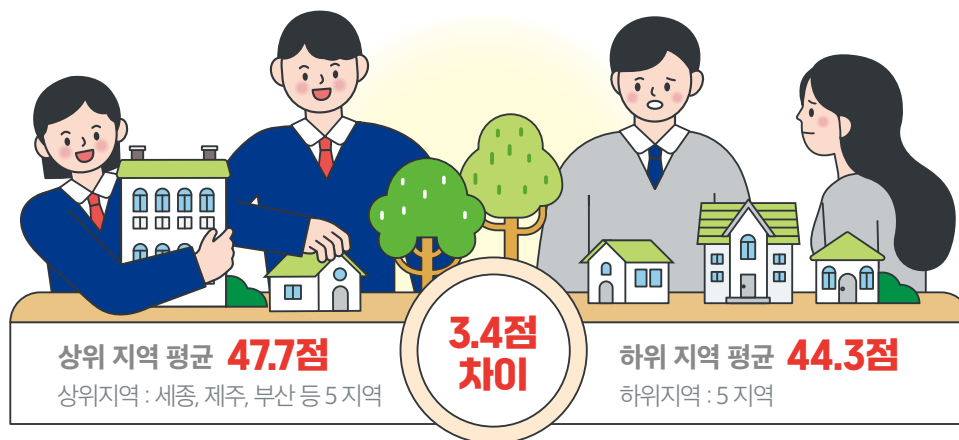
3.0% ▲ 4.3% 5.0% 7.3%



3 아이들이 더 행복한 지역

(1) 상·하위 지역별 비교

● 17개 시도 아동행복지수



경제인프라

경제성장률(%)

상위지역 **1.09▲**

상위 4.27

하위 3.18

가구부채(만원)

상위지역 **4,039▼**

상위 7,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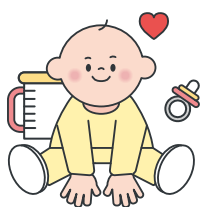
하위 11,124

실업률(%)

상위지역 **0.14▼**

상위 2.55

하위 2.69



인구인프라

인구밀도(명/㎢)

상위지역 **3,727.33▼**

상위 1,536.11

하위 5,263.44

합계출산율(명)

상위지역 **0.08▲**

상위 0.85

하위 0.77



문화인프라

문화시설 수(개)

상위지역 **2.9▲**

상위 8.40

하위 5.50

체육시설 수(개)

상위지역 **1.42▲**

상위 111.36

하위 109.94

도시공원 면적(㎢)

상위지역 **10.53▲**

상위 21.24

하위 10.71



학교특성

과밀학급 비율(%)

상위지역 **8.04▼**

상위 22.64

하위 30.68

스포츠 동아리 누적 참여율(%)

상위지역 **971.63▲**

상위 1,92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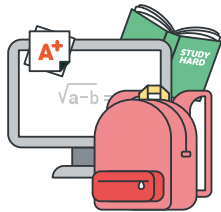
하위 952.75

낮은 체력 등급 학생 비율(%)

상위지역 **3.54▼**

상위 9.65

하위 13.19



사교육 현황

사교육비(원)

상위지역 **130,000▼**

상위 360,000

하위 490,000

사교육 참여율(%)

상위지역 **5.34▼**

상위 75.69

하위 81.03



학원에 보내는 이유

불안

상위지역 **2.82▼**

상위 10.74

하위 13.56

선행학습

상위지역 **3.63▼**

상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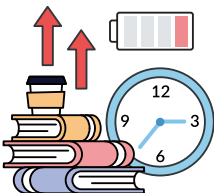
하위 23.64

학업성적 향상

상위지역 **5.51▼**

상위 50.55

하위 56.06



부모 교육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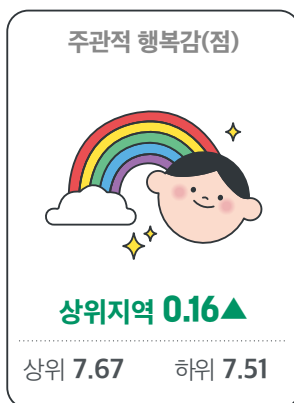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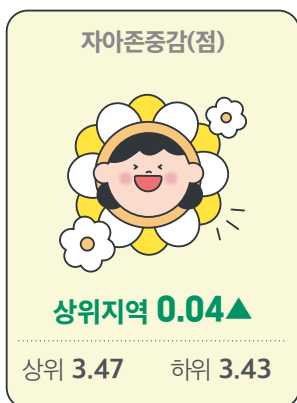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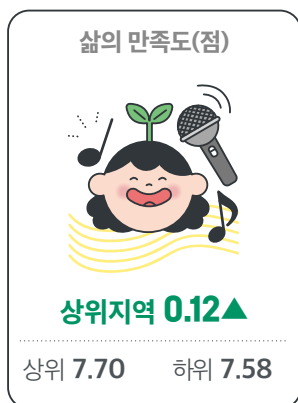
공부압박(점)

상위지역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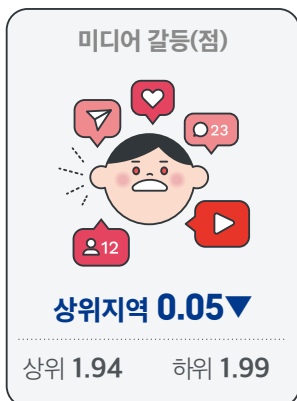
상위 2.32

하위 2.40

● 긍정정서



● 부정정서



4 강남권 거주 아동 일상

(1) 모두 공부를 하는 분위기



028

일상화 된 학원가기

- 학원가는 것은 당연한 일상
- 학원 선택 이유는 효율이 높지 않더라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적극적인 학습적 관여

-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일정과 시간 적극 관리
- 부모의 관여 또한 당연한 일상임

학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늘 부족한 수면시간

-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원, 공부시간 증가로 수면 부족 호소
-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수면을 하고 싶어함

5 시설거주 아동 일상

(1) 양육시설의 제한과 결핍



양육시설의 생활 규범으로 '의도된' 시간 사용 제한 및 상대적 학습 결핍

- 공동생활로 기상 및 식사와 같은 시간 규정 일상화
- 학습문제 아동 대상 별도 특수교육 및 지원 부재

시설아동이 학교 친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설 밖 일상 경험의 확장

- 특히, 학교 친구 집에 놀러가거나 친구 부모님과 함께한 경험이 긍정 인식

다양한 진로탐색 보다 자립준비를 위한 취업교육 선택

- 특성화고를 다니며 취업을 통한 자립준비 선호
- 진로 선택에는 선배의 영향을 받음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I

아동행복지수 추이 및 하루 생활 소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비교
2. 전반적인 생활시간
3.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
4. 지역별 시간 사용 비교
5. 장소, 활동,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사용





아동행복지수 추이 및 하루 생활 소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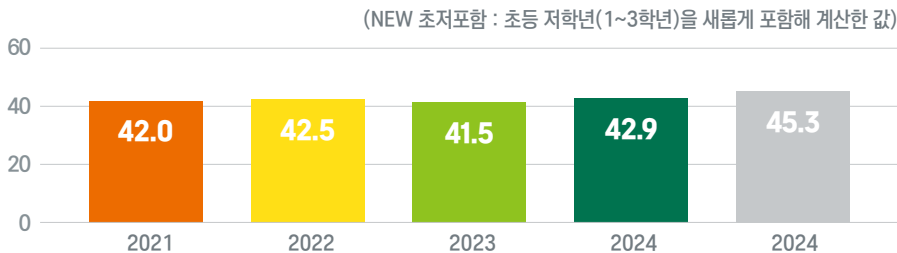
1) 4개년 추이 (증감)

-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총 100점 만점 중 42.9점으로, 2021년도에 비해, 과소수면(10%p▲), 과다공부(11%p▲) 아이들이 증가함
- 아동행복지수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감도 달라져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8.2점)은 아동행복지수가 0인 아이들보다(6.3점) 1.9점 더 높음

아동행복지수 추이

-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42.9점으로 2023년보다 1.4점 높은 점수로, 작년보다 수면시간은 늘고 공부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공부시간이 급증하다(2022년, 2023년) 2024년 소폭 감소함
- 2021년에 비해(2024년-2021년) 전반적으로 수면시간은 15분 감소하고, 공부시간은 28분 증가함

[그림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주: <2024 아동행복지수>부터 '초등 저학년(1~3학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초등 저학년이 포함된 지수도 함께 표기함

※ (NEW)초저포함=초등 저학년(1~3학년)을 새롭게 포함해 계산한 값

<표 1> 4개년 아동행복지수 추이

단위(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new)*	
아동 행복지수	42.0	42.5	41.5	42.9	초등 저학년 포함	45.3
					동시행동 '미디어 시간' 포함	42.9

주: 아동행복지수 총 100점 만점 <2024년 아동행복지수>부터 '초등 저학년'이 포함된 지수, '동시행동으로 잡힌 미디어 시간을 포함한 경우'를 모두 병기함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표 2> 4개년 주요 시간량 비교

단위(시간:분)

아동행복 지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 2021년	2024년 (초등 저학년 포함)
수면시간	8:14	7:49	7:51	7:59	-0:15	8:25
공부시간	2:27	3:02	3:11	2:55	0:28	2:45
미디어시간	2:34	2:02	1:58	2:00	-0:34	1:49
				2:23 (동시행동 미디어 포함)	-0:11	2:10 (동시행동 미디어 포함)
운동시간	0:11	0:18	0:15	0:15	0:04	0:16

주: 시간 계산에 포함된 행동코드표

과소수면, 과다공부 증가

- 2024년 아이들의 일상생활 균형을 위협하는 과소수면, 과다공부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에 비해 모두 늘어나 2021년보다 2024년에 과소수면 10%p 증가, 과다공부 11%p 증가함
- 과다미디어 아동 비율(38.8%)로 2021년(53.8%)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

<표 3> 4개년 주요시간 균형정도										단위(명, %)	
아동행복 지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 -2021	2024 (초등 저학년 포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비율	학생 수	비율
수면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287	15.7	1,088	24.6	582	26.1	1,895	25.2	10	1,902	18.8
권장(적정)	1,537	84.2	3,320	75.1	1,648	73.9	5,596	74.6	-10	8,223	81.1
과다	1	0.1	12	0.3	1	0.0	15	0.2	0	15	0.2
공부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402	22.0	892	20.2	360	16.1	1,240	16.5	-5	1,424	14.0
권장(적정)	547	30.0	1,020	23.1	477	21.4	1,831	24.4	-6	2,118	20.9
과다	876	48.0	2,508	56.7	1,394	62.5	4,435	59.1	11	6,598	65.1
미디어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권장	844	46.2	2,630	59.5	1,368	61.3	4,593	61.2	15	6,728	66.3
							(a) 3,861	(a) 51.4	5	5,776	57.0
과다	981	53.8	1,790	40.5	863	38.7	2,912	38.8	-15	3,412	33.7
							(a) 3,644	(a) 48.6	-5	4,364	43.0
운동시간	1,825	100.0	4,420	100.0	2,231	100.0	7,505	100.0		10,140	100.0
과소	1,692	92.7	3,866	87.5	2,010	90.1	6,657	88.7	-4	8,840	87.2
권장	133	7.3	554	12.5	221	9.9	849	11.3	4	1,300	12.8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a: 동시행동 미디어시간 포함 시

아동행복지수와 주관적 행복감

- 아이들의 일상이 얼마나 균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동행복지수'의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각 생활에서 '권장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봄
- 주요 4개 생활 영역인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에서의 시간이 '권장'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즉,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인 아동행복지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곧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더 균형 잡힌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함
- 4개 생활 영역 모두에서 '권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즉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과소'나 '과다'한 생활로 사는, 즉 아동행복지수가 0점인 아이들에 비해 실제 주관적 행복감이 1.9점 더 높음

<표 4>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행복감

단위(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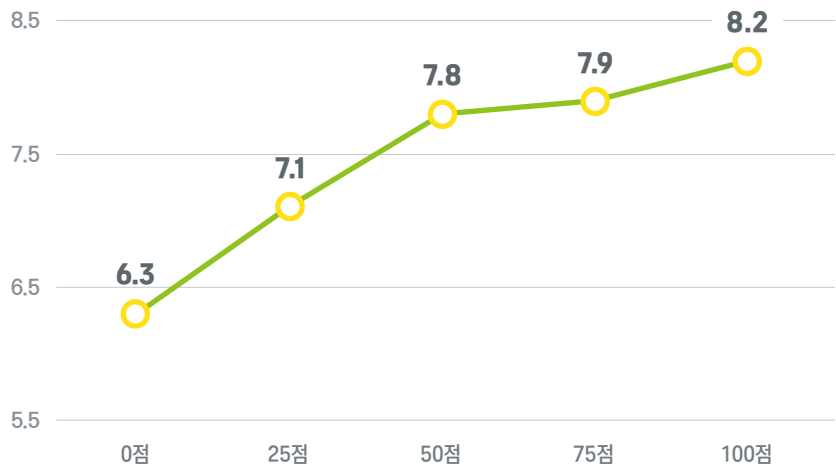
			학생 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사후분석
아동행복지수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0개	0점	697	6.3	2.0	169.408	0.000	0개 < 1개 < 2개, 3개, 4개
	1개	25점	2,547	7.1	2.0			
	2개	50점	5,125	7.8	1.8			
	3개	75점	1,515	7.9	1.8			
	4개	100점	257	8.2	1.6			

주: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4개 생활 영역 중에서 '권장'기준에 해당하는 적정시간을 보내는지, 즉 아동·청소년 저마다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의 개수를 합산해 '아동행복지수'로 산출한 값

*초등 저학년 포함

[그림 2] 아동행복지수(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와 주관적 행복감



2) 아동행복지수 (상) vs (중하)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16.4% 수준.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에 비해 학원·독서실에서의 시간이 더 길고(38분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짧음(53분 ▼)

-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아동행복지수가 ‘상’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전체 중 16.4%(초등 저학년 포함 시: 17.5%)에 불과함

<표 5>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

단위(명, %)

		학생 수		비율	
		초등 저학년 제외	초등 저학년 포함	초등 저학년 제외	초등 저학년 포함
아동 행복지수	상	1,233	1,772	16.4	17.5
	중하	6,272	8,368	83.6	82.5
전체		7,505	10,140	100.0	100.0

주: 아동행복지수 상/중하(=75점 미만, 75점 이상) 상하 집단구분

① 주요장소 및 관계(시간일지 장소/활동별 코드)

- (주요 장소) 행복지수가 '상'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집(17분▲), 돌봄 관련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5분▲),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17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학원에 있거나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더 짧았음(38분▼)
- (주요 관계) 행복지수가 '상'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방과 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짧았고(31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었으며(53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음(5분▼, 2분▼)

<표 6> 행복지수별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

단위(명, 시간:분)

집단통계량						t	유의확률
행복지수 상/중하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집	상	1,772	6:02	121.1	5.306	0.000
		중하	8,368	5:45	143.5		
	돌봄	상	1,772	0:09	40.9	5.185	0.000
		중하	8,368	0:04	26.2		
	공부	상	1,772	0:56	71.3	-19.210	0.000
		중하	8,368	1:34	91.8		
	체육시설	상	1,772	0:21	43.1	16.251	0.000
		중하	8,368	0:04	18.3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사람	혼자	상	1,772	3:05	129.0	-8.917	0.000
		중하	8,368	3:36	142.1		
	가족	상	1,772	3:23	146.1	13.794	0.000
		중하	8,368	2:30	145.0		
	오프라인 친구	상	1,772	0:56	84.3	-2.125	0.034
		중하	8,368	1:01	90.9		
	온라인 친구	상	1,772	0:02	16.6	-3.686	0.000
		중하	8,368	0:04	24.3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시간일지에서 함께하는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② 실제 시간 사용 x 시간 인식

-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 초저(23.3%), 초고(24.3%), 중등(44.4%), 고등(59.9%)
- 특히, 실제 수면시간 과소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초저(24.8%), 초고(50.1%), 중등(67.1%), 고등(70.4%)

〈표 7〉 수면시간 × 수면시간 인식													단위(명, %)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수 면 시 간	과 소	학생 수	2	5	7	44	43	87	427	209	637	824	347	1,171	
		비율	24.8	75.2	100.0	50.1	49.9	100.0	67.1	32.9	100.0	70.4	29.6	100.0	
	적 정	학생 수	611	2,016	2,627	645	2,103	2,748	788	1,314	2,102	324	421	745	
		비율	23.3	76.7	100.0	23.5	76.5	100.0	37.5	62.5	100.0	43.5	56.5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613	2,021	2,634	689	2,146	2,835	1,215	1,523	2,739	1,148	768	1,916	
		비율	23.3	76.7	100.0	24.3	75.7	100.0	44.4	55.6	100.0	59.9	40.1	100.0	

주: 수면시간 → 시간일자: 전날 취침~당일 기상까지, 수면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1번

- 본인의 평소 ‘공부시간이 과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면서 조금 씩 나타남(초고 13.6%, 중등 12.8%, 고등 12.6%)
- 특히, 실제 공부시간 과다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공부시간이 과하다고 인식한 비율도 초등 저학년생(5.2%)보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느끼고 있음(초고 16.6%, 중등 15.3%, 고등 15.2%)

<표 8> 공부시간 × 공부시간 인식

단위(명, %)

공부시간이 과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공부 시간	적 정	학생 수	5	283	287	47	712	759	55	674	729	17	325	342	
		비율	1.6	98.4	100.0	6.2	93.8	100.0	7.5	92.5	100.0	5.0	95.0	100.0	
	과 다	학생 수	112	2,052	2,164	311	1,562	1,873	239	1,322	1,560	152	850	1,002	
		비율	5.2	94.8	100.0	16.6	83.4	100.0	15.3	84.7	100.0	15.2	84.8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116	2,335	2,451	358	2,274	2,631	294	1,996	2,290	169	1,175	1,344
			비율	4.7	95.3	100.0	13.6	86.4	100.0	12.8	87.2	100.0	12.6	87.4	100.0

주: 공부시간 → 시간일지: 공부시간(학교수업 외 학습) 코드 합산 값, 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2번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짐: 초저(44.1%), 초고(44.2%), 중등(58.8%), 고등(68.3%)
- 특히, 실제 운동시간 과소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의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고 있음: 초저(46.8%), 초고(47.4%), 중등(62.2%), 고등(71.3%)

<표 9> 운동시간 × 운동시간 인식

단위(명, %)

운동시간이 부족하다			초저			초고			중등			고등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운동 시간	과 소	학생 수	1,021	1,162	2,184	1,148	1,276	2,424	1,537	935	2,472	1,256	505	1,760	
		비율	46.8	53.2	100.0	47.4	52.6	100.0	62.2	37.8	100.0	71.3	28.7	100.0	
	적 정	학생 수	142	309	451	106	306	412	77	196	273	58	105	163	
		비율	31.4	68.6	100.0	25.8	74.2	100.0	28.3	71.7	100.0	35.9	64.1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1,163	1,472	2,635	1,254	1,582	2,836	1,614	1,131	2,745	1,314	609	1,924
			비율	44.1	55.9	100.0	44.2	55.8	100.0	58.8	41.2	100.0	68.3	31.7	100.0

주: 운동시간 → 시간일지: 운동시간(학교체육 제외) 코드, 운동시간 인식 → 부가문항(자기기입) 문5-3번

③ 실제 행동 시간 x 행동 선호도

- (집콕: 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 평소 집콕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미있고(27.7%), 딱히 갈 곳도 없기 때문(25.1%)을 이유로 꼽았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와 같이 응답하는 비율도 더 높아짐
- 중·고등학생(중등 9.6%, 고등 5.0%)과 달리 초등학생들(초저 31.6%, 초고 20.1%)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집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또, 집콕을 선호하는 이유로 ‘친구랑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한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인터넷·휴대전화 게임(44.0%), 동영상·만화 감상,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의 기타 여가활동(46.5%)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라고 부가 응답함
- 초등학생의 과반수(초저 52.2%, 초고 54.0%)는 ‘인터넷·휴대전화 게임’이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나, 중·고등학생에게서는 이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중등 42.9%, 32.9%), ‘기타 여가활동’을 이유로 꼽은 아이들이 많았음(중등 47.0%, 고등 55.0%)

<표 10> 집콕 선호 여부

단위(명, %)

평소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집콕을 선호 한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	초저	학생 수	1,156	1,479	2,635
		비율	43.9	56.1	100.0
	초고	학생 수	1,625	1,211	2,836
		비율	57.3	42.7	100.0
	중등	학생 수	1,919	826	2,745
		비율	69.9	30.1	100.0
	고등	학생 수	1,463	460	1,923
		비율	76.1	23.9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6,163	3,976	10,139	
	학생 수	60.8	39.2	100.0	

<표 11> 집콕 선호 이유

단위(명, %)

			친구랑 놀이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	용돈이 부족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가족 중에 나를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타	계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237	10	212	8	129	365	195	1,156
		비율	20.5	0.9	18.3	0.7	11.2	31.6	16.9	100.0
	초 고	학생 수	415	55	405	15	122	326	287	1,625
		비율	25.5	3.4	24.9	0.9	7.5	20.1	17.7	100.0
	중 등	학생 수	569	150	522	13	83	184	397	1,918
		비율	29.7	7.8	27.2	0.7	4.3	9.6	20.7	100.0
	고 등	학생 수	487	190	405	3	53	73	251	1,462
		비율	33.3	13.0	27.7	0.2	3.6	5.0	17.2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1,708	405	1,544	39	387	948	1,130	6,161
		비율	27.7	6.6	25.1	0.6	6.3	15.4	18.3	100.0

주: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

<표 12>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명, %)

			인터넷게임, 휴대전화 게임을 마음껏 하기 위해	전화, 채팅, SNS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하기 위해	기타 여가활동 (동영상, 만화, 잡지,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계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123	1	105	7	237
		비율	52.2	0.2	44.4	3.2	100.0
	초 고	학생 수	224	18	154	19	415
		비율	54.0	4.3	37.1	4.5	100.0
	중 등	학생 수	244	29	268	28	569
		비율	42.9	5.2	47.0	4.9	100.0
	고 등	학생 수	160	24	268	35	487
		비율	32.9	4.9	55.0	7.2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752	72	795	89	1,708
		비율	44.0	4.2	46.5	5.2	100.0

- **(혼밥: 혼자 밥먹기)** 학교에 가는 평일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주로 아침 식사 시간대에(초저 293명, 초고 370명),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대에(중등: 아침 470명, 저녁 356명, 고등: 아침 339명, 저녁 319명) 혼밥을 하였음
- 저녁 식사 시간대에 혼밥한 아이들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집'에서 혼밥을 하며, 초등학교학년 이후로는 '편의점'(초고 7.6%, 중등 8.9%, 고등 7.0%)도 주요 혼밥 장소가 됨. 전반적으로는 집(75.4%)뿐만 아니라 학교(그 주변)(7.8%), 학원·독서실·도서관(그 주변)(6.3%), 편의점(7.8%)도 저녁 식사 시간대의 주요 혼밥 장소로 파악됨

<표 13> 혼밥 여부			단위(명, %)		
학교 가는 날,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			있다	없다	계
학교급	초저	학생 수	383	2,252	2,635
		비율	14.5	85.5	100.0
	초고	학생 수	556	2,280	2,836
		비율	19.6	80.4	100.0
	중등	학생 수	806	1,940	2,746
		비율	29.4	70.6	100.0
	고등	학생 수	618	1,306	1,924
		비율	32.1	67.9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2,363	7,778	10,141
		비율	23.3	76.7	100.0

<표 14> 평일 혼밥 시간대			단위(명, %)							
학교 가는 날, 혼자 밥 먹게 되는 때는 주로 언제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아침 식사 시간대	293	19.9	370	25.1	470	31.9	339	23.0	1,472	100.0
점심 식사 시간대	55	12.4	82	18.5	155	34.9	152	34.2	444	100.0
저녁 식사 시간대	75	8.2	170	18.5	356	38.7	319	34.7	920	100.0

주: 중복응답

<표 15> 저녁혼밥 장소

단위(명, %)

			집	학교 (그 주변)	학원, 독서 실, 도서관 (그 주변)	지역아동 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PC방, 전자 오락실	편의점	기타	계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7	0	0	0	0	0	0	7
		비율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초 고	학생 수	43	2	1	0	0	4	0	50
		비율	86.1	4.0	2.3	0.0	0.0	7.6	0.0	100.0
	중 등	학생 수	119	4	10	0	2	13	1	149
		비율	79.9	2.4	6.7	0.0	1.4	8.9	0.8	100.0
	고 급	학생 수	104	23	12	4	0	11	3	156
		비율	66.7	14.5	7.5	2.4	0.0	7.0	1.9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273	28	23	4	2	28	4	362	
	비율	75.4	7.8	6.3	1.0	0.6	7.8	1.1	100.0	

주: 저녁혼밥 장소 → 문7-2번

<표 16> 어머니 직업유무별 혼밥 여부

단위(명, %)

			직업있음	직업없음	전체
혼밥여부	혼밥O	학생 수	1559	754	2361
		비율	66	32	100.0
	혼밥X	학생 수	4454	3239	7778
		비율	57.3	41.6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6013	3993	10139
		비율	59.3	39.4	100.0

<표 17> 어머니 직업별 혼밥 여부

단위(명, %)

			직업 있음							직업 없음				해당 없음	전체
			자유·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단순노무직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혼밥 여부	혼밥 O	학생수	303	76	623	313	132	6	106	668	3	78	5	48	2361
		비율	12.8	3.2	26.4	13.3	5.6	0.3	4.5	28.3	0.1	3.3	0.2	2.0	100.0
	혼밥 X	학생수	907	189	1808	881	277	18	374	3024	5	197	13	85	7778
		비율	11.7	2.4	23.2	11.3	3.6	0.2	4.8	38.9	0.1	2.5	0.2	1.1	100.0
전체 비율	학생수	1210	265	2431	1194	409	24	480	3692	8	275	18	133	10139	
	비율	11.9	2.6	24.0	11.8	4.0	0.2	4.7	36.4	0.1	2.7	0.2	1.3	100.0	

주: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표 18> 어머니 직업별 혼밥 장소

단위(명, %)

			직업 있음							직업 없음				해당 없음	전체
			자유 전문 직	경영 관 리 직	사무 기 술 직	판매 · 서 비 스 직	기능 · 작 업 · 단 순 노 무 직	농 · 림 · 어 · 축 산 업	자 영 업	전 업 주 부	학 생	무 직	기 타		
혼 밥 장 소	집	학생 수	98	15	215	97	47	1	41	164	1	25	3	12	719
		비율	13.6	2.1	29.9	13.5	6.5	0.1	5.7	22.8	0.1	3.5	0.4	1.7	100.0
	학교 (그 주변)	학생 수	6	4	17	9	3	0	0	12	0	3	0	4	58
		비율	10.3	6.9	29.3	15.5	5.2	0.0	0.0	20.7	0.0	5.2	0.0	6.9	100.0
	학원· 독서실· 도서관 (그 주변)	학생 수	8	3	20	6	4	0	4	20	0	1	0	2	68
		비율	11.8	4.4	29.4	8.8	5.9	0.0	5.9	29.4	0.0	1.5	0.0	2.9	100.0
	지역아동 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학생 수	0	0	1	0	0	0	0	0	0	1	0	1	3
		비율	0.0	0.0	33.3	0.0	0.0	0.0	0.0	0.0	0.0	33.3	0.0	33.3	100.0
	PC방, 전자오락실	학생 수	1	0	2	0	0	0	0	1	0	0	0	0	4
		비율	25.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0.0	0.0	100.0
	편의점	학생 수	4	1	13	11	10	2	3	7	0	3	0	1	55
		비율	7.3	1.8	23.6	20.0	18.2	3.6	5.5	12.7	0.0	5.5	0.0	1.8	100.0
	기타 장소	학생 수	1	2	3	3	0	0	3	1	0	1	0	3	17
		비율	5.9	11.8	17.6	17.6	0.0	0.0	17.6	5.9	0.0	5.9	0.0	17.6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118	25	271	126	64	3	51	205	1	34	3	23	924
		비율	12.8	2.7	29.3	13.6	6.9	0.3	5.5	22.2	0.1	3.7	0.3	2.5	100.0

주: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 (불면: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깼) 불면을 겪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전체의 13.1%였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불면을 겪는다는 아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음(초저 9.3%, 초고 11.0%, 중등 15.3%, 고등 18.7%)
-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환경적 요인(소음 등), 카페인 음료, 운동시간 부족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거나, 공부, 과제 등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내일 할 일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등 하나 이상의 이유로 불면을 겪는다고 보고함

<표 19> 불면 여부				단위(명, %)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깬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	초저	학생 수	244	2,391	2,635
		비율	9.3	90.7	100.0
	초고	학생 수	311	2,525	2,836
		비율	11.0	89.0	100.0
	중등	학생 수	419	2,327	2,746
		비율	15.3	84.7	100.0
	고등	학생 수	359	1,565	1,924
		비율	18.7	81.3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1,333	8,808	10,141
		비율	13.1	86.9	100.0

<표 20> 학교급별 불면 이유

단위(명, %)

			전체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해야 할 일 (공부, 과제 등)이 많아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데 운동할 시간 이 없어서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기타
학 교 급 별	초 저	학생 수	314	51	24	19	81	7	31	101
		비율	100.0	16.2	7.6	6.1	25.8	2.2	9.9	32.2
	초 고	학생 수	464	87	48	25	107	16	97	84
		비율	100.0	18.8	10.3	5.4	23.1	3.4	20.9	18.1
	중 등	학생 수	708	114	110	18	219	29	157	61
		비율	100.0	16.1	15.5	2.5	30.9	4.1	22.2	8.6
	고 등	학생 수	651	73	107	29	211	52	131	48
		비율	100.0	11.2	16.4	4.5	32.4	8.0	20.1	7.4
	전 체	학생 수	2139	325	290	90	619	105	416	294
		비율	100.0	15.2	13.6	4.2	28.9	4.9	19.4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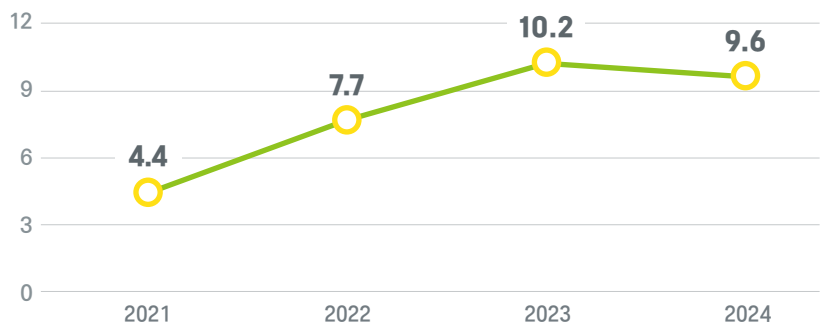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

3) 3개년 아동 심리정서 추이

- 매년 우리나라 아이들의 총동적 자살생각, 우울·불안, 보호자의 방임·정서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반면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남

- **(총동적 자살생각 여부)** 지난 4년간 아이들의 총동적 자살생각 여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4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는 9.6%의 아이들이 총동적 자살생각을 해 본 적 있다고 답변함

[그림 3] 총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표 21> 총동적 자살생각 여부 4개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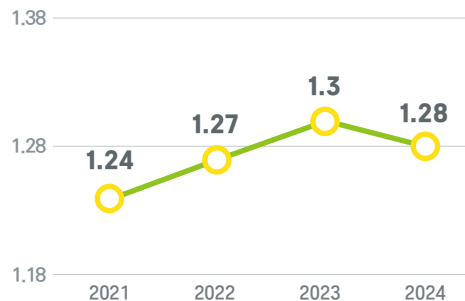
단위(명, %)

		예	아니오	전체
2021년	학생 수	81	1,744	1,825
	비율	4.4	95.6	100.0
2022년	학생 수	342	4,078	4,420
	비율	7.7	92.3	100.0
2023년	학생 수	227	2,004	2,231
	비율	10.2	89.8	100.0
2024년	학생 수	720	6,785	7,505
	비율	9.6	9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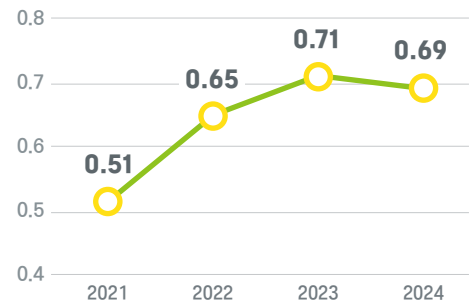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 **(우울·불안)**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울·불안 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4년 1.28점으로 조사됨(2021년보다 0.04점 증가함)
- **(정서학대)** 2024년 0.69점으로 2021년 이후로 보호자로부터 정서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2021년보다 0.18점 증가함)

[그림 4] 우울·불안 4개년 추이



[그림 5] 정서학대 4개년 추이



<표 22> 심리정서 4개년 추이

단위(명, 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2024년-2021년
우울·불안	2021년	1,825	1.24	0.29	+0.04
	2022년	2,210	1.27	0.34	
	2023년	2,231	1.30	0.35	
	2024년	7,505	1.28	0.36	
자아존중감	2021년	1,825	3.11	0.51	-0.01
	2022년	2,210	3.08	0.55	
	2023년	2,231	3.06	0.56	
	2024년	7,505	3.10	0.57	
정서학대	2021년	1,825	0.51	0.89	+0.18
	2022년	1,947	0.65	1.00	
	2023년	2,231	0.71	1.12	
	2024년	7,505	0.69	1.08	

주: 각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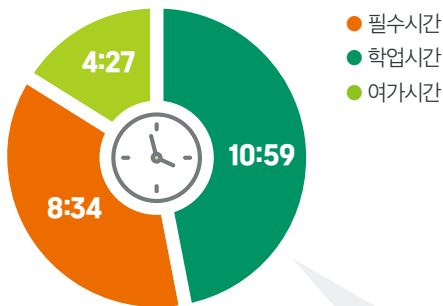
주: 우울·불안은 총 3점 만점(1~3점). 자아존중감은 총 4점 만점(1~4점). 정서학대는 총 7점 만점(1~7점)

2. 전반적인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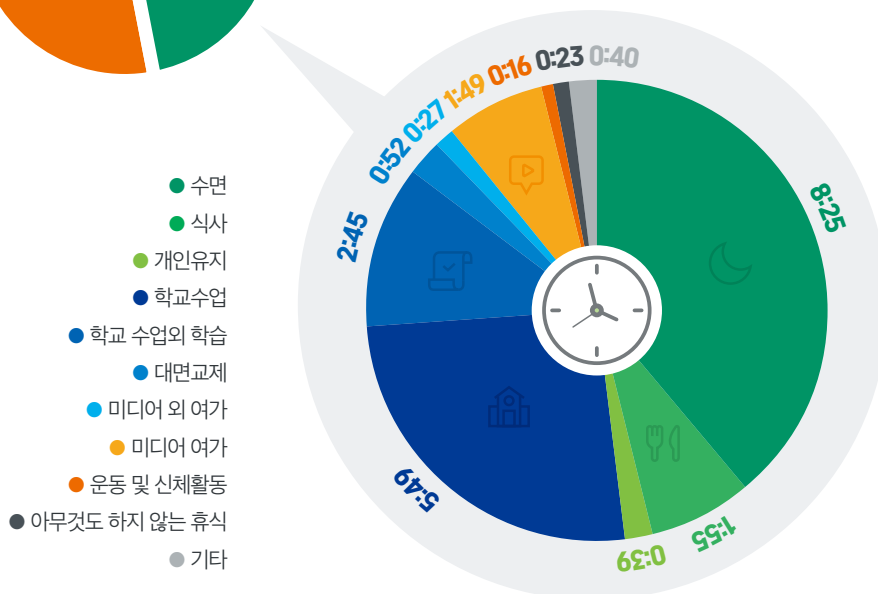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초등 저학년을 포함할 경우, 하루에 필수시간으로 10시간 59분, 학업시간으로 8시간 34분, 여가시간으로 4시간 27분을 사용함.
- 초등 저학년을 제외할 경우, 필수시간 10시간 29분, 학업시간 9시간 3분, 여가시간 4시간 28분으로 수면시간▼, 학업시간▲의 특징이 두드러짐.

- **(전반적인 시간사용)** 아이들은 하루 동안 필수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에 10시간 59분, 학업시간(학교수업, 학교수업 외 학습)에 8시간 34분, 여가시간(대면교제, 여가활동 등)에 4시간 27분을 사용했음. 학교급이 높을수록 필수시간 사용은 적었고 학습시간 사용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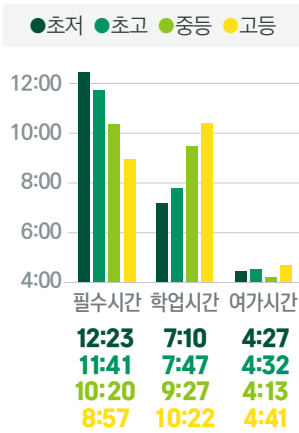
[그림 6] 전반적인 시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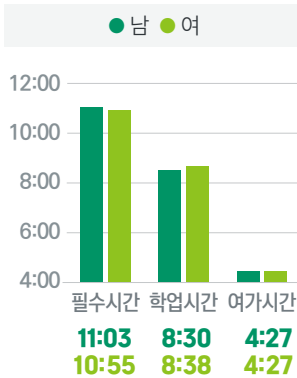
[그림 7] 전반적인 시간사용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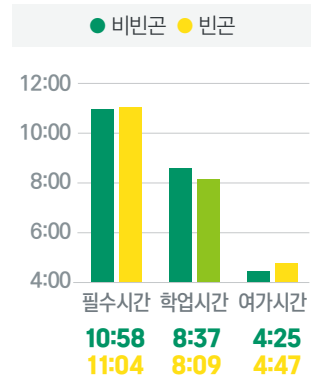
[그림 8] 학교급별 비교



[그림 9] 성별 비교



[그림 10] 빈곤 여부별 비교



<표 23>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포함)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여	초저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필수시간	10:59	11:03	10:55	12:23	11:41	10:20	8:57	10:58	11:04
수면	8:25	8:32	8:18	9:39	9:05	7:51	6:32	8:24	8:30
식사	1:55	1:56	1:54	2:02	1:59	1:51	1:46	1:55	1:55
개인유지	0:39	0:35	0:43	0:42	0:37	0:38	0:39	0:39	0:39
학업시간	8:34	8:30	8:38	7:10	7:47	9:27	10:22	8:37	8:09
학교수업	5:49	5:51	5:47	4:54	5:01	6:31	7:14	5:47	6:09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39	2:51	2:16	2:46	2:56	3:08	2:50	2:00
여가시간	4:27	4:27	4:27	4:27	4:32	4:13	4:41	4:25	4:47
대면교제	0:52	0:50	0:53	1:14	1:00	0:34	0:32	0:51	0:53
미디어 외 여가	0:27	0:23	0:32	0:40	0:29	0:19	0:20	0:28	0:28
미디어 여가	1:49	1:52	1:46	1:18	1:46	2:05	2:13	1:47	2:05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21	0:11	0:20	0:19	0:14	0:12	0:16	0:18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2	0:24	0:18	0:21	0:24	0:31	0:23	0:23
기타	0:40	0:39	0:41	0:37	0:37	0:37	0:53	0:40	0:40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표 24> 전반적인 시간 사용 (초등 저학년생 제외)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여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필수시간	10:29	10:36	10:22	11:41	10:20	8:57	10:29	10:34
수면	7:58	8:08	7:48	9:05	7:51	6:32	7:58	8:05
식사	1:53	1:54	1:51	1:59	1:51	1:46	1:53	1:51
개인유지	0:38	0:34	0:43	0:37	12:38	0:39	0:38	0:38
학업시간	9:03	8:59	9:08	7:47	9:27	10:22	9:06	8:35
학교수업	6:08	6:11	6:06	5:01	6:31	7:14	6:06	6:27
학교수업 외 학습	2:55	2:48	3:02	2:46	2:56	3:08	3:00	2:08
여가시간	4:28	4:25	4:30	4:32	4:13	4:41	4:25	4:51
대면교제	0:44	0:41	0:46	1:00	0:34	0:32	0:43	0:45
미디어 외 여가	0:23	0:18	0:28	0:29	0:19	0:20	0:23	0:24
미디어 여가	2:00	2:03	1:57	1:46	2:05	2:13	1:58	2:16
운동 및 신체활동	0:15	0:20	0:10	0:19	0:14	0:12	0:15	0:18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5	0:24	0:26	0:21	0:24	0:31	0:25	0:26
기타	0:41	0:39	0:43	0:37	0:37	0:53	0:41	0:42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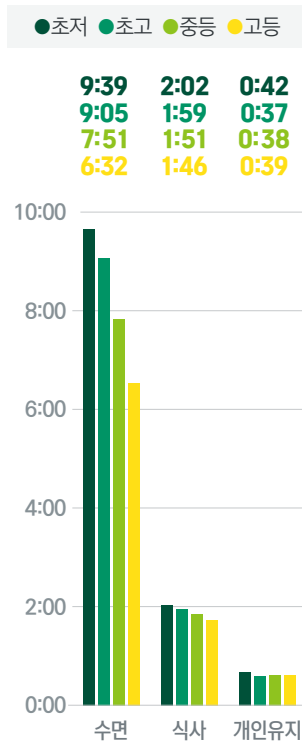
3.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

1) 필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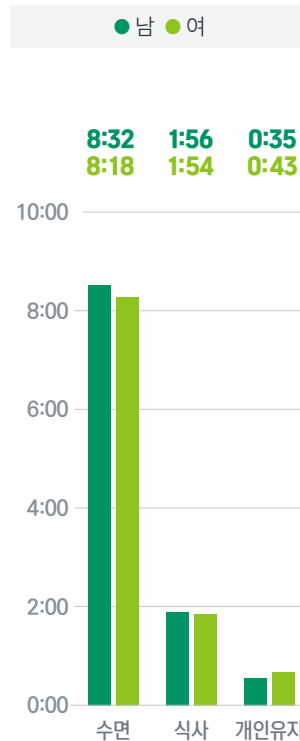
- 아이들의 학교급(연령)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 식사시간▼

- **(수면시간)** 아이들의 수면시간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짧았음. 특히, 초등학교는 9시간 이상 수면하나, 중학생은 8시간에 못 미치고(7시간 51분), 고등학생은 6시간 32분으로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음
-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는 6분으로 크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8시간 32분)보다 여학생(8시간 18분, 14분▼)의 평균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식사시간)** 아이들은 식사에 평균 2시간 전후의 시간을 사용하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식사시간이 더 짧았음. 성별과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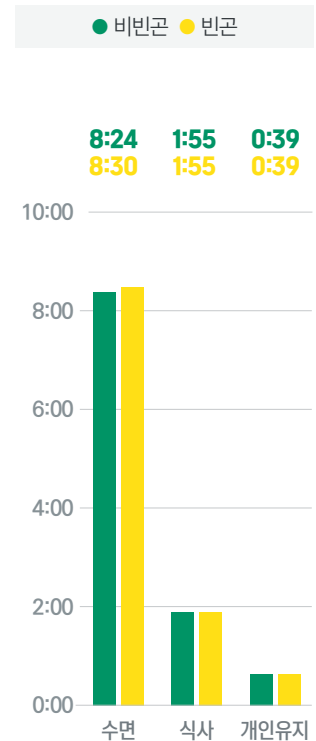
[그림 11] 학교급별 필수시간



[그림 12] 성별 필수시간



[그림 13]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표 25>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필수시간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A)	여 (B)	차이 (B-A)	초저 (A)	초고 (B)	중등 (C)	고등 (D)	차이 (D-A)	비빈곤 (A)	빈곤 (B)	차이 (B-A)
필수시간	10:59	11:03	10:55	-0:08	12:23	11:41	10:20	8:57	-3:26	10:58	11:04	0:06
수면	8:25	8:32	8:18	-0:14	9:39	9:05	7:51	6:32	-3:07	8:24	8:30	0:06
식사	1:55	1:56	1:54	-0:02	2:02	1:59	1:51	1:46	-0:16	1:55	1:55	0:00
개인유지	0:39	0:35	0:43	0:08	0:42	0:37	0:38	0:39	-0:03	0:39	0:3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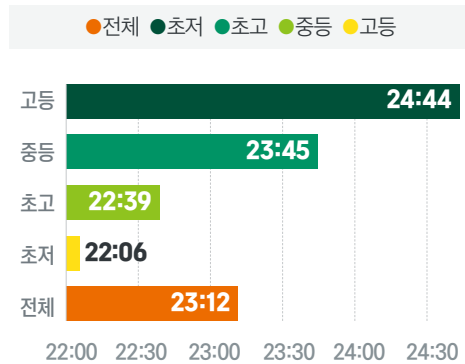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①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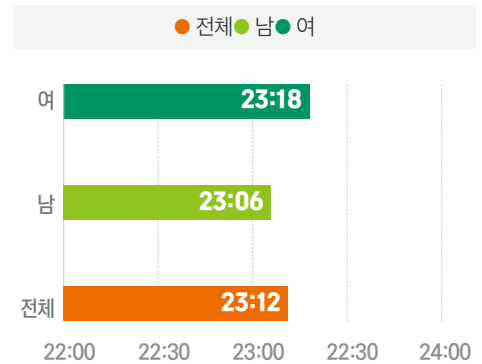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취침시간이 더 늦어져, 고등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취침하며, 오전 7시 9분 기상으로 제일 기상 시각이 빠름.

- (기상 및 취침시각) 아이들의 평균 취침시각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늦어져서, 초등학생은 오후 10~11시 사이에 취침하나(초저 22:06, 초고 22:39), 중학생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23:45)에 취침하고, 고등학생은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00:44)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고등학생(07:09 기상)은 평균 오전 7시 반 전후에 기상하는 초·중학생에 비해 평균 기상 시각이 더 이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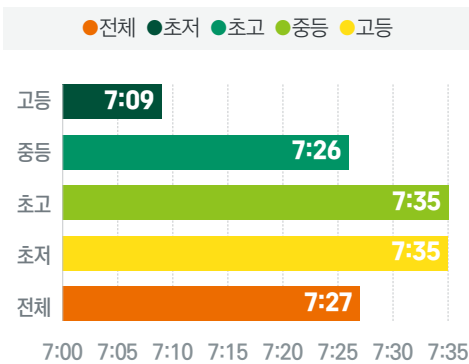
[그림 14] 학교급별 취침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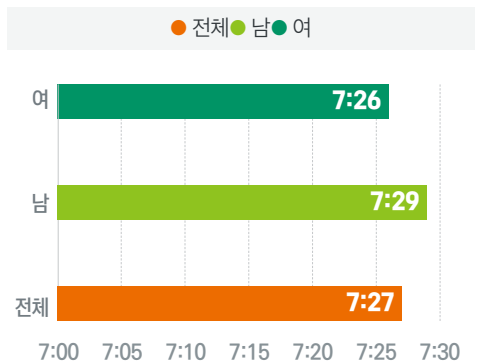
[그림 15] 성별 취침시간



[그림 16] 학교급별 기상시간



[그림 17] 성별 기상시간



<표 26> 성별, 학교급별 취침 및 기상 시간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저		초고		중등		고등	
평일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23:12	7:27	23:06	7:29	23:18	7:26	22:06	7:35	22:39	7:35	23:45	7:26	24:44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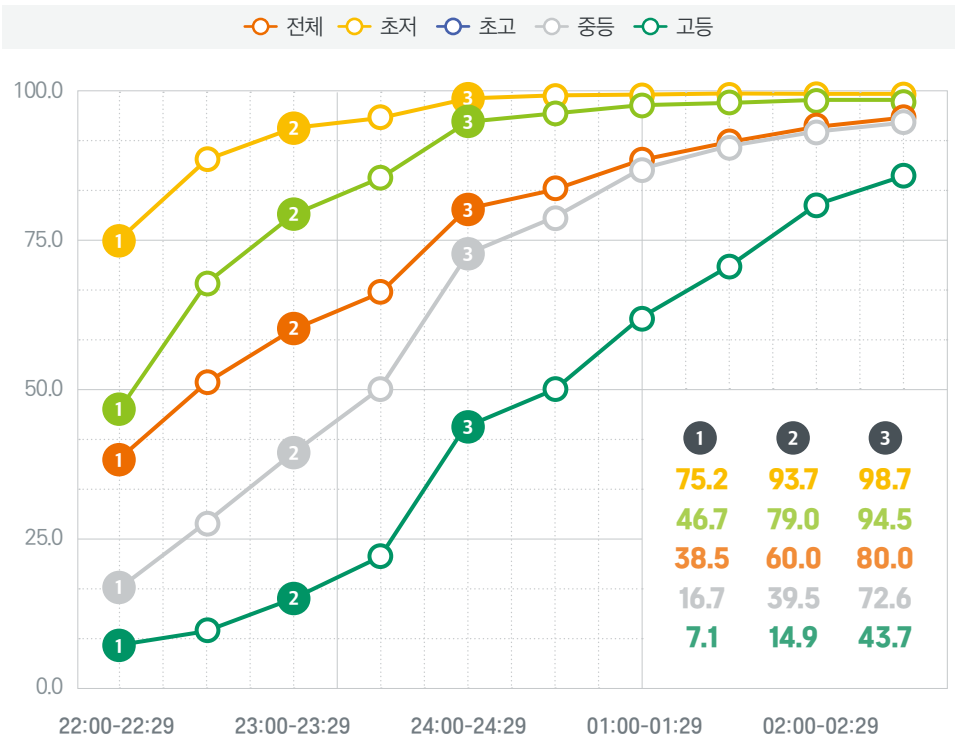
-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59분까지의 시간대에서 취침 중인 남학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취침 행위자 비율이 낮았으며,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취침 행위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표 27>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22:00 ~22:29	22:30 ~22:59	23:00 ~23:29	23:30 ~23:59	24:00 ~24:29	24:30 ~24:59	1:00 ~1:29	1:30 ~1:59	2:00 ~2:29	2:30 ~2:59
전체		38.5	51.2	60.0	66.3	80.0	83.4	88.4	91.2	93.8	95.3
성별	남	39.8	52.8	61.9	68.2	81.9	85.1	89.2	91.5	94.0	95.4
	여	37.2	49.6	58.0	64.2	78.0	81.6	87.5	90.9	93.7	95.1
학교급	초저	75.2	88.5	93.7	95.1	98.7	99.1	99.3	99.3	99.3	99.4
	초고	46.7	67.6	79.0	85.1	94.5	96.1	97.7	98.1	98.4	98.6
	중등	16.7	27.7	39.5	50.2	72.6	78.7	86.9	90.9	92.9	94.6
	고등	7.1	9.6	14.9	22.0	43.7	49.9	61.8	70.5	80.8	85.7
빈곤 여부	비빈곤	38.0	51.0	59.8	66.1	80.0	83.5	88.4	91.3	93.8	95.2
	빈곤	43.2	53.9	62.4	67.5	80.1	82.5	88.1	91.1	94.4	96.0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수면'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1

[그림 18] 시간대별 취침 중인 아이들 비율



② 식사 시간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식사시간▼, 아침식사 시간이 저녁식사보다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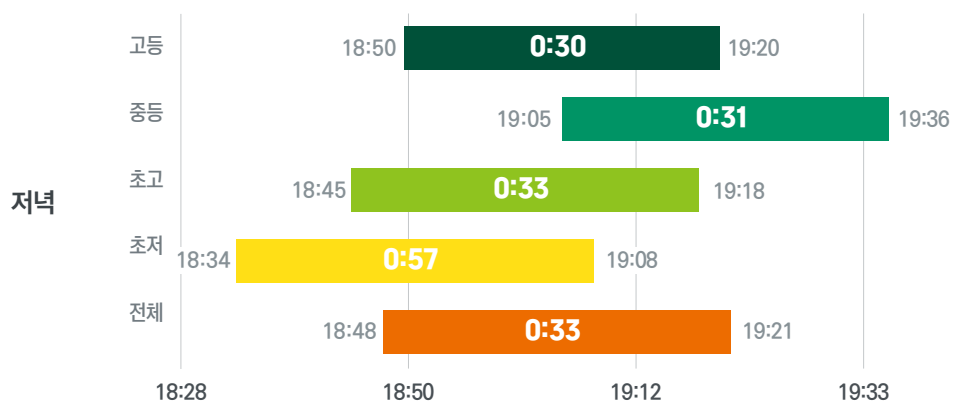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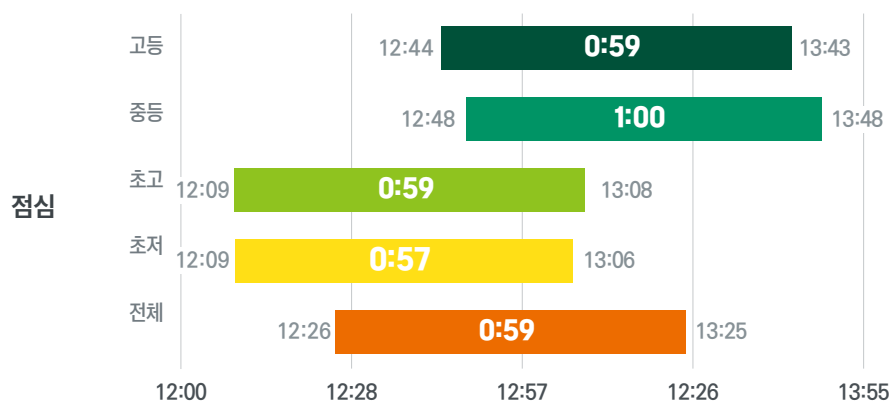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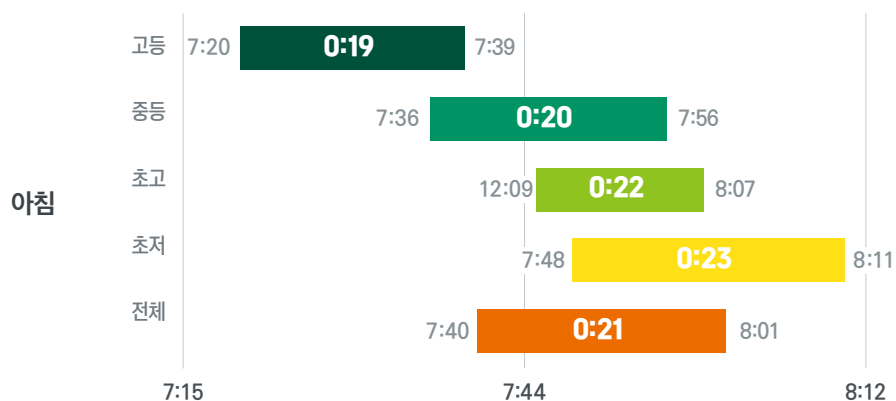
-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아이들의 점심식사는 오후 12~1시 사이에 시작되고 1~2시 사이에 종료되며 모든 학교급에서 거의 비슷한 양(1시간 전후)의 시간이 사용되었으나, 아침(21분)과 저녁(33분)에는 식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침·저녁 식사시간이 약간 짧았음(1~2분▼)

<표 28>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단위(시간:분)

		시작시각	종료시각	식사시간
전체	아침	7:40	8:01	0:21
	점심	12:26	13:25	0:59
	저녁	18:48	19:21	00:33
초저	아침	7:48	8:11	0:23
	점심	12:09	13:06	0:57
	저녁	18:34	19:08	0:34
초고	아침	7:45	8:07	00:22
	점심	12:09	13:08	0:59
	저녁	18:45	19:18	0:33
중등	아침	7:36	7:56	0:20
	점심	12:48	13:48	1:00
	저녁	19:05	19:36	0:31
고등	아침	7:20	7:39	0:19
	점심	12:44	13:43	0:59
	저녁	18:50	19:20	0:30

[그림 19] 학교급별 식사 시작 및 종료시각, 식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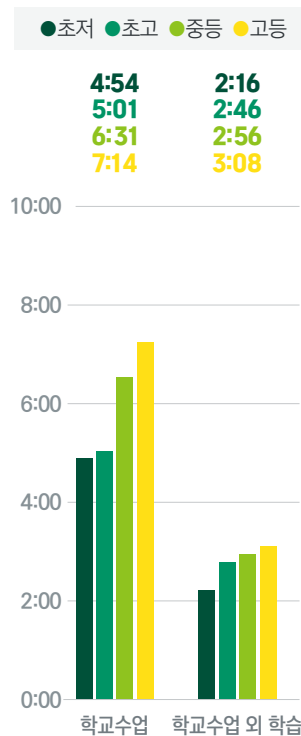


2) 학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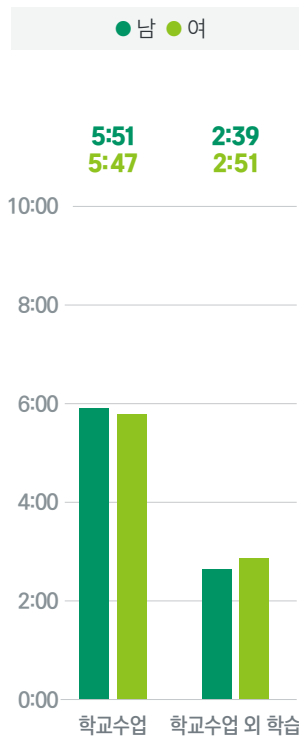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수업 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혼자공부시간▲
- 학교 수업시간은 고등이 초저보다 2시간 20분▲, 학교 수업 외 학습은 52분▲. 혼자 공부 80분 이상 하는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학생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빈곤 가정일수록 더 긴 편▲

- (학업시간) 아이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사교육, 혼자 공부)도 더 길고, 학교수업 외 학습 평균 시간은 초저 2시간 이상, 초고 이상은 3시간 전후의 시간으로 조사됨
- 빈곤 아동(6시간 9분, 22분▲)은 비빈곤 아동(5시간 47분)에 비해 학교수업(정규수업, 방과 후학교 등) 시간이 긴 반면에, 학교수업 외 학습(사교육, 혼자 공부) 시간은 비빈곤 아동(2시간 50분, 50분▲)이 빈곤 아동(2시간)보다 긴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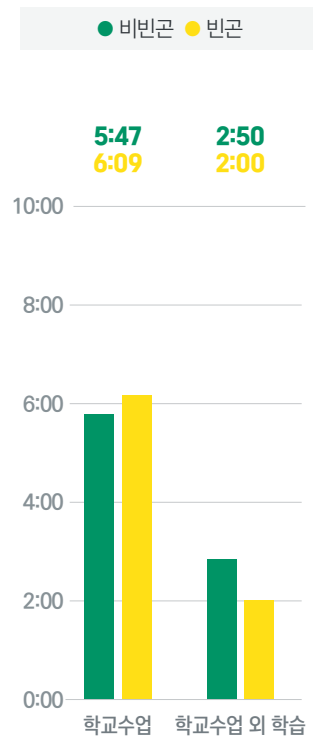
[그림 20] 학교급별 학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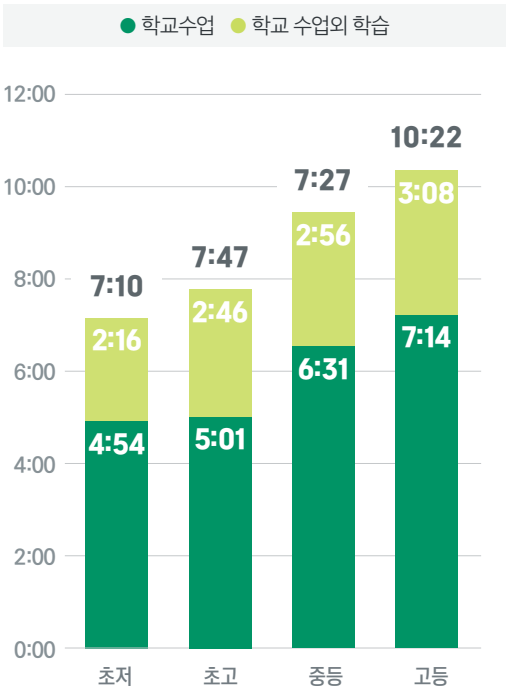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학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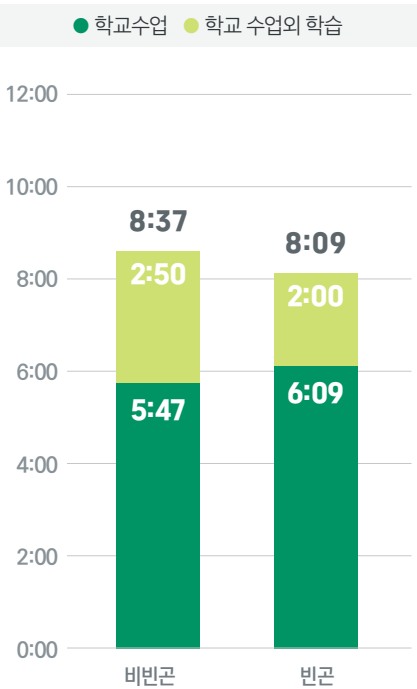
[그림 22]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그림 23] 학교급별 학업시간 세부



[그림 24]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세부



<표 29>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학업시간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		
		남 (A)	여 (B)	차이 (B-A)	초저 (A)	초고 (B)	중등 (C)	고등 (D)	차이 (D-A)	비빈곤 (A)	빈곤 (B)	차이 (B-A)
학업시간	8:34	8:30	8:38	0:08	7:10	7:47	9:27	10:22	3:12	8:37	8:09	-0:28
학교수업	5:49	5:51	5:47	-0:04	4:54	5:01	6:31	7:14	2:20	5:47	6:09	0:22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39	2:51	0:12	2:16	2:46	2:56	3:08	0:52	2:50	2:00	-0:50

주: 시간일지에서 수행동 코드는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① 학교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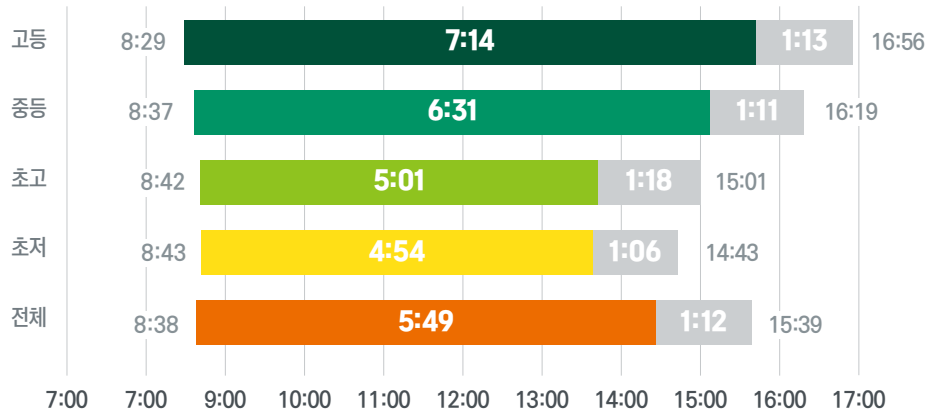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수업 시간은 증가하며 고등이 초등 저학년보다 2시간 20분▲ 학교 수업 시간이 더 길.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 학교수업 시간은 고등이 아침 8시 29분에 시작으로 가장 빠르게 시작하여 오후 4시 56분에 가장 늦게 종료하며 7시간 14분으로 제일 긴 학교 수업 시간을 보냄
- 초저의 학교수업은 4시간 54분으로 가장 적으며, 뒤를 이어 초고가 5시간 1분, 중등이 6시간 31분으로 나타남

[그림 25]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 : (이동, 식사 휴식 등)



<표 30> 학교급별 학교수업 시작시각, 종료시각, 수업시간

단위(시:분, 시간:분)

학교수업 시작시각					학교수업 종료시각					학교수업 시간					(참고) 학교수업 시간 외(이동, 식사, 휴식 등) 시간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8:38	8:43	8:42	8:37	8:29	15:39	14:43	15:01	16:19	16:56	5:49	4:54	5:01	6:31	7:14	1:12	1:06	1:18	1:11	1:13

주: 행동코드 중, 학교수업 시간이 최초로 찍힌 시각~마지막으로 보고된 시각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는 오후 1시 30분, 초고는 오후 2시, 중등은 오후 3시 30분, 고등은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진행됨

<표 31>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전체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92.2	38.4	51.5	80.0	75.0	70.6	56.2	49.6	35.3	26.2	11.6	8.5	2.2
초저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85.4	4.2	79.2	80.8	51.6	44.4	30.8	24.2	14.7	11.0	6.4	5.1	1.0
초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7	3.0	91.0	91.4	63.9	56.7	23.3	19.9	14.0	10.5	8.0	7.0	1.1
중등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0	6.0	74.3	94.9	93.4	89.0	78.4	47.9	36.8	12.0	8.3	2.1
고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0	20.5	70.2	95.0	94.5	92.5	87.2	77.3	54.9	23.2	15.5	5.4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학교 수업'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3(국어, 수학, 영어) or 4(그 외 과목들) or 5(쉬는 시간) or 6(창의 체험,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② 학교수업 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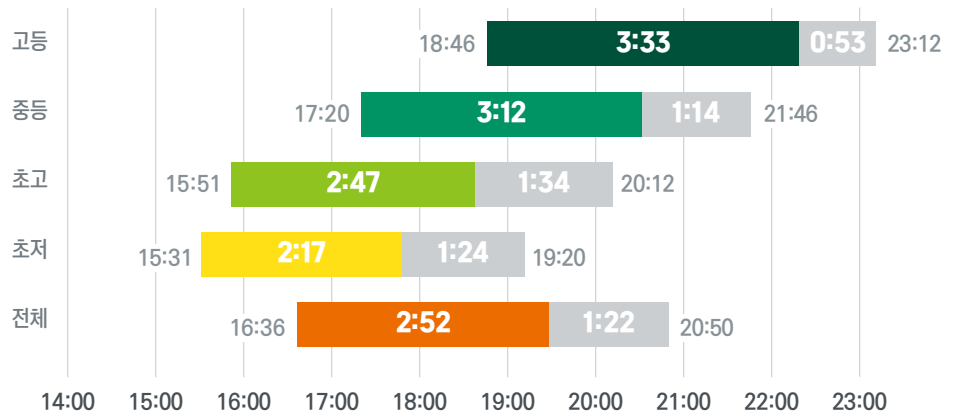
- 학교 수업 외 학습은 초저가 가장 적었으며(2시간 17분), 고등이 가장 길고(3시간 33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도 더 길
- 한편, 고등은 밤 12시 이후로도 학교수업 외 공부를 하는 학생이 17.6%나 있었음.

학교수업 외 공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공부시간

- 초저는 학교수업 외 공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가장 빠르고, 학교수업 외 공부시간도 2시간 17분으로 제일 적은 편
- 고등은 학교수업외 학습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가장 늦으며, 평균 공부시간도 3시간 33분으로 제일 길

[그림 26]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업시간

● : (이동, 식사 휴식 등)



<표 32> 학교급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업시간

단위(시:분, 시간:분)

학교수업 외 학습 시작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 종료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 시간					(참고) 학교수업 시간 외(이동, 식사, 휴식 등) 시간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16:36	15:31	15:51	17:20	18:46	20:50	19:20	20:12	21:46	23:12	2:52	2:17	2:47	3:12	3:33	1:22	1:24	1:34	1:14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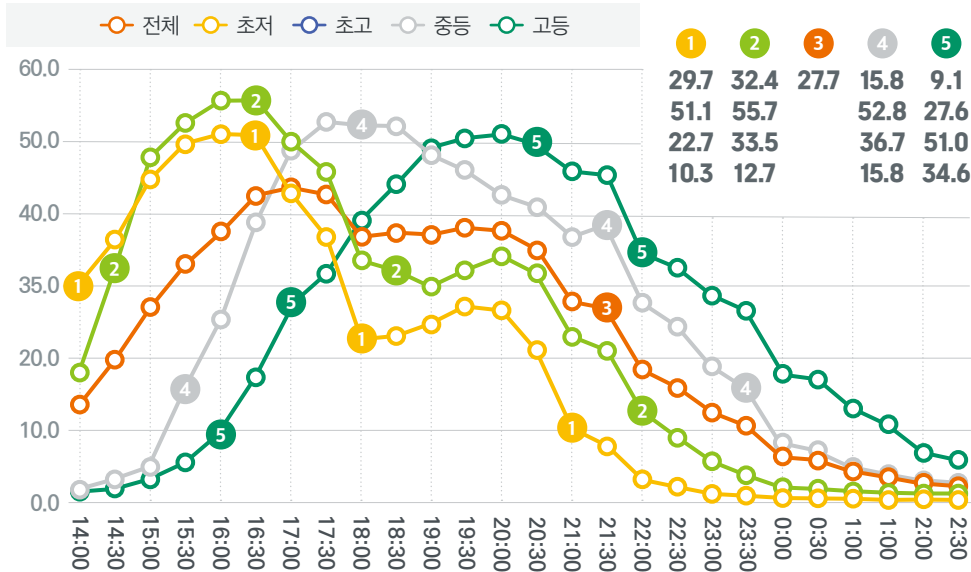
주1: 행동코드 중, 학교수업 외 학습 시간이 최초로 찍힌 시각 ~ 마지막으로 보고된 시각

주2: 학교수업 외 학습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와 초고는 오후 4시, 중등은 오후 5시 30분, 고등은 오후 8시 30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수업 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밤 12시 30분 이후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수업 외 학습을 하지 않으나, 고등의 17.1%는 여전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학교급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표 33> 학교급별에 따른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단위(%)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전체	13.6	19.7	27.0	33.0	37.4	42.6	43.5	42.6	36.8	37.4	37.1	38.1	37.6
초저	29.7	36.6	44.9	49.9	51.1	50.9	42.8	36.7	22.7	23.0	24.7	27.1	26.5
초고	18.1	32.4	48.0	52.8	55.7	55.8	50.0	45.7	33.5	32.1	29.8	32.1	34.2
중등	1.8	3.0	4.9	15.8	25.2	38.9	48.7	52.8	52.3	52.2	48.2	46.0	42.5
고등	1.5	1.8	3.1	5.5	9.1	17.3	27.6	31.6	39.0	43.9	49.1	50.5	51.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0:00	0:30	1:00	1:30	2:00	2:30
전체	34.9	27.7	26.9	18.4	15.8	12.4	10.5	6.2	5.8	4.3	3.5	2.6	2.2
초저	21.2	10.3	7.8	3.1	2.0	1.1	0.8	0.4	0.4	0.4	0.4	0.4	0.4
초고	31.7	22.9	21.0	12.7	9.0	5.5	3.6	2.0	1.8	1.4	1.2	1.1	1.1
중등	40.9	36.7	38.4	27.5	24.4	18.8	15.8	8.2	7.2	4.9	3.9	3.1	2.7
고등	49.8	45.9	45.3	34.6	32.6	28.7	26.5	17.6	17.1	13.1	10.7	6.8	5.8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학교수업 외 학습'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③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④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방과후 (17:00~)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중인 아이들 비율

- 초저와 초고는 각각 오후 8시(24.3%, 22.0%), 중등은 저녁 9시(15.5%), 고등은 밤 11시(17.0%)에 학원, 과외, 돌봄센터, 온라인 수업 등을 가장 많이 종료함

<표 34> 방과 후 시간대별 사교육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적률	1:00	2:00	1~3시 누적률
전체		8.4	7.8	11.7	18.0	13.2	8.8	8.0	2.4	78.4	1.9	0.8	81.1
성 별	남	8.3	7.6	12.1	18.2	13.1	8.3	7.6	1.9	77.2	1.6	0.8	79.6
	여	8.5	8.1	11.3	17.7	13.3	9.4	8.4	3.0	79.6	2.2	0.9	82.7
학 교 급	초저	14.5	11.4	17.9	24.3	9.0	2.4	0.6	0.0	80.1	0.0	0.0	80.2
	초고	10.3	10.2	12.8	22.0	15.4	8.5	4.0	0.6	83.7	0.3	0.1	84.1
	중등	5.1	5.6	10.0	14.1	15.5	14.2	12.9	3.9	81.4	2.0	1.0	84.3
	고등	2.0	2.7	4.1	8.9	12.4	10.4	17.0	6.3	63.8	6.6	2.9	73.4
빈곤 여부	비빈곤	8.4	7.9	11.8	18.1	13.5	9.1	8.2	2.5	79.5	1.9	0.9	82.3
	빈곤	8.9	7.6	10.8	16.1	10.5	5.5	5.7	2.0	66.9	1.4	0.3	1.6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학원/과외 수업'(시간일지 활동 코드: 7 or 8) 또는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9 or 10)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방과 후(17:00~) 시간대별 '혼자 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 혼자공부를 가장 많이 종료한 시각은 초저와 초고는 각각 오후 8시(20.5%, 17.7%), 중등과 고등은 각각 오후 11시(11.1%, 14.0%)에 가장 많이 종료하였음
- 초등학생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깊

<표 35> 방과 후 시간대별 혼자공부가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적률	1:00	2:00	1~3시 누적률
전체		6.1	5.7	8.5	13.8	9.4	6.9	6.8	2.3	59.6	1.7	0.8	62.1
성 별	남	5.7	5.3	8.2	14.1	9.4	6.2	6.4	1.7	57.1	1.4	0.8	59.3
	여	6.6	6.2	8.8	13.5	9.5	7.6	7.2	2.8	62.2	2.1	0.9	65.2
학 교 급	초저	9.9	8.7	14.9	20.5	7.4	2.1	0.6	0.0	64.0	0.0	0.1	64.0
	초고	7.3	6.7	10.0	17.7	12.7	6.9	3.5	0.5	65.3	0.3	0.1	65.7
	중등	4.2	3.9	4.5	8.5	9.9	11.0	11.1	3.6	56.8	1.8	1.0	59.5
	고등	2.0	2.8	3.4	6.5	6.8	7.6	14.0	5.9	49.0	6.2	2.8	58.0
빈곤 여부	비빈곤	6.0	5.7	8.6	14.0	9.6	7.2	7.0	2.3	60.4	1.8	0.9	63.1
	빈곤	6.9	6.0	7.7	11.5	8.2	3.9	4.7	1.8	50.8	1.2	0.4	52.4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시간일지 활동 코
드: 11)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③ 혼자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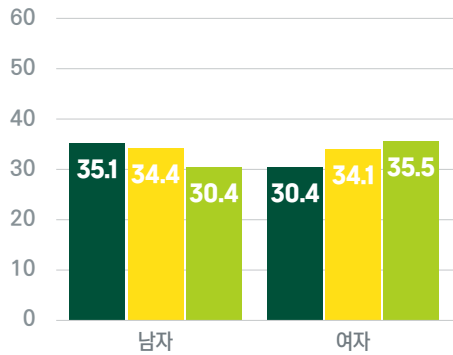
- 혼자 공부를 하루에 80분 이상 하는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
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며, 비빈곤가정이 빈곤가정보다 8.6%p ▲ 더 많음

집단별 혼자공부(상) 비율 차이

- (성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혼자공부 시간 ‘상’ 비율이 5.1%p 더 많음
- (학교급별) 혼자공부 ‘상’ 비율은 초저(18.3%), 초고(32.3%), 중등(36.6%), 고등(48.5%) 순으
로 나타남
-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상’ 비율은 비빈곤이 빈곤보다 많으나(8.6%p▲), ‘하’ 비율은 비빈곤
이 빈곤보다 적음(11.5%p▼)

[그림 28] 성별 혼자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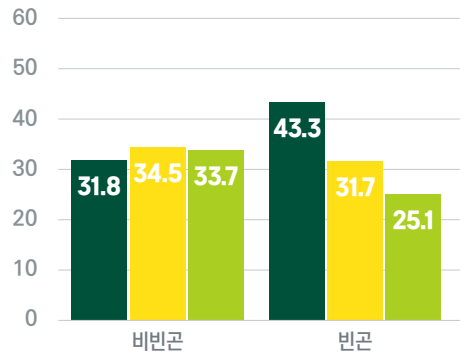
(단위:%)



구분	남자	여자
● 하위(~30분)	35.1	30.4
● 중위(31분~80분)	34.4	34.1
● 상위(81분~)	30.4	35.5

[그림 29]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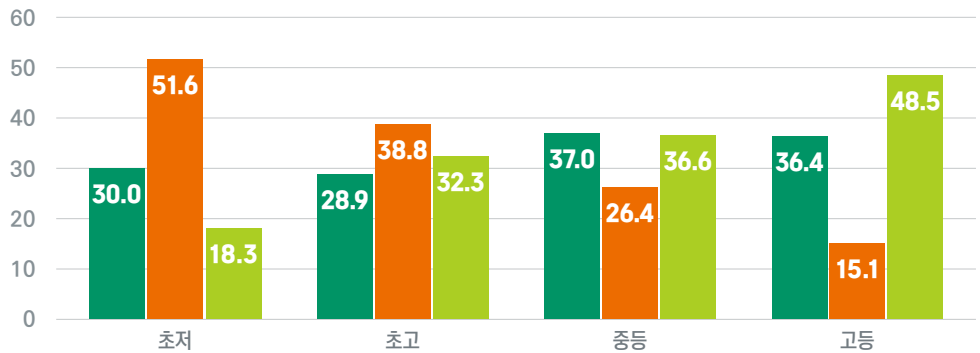
(단위:%)



구분	비빈곤	빈곤
● 하위(~30분)	31.8	43.3
● 중위(31분~80분)	34.5	31.7
● 상위(81분~)	33.7	25.1

[그림 30] 학교급별 혼자공부

(단위:%)



구분	초저	초고	중등	고등
● 하위(~30분)	30.0	28.9	37.0	36.4
● 중위(31분~80분)	51.6	38.8	26.4	15.1
● 상위(81분~)	18.3	32.3	36.6	48.5

<표 36> 성별, 학교급, 빈곤 여부별 혼자공부 시간 차이

단위(명, %)

			혼자공부 시간 상, 중, 하위			전체
			하위 (30분 미만)	중위 (30분 이상~80분 미만)	상위 (80분 이상)	
성 별	남자	학생 수	1,831	1,793	1,585	5,210
		비율	35.1	34.4	30.4	100.0
	여자	학생 수	1,497	1,682	1,751	4,930
		비율	30.4	34.1	35.5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792	1,361	482	2,635
		비율	30.0	51.6	18.3	100.0
	초고	학생 수	819	1,100	918	2,836
		비율	28.9	38.8	32.3	100.0
	중등	학생 수	1,017	725	1,003	2,745
		비율	37.0	26.4	36.6	100.0
	고등	학생 수	701	290	933	1,924
		비율	36.4	15.1	48.5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빈 곤 여 부	비빈곤	학생 수	2,943	3,193	3,113	9,249
		비율	31.8	34.5	33.7	100.0
	빈곤	학생 수	385	282	223	891
		비율	43.3	31.7	25.1	100.0
	전체	학생 수	3,328	3,475	3,336	10,140
		비율	32.8	34.3	32.9	100.0

3) 여가시간

- 여가활동 중 대면교제 시간은 52분(행위자 비율 74.7%),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1시간 7분(행위자 비율 79.4%)임.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시간량으로 살펴보면,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춤추기·악기 연주·그림그리기(12분)’가 가장 ▼ 짧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휴식’이 (23분)으로 가장 ▲ 길

① 대면교제³⁾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면교제 하는 아동의 비율과 시간이 줄어들어 고등은 초저보다 42분 ▼, 행위자 비율은 30.9%p ▼

대면교제 평균시간 및 행위자비율

- (전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대면교제 전체 평균시간은 41분이고 여가시간에 대면교제를 하는 아이들은 전체 중 74.7%이며, 이들은 평균 1시간 9분을 함
- (학교급) 대면교제 평균시간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초저(1시간 14분)으로 고등(32분)보다 42분 더 대면교제를 많이 함

<표 37> 대면교제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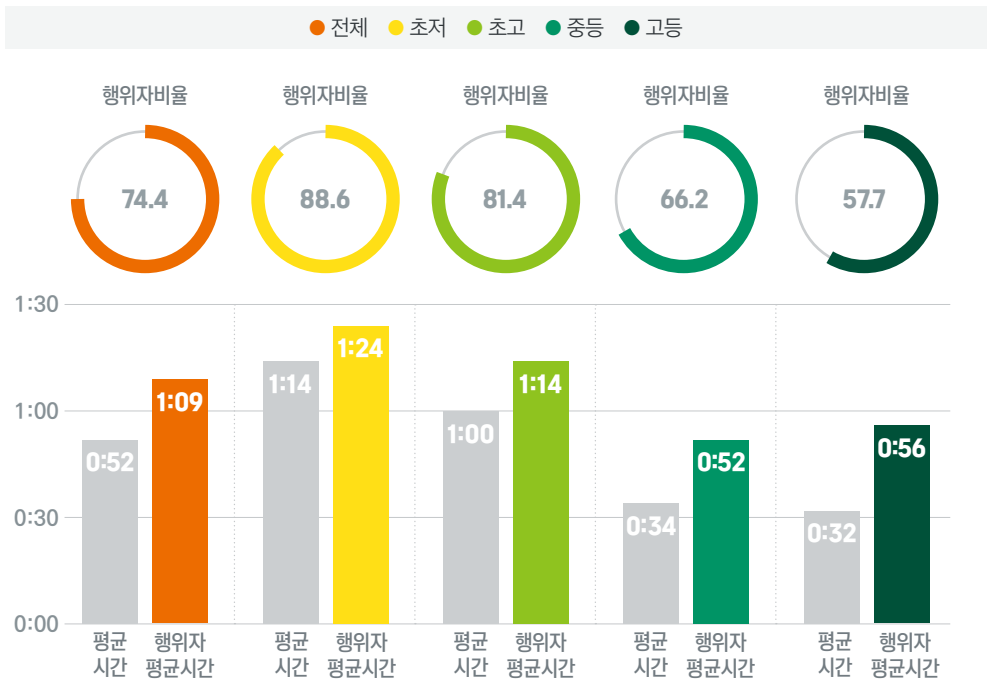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0:52	74.7	1:09	0:51	75.2	1:08	0:53	69.4	1:16
초저	1:14	88.6	1:24	1:14	88.8	1:23	1:18	86.5	1:31
초고	1:00	81.4	1:14	1:00	81.6	1:14	1:04	79.4	1:21
중등	0:34	66.2	0:52	0:34	66.5	0:51	0:36	62.5	0:57
고등	0:32	57.7	0:56	0:32	58.9	0:54	0:34	48.9	1:10

주: 대면교제 → 시간일지 활동 코드: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14 or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20

3) 대면교제 시간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그림 31] 학교급별 대면교제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방과 후(17:00~) 시간대별 친구들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친구들과 대면교제 하는 아이들의 전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의 경우 오후 10시에 1.9%에서 2.3%로 다시 늘어남
- 빈곤의 경우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 감소하다가 오후 6시 30분(2.3% ▲), 오후 8시(1.7% ▲), 오후 10시(0.9% ▲)에 소폭씩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과정을 반복함

<표 38> 방과 후 시간대별 친구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6.2	5.6	3.1	2.9	1.5	1.3	1.2	1.1	0.8	0.8	0.7	0.6	0.4	0.4
성별	남	6.4	5.7	3.0	2.7	1.5	1.4	1.0	1.1	0.8	0.7	0.6	0.6	0.3	0.4
	여	5.9	5.5	3.3	3.0	1.5	1.3	1.4	1.2	0.8	0.9	0.8	0.6	0.5	0.4
학 교 급	초저	6.8	6.5	2.3	1.7	0.8	0.6	0.4	0.2	0.2	0.1	0.0	0.1	0.0	0.0
	초고	5.5	5.3	3.4	2.8	1.1	0.7	0.8	0.9	0.4	0.4	0.1	0.1	0.1	0.0
	중등	5.4	4.4	1.9	1.8	1.4	1.2	1.2	1.1	1.0	1.1	0.8	0.5	0.4	0.2
	고등	7.4	6.6	5.6	6.1	3.4	3.2	2.9	2.9	2.0	1.9	2.3	2.3	1.4	1.6
빈곤 여부	비빈곤	6.0	5.5	3.2	2.9	1.5	1.3	1.2	1.1	0.8	0.8	0.7	0.6	0.4	0.4
	빈곤	8.2	7.1	2.2	2.3	2.2	1.6	1.7	1.5	0.6	0.7	0.9	0.8	0.7	0.4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14

방과 후(17:00~)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가족과 함께한 아이들의 비율은 친구와의 대면교제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5시 이후 점차 상승하다 오후 8시 30분(12.2%) 이후 다시 하락함
- 특히, 학교급별로 행위자 비율에 극심한 차이를 나타냄. 초저의 경우 오후 8시 30분에 24.2%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3.2%의 아이들만 해당함
- 또한, 가족과의 시간이 다소 반등하는 시간인 오후 6시에도 초저는 11.3%가 가족과 함께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1.7%만이 가족과 함께함

<표 39> 방과 후 시간대별 가족과 함께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5.1	5.9	5.8	7.6	7.9	9.5	10.7	12.2	12.0	11.1	7.5	5.6	3.2	2.1
성별	남	4.7	5.2	6.1	7.4	7.4	9.1	9.7	11.8	12.4	11.3	7.6	5.7	3.1	1.9
	여	5.5	6.6	5.5	7.7	8.4	9.9	11.8	12.7	11.6	11.0	7.5	5.4	3.4	2.3
학교급	초저	10.6	11.6	11.3	13.6	14.4	17.6	21.1	24.2	22.6	19.6	8.8	4.1	1.8	1.3
	초고	5.6	6.8	6.8	9.4	9.4	11.5	12.2	14.0	14.1	13.5	10.8	6.8	3.8	2.2
	중등	1.7	2.2	2.5	3.5	3.5	4.4	4.8	5.2	6.3	6.4	5.9	6.3	3.9	2.4
	고등	1.7	2.0	1.7	2.3	2.9	2.5	2.9	3.2	2.6	2.8	3.3	4.6	3.4	2.8
빈곤여부	비빈곤	5.1	5.9	5.9	7.6	7.7	9.5	10.8	12.3	12.2	11.3	7.6	5.5	3.2	2.1
	빈곤	5.2	5.8	5.4	6.7	8.9	8.8	10.1	11.9	10.3	9.3	6.9	5.9	3.7	2.5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20

②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1시간 7분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가장 많이 하고(51.4%) 오래 함(23분). 종이책 읽기는 33.6%가 15분을 함. 특히, 초저는 휴식보다 책읽기 시간이 7분▲ 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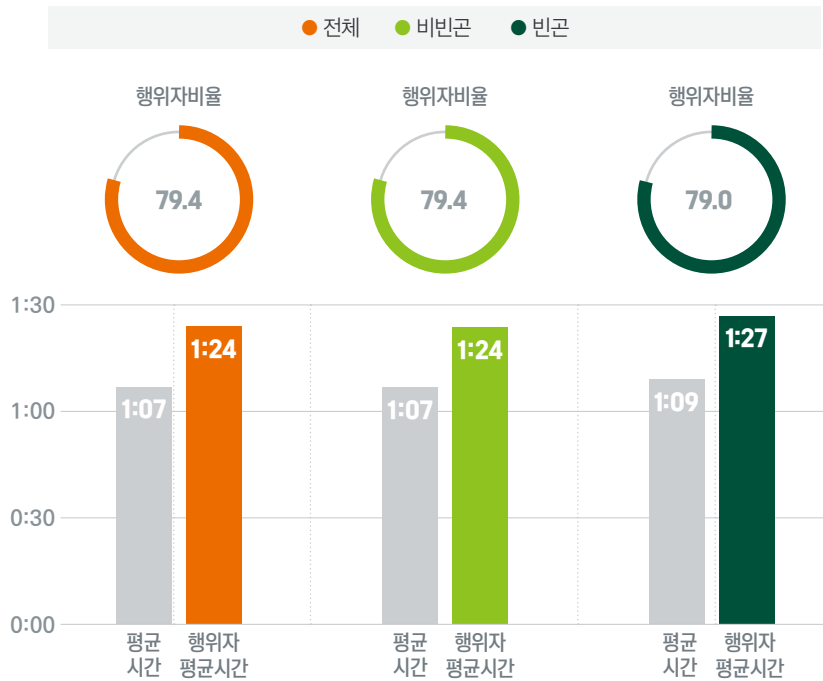
전체

- 미디어 기기 미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평균 1시간 7분. 79.4%의 아이들이 여가시간에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가를 보내는데, 이들은 1시간 24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대상자별

- 빈곤아동의 미디어 기기 미사용 평균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비빈곤(1시간 7분)보다 2분▲ 더 길었고 비율도 빈곤(79.0%)보다 비빈곤(79.4%)이 0.4%p▲더 높았으며, 이들은 3분▲ 더 길게 미디어 기기가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그림 32] 빈곤 여부별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 학교급별로는 초저(85.6%)가 여가시간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감소 해 고등이 11.1%p▼ 더 짧음. 사용하는 아이들의 평균 시간 또한 초저는 1시간 31분으로 가장 길며, 중등(1시간 17분)이 가장 짧게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냄

<표 40>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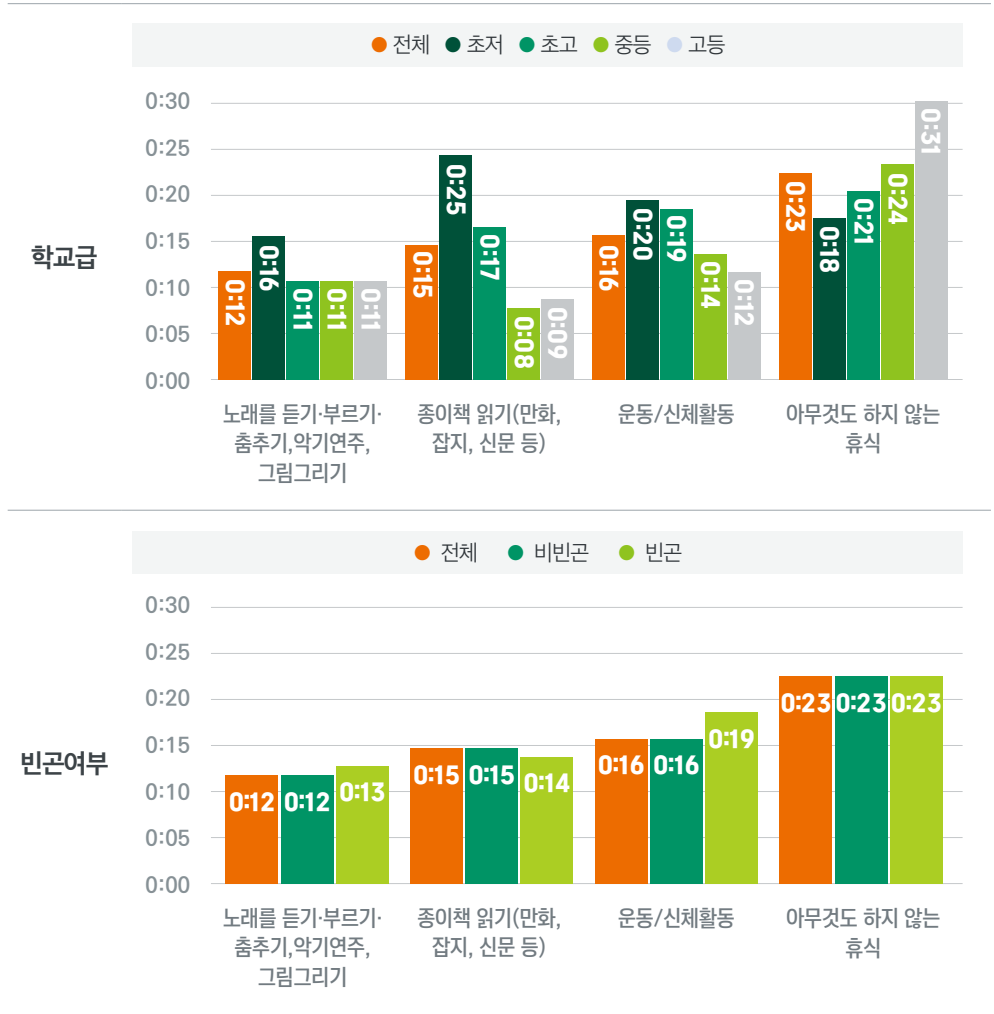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1:07	79.4	1:24	1:07	79.4	1:24	1:09	79.0	1:27
초저	1:18	85.6	1:31	1:19	85.8	1:32	1:11	82.8	1:26
초고	1:09	82.1	1:24	1:09	82.3	1:23	1:12	80.5	1:29
중등	0:57	73.9	1:17	0:56	73.7	1:16	1:05	76.7	1:24
고등	1:03	74.5	1:24	1:02	74.3	1:24	1:09	76.1	1:30

주: 행위자비율이란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종이책 읽기'(코드: 12 & 동시행동: 미디어X) or '운동 및 신체 활동'(13) or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15) or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낮잠, 멍 때리는 시간)'(16)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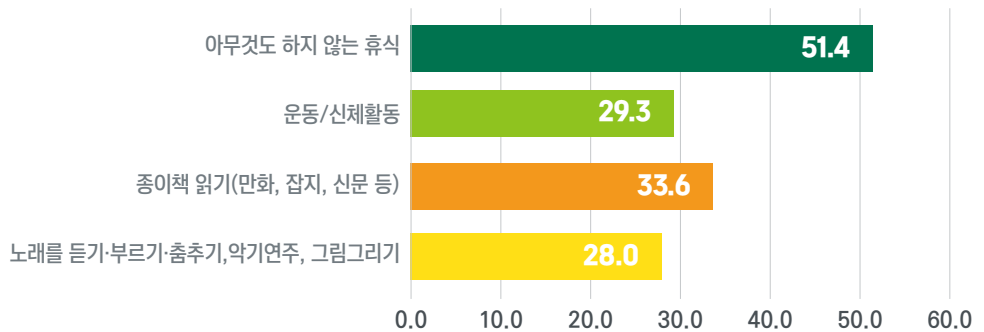
(세부 활동)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낸 여가시간의 세부활동

- 세부 활동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평균 23분, 행위자 비율은 51.4%로 가장 긴 시간으로 많은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 미사용 여가시간에 휴식을 취함
- 다만, 특이하게 '초저'만 종이책 읽기(25분)을 가장 길게 하는 특이점을 보였으며, 중등이 종이책(8분) 읽기 시간이 가장 짧은 것과 비교해 17분▲ 더 책을 읽음
- 빈곤아이들이 비빈곤아이들보다 운동, 신체활동 시간이 3분▲ 더 많음

[그림 33]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전체 평균시간



[그림 34]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



<표 41>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1)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전체	0:12	28.0	0:12	27.6	0:13	31.3
	초저	0:16	37.4	0:16	37.2	0:16	39.3
	초고	0:11	27.4	0:11	26.8	0:14	34.8
	중등	0:11	24.2	0:11	23.7	0:12	30.0
	고등	0:11	21.3	0:11	21.3	0:12	21.1
종이책 읽기 (만화, 잡지, 신문 등)	전체	0:15	33.6	0:15	33.9	0:14	31.1
	초저	0:25	52.5	0:25	53.1	0:22	45.9
	초고	0:17	40.6	0:18	40.7	0:16	39.1
	중등	0:08	20.1	0:08	19.9	0:08	22.3
	고등	0:09	16.8	0:09	16.8	0:10	16.9

<표 42> 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는 세부 여가활동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2)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운동 /신체활동	전체	0:16	29.3	0:16	28.9	0:19	33.7
	초저	0:20	36.2	0:20	36.2	0:18	36.5
	초고	0:19	33.2	0:18	32.3	0:24	43.7
	중등	0:14	24.1	0:13	23.7	0:19	27.9
	고등	0:12	21.5	0:12	20.9	0:12	26.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전체	0:23	51.4	0:23	51.8	0:23	47.7
	초저	0:18	45.9	0:18	46.4	0:14	40.6
	초고	0:21	51.3	0:21	52.3	0:17	40.1
	중등	0:24	52.8	0:24	52.6	0:25	55.4
	고등	0:31	57.1	0:30	57.4	0:35	54.6

방과 후(17:00~)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 행위자 비율

- 운동 및 신체활동의 경우 오후 5시(5.4%)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활동을 종료함
- 반면, 중등의 경우 밤 8시 30분에 4.7%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마쳐, 중등 아이들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방과 후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21:30	22:00	22:30	23:00	23:30
전체		5.4	5.0	4.1	4.2	3.6	3.8	3.8	3.4	2.6	2.0	1.2	1.0	0.6	0.4
성별	남	6.9	6.1	5.3	5.5	4.7	4.5	4.5	4.2	3.2	2.4	1.6	1.2	0.8	0.6
	여	3.8	3.8	2.9	2.9	2.6	3.1	3.0	2.6	2.0	1.5	0.8	0.8	0.5	0.3
학교급	초저	7.6	7.2	5.0	4.6	3.6	3.5	3.6	2.8	1.4	1.2	0.4	0.2	0.1	0.0
	초고	6.2	5.7	5.6	5.6	4.7	4.6	3.7	2.8	2.5	1.7	0.9	0.6	0.2	0.2
	중등	3.8	3.4	2.9	3.2	3.3	3.5	4.4	4.7	3.7	2.7	2.0	1.6	1.1	0.6
	고등	3.4	3.1	2.6	3.1	2.7	3.5	3.3	3.3	2.8	2.5	1.9	1.7	1.6	1.3
빈곤여부	비빈곤	5.2	4.9	4.0	4.2	3.6	3.7	3.7	3.4	2.5	1.9	1.2	1.0	0.7	0.5
	빈곤	7.6	5.1	4.9	4.4	4.3	4.4	4.2	4.0	3.6	2.6	1.4	0.7	0.2	0.0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인 사람들의 비율 → 시간일지 활동 코드: 20

③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며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1시간 49분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빈곤가정일수록 평균 시간이 길어짐

전체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평균 1시간 49분. 84.3%의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며 여가를 보내는데, 이들은 평균 2시간 9분을 사용함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균 시간도 함께 증가함
- 미디어 기기 사용 여가활동 시간은 비빈곤아동 보다 빈곤아동이 더 길(평균 18분)

<표 44> 미디어 기기를 쓰는 여가활동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비빈곤			빈곤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1:49	84.3	2:09	1:47	84.2	2:08	2:05	85.8	2:25
초저	1:18	82.9	1:33	1:16	82.7	1:32	1:30	85.1	1:45
초고	1:46	86.3	2:03	1:45	86.1	2:02	2:00	88.8	2:15
중등	2:05	85.7	2:26	2:04	85.7	2:24	2:21	86.1	2:43
고등	2:13	81.4	2:44	2:11	81.1	2:42	2:30	83.2	3:00

주: 행위자 비율이란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주행동이 ‘온라인 책 읽기’(코드: 12 & 동시행동: 미디어O) or ‘게임’(17) or ‘영상 시청’(18) or ‘온라인으로 대화 및 연락’(19)인 사람들

방과 후(17:00~)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 오후 5시에 전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TV, 동영상 시청을 종료하였음(3.8%)
- 반면, 고등은 저녁 7시(3.5%) 중등은 밤 9시(4.7%)에 시청을 종료하며, 고등의 경우 새벽 2시에 종료하는 비율도 1.3%로 가장 늦게까지 시청함
- 빈곤 아이들이 비빈곤 아이들보다 새벽 2시 종료 비율이 더 높아 좀 더 늦게까지 영상을 시청함

<표 45> 방과후 시간대별 TV, 동영상 시청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계	1:00	2:00
전체		5.4	3.6	3.8	3.8	3.4	2.6	2.0	1.2	1.0	0.6	0.4
성별	남	6.9	4.7	4.5	4.5	4.2	3.2	2.4	1.6	1.2	0.8	0.6
	여	3.8	2.6	3.1	3.0	2.6	2.0	1.5	0.8	0.8	0.5	0.3
학교급	초저	7.6	3.6	3.5	3.6	2.8	1.4	1.2	0.4	0.2	0.1	0.0
	초고	6.2	4.7	4.6	3.7	2.8	2.5	1.7	0.9	0.6	0.2	0.2
	중등	3.8	3.3	3.5	4.4	4.7	3.7	2.7	2.0	1.6	1.1	0.6
	고등	3.4	2.7	3.5	3.3	3.3	2.8	2.5	1.9	1.7	1.6	1.3
빈곤여부	비빈곤	5.2	3.6	3.7	3.7	3.4	2.5	1.9	1.2	1.0	0.7	0.5
	빈곤	7.6	4.3	4.4	4.2	4.0	3.6	2.6	1.4	0.7	0.2	0.0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영상 시청(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케이블/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시간일지 활동 코드: 18)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 비율

방과 후(17:00~) 시간대별 ‘게이미 종료된’ 행위자 비율

- 게임을 가장 많이 종료한 시간은 밤 8시(9.1%)로, 고등을 제외하고 모두 이 시기 종료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고등학생은 밤 11시에 가장 많이 종료함(10%)
- 이에, 고등학생이 가장 밤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며, 새벽 2시에도 고등 1.4%, 중등 1.0%로 여전히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음
- 빈곤아이들이 비빈곤 아이들보다 새벽 2시 종료 비율이 0.4%p▲ 더 높아 좀 더 늦게까지 게임을 함을 알 수 있음

<표 46> 방과 후 시간대별 게이미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누계	1:00	2:00
전체		3.7	3.0	4.0	9.1	6.8	6.0	5.4	1.4	39.3	1.2	0.6
성별	남	4.1	3.4	4.5	11.2	8.2	8.0	7.2	1.8	48.4	1.4	0.7
	여	3.2	2.5	3.6	6.8	5.2	4.0	3.5	1.0	29.8	0.9	0.4
학급	초저	4.6	4.3	6.7	11.4	5.8	2.2	0.6	0.0	35.7	0.0	0.0
	초고	4.4	3.3	5.5	12.2	10.4	6.7	2.9	0.5	45.9	0.3	0.1
	중등	3.1	2.5	2.0	7.2	6.9	9.5	9.4	1.7	42.1	1.4	1.0
	고등	2.3	1.4	1.2	3.9	2.3	5.4	10.0	4.2	30.7	3.8	1.4
빈곤여부	비빈곤	3.7	2.9	3.9	9.0	6.7	5.9	5.2	1.4	38.7	1.2	0.6
	빈곤	3.9	3.3	5.5	9.5	7.5	7.1	7.6	1.9	46.3	0.4	0.2

주: 본 시간대에는 주행동이 '게임(PC,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시간일지 활동 코드: 17)으로 잡히지만 이후 시간대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사람들 비율

4. 지역별 시간 사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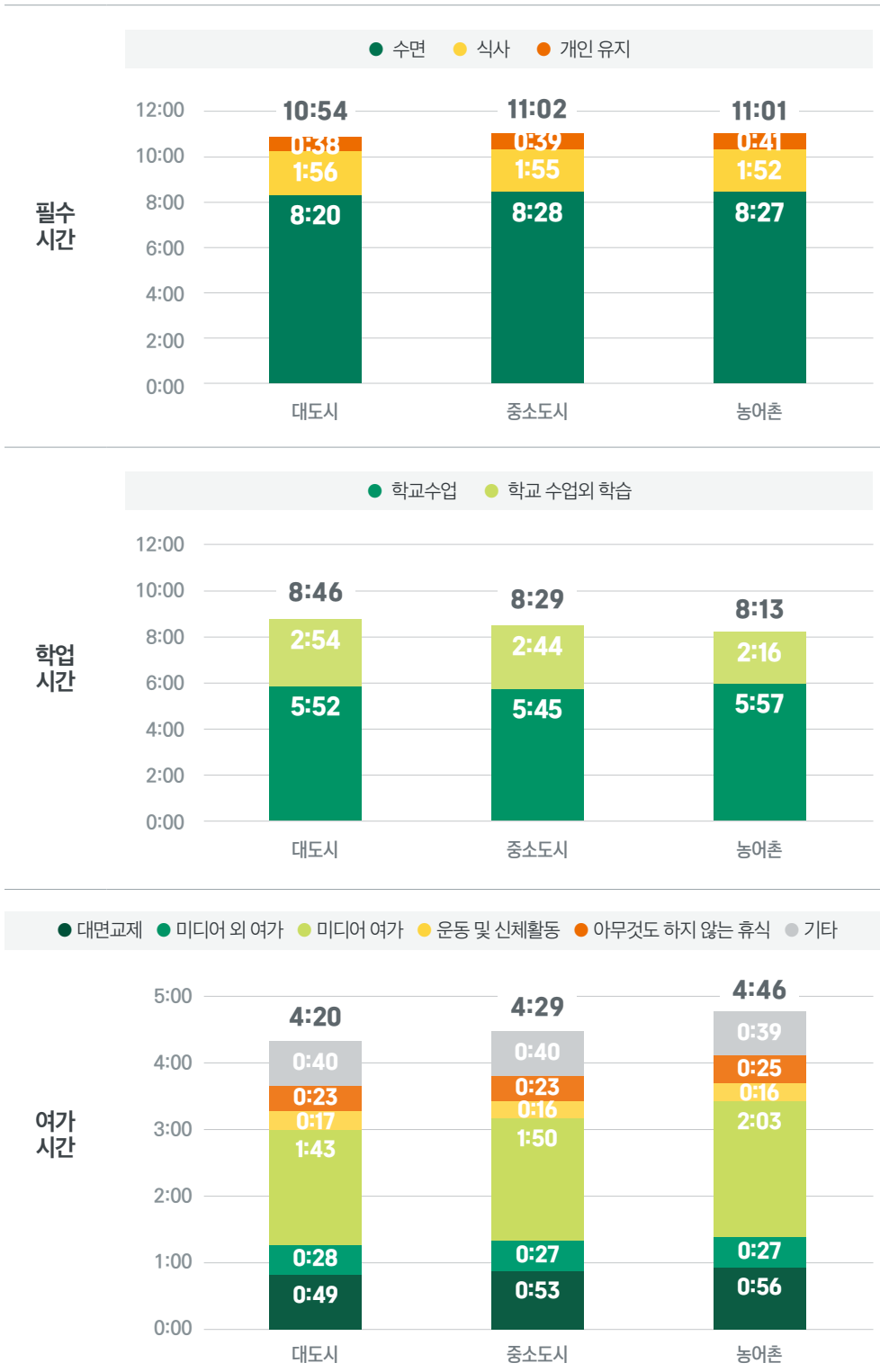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대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아이들에 비해 수면시간은 7분▼ 적고,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38분▲ 더 길었으며, 미디어 여가시간이 26분▼ 더 짧음

(차이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시간 사용 및 차이

- **(필수시간)** 대도시 아이들(10시간 54분)이 농어촌 아이들(11시간 1분)에 비해 7분 ▼ 적었으며, 특히 수면시간(7분▼), 개인유지 시간(3분▼)이 대도시가 더 적으나, 식사는 4분▲ 더 길
- **(학습시간)** 대도시 아이들의 학습 시간(8시간 46분)이 농어촌(8시간 13분)보다 33분▲이나 길었으나, 오히려 학교 수업시간은 5분▼ 적으나,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38분▲ 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대도시 아이들이(4시간 20분)으로 농어촌 아이들보다 26분▼ 더 짧음. 이는 농어촌 아이들의 미디어 여가시간이 대도시 아이들보다 20분▲ 이나 더 길기 때문임

[그림 35] 지역별 시간사용



<표 47> 지역규모별 시간 사용 및 차이

단위(시간:분)

	전체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대도시-농어촌 차이(A-C)
필수시간	10:59	10:54	11:02	11:01	-0:07
수면	8:25	8:20	8:28	8:27	-0:07
식사	1:55	1:56	1:55	1:52	0:04
개인유지	0:39	0:38	0:39	0:41	-0:03
학업시간	8:34	8:46	8:29	8:13	0:33
학교수업	5:49	5:52	5:45	5:57	-0:05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54	2:44	2:16	0:38
여가시간	4:27	4:20	4:29	4:46	-0:26
대면교제	0:52	0:49	0:53	0:56	-0:07
미디어 외 여가	0:27	0:28	0:27	0:27	0:01
미디어 여가	1:49	1:43	1:50	2:03	-0:20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17	0:16	0:16	0:01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3	0:23	0:25	-0:02
기타	0:40	0:40	0:40	0:39	0:01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식사'=2, '개인 유지'=21, '학교수업'=3~6, '학교수업 외 학습'=7~11, '대면교제'=14, 20,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5,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운동 및 신체활동'=1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16, '기타'=22

5. 장소, 활동,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사용

1) 방과 후 장소

- 방과 후 가장 아이들이 가장 오래 있는 곳은 ‘집’이며, 초등 저학년(6시간 58분)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고 고등(3시간 56분)이 가장 짧았으며, 약 90% 이상이 집에 귀가하는 시각은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학교급(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차 1시간씩▲ 늦어져, 초저는 저녁 6시 30분, 고등은 밤 9시 30분이 정도가 되어야 대부분 집에 있게 됨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 방과 후, 초등 저학년들은 집(6시간 58분)에 가장 오래 머무름.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집에 머무른 평균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초저(6시간 58분)가 고등(3시간 56분)에 비해 3시간 2분▲ 더 집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됨
- 반면, 공부하는 장소에는 중등(1시간 35분)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초등 고학년이 체육시설에 있는 시간이(9분)으로 가장 짧. 고등은 식당, 편의점 카페에서의 평균 시간이 가장 짧(5분)
- 행위자 비율도 고등학생이 될수록 집, 돌봄, 공부, 체육시설 모두 줄어들지만 식당, 편의점, 카페 시간만 유일하게 점차 증가하여(9.2%) 초등 저학년보다 6.8%p▲ 더 행위자 비율이 높음

<표 48> 방과 후 학교급별, 장소별 머무른 시간

단위(시간:분, %)

머무른 시간		학교급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집	평균시간	6:58	6:32	5:13	3:56
	행위자비율	99.2	98.3	96.5	87.0
돌봄	평균시간	0:09	0:06	0:02	0:02
	행위자비율	6.6	5.6	2.7	2.5
공부	평균시간	1:24	1:30	1:35	1:18
	행위자비율	70.8	67.8	62.7	44.2
체육시설	평균시간	0:08	0:09	0:05	0:04
	행위자비율	11.5	12.1	7.1	4.8
식당, 편의점, 카페	평균시간	0:01	0:02	0:03	0:05
	행위자비율	2.4	4.8	7.3	9.2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 (초저)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집에 있는 비율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저녁 6시 30분 이후에야 94.6%가 집에 있으며, 다른 장소 시간은 급감함

<표 49>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저학년생)

단위(%)

초저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7.6	20.1	31.3	41.2	59.3	84.9	94.6	97.0	98.7	99.1	99.3	99.5	1.0
돌봄	1.1	2.7	4.5	4.9	5.0	3.9	1.0	0.5	0.4	0.3	0.3	0.3	0.2
공부	5.5	27.9	47.2	52.3	44.6	26.5	8.3	3.2	1.5	0.7	0.4	0.6	0.3
체육시설	0.4	1.5	3.0	4.6	5.9	4.9	2.1	1.1	0.6	0.1	0.0	0.0	0.0
식당, 편의점, 카페	0.2	0.3	0.6	0.6	0.7	0.6	0.7	0.3	0.2	0.1	0.0	0.0	0.0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초고) 초고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함. 하지만, 초저보다 1시간▲ 더 후인 저녁 7시 30분에야 91.1%가 집에 들어갔고, 공부 관련 장소는 저녁 8시 30분이 되어 서야 5.7%로 줄기 시작함

<표 50>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초등 고학년생)

단위(%)

초고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3.2	16.5	40.2	44.7	54.0	74.2	86.4	91.1	95.0	97.6	98.2	99.0	4.7
돌봄	0.7	1.1	3.3	3.8	4.4	3.5	1.9	1.2	1.1	0.9	0.9	0.9	0.7
공부	1.5	13.7	41.6	51.2	47.9	37.8	19.6	10.5	5.7	2.4	1.0	1.1	0.5
체육시설	0.3	1.2	2.9	4.2	5.0	5.3	3.8	2.6	1.6	0.6	0.4	0.1	0.1
식당, 편의점, 카페	0.5	1.0	1.1	1.3	1.3	0.9	1.1	0.9	0.4	0.1	0.1	0.0	0.1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중등)** 중등의 경우 초고보다 1시간▲ 뒤인 저녁 8시 30분에 93.6%가 집에 들어가며, 공부 장소 또한 이 시간대에 5.6%로 줄기 시작함

〈표 51〉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중학생)													단위(%)
중등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4.0	22.8	47.4	49.6	57.5	64.9	73.5	84.2	93.6	95.5	48.2	19.8	7.7
공부	1.4	9.5	28.0	43.4	45.5	38.4	25.3	15.1	5.6	2.9	1.3	1.4	1.1
체육시설	0.2	0.7	1.9	2.4	2.1	2.7	2.8	1.9	0.9	0.5	0.2	0.2	0.2
식당, 편의점, 카페	0.2	1.2	1.9	1.7	2.3	2.1	1.1	0.5	0.3	0.2	0.2	0.2	0.1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 **(고등)** 고등의 경우 시간대별 장소를 기록한 행위자 비율이 최대 91.7%로 다른 학교급 아동들이 기록 비율이 전체의 98~99%에 육박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가 잡힘. 고등의 경우 중등보다 1시간▲ 뒤인 저녁 9시 30분, 가장 높은 비율인 83.6%가 '집'에 머물러 귀가 시간이 가장 늦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저녁 9시 30분을 기준으로 공부 관련 장소도 8.6%로 조금씩 감소해, 12시 30분이 되어서야 1.8%로 떨어짐

〈표 52〉 시간대별, 장소별 행위자 비율(고등학생)													단위(%)
고등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2:30	23:30	0:30
집	2.7	7.5	22.3	42.1	49.5	48.5	49.0	60.8	77.7	83.6	69.2	44.2	26.3
공부	0.4	2.4	8.6	19.5	28.2	31.4	29.5	24.5	14.2	8.6	3.4	2.1	1.8
체육시설	0.0	0.2	1.1	1.2	1.2	1.6	1.8	1.5	1.1	0.7	0.5	0.3	0.4
식당, 편의점, 카페	0.4	0.3	1.2	3.4	3.9	2.4	2.1	0.8	0.6	0.3	0.1	0.1	0.2

주: 시간일지에서 장소/이동수단 코드는 '집'=1, '돌봄'=6, '공부'=7, 8, '체육시설'=11, '식당, 편의점, 카페'=12

2) 방과 후 활동

- 방과 후에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은 오후 5시가 가장 높고▲, ‘혼자 공부’는 새벽 2시까지 2.6%가 하고 있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콕 아이들은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수면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90%대에 진입함

학습

- 학원/과외 수업은 오후 5시에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후 꾸준히 감소해 저녁 9시에 9.1%대로 줄어듦
- 사교육의 경우 학원/과외수업과 방송/온라인 수업, 학습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오후 5시(36.8%)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5.9%대에 진입함
- 사교육 외에 ‘혼자공부’까지 포함하는 시간인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의 경우에도 오후 5시(50.6%)가 최고치 비율이며, 가장 늦은 시간인 밤 12시가 되어서야 6.6%대로 학습을 하는 행위자 비율이 대폭 감소함
- 이에, 학원/과외는 자정 이후로는 행위자 비율이 0%대에 진입하나, 사교육은 새벽 1시(0.7%) 이후 0%대에 진입함. 혼자공부까지 포함한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은 새벽 2시에 2.6%로, 잠을 자지 않고 혼자공부를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시간대별 학교수업 외 학습 행위자 비율

단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2:00
[전체] 학교수업 외 학습	21.4	36.4	48.0	50.6	45.7	46.2	42.8	31.6	20.4	13.5	6.6	4.5	2.6
사교육	16.9	28.6	35.9	36.8	29.3	25.1	19.3	12.3	5.9	3.3	1.3	0.7	0.5
학원/과외 수업	15.8	26.8	32.9	33.3	25.7	20.0	14.3	9.1	3.9	2.2	0.6	0.0	0.0

주1: 학교수업 외 학습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or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11

주2: 사교육 → 시간일지 활동 코드: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7 or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8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9 or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10

주3: 학원/과외 수업 → 시간일지 활동 코드: ‘국어, 수학, 영어’=7 or ‘그 외 과목들’=8

여가

- **(집콕)**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특성인 '집콕'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집콕하는 아이들 대부분 '공부'를 2시간 20분으로 가장 길게 하였으며, 가장 짧았던 '대면교제' 시간(37분)보다 1시간 43분▲ 더 공부하고 83%가 공부 행위를 함
- '미디어 여가'는 평균 1시간 38분으로 '미디어 외 여가'보다 47분▲ 더 하며, 공부 다음인 78.2%가 많은 비율이 미디어 여가를 즐김. 초저가 가장 적고 중등이 깊
- 대면교제는 평균 37분으로 가장 짧으며, 행위자 비율도 55.1%로 집에서 약 절반의 학생 정도만 대면교제를 함. 특히, 초저는 1시간(80.5%)으로 다른 여가시간과 큰 차이가 없고 행위자 비율도 높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짧아져 '집콕하는' 고등은 16분(25.5%)만 '대면교제'를 하고, 행위자 비율도 가장 낮음

<표 54> 집콕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별 행위자 비율(방과 후~잘 때까지)

단위(시간:분, %)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5:26	93.6	5:27	98.7	5:49	97.4	5:31	93.4	4:42	81.4
공부	2:20	83.0	2:07	93.1	2:30	90.8	2:34	81.8	2:03	59.4
미디어 외 여가	0:51	64.2	1:07	78.2	0:55	70.0	0:42	58.2	0:37	45.3
미디어 여가	1:38	78.2	1:13	80.5	1:40	83.1	1:55	80.1	1:46	65.3
대면교제	0:37	55.1	1:00	80.1	0:44	65.4	0:20	41.0	0:16	25.5

주: 방과 후, 귀가 후 잘 때까지 활동(장소:집)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공부(학교수업 외 학습)=7~11, 미디어 외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X), 13, 15, 16, 미디어 여가=12 (& 동시행동: 미디어O), 17~19, 대면교제=14, 20

수면

- 밤 10시에 51.3%인 과반수의 아동들이 자기 시작하나, 새벽 1시가 되어서야 91.2%인 즉 대 부분의 아이들이 비로소 잠에 든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약 3%대에 해당하는 일부 아동은 여전히 새벽 3시가 되었음에도 수면 행위가 잡히 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표 55> 시간대별 수면 행위자 비율

단위(%)

	22:00	23:00	0:00	1:00	2:00	3:00
수면	51.3	66.3	83.4	91.2	95.3	96.6

주: 시간일지에서 주행동 코드는 '수면'=1

3) 함께한 사람

- 전체 평균 시간 중, 혼자 있는 시간이 3시간 31분으로 가장 길며▲, 학교급에서는 중등(4시간 8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길▲. 초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길▲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

- 전체 평균 시간 중 혼자 있는 시간(3시간 31분)이 가장 길며, 행위자 비율도 가장 높음(90.3%).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2시간 39분)으로 혼자 시간보다는 52분▼ 더 짧음. 오프라인 친구와의 시간은 약 1시간(53.1%)이며, 온라인 친구와는 4분(5.5%)로 온라인 친구와의 시간이 가장 짧음
- 학교급별로 초저는 혼자시간(2시간 31분)보다 가족 및 친인척(4시간 53분) 시간이 가장 길고, 98.8%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 반면, 초고, 중등, 고등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며, 특히 중등은 혼자 시간이 4시간 8분으로 가장 길

<표 56> 학교급별, 방과 후 함께한 사람별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초저		초고		중등		고등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7:14	97.8	8:15	99.8	7:58	99.4	6:39	98.5	5:35	92.0
혼자	3:31	90.3	2:31	86.2	3:41	91.7	4:08	94.6	3:44	87.7
가족 및 친인척	2:39	85.7	4:53	98.8	3:11	95.7	1:22	82.9	0:41	57.0
오프라인 친구	1:00	53.1	0:50	50.0	1:03	57.6	1:04	55.3	1:04	47.5
온라인 친구	0:04	5.5	0:01	2.4	0:03	5.8	0:05	7.3	0:06	6.6

주: 시간일지에서 함께한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 혼자 있는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밤 11시에 97.6%로 가장 높음
-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가 가장 많으며(67.9%), 점차 감소하여 저녁 5시 이후로는 7.5%만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함
- 오프라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후 2시에 15.3%로 가장 높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오후 4시부터는 7% 이하로 지속 감소함
- 온라인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가 8.9%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함

<표 57> 방과 후 시간대별 함께한 사람별 행위자 비율

단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전체	87.8	76.5	69.4	65.2	77.3	81.8	85.5	90.9	96.2	97.6	32.7	15.7
혼자	15.2	27.1	41.7	54.0	70.6	76.1	80.2	87.0	93.3	95.0	31.3	14.8
가족 및 친인척	67.9	48.1	28.8	7.5	4.1	3.4	3.0	2.4	1.1	0.7	0.3	0.2
오프라인 친구	15.3	10.7	7.0	4.6	4.3	1.9	1.5	1.2	1.0	0.8	0.4	0.1
온라인 친구	8.9	7.5	6.9	4.2	3.2	2.7	2.6	2.4	2.1	1.9	1.6	1.0

주: 시간일지에서 함께한 사람 코드: '혼자'=1, '가족 및 친인척'=2, '오프라인 친구'=3, 4, '온라인 친구'=5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II

아동행복지수 관련 영향 요인 분석

1. 요즘 아이들 생활 특성과 아동행복지수
2. 학교급(연령)과 아동행복지수





아동행복지수 관련 영향 요인 분석

1. 요즘 아이들 생활 특성과 아동행복지수

1) 밤에 쉽게 잠 못 드는 아이들

- 밤에 쉽게 잠 못 드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학업시간▲, 대면교제▼, 미디어여가▲이며, 우울불안▲, 자살생각▲, 자해경험▲, 비행행동▲ 고민상담자 없음▲

아동행복지수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아동행복지수가 4.06점▼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음($p < .001$)

[그림 36]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58> 불면경험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면경험	있음	1,332	39.41	6.175	0.000
	없음	8,808	43.47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불면 아이들 비율 및 이유

- 우리나라 아이들의 13.1%는 평소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불면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늘어남
- 주된 이유는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28.9%)’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19.4%)’ ‘소음 등의 환경적인 이유(15.2%)’, ‘해야 할 일’이 많아서 (13.6%) 순으로 조사 됨.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가 증가함

<표 59> 학교급별 불면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244	2,391	108.612	0.000
		비율	100.0	9.3	90.7		
	초고	학생 수	2,836	311	2,525		
		비율	100.0	11.0	89.0		
	중등	학생 수	2,746	419	2,327		
		비율	100.0	15.3	84.7		
	고등	학생 수	1,924	359	1,565		
		비율	100.0	18.7	81.3		
	전체	학생 수	10,141	1,333	8,808		
		비율	100.0	13.1	86.9		

<표 60> 학교급별 불면 이유

단위(명, %)

			전체	소음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해야 할 일 (공부, 과제 등)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안하면 잠이 안옴)	늦은 시간 까지 미디어를 하느라 (핸드폰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기타	χ^2	유의 확률
학교급	초저	학생 수	314	51	24	19	81	7	31	101	296.630	0.000
		비율	100	16.2	7.6	6.1	25.8	2.2	9.9	32.2		
	초고	학생 수	464	87	48	25	107	16	97	84		
		비율	100	18.8	10.3	5.4	23.1	3.4	20.9	18.1		
	중등	학생 수	708	114	110	18	219	29	157	61		
		비율	100	16.1	15.5	2.5	30.9	4.1	22.2	8.6		
	고등	학생 수	651	73	107	29	211	52	131	48		
		비율	100	11.2	16.4	4.5	32.4	8.0	20.1	7.4		
	전체	학생 수	2139	325	290	90	619	105	416	294		
		비율	100	15.2	13.6	4.2	28.9	4.9	19.4	13.7		

***<.001, **p<.01, *<.05

주: 중복응답

생활시간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불면이 없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불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수면시간 34분▼로 큰 차이가 났으며, 학업시간은 31분▲임. 여가시간 또한 5분▲ 더 많았으나, 대면교제 시간은 9분▼, 미디어 여가시간은 8분▲인 특징을 보임

<표 61> 불면경험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 어 외 여가	미디 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불면 경험	해당	1,332	10:26	7:55	1:56	0:37	9:00	6:11	2:49	4:32	0:43	0:28	1:56	0:16	0:26	0:41
	비해당	8,808	11:03	8:29	1:55	0:39	8:29	5:45	2:44	4:26	0:52	0:27	1:47	0:16	0:22	0:39

심리·정서

- **(자해)**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9명의 중고생 중에서 14.2%인 155명이 자해 경험이 있으며, 불면이 없는 아이들(3.8%)에 비해 10.4%p▲ 더 높아 큰 차이를 보임

<표 62>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해여부)

단위(명, %)

자해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 경험	해당	학생 수	1,089	155	934	201.256	0.000
		비율	100.0	14.2	85.8		
	비해당	학생 수	6,417	244	6,173		
		비율	100.0	3.8	96.2		
	전체	학생 수	7,506	399	7,107		
		비율	100.0	5.39	94.7		

- **(자살 생각)**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8명의 중고생 중에서 24.8%인 270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 불면이 없는 아이들(7.0%)에 비해 17.8%p▲ 더 높아 불면을 경험한 아이들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큰 폭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3>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자살생각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 경험	해당	학생 수	1,088	270	818	339.972	0.000
		비율	100.0	24.8	75.2		
	비해당	학생 수	6,417	450	5,967		
		비율	100.0	7.0	93.0		
	전체	학생 수	7,505	720	6,785		
		비율	100.0	9.6	90.4		

- (우울·불안) 불면이 있는 아이들은 우울·불안(0.3점▲)을 더 느끼고 있음

<표 64>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면경험	해당	1,088	1.54	0.48	-19.595	0.000
	비해당	6,417	1.24	0.32		

- (고민상담자) 밤에 불면을 경험한 1,088명의 중고생의 18.1%인 197명이 고민상담자가 없다고 응답하여 불면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고민상담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p▲ 큰 폭으로 더 많았음

<표 65> 불면경험에 따른 심리정서(고민상담자 여부)							단위(명, %)
고민상담자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불면 경험	해당	학생 수	1,088	891	197	120.557	0.000
		비율	100.0	81.9	18.1		
	비해당	학생 수	6,417	5,923	494		
		비율	100.0	92.3	7.7		
	전체	학생 수	7,505	6,814	691		
		비율	100.0	90.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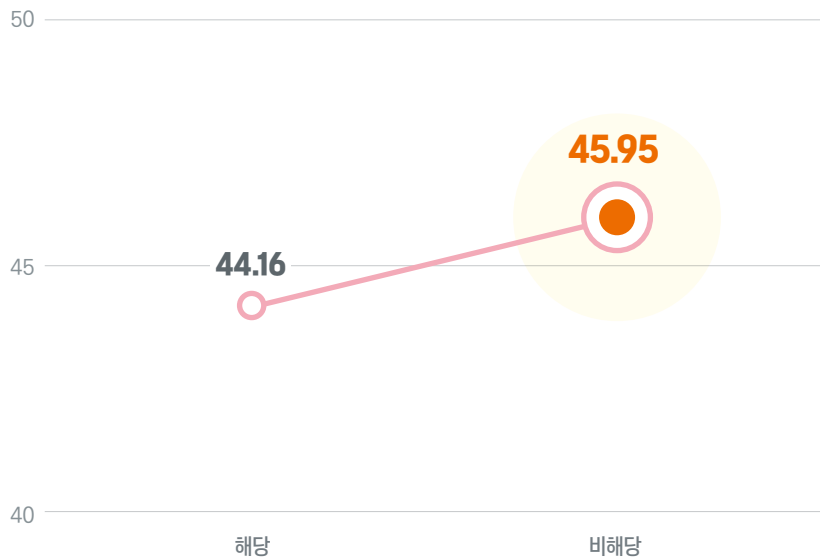
2)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

-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 우울 불안▲, 자살생각▲

아동행복지수

- 가족과 공부를 주제로 대화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압박이 평균 이상인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아동행복 지수가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45.95점)에 비해 1.79점▼

[그림 3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66>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	해당	3,746	44.16	21.20	-4.046	0.000
	비해당	6,394	45.95	21.69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생활시간

-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수면시간(21분▼), 여가시간(25분▼) 더 짧았음
- 반면,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학업시간이 45분▲이나 더 길었으며, 특히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36분▲으로 큰 차이를 보여 학교 외 학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표 67>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어 외 여가	미디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공부압박 받는 아이들	해당	3,746	10:45	8:11	1:54	0:39	9:02	5:54	3:08	4:11	0:47	0:25	1:41	0:14	0:21	0:39
	비해당	6,394	11:06	8:32	1:55	0:38	8:17	5:45	2:31	4:36	0:53	0:28	1:53	0:17	0:23	0:39

심리·정서

- (자살) 공부 압박을 받는 2,943명의 중고생 중에서 10.8%인 319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 그렇지 않은 아이들(8.8%)보다 2%p▲

<표 68>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자살생각 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	해당	학생수	2,943	319	2,624	4.066	0.000
		비율	100.0	10.8	89.2		
	비해당	학생수	4,563	402	4,161		
		비율	100.0	8.8	91.2		
	전체	학생수	7,506	721	6,785		
		비율	100.0	9.6	90.4		

- (우울·불안)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0.04점▲ 우울·불안을 더 느끼고 있고 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함($p<.001$)

<표 69>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	해당	2,942	1.31	0.38	4.066	0.000
	비해당	4,563	1.27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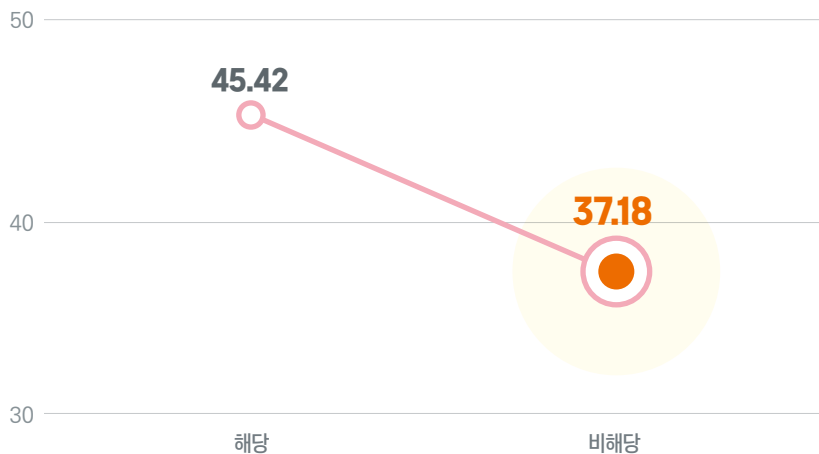
3)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 주말에 보호자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 대면교제▲, 미디어 외 여가▲, 운동 및 신체활동▲, 자살▼, 자해▼, 우울불안▼, 고민 상담할 사람 있음▲

아동행복지수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45.42점)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37.18점)에 비해 8.24점▲ 더 높아 그 차이가 큼

[그림 38]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70>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점)

아동행복지수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9,977	45.42	21.46	4.395	0.000
	비해당	163	37.18	23.73		

주: 아동행복지수-동시행동 미디어 제외 100점 만점

생활시간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생활시간은 특히 ‘수면’시간 52분▲으로 큰 특징을 보였으며, 여가시간(31분▲) 중에서도 특히 대면교제 시간이 30분▲, 미디어 외 여가 시간도 8분▲ 길었고,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도 6분▲
- 이처럼,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을 할 경우 운동과, 대면교제, 미디어 외 여가등 더 건강한 여가시간이 높았으며, 반대로 미디어 여가는 8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은 17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명, 분)

생활시간		전체	필수 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유지	학업 시간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여가 시간	대면 교제	미디어 외 여가	미디어 여가	운동 및 신체 활동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식	기타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9,977	10:59	8:25	1:54	0:39	8:32	5:47	2:44	4:27	0:52	0:27	1:48	0:16	0:22	0:39
	비해당	163	10:07	7:30	2:07	0:28	9:56	7:05	2:51	3:55	0:21	0:19	1:51	0:09	0:39	0:33

심리·정서

- **(자해)**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자해경험 비율(5.1%)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14.7%)보다 9.6%p▼로 큰 폭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72>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자해여부) 비교

단위(명, %)

자해여부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49	376	6,973	28.126	0.000
		비율	100.0	5.1	94.9		
	비해당	학생수	156	23	133		
		비율	100.0	14.7	85.3		
	전체	학생수	7,505	399	7,106		
		비율	100.0	5.3	94.7		

- **(자살생각)**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자살생각 비율(9.3%)은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15.7%p▼더 낮아 큰 차이를 보임

<표 73>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자살생각) 비교

단위(명, %)

자살생각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50	682	6,668	43.481	0.000
		비율	100.0	9.3	90.7		
	비해당	학생수	156	39	117		
		비율	100.0	25.0	75.0		
	전체	학생수	7,506	721	6,785		
		비율	100.0	9.6	90.4		

***<.001, **p<.01, *<.05

- **(우울·불안)** 주말에 보호자와 시간(활동)을 보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울·불안 0.21점▼ 더 낮음

<표 74>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우울·불안) 비교

단위(명, %)

우울·불안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7,349	1.28	0.36	-4.577	0.000
	비해당	156	1.49	0.57		

- **(고민상담자)** 보호자와 주말활동을 함께 하는 아이들은 ‘고민 상담자가 있다는 비율’이 20.7%p▲ 큰 폭으로 더 많았음

<표 75> 보호자와 함께 시간(활동)을 보내는 심리정서(고민상담자) 비교

단위(명, %)

고민 상담자			전체	있음	없음	χ^2	유의확률
주말에 보호자와 활동 여부	해당	학생수	7,349	6,704	645	78.380	0.000
		비율	100.0	91.2	8.8		
	비해당	학생수	156	110	46		
		비율	100.0	70.5	29.5		
	전체	학생수	7,505	6,814	691		
		비율	100.0	90.8	9.2		

***<.001, **p<.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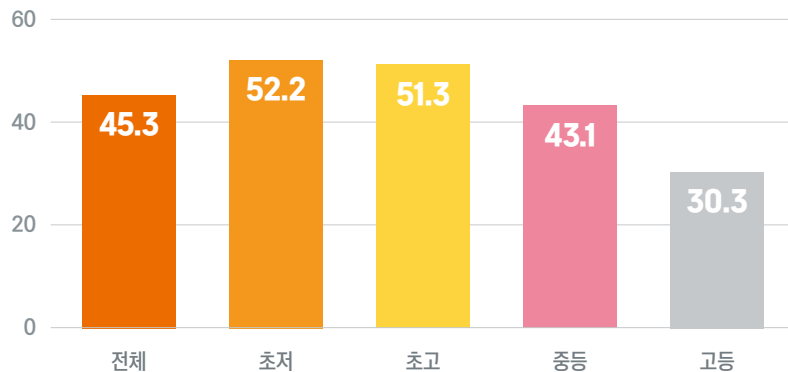
2. 학교급(연령)과 아동행복지수

- 학교급(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 불균형이 심화되어 아동행복지수는 ▼ 감소함.

아동행복지수

- 초저(52.2점)의 아동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등(30.3점)의 경우 21.9점 ▼ 감소함

[그림 39]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표 76> 동시행동(미디어 제외)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명, %)

		학생 수	평균 점수	표준편차	표준화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상한	하한
학교급	초저	2,635	52.2	16.14	0.31	51.57	52.81
	초고	2,836	51.3	19.57	0.36	50.44	51.88
	중등	2,745	43.1	22.02	0.42	42.23	43.89
	고등	1,924	30.3	21.98	0.50	29.36	31.32
	전체	10,140	45.3	21.53	0.21	44.87	45.71

1) 시간요인

-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공부▲, 미디어시간▲, 방과 후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시간) 혼자공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미디어

- 혼자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초저(46분)에서 고등(1시간 51분)으로 지속 증가하여, 고등이 초저보다 1시간 5분▲ 더 혼자 공부함
-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시간 또한 초저(17분)에서 고등(30분) 지속증가하여 13분▲
- 미디어 시간도 초저(1시간 19분)에서 고등(2시간 53분)으로 증가해, 1시간 33분▲

<표 77> 주행동 시간요인(증가시간)

단위(시간:분)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
혼자 공부하는 시간 (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학교급	초저	2,635	0:46	0:41	214.289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03	1:03			
		중등	2,745	1:11	1:23			
		고등	1,924	1:51	2:05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시간 (낮잠, 멍때리는 시간)	학교급	초저	2,635	0:17	0:30	40.929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0:21	0:34			
		중등	2,745	0:24	0:40			
		고등	1,924	0:30	0:50			
미디어 시간량	학교급	초저	2,635	1:19	1:10	296.001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50	1:36			
		중등	2,745	2:22	2:12			
		고등	1,924	2:53	2:48			

(감소시간) 방과 후 운동, 방과 후 취침 때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대화 시간

- 방과 후 운동시간의 경우 초저(16분)에서 고등(7분)으로 지속감소하여, 9분▼
- 방과 후 취침 전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초저(4시간 54분)이나, 지속 감소하여 고등(44분)으로 4시간 9분▼
- 가족과의 대화 시간량 또한, 초저(50분)에서 지속감소하여 고등(9분)이 40분▼

<표 78> 주행동 시간요인(감소시간)

단위(시간:분)

			학생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
방과 후 운동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5	0:16	0:33	44.954	0.000	고등<중등< 초고<초저
		초고	2,836	0:14	0:33			
		중등	2,745	0:09	0:29			
		고등	1,924	0:07	0:26			
방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4	4:54	2:12	2703.955	0.000	고등<중등< 초고<초저
		초고	2,836	3:12	2:12			
		중등	2,741	1:24	1:32			
		고등	1,922	0:44	1:09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량	학 교 급	초저	2,635	0:50	0:55	472.211	0.000	고등<중등< 초고<초저
		초고	2,836	0:32	0:44			
		중등	2,745	0:14	0:26			
		고등	1,924	0:09	0:27			

2) 심리정서 요인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정서(고립, 미래불안)▲, 긍정정서(편안함, 행복감)▼, 자살 및 자해경험 ▲, 상담 및 병원방문 ▲

(부정정서) 고립감, 미래 불안감

- 부정정서는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 증가하여, 고등이 초고보다 고립감은 0.53점▲, 미래 불안감은 2.72점▲ 더 높음

(긍정정서) 편안함, 주관적 행복감

- 반면, 긍정정서는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지속 감소하여, 고등이 초저보다 편안함은 1.00점▼, 주관적 행복감은 1.77점▼

<표 79> 심리정서 요인

단위(명, %)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고립감	학교급	초저	-	-	-	162,565	0.000	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1.86	0.95			
		중등	2,745	2.15	1.02			
		고등	1,924	2.39	1.10			
미래 불안감	학교급	초저	2,635	3.26	2.27	1438.607	0.000	초저<초고<중등<고등
		초고	2,836	4.37	2.50			
		중등	2,745	6.11	2.27			
		고등	1,924	7.09	2.04			
편안함	학교급	초저	2,635	8.16	1.38	181.241	0.000	고등<중등<초저, 초고
		초고	2,836	8.17	1.55			
		중등	2,745	7.60	1.72			
		고등	1,924	7.16	1.93			
주관적 행복감	학교급	초저	2,635	8.27	1.46	453.713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8.01	1.73			
		중등	2,745	7.13	1.95			
		고등	1,924	6.50	2.09			

주: 초저는 고립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충동정서) 자살 생각, 자해

-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고(4.3%)에서 고등(7.3%)으로 갈수록 3.0%p▲
- 심지어, 자살생각 또한 초고(5.3%)에서 고등(15.4%)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1%p▲로 큰폭 상승함
- (이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응답한 자살생각의 이유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간 갈등'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임

<표 80> 학교급별 자해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22.010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7	122	2,715		
		비율	100.0	4.3	95.7		
	중등	학생 수	2,745	136	2,609		
		비율	100.0	5.0	95.0		
	고등	학생 수	1,924	141	1,783		
		비율	100.0	7.3	92.7		
	전체	학생 수	7,506	399	7,017		
		비율	100.0	5.3	94.7		

주: 초저는 자해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표 81> 학교급별 자살생각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135,645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6	151	2,685		
		비율	100.0	5.3	94.7		
	중등	학생 수	2,745	272	2,473		
		비율	100.0	9.9	90.1		
	고등	학생 수	1,924	297	1,627		
		비율	100.0	15.4	84.6		
	전체	학생 수	7,505	720	6,785		
		비율	100.0	9.6	90.4		

주: 초저는 자살생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표 82> 학교급별 자살생각 이유

단위(명, %)

			전체	학교 성적	가족 간 갈등	선후배 또는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	-	-	-	41.962	0.000
		비율	-	-	-	-	-	-	-		
	초고	학생 수	151	17	70	27	4	26	7		
		비율	100.0	11.3	46.4	17.9	2.6	17.2	4.6		
	중등	학생 수	271	32	103	56	3	59	18		
		비율	100.0	11.8	38.0	20.7	1.1	21.8	6.6		
	고등	학생 수	297	48	84	31	7	107	20		
		비율	100.0	16.2	28.3	10.4	2.4	36.0	6.7		
	전체	학생 수	719	97	257	114	14	192	45		
		비율	100.0	13.5	35.7	15.9	1.9	26.7	6.3		

주: 초저는 자살생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정신건강 상담 및 도움) 자살 생각, 자해

- (도움) 우울, 자살 등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구한 경험이 초고(4%), 고등(10%)로 고등이 6%p▲ 연령과 함께 증가함

<표 83> 학교급별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여부

단위(명, %)

			전체	예	아니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	-	-	62.285	0.000
		비율	-	-	-		
	초고	학생 수	2,836	119	2,717		
		비율	100.0	4.0	96.0		
	중등	학생 수	2,745	176	2,569		
		비율	100.0	6.4	93.6		
	고등	학생 수	1,923	191	1,732		
		비율	100.0	10.0	90.0		
	전체	학생 수	7,504	486	7,018		
		비율	100.0	6.5	93.5		

주: 초저는 정신건강 상담 및 내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3) 공부요인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공부압박▲, 부모 교육열의(참여)▼, 주말학원▲

부모 교육열의 및 공부압박

- 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열의'는 초저(2.56점)에서 고등(1.97점)으로 갈수록 지속감소하여 0.59점▼
- 반면, 공부압박은 초저(2.29점)에서 고등(2.49점)으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0.2점▲ 더 증가함

<표 84> 부모 및 관계요인

단위(명, %)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교육 열의	학 교 급	초저	2,635	2.56	0.50	427.966	0.000	고등<중등<초고<초저
		초고	2,836	2.39	0.61			
		중등	2,745	2.19	0.65			
		고등	1,924	1.97	0.67			
공부 압박	학 교 급	초저	2,635	2.29	0.86	50.981	0.000	초고,초저<고등,중등
		초고	2,836	2.26	0.94			
		중등	2,745	2.54	1.05			
		고등	1,924	2.49	1.11			

방과 후

- 정규수업이 끝난 후 46.0%는 '집'으로 가고 32.2%는 '학원'으로 제일 먼저 감
- 특히, 초등 저학년은 24.4%만 '집'으로 가고 30.4%는 '학원'으로 41.5%는 '방과후교실, 돌봄 교실'로 제일 먼저 가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가 끝난 후 '학원'을 보내는 초등저학년 부모의 23.8%는 '학교 후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함

<표 85> 정규수업 후(방과 후) 제일 먼저 가는 곳

단위(명, %)

			전체	집	학교 ¹⁾	학원	돌봄센터 ²⁾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6	644	1,095	802	79	16	2070.782	0.000
		비율	100.0	24.4	41.5	30.4	3.0	0.6		
	초고	학생 수	2,837	1,269	437	1,024	67	40		
		비율	100.0	44.7	15.4	36.1	2.4	1.4		
	중등	학생 수	2,745	1,690	78	904	21	52		
		비율	100.0	61.6	2.8	32.9	0.8	1.9		
	고등	학생 수	1,923	1,060	169	538	13	143		
		비율	100.0	55.1	8.8	28.0	0.7	7.4		
전체 비율	학생 수	10,141	4,663	1,779	3,268	180	251			
	비율	100.0	46.0	17.5	32.2	1.8	2.5			

주: 1) 학교: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2)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표 86> 방과 후 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

단위(명, %)

			전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 후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서	선행 학습을 위해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 (불안해서)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117	937	504	71	30	95	480	1391.173	0.000
		비율	100.0	44.3	23.8	3.4	1.4	4.5	22.7		
	초고	학생 수	2,253	1551	187	75	32	110	298		
		비율	100.0	68.8	8.3	3.3	1.4	4.9	13.2		
	중등	학생 수	2,142	1,839	48	60	23	68	104		
		비율	100.0	85.9	2.2	2.8	1.1	3.2	4.9		
	고등	학생 수	1,274	1139	10	21	15	16	73		
		비율	100.0	89.4	0.8	1.6	1.2	1.3	5.7		
전체 비율	학생 수	7,786	5,466	749	227	100	289	955			
	비율	100.0	70.2	9.6	2.9	1.3	3.7	12.3			

주: 중복응답

주중 사교육

- 주중 역시 78.1%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 대부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초저의 경우 84.5%가 학원을 다니는데 이 중 44.1%는 교과목 학원을 39.6%는 예체능 학원을 다니다 초고가 되면 전체의 63%가 교과목 학원을 17.7%가 예체능 학원을 다님
- 또한, 초저의 64%, 초고의 40.1%는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가는데, 초저의 34.3% 초고의 19.7%가 방과후 학교에서 ‘예체능수업’을 수강하고 있어 초저에서 초고로 올라가면서 학원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포착됨

<표 87>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단위(명, %)	
학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교급	초저	학생 수	2,635	408	1,163	1,043	21	1311.960	0.000
		비율	100.0	15.5	44.1	39.6	0.8		
	초고	학생 수	2,836	517	1,786	502	31		
		비율	100.0	18.2	63.0	17.7	1.1		
	중고	학생 수	2,745	624	1,885	205	31		
		비율	100.0	22.7	68.7	7.5	1.1		
	고등	학생 수	1,924	671	1,102	139	12		
		비율	100.0	34.9	57.3	7.2	0.6		
	전체	학생 수	10,140	2,220	5,936	1,889	95		
		비율	100.0	21.9	58.5	18.6	0.9		

주: 중복응답

<표 88>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단위(명, %)

학습지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별	초 저	학생 수	2,636	1,179	1,377	35	45	351.276	0.000
		비율	100.0	44.7	52.2	1.3	1.7		
	초 고	학생 수	2,836	1,433	1,327	27	49		
		비율	100.0	50.5	46.8	1.0	1.7		
	중 등	학생 수	2,745	1,752	932	28	33		
		비율	100.0	63.8	34.0	1.0	1.2		
	고 등	학생 수	1,923	1,302	575	23	23		
		비율	100.0	67.7	29.9	1.2	1.2		
	전 체	학생 수	10,140	5,666	4,211	113	150		
		비율	100.0	55.9	41.5	1.1	1.5		

주: 중복응답

<표 89> 학교급별 주중에 받고 있는 사교육(방과 후 학교)

단위(명, %)

방과 후 학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별	초 저	학생 수	2,634	949	558	904	223	1628.100	0.000
		비율	100.0	36.0	21.2	34.3	8.5		
	초 고	학생 수	2,837	1,700	373	558	206		
		비율	100.0	59.9	13.1	19.7	7.3		
	중 등	학생 수	2,746	2,248	263	200	35		
		비율	100.0	81.9	9.6	7.3	1.3		
	고 등	학생 수	1,924	1,395	386	81	62		
		비율	100.0	72.5	20.1	4.2	3.2		
	전 체	학생 수	10,141	6,292	1,580	1,743	526		
		비율	100.0	62.0	15.6	17.2	5.2		

주: 중복응답

주말 사교육

- 주말에 우리나라 아이들 중 57.2% 학원을 다녀, 과반수의 아이들이 주말에도 학원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9%는 국영수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음. 또 39.3%는 주말에 학습지(태플릿 PC, 종이)로 공부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말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비율은 감소하고(초저 48.0%, 고등 36.8%), 학습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증가함(초저, 56.7%, 고등 65.4%)

<표 90>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단위(명, %)	
학원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2,635	1,266	623	709	37	852.573	0.000
		비율	100.0	48.0	23.6	26.9	1.4		
	초 고	학생 수	2,836	1,331	1,036	420	49		
		비율	100.0	46.9	36.5	14.8	1.7		
	중 등	학생 수	2,746	1,035	1,438	229	44		
		비율	100.0	37.7	52.4	8.3	1.6		
	고 등	학생 수	1,923	708	1,047	142	26		
		비율	100.0	36.8	54.4	7.4	1.4		
	전 체	학생 수	10,140	4,340	4,144	1,500	156		
		비율	100.0	42.8	40.9	14.8	1.5		

주: 중복응답

<표 91> 학교급별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학습지)

단위(명, %)

학습지			전체	없음	교과목 관련 (국, 영, 수, 과, 사)	예체능	기타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별	초 저	학생 수	2,635	1,495	1,081	24	35	70.823	0.000
		비율	100.0	56.7	41.0	0.9	1.3		
	초 고	학생 수	2,836	1,648	1,108	27	53		
		비율	100.0	58.1	39.1	1.0	1.9		
	중 등	학생 수	2,745	1,756	907	31	51		
		비율	100.0	64.0	33.0	1.1	1.9		
	고 등	학생 수	1,924	1,258	605	28	33		
		비율	100.0	65.4	31.4	1.5	1.7		
	전 체	학생 수	10,140	6,157	3,701	110	172		
		비율	100.0	60.7	36.5	1.1	1.7		

주: 중복응답

4) 관계요인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10분 이상 대화▼, 부모와 공부주제로 대화▲, 집콕 선호비율▲, 고민상담할 사람 없음▲, 부모님께 고민상담▼

대화

- (부모님)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초저(98.3%)에서 고등(83.5%)로 갈수록 비율이 감소함(14.7%p▼)
- (가족 대화주제) 가족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의 37.3%가 '공부, 성적, 장래희망' 등에 대해 주로 대화한다고 응답함. 특히 이 주제로 대화한다는 응답자가 초저(19.5%), 고등(57.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증가하여 38.2%p▲ 더 많아짐

<표 92> 학교급별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

단위(명, %)

			전체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χ^2	유의확률
학교급	초저	학생 수	2634	2588	46	495.365	0.000
		비율	100.0%	98.3%	1.7%		
	초고	학생 수	2836	2755	81		
		비율	100.0%	97.1%	2.9%		
	중등	학생 수	2745	2561	184		
		비율	100.0%	93.3%	6.7%		
	고등	학생 수	1924	1607	317		
		비율	100.0%	83.5%	16.5%		
	전체	학생 수	10139	9511	628		
		비율	100.0%	93.8%	6.2%		

<표 93> 학교급별 가족과의 대화주제

단위(명, %)

			전체	게임, 인터넷, 모바일	공부, 성적, 장래희망	외모	연예인, 방송	나의 기분이나 생각	학교 생활	교우 관계	가족	χ^2	유의 확률
학교급	초저	학생 수	2,635	1,468	514	82	89	397	72	5	8	1128.162	0.000
		비율	100.0	55.7	19.5	3.1	3.4	15.1	2.7	0.2	0.3		
	초고	학생 수	2,835	1,269	864	72	113	309	161	13	34		
		비율	100.0	44.8	30.5	2.5	4.0	10.9	5.7	0.5	1.2		
	중등	학생 수	2,746	891	1,295	44	131	207	119	4	55		
		비율	100.0	32.4	47.2	1.6	4.8	7.5	4.3	0.1	2.0		
	고등	학생 수	1,925	447	1,111	17	85	149	54	5	57		
		비율	100.0	23.2	57.7	0.9	4.4	7.7	2.8	0.3	3.0		
	전체	학생 수	10,141	4,075	3,784	215	418	1,062	406	27	154		
		비율	100.0	40.2	37.3	2.1	4.1	10.5	4.0	0.3	1.5		

주: 중복응답

- **(학교 선생님)** 우리나라 아이들의 49.4%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응답함

<표 94> 학교급별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 대화

단위(명, %)

			전체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572	1,063	142.722	0.000
		비율	100.0	59.7	40.3		
	초고	학생 수	2,836	1,426	1,410		
		비율	100.0	50.3	49.7		
	중등	학생 수	2,746	1,199	1,547		
		비율	100.0	43.7	56.3		
	고등	학생 수	1,924	934	990		
		비율	100.0	48.5	51.5		
	전체	학생 수	10,141	5,131	5,010		
		비율	100.0	50.6	49.4		

(집콕 선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

- **(비율)** 우리나라 아이들 중, 60.8%는 ‘여유시간에 집콕(집에서만 시간 보내기)’을 선호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콕 선호 비율 또한 증가하여 초저(43.9%)에 비해 고등(76.1%)이 32.2%p▲더 집콕을 선호함
- **(이유)** 집콕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초저는 1위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31.6%)’인 반면, 고등(5.0%)으로 갈수록 해당이유는 감소함. 반면, 고등 1위인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33.3%)’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속 증가함

<표 95> 집콕 선호 여부

단위(명, %)

평소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집콕을 선호 한다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	초저	학생 수	1,156	1,479	2,635
		비율	43.9	56.1	100.0
	초고	학생 수	1,625	1,211	2,836
		비율	57.3	42.7	100.0
	중등	학생 수	1,919	826	2,745
		비율	69.9	30.1	100.0
	고등	학생 수	1,463	460	1,923
		비율	76.1	23.9	100.0
전체 비율		학생 수	6,163	3,976	10,139
		비율	60.8	39.2	100.0

<표 96> 학교급별 집콕 선호 이유

단위(명, %)

			전체	친구랑 놀이보다 혼자노는게 재미있어서	용돈이 부족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가족중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타	χ^2	유의 확률
학교급	초저	학생 수	1,156	237	10	212	8	129	365	195	706.187	0.000
		비율	100.0	20.5	0.9	18.3	0.7	11.2	31.6	16.9		
	초고	학생 수	1,625	415	55	405	15	122	326	287		
		비율	100.0	25.5	3.4	24.9	0.9	7.5	20.1	17.7		
	중등	학생 수	1,918	569	150	522	13	83	184	397		
		비율	100.0	29.7	7.8	27.2	0.7	4.3	9.6	20.7		
	고등	학생 수	1,462	487	190	405	3	53	73	251		
		비율	100.0	33.3	13.0	27.7	0.2	3.6	5.0	17.2		
	전체	학생 수	6,161	1,708	405	1,544	39	387	948	1,130		
		비율	100.0	27.7	6.6	25.1	0.6	6.3	15.4	18.3		

(고민상담) 고민 상담하는 사람

- 초저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는 사람 1위가 어머니(62.2%), 2위가 친구(12.3%), 3위가 아버지(9.5%)임
- 중등은 1위가 어머니(46.3%), 2위는 친구(26.2%), 3위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9.7%)'임
- 고등도 중등과 마찬가지로 1위 어머니(33.4%), 2위 친구(32.2%), 3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13.6%)'임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어머니(28.8%p▼), 아버지(2.7%p▼)에 대한 고민상담은 감소하고, 친구(19.9%p▲)와 아예 고민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9%p▲증가함

<표 97> 학교급별 고민상담 대상

단위(명, %)

		전체	이야기 (상담)할 사람이 없음	아버지 (혹은 아버 지 역할을 해주는 보호자)	어머니 (혹은 어머 니 역할을 해주는 보호자)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	친구/ 선후배	학교 선생님 (담임/상담 선생님)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 의 선생님	기타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 저	학생 수	-	-	-	-	-	-	-	-	-	570.425	0.000
		비율	-	-	-	-	-	-	-	-	-		
	초 고	학생 수	2,836	163	269	1,765	128	29	350	63	18		
		비율	100.0	5.7	9.5	62.2	4.5	1.0	12.3	2.2	0.6		
	중 등	학생 수	2,745	266	211	1,271	105	16	720	85	20		
		비율	100.0	9.7	7.7	46.3	3.8	0.6	26.2	3.1	0.7		
	고 등	학생 수	1,923	262	131	642	113	9	619	104	11		
		비율	100.0	13.6	6.8	33.4	5.9	0.5	32.2	5.4	0.6		
	전 체	학생 수	7,504	691	611	3,678	346	54	1,689	252	49		
		비율	100.0	9.2	8.1	49.0	4.6	0.7	22.5	3.4	0.7		

주: 초저는 고민상담 대상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음.

5) 균형시간 인식 요인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면▲과소수면 인식▲, 과소운동 인식▲, 과다미디어 인식▲ 증가

과소수면 인식

- 불면 외에, 실제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낀 아이들은 36.2%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 부족을 느끼는 비율 또한 지속 증가함

<표 98> 학교급별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613	2,022	912.887	0.000
		비율	100.0	23.3	76.7		
	초고	학생 수	2,836	690	2,146		
		비율	100.0	24.3	75.7		
	중등	학생 수	2,745	1,218	1,527		
		비율	100.0	44.4	55.6		
	고등	학생 수	1,923	1,153	770		
		비율	100	60.0	40.0		
	전체	학생 수	10,139	3,674	6,465		
		비율	100.0	36.2	63.8		

과소운동 인식

- 우리나라 아이들의 52.7%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 또한 증가함

<표 99> 학교급별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율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163	1,472	388.852	0.000
		비율	100.0	44.1	55.9		
	초고	학생 수	2,836	1,254	1,582		
		비율	100.0	44.2	55.8		
	중등	학생 수	2,745	1,614	1,131		
		비율	100.0	58.8	41.2		
	고등	학생 수	1,923	1,314	609		
		비율	100.0	68.3	31.7		
	전체	학생 수	10,139	5,345	4,794		
		비율	100.0	52.7	47.3		

과다 미디어 인식

- 우리나라 아이들의 55.8%는 '미디어 사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며, 지속 증가함

<표 100> 학교급별 과도한 미디어 사용

단위(명, %)

			전체	그렇다	아니다	χ^2	유의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5	1,315	1,320	183.538	0.000
		비율	100.0	49.9	50.1		
	초고	학생 수	2,837	1,422	1,415		
		비율	100.0	50.1	49.9		
	중등	학생 수	2,745	1,636	1,109		
		비율	100.0	59.6	40.4		
	고등	학생 수	1,924	1,284	640		
		비율	100.0	66.7	33.3		
	전체	학생 수	10,141	5,657	4,484		
		비율	100.0	55.8	44.2		

6) 기타

- 건강문제로 인한 결석은 초고가 가장▲, 고등이 가장▼. 희망직업은 초저, 중등, 고등 모두 1위는 의료계열(의사, 간호사)이며, 초고는 1위가 운동선수 또는 관련 직업임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

- 우리나라 아이들 중, 34%는 한 달 동안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이 있음

<표 101> 학교급별 결석 여부 및 일수

단위(명, %)

			전체	전혀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유의 확률
학 교 급	초저	학생 수	2,634	1,788	567	233	39	7	110.432	0.000
		비율	100.0	67.9	21.5	8.8	1.5	0.3		
	초고	학생 수	2,836	2,002	556	226	38	14		
		비율	100.0	70.6	19.6	8.0	1.3	0.5		
	중등	학생 수	2,745	1,748	702	200	73	22		
		비율	100.0	63.7	25.6	7.3	2.7	0.8		
	고등	학생 수	1,923	1,155	564	152	33	19		
		비율	100.0	60.1	29.3	7.9	1.7	1.0		
	전체	학생 수	10,138	6,693	2,389	811	183	62		
		비율	100.0	66.0	23.6	8.0	1.8	0.6		

희망직업

- 희망하는 직업유형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미술, 음악 관련 직업’ ‘엔터테인 먼트, 방송인’을 선호하는 편이고 중고등학생일수록 ‘교육 계열’ ‘공무원’ ‘의료계열’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 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2. 상·하위지역 비교
3. 미디어 여가와 온라인 학교폭력





아동행복지수 관련 영향 요인 분석

1. 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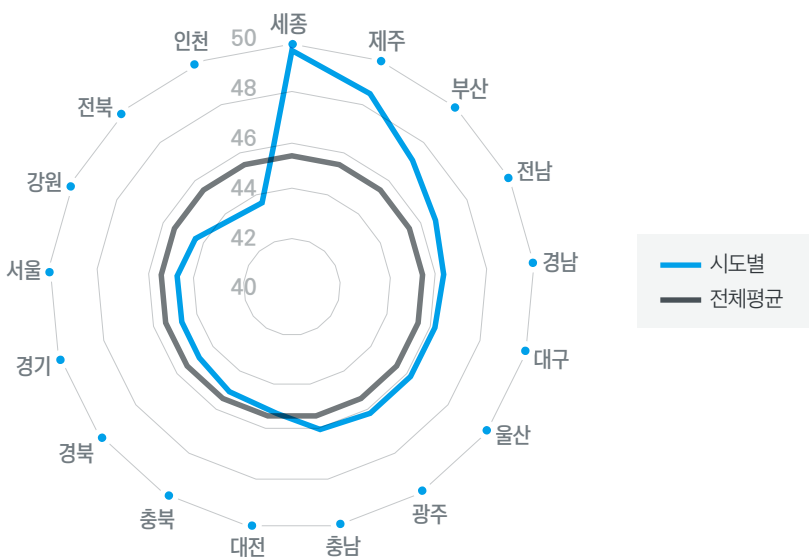
1) 아동행복지수 비교

- 아동행복지수의 전국 평균은 45.3점이며, 1위 세종(49.8점)과 17위 인천(43.7점)은 6.1점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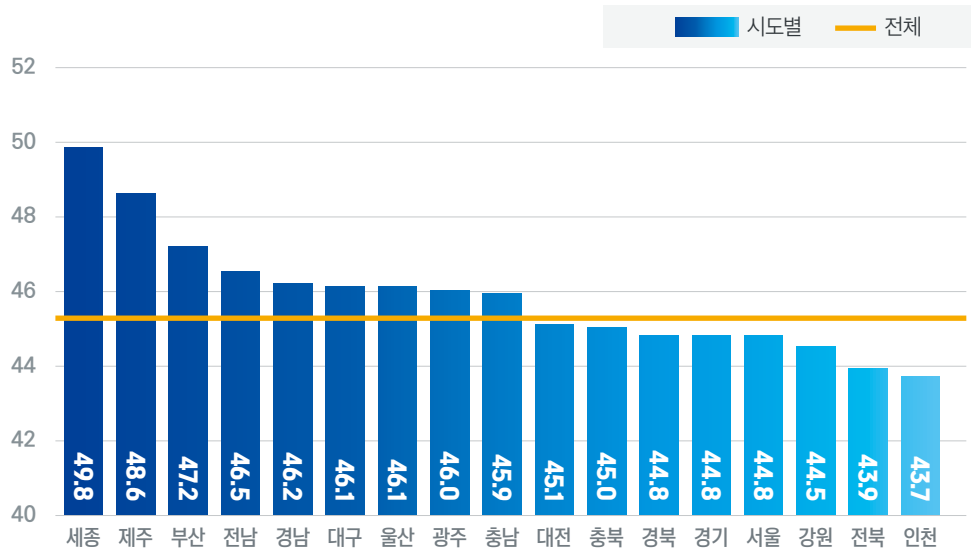
아동행복지수

- 아동행복지수의 전체 평균은 45.3점이며, 아동행복지수 1위는 세종(49.8점), 17위는 인천(43.7점)으로 세종이 인천보다 아동행복지수가 6.1점▲ 더 높음

[그림 40]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방사형)



[그림 41]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막대형)



<표 103>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및 순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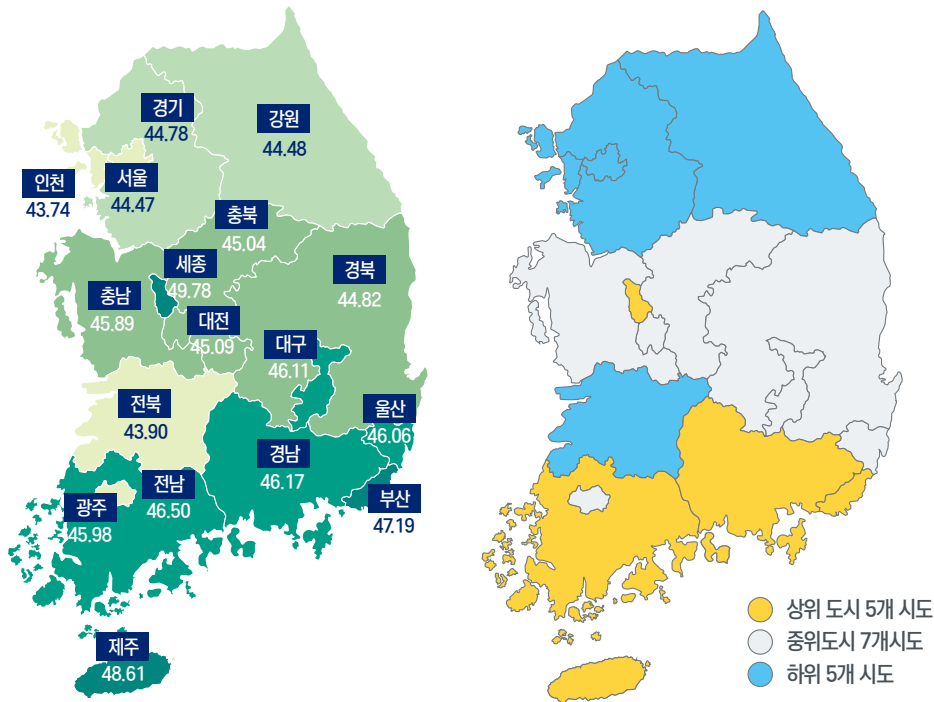
순위 지역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아동 행복 지수	45.3	49.8	48.6	47.2	46.5	46.2	46.1	46.1	46	45.9	45.1	45	44.8	44.8	44.8	44.5	43.9	43.7

주: 1) '아동행복지수 = 권장기준 충족영역의 합계. 이는 아동·청소년이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주요 4개 생활 영역 중에서 '권장(적정)'기준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내는 즉,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의 개수를 합산해 '아동행복지수'로 산출함

2) 아동행복지수 산출기준표 (행복지수는 총 100점 만점)

3) 지수가 조사된 시점은 2023년 11월~12월임

[그림 4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상·중·하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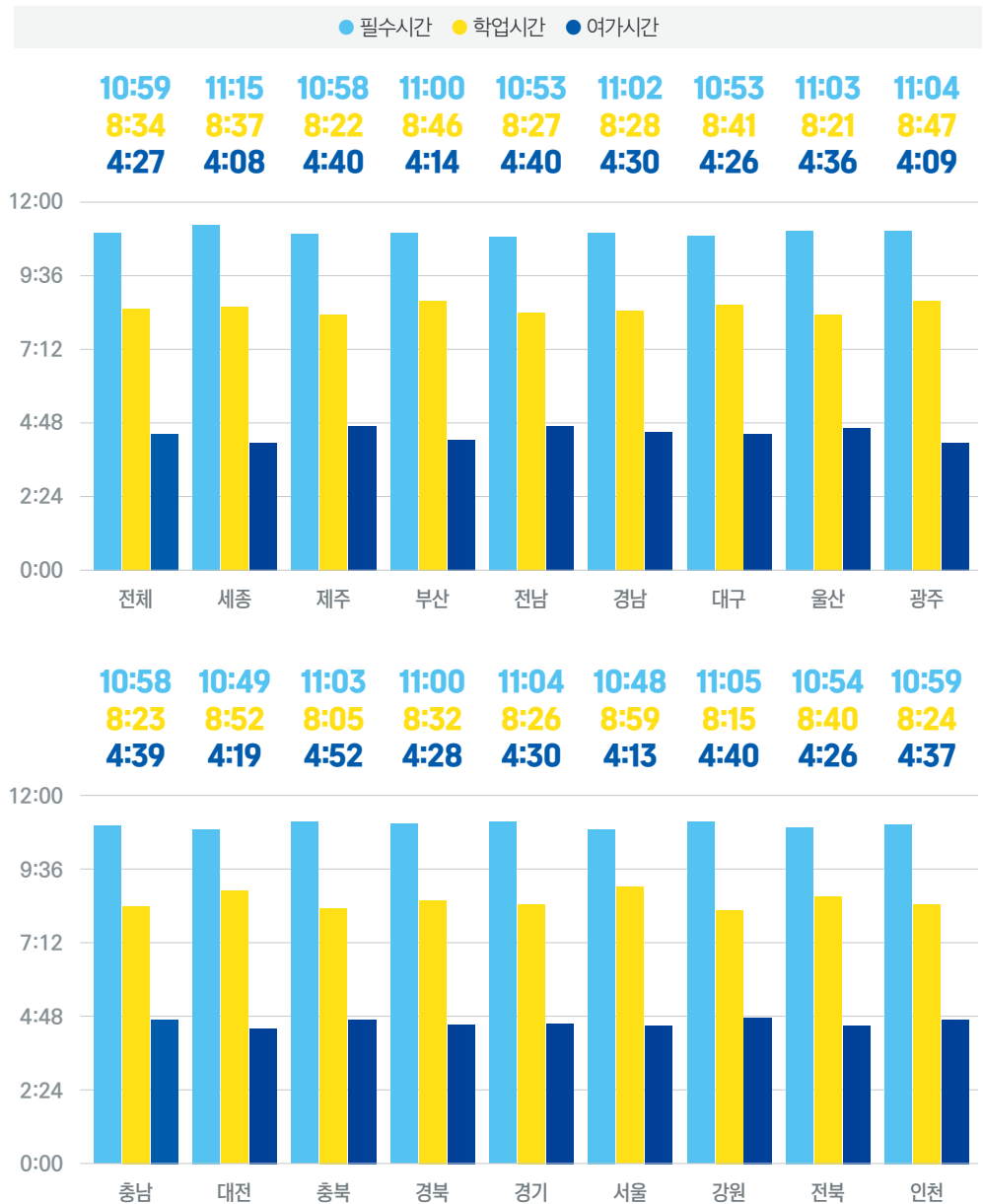
2) 아이들의 하루 일상 차이

- 전반적인 하루 생활시간 비교에서는 세종이 인천보다 여가시간이 29분▼낮지만 대면교제(23분▲), 미디어 여가(38분▼)임

전반적인 생활시간

- 아동행복지수 1위 도시인 세종은 필수시간이 11시간 15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시간은 평균과 비슷하고, 여가시간은 가장 낮은 4시간 8분임
- 세종과 인천을 비교하면, 세종이 수면(14분▲), 학교수업(14분▲), 학교수업 외 학습(1분▼) 차이가 나며, 특히 대면교제(23분▲), 미디어 여가(38분▼)으로 전체 여가시간은 인천보다 29분▼낮지만 대면교제 시간은 높고 미디어 여가시간은 낮음

[그림 43]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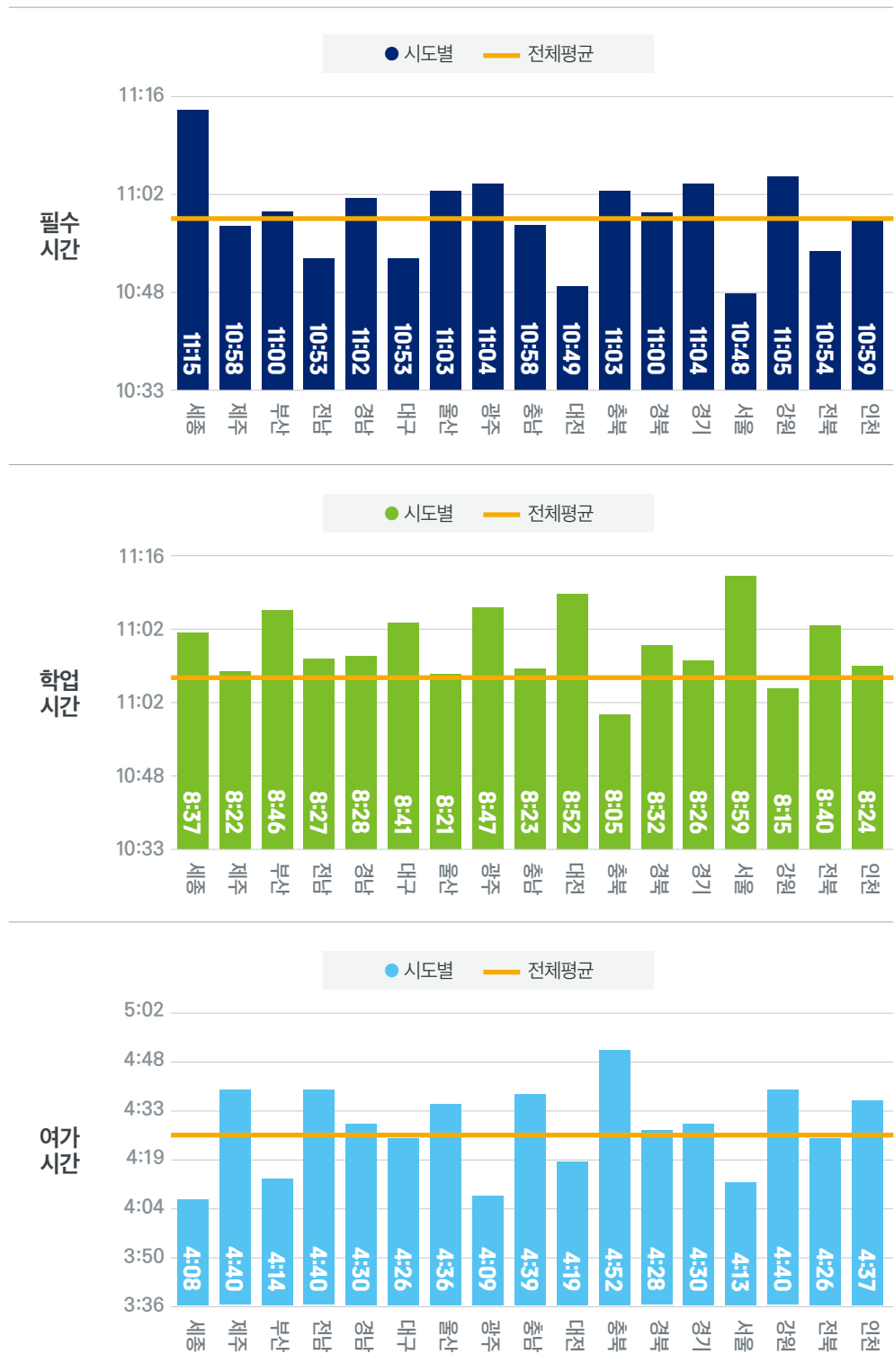
<표 10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단위(시간,분)

	전체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필수시간	10:59	11:15	10:58	11:00	10:53	11:02	10:53	11:03	11:04
수면	8:25	8:35	8:23	8:27	8:25	8:26	8:21	8:35	8:32
식사	1:55	1:59	1:59	1:57	1:49	1:56	1:55	1:49	1:57
개인유지	0:39	0:41	0:36	0:36	0:39	0:40	0:37	0:39	0:35
학업시간	8:34	8:37	8:22	8:46	8:27	8:28	8:41	8:21	8:47
학교수업	5:49	5:53	6:04	5:52	6:11	5:55	5:54	5:49	6:04
학교수업 외 학습	2:45	2:44	2:18	2:54	2:16	2:33	2:47	2:32	2:43
여가시간	4:27	4:08	4:40	4:14	4:40	4:30	4:26	4:36	4:09
대면교제	0:52	1:09	1:01	0:47	0:47	0:49	0:56	0:58	0:47
미디어 외 여가	0:27	0:22	0:36	0:25	0:29	0:26	0:27	0:25	0:23
미디어 여가	1:49	1:23	1:31	1:38	2:06	1:56	1:46	1:55	1:43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15	0:18	0:23	0:18	0:17	0:19	0:16	0:1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2	0:28	0:20	0:24	0:22	0:21	0:22	0:23
기타	0:40	0:37	0:46	0:41	0:36	0:40	0:37	0:40	0:37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필수시간	10:58	10:49	11:03	11:00	11:04	10:48	11:05	10:54	10:59
수면	8:26	8:16	8:27	8:25	8:29	8:14	8:31	8:22	8:21
식사	1:51	1:56	1:54	1:54	1:56	1:56	1:50	1:51	1:57
개인유지	0:41	0:37	0:42	0:41	0:39	0:38	0:44	0:41	0:41
학업시간	8:23	8:52	8:05	8:32	8:26	8:59	8:15	8:40	8:24
학교수업	5:51	6:04	5:45	6:08	5:35	5:51	5:50	6:11	5:39
학교수업 외 학습	2:32	2:48	2:20	2:24	2:51	3:08	2:25	2:29	2:45
여가시간	4:39	4:19	4:52	4:28	4:30	4:13	4:40	4:26	4:37
대면교제	0:55	0:50	1:03	0:50	0:54	0:47	0:51	0:54	0:46
미디어 외 여가	0:27	0:27	0:22	0:25	0:28	0:30	0:23	0:25	0:31
미디어 여가	1:57	1:44	2:02	1:56	1:49	1:36	2:05	1:55	2:01
운동 및 신체활동	0:18	0:17	0:18	0:18	0:15	0:15	0:18	0:12	0:1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2	0:20	0:28	0:22	0:23	0:25	0:22	0:21	0:25
기타	0:40	0:41	0:39	0:37	0:41	0:40	0:41	0:39	0:38

*초등저학년 포함

[그림 44] 17개 시도별 주요시간(영역별)



3) 주요시간 균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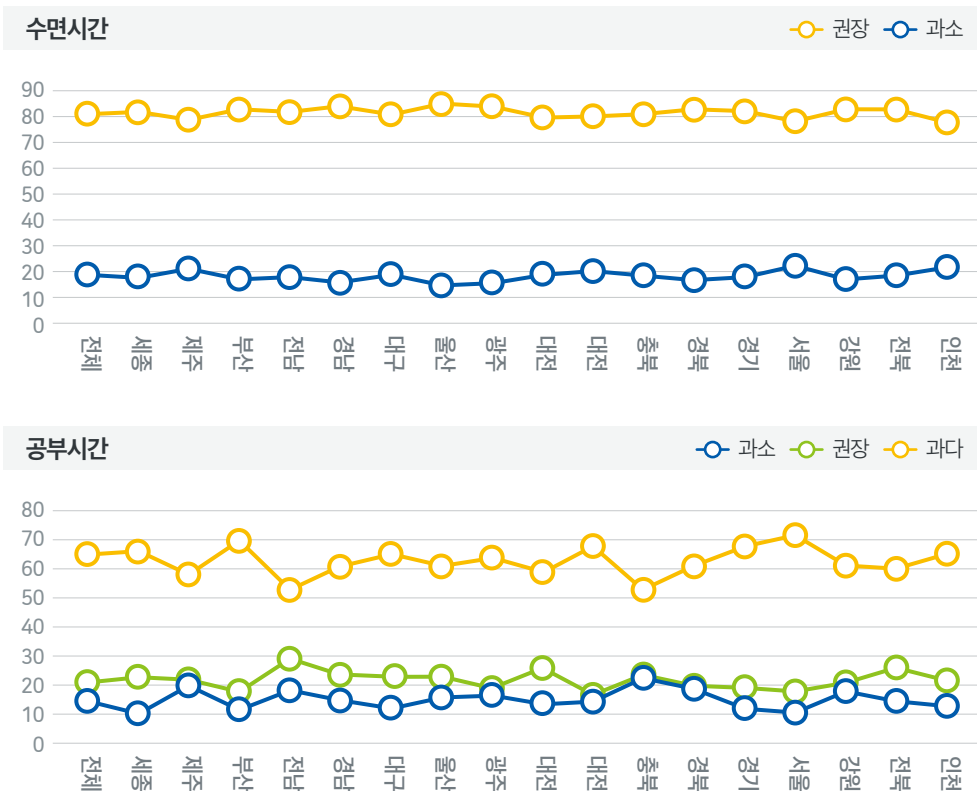
- 시간의 균형 수준을 보면, 수면시간은 대부분 '권장' 수준이며, 공부는 '과다' 비율이 높음

주요시간 균형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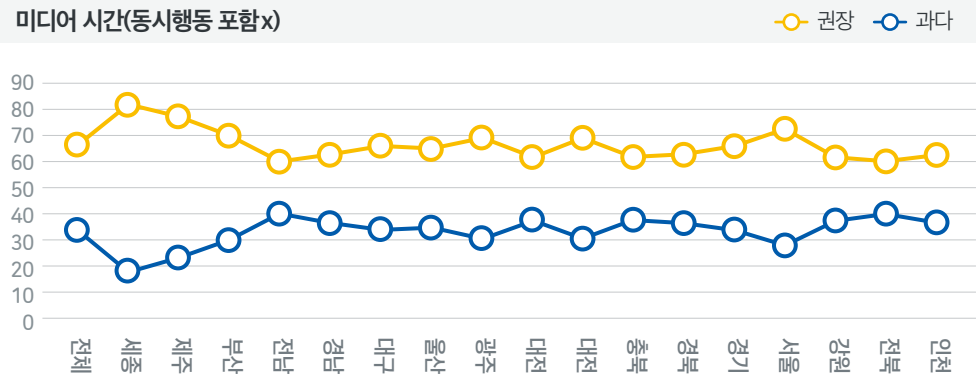
- (수면) 대부분 '권장' 수준이나 서울과 인천 각 22%로 과소수면 비율이 높음
- (공부) 전국적으로 '과다'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72%), 부산(70%)이 높음
- (미디어) '과다' 비율은 충북과 강원이 각 38%로 가장 높고 세종(18%)이 가장 낮으며, 학습과 같은 다른 주 행동과 함께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전반적으로 과다 비율이 증가함. 특히 강원이 15%p▲ 증가하며, 50%로 가장 높음
- (운동) 전국적으로 '과소'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제주(16%)와 부산(18%)이 '권장'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함

[그림 45] 17개 시도별 주요시간 균형정도(꺾은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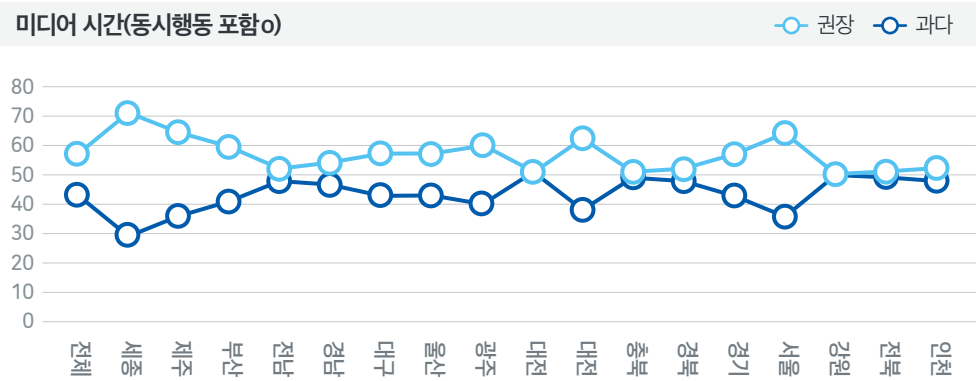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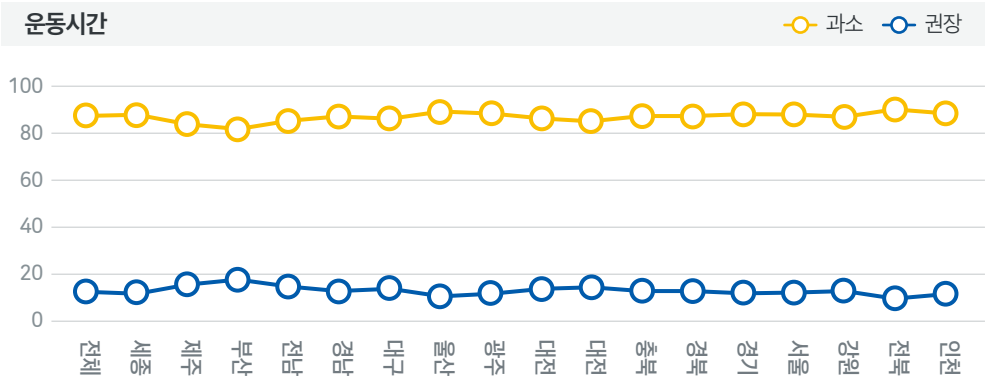
미디어 시간(동시행동 포함x)



미디어 시간(동시행동 포함o)



운동시간



<표 105-1>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단위(명, %)

아동행복지수		수면시간권장				공부시간과다			
		(전체)	과소	권장	과다	(전체)	과소	권장	과다
전체	학생 수	10,140	1,902	8,223	15	10,140	1,424	2,118	6,598
	비율	100	19	81	0	100	14	21	65
세종	학생 수	120	21	99	-	120	13	27	80
	비율	100	18	82	-	100	11	23	66
제주	학생 수	157	33	124	-	157	32	34	91
	비율	100	21	79	-	100	20	22	58
부산	학생 수	584	101	482	1	584	71	106	408
	비율	100	17	83	0	100	12	18	70
전남	학생 수	342	60	28	-	342	62	99	181
	비율	100	18	82	-	100	18	29	53
경남	학생 수	696	111	582	3	696	101	169	426
	비율	100	16	84	0	100	15	24	61
대구	학생 수	465	88	377	-	465	58	107	300
	비율	100	19	81	-	100	12	23	65
울산	학생 수	245	36	209	-	245	39	56	150
	비율	100	15	85	-	100	16	23	61
광주	학생 수	316	50	264	2	316	55	60	201
	비율	100	16	84	0	100	17	19	64
충남	학생 수	442	86	355	1	442	62	120	261
	비율	100	19	80	0	100	14	27	59
대전	학생 수	294	58	235	1	294	45	50	199
	비율	100	20	80	0	100	15	17	68
충북	학생 수	312	60	252	-	312	71	76	166
	비율	100	19	81	-	100	23	24	53
경북	학생 수	473	79	393	1	473	89	96	288
	비율	100	17	83	0	100	19	20	61
경기	학생 수	2,914	531	2,380	3	2,914	379	564	1,971
	비율	100	18	82	0	100	13	19	68
서울	학생 수	1,560	343	1,213	3	1,560	166	278	1,117
	비율	100	22	78	0	100	11	18	72
강원	학생 수	276	47	229	-	276	51	57	168
	비율	100	17	83	-	100	18	21	61
전북	학생 수	346	67	279	-	346	51	88	207
	비율	100	19	81	-	100	15	26	60
인천	학생 수	598	130	468	-	598	79	132	387
	비율	100	22	78	-	100	13	2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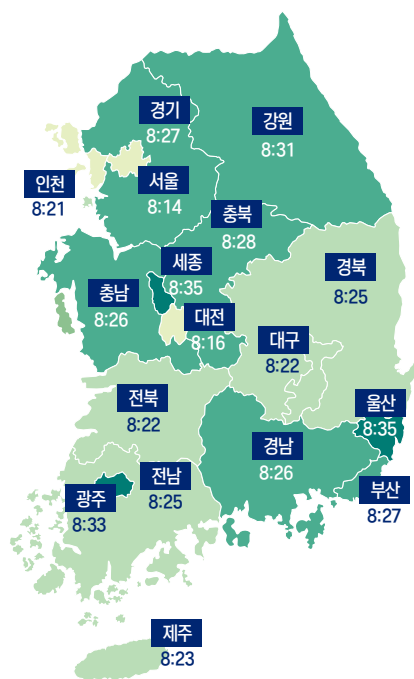
<표 105-2> 17개 시도별 균형생활시간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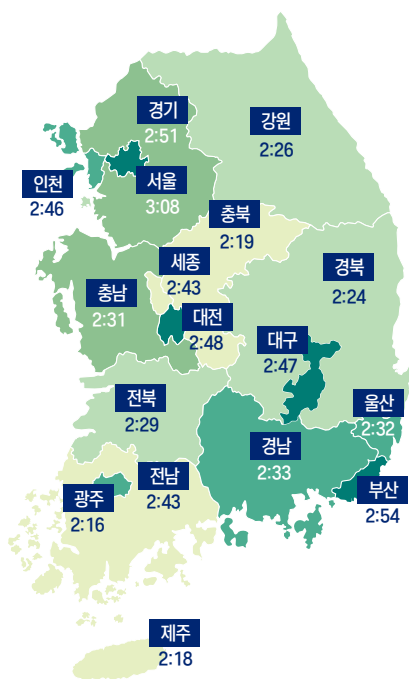
아동행복지수		미디어시간					운동시간		
		(전체)	권장		과다		(전체)	과소	권장
			동시X	동시O	동시X	동시O			
전체	학생 수	10,140	6,728	5,776	3,412	4,364	10,140	8,840	1,300
	비율	100	66	57	34	43	100	87	13
세종	학생 수	120	98	85	22	35	120	105	15
	비율	100	82	71	18	29	100	88	12
제주	학생 수	157	121	101	36	56	157	132	25
	비율	100	77	64	23	36	100	84	16
부산	학생 수	584	408	342	176	242	584	477	107
	비율	100	70	59	30	41	100	82	18
전남	학생 수	342	205	178	137	164	342	292	50
	비율	100	60	52	40	48	100	85	15
경남	학생 수	696	441	375	255	321	696	602	94
	비율	100	63	54	37	46	100	87	13
대구	학생 수	465	309	266	156	199	465	400	65
	비율	100	66	57	34	43	100	86	14
울산	학생 수	245	159	140	86	105	245	217	28
	비율	100	65	57	35	43	100	89	11
광주	학생 수	316	219	191	97	125	316	278	38
	비율	100	69	60	31	40	100	88	12
충남	학생 수	442	273	224	169	218	442	378	64
	비율	100	62	51	38	49	100	86	14
대전	학생 수	294	202	183	92	111	294	250	44
	비율	100	69	62	31	38	100	85	15
충북	학생 수	312	194	160	118	152	312	272	40
	비율	100	62	51	38	49	100	87	13
경북	학생 수	473	297	248	176	225	473	410	63
	비율	100	63	52	37	48	100	87	13
경기	학생 수	2,914	1,930	1,665	984	1,249	2,914	2,568	346
	비율	100	66	57	34	43	100	88	12
서울	학생 수	1,560	1,118	991	442	569	1,560	1,375	185
	비율	100	72	64	28	36	100	88	12
강원	학생 수	276	170	137	106	139	276	241	35
	비율	100	62	50	38	50	100	87	13
전북	학생 수	346	208	176	138	170	346	313	33
	비율	100	60	51	40	49	100	90	10
인천	학생 수	598	375	313	223	285	598	527	71
	비율	100	63	52	37	48	100	88	12

주: '동시O'는 동시행동 포함 (공부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한 것) '동시X'는 동시행동 미디어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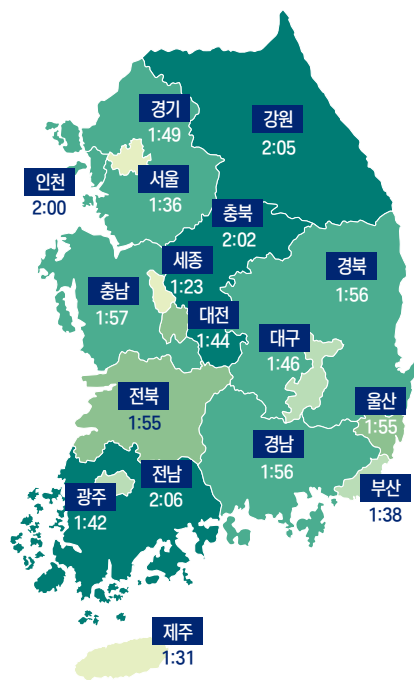
[그림 46] 17개 시도별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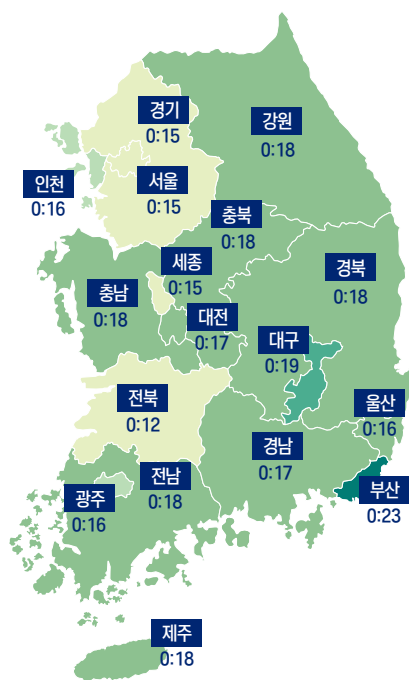
[그림 47] 17개 시도별 공부시간



[그림 48]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그림 49] 17개 시도별 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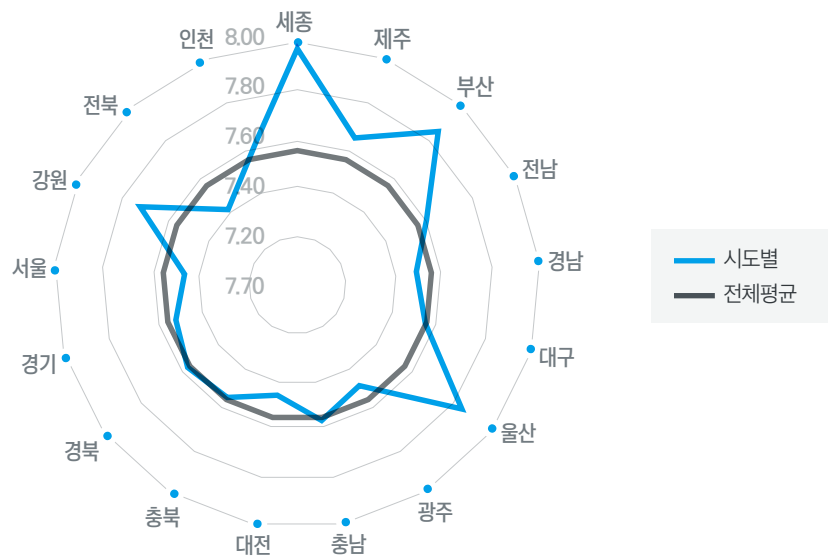
4) 주관적 행복감

- 주관적 행복감은 전국 평균 7.55점이며, 아동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세종’이 아동행복지수 또한 8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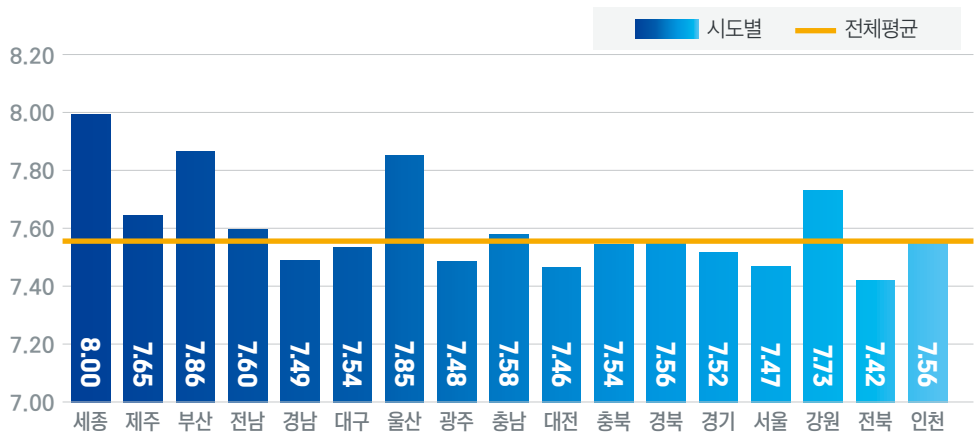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감

-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7.55점(10점 만점)을 차지함
-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는 ‘아동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8점)이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전북(7.42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주관적 행복감은 0.58점 차이임
- 이러한 각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t=2.367^{**}$, $p<.01$)

[그림 50]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방사형)



[그림 51]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막대형)



<표 106>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감 단위(명, 점)

	학생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전체	10,140	7.55	1.92		
세종	120	8.00	1.75		
제주	157	7.65	2.11		
부산	584	7.86	1.84		
전남	342	7.60	2.02		
경남	696	7.49	1.97		
대구	465	7.54	2.02		
울산	245	7.85	1.63		
광주	316	7.48	1.99	2.367	0.002
충남	442	7.58	1.91		
대전	294	7.46	2.00		
충북	312	7.54	1.88		
경기	2,914	7.52	1.90		
서울	1,560	7.47	1.94		
강원	276	7.73	1.83		
전북	346	7.42	2.05		
인천	598	7.56	1.99		

2. 상·하위지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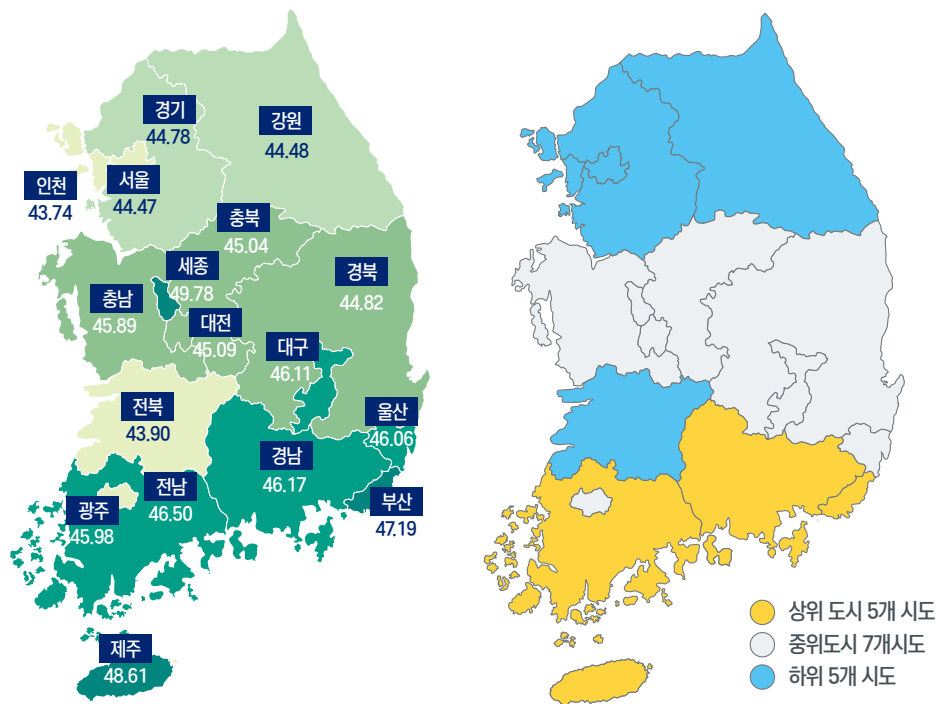
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 순위

- 아동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상위 5개 지역(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하위 5개 지역(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을 선정함. 상위지역의 아동행복지수 평균이 3.4점▲

상하위 지역 선정

-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을 선정함
- 상위지역은 세종(49.8점), 제주(48.6점), 부산(47.2점), 전남(46.5점), 경남(46.2점)이며 하위 지역은 경기(44.8점), 서울(44.8점), 강원(44.5점), 전북(43.9점), 인천(43.7점)임
- 아동행복지수 전체 17개 시도별 평균은 45.3점으로 1위 지역인 세종(49.8점)은 4.5점 더 높으며, 17위 지역인 인천(43.7점)은 1.6점▼ 더 낮음

[그림 5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중위, 하위 지역



<표 107> 17개 시도별 행복지수 및 순위 단위(시도, 점)

시도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순위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아동 행복지수	45.3	49.8	48.6	47.2	46.5	46.2	46.1	46.1	46.0	45.9	45.1	45.0	44.8	44.8	44.8	44.5	43.9	43.7

주: 시간 계산에 포함된 행동코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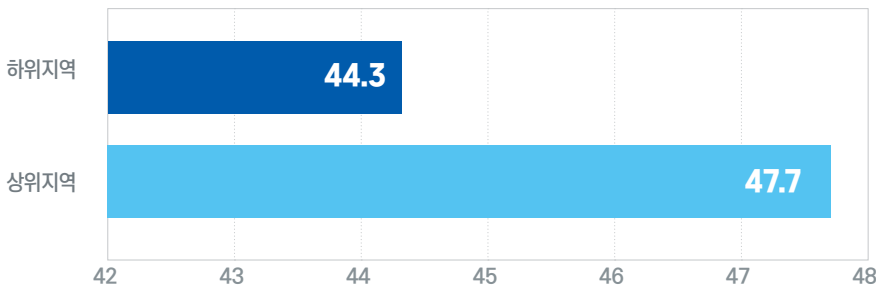
<표 107>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 상위, 하위 5개 지역 선정지역 단위(시도, 점)

구분	상위지역	구분	하위지역
1위	세종(49.8)	13위	경기(44.8)
2위	제주(48.6)	14위	서울(44.8)
3위	부산(47.2)	15위	강원(44.5)
4위	전남(46.5)	16위	전북(43.9)
5위	경남(46.2)	17위	인천(43.7)

아동행복지수

- 상·하위지역의 아동행복지수 평균 점수 비교 결과, 하위지역 44.3점, 상위지역 47.7점으로 상위지역이 3.4점▲ 더 높음.
- 상위지역일수록 아동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가짐($p<.05$)

[그림 53]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평균비교 단위(점)



<표 109> 상·하위지역별 아동행복지수 비교

단위(명, 점)

아동행복지수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하위지역	5,694	44.3	21.35	-4.148	0.000
상위지역	1,899	47.7	21.67		

<표 110> 상·하위지역과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구분	아동행복지수
상관관계	.025*

***p<.001, **p<.01. *p<.05

2) 상·하위지역 간의 하루 일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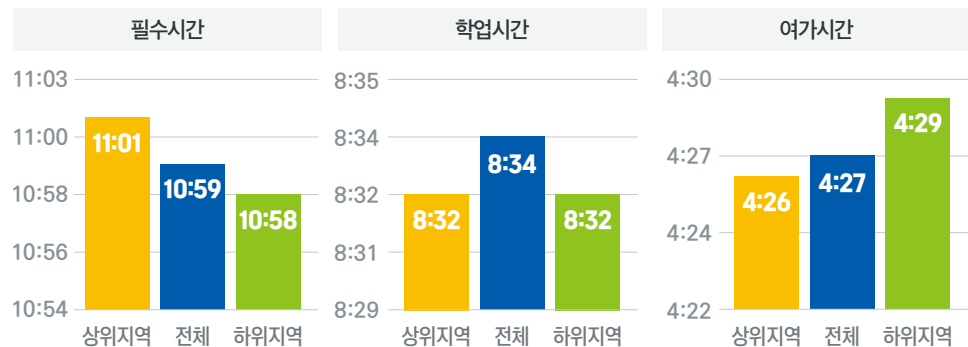
- 하위지역은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은 10분▲, 미디어 여가시간은 11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생활시간

- 상위지역이 학교수업(10분▲), 학교수업 외 학습(10분▼), 미디어 여가시간은(11분▼) 차이를 보임

[그림 54]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시간:분)



<표 111> 17개 시도별 및 상·하위지역별 주요시간

단위(명,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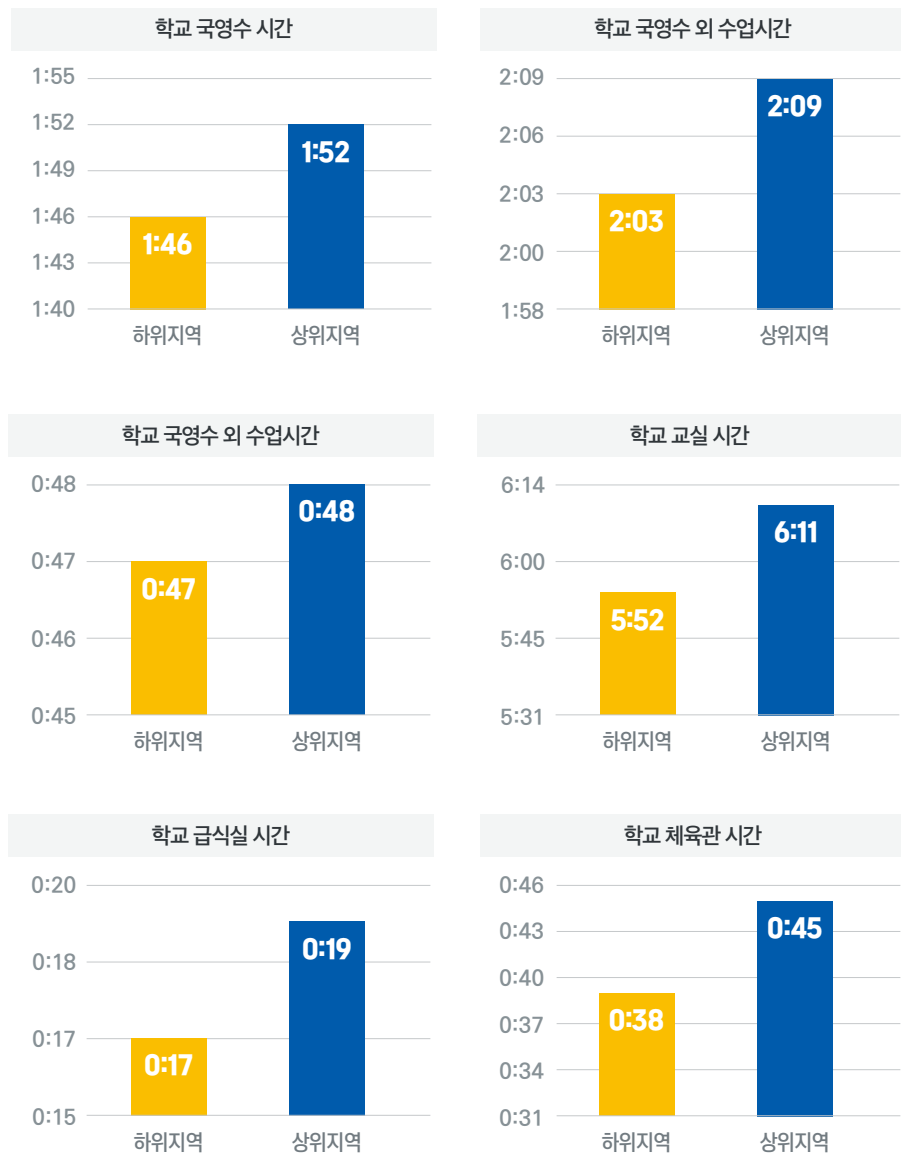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						전체 평균
	세종	제주	부산	전남	경남	평균	
필수시간	11:15	10:58	11:00	10:53	11:02	11:01	10:59
수면	8:35	8:23	8:27	8:25	8:26	8:27	8:25
식사	1:59	1:59	1:57	1:49	1:56	1:56	1:55
개인유지	0:41	0:36	0:36	0:39	0:40	0:38	0:39
학업시간	8:37	8:22	8:46	8:27	8:28	8:32	8:34
학교수업	5:53	6:04	5:52	6:11	5:55	5:59	5:49
학교수업 외 학습	2:44	2:18	2:54	2:16	2:33	2:33	2:45
여가시간	4:08	4:40	4:14	4:40	4:30	4:26	4:27
대면교제	1:09	1:01	0:47	0:47	0:49	0:54	0:52
미디어 외 여가	0:22	0:36	0:25	0:29	0:26	0:27	0:27
미디어 여가	1:23	1:31	1:38	2:06	1:56	1:42	1:49
운동 및 신체활동	0:15	0:18	0:23	0:18	0:17	0:18	0:1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2	0:28	0:20	0:24	0:22	0:23	0:23
기타	0:37	0:46	0:41	0:36	0:40	0:40	0:40
아동행복지수	하위지역						상위-하위 평균차이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인천	평균	
필수시간	11:04	10:48	11:05	10:54	10:59	10:58	0:03
수면	8:29	8:14	8:31	8:22	8:21	8:23	0:04
식사	1:56	1:56	1:50	1:51	1:57	1:54	0:02
개인유지	0:39	0:38	0:44	0:41	0:41	0:40	0:02
학업시간	8:26	8:59	8:15	8:40	8:24	8:32	0:00
학교수업	5:35	5:51	5:50	6:11	5:39	5:49	0:10
학교수업 외 학습	2:51	3:08	2:25	2:29	2:45	2:43	0:10
여가시간	4:30	4:13	4:40	4:26	4:37	4:29	0:03
대면교제	0:54	0:47	0:51	0:54	0:46	0:50	0:04
미디어 외 여가	0:28	0:30	0:23	0:25	0:31	0:27	0:00
미디어 여가	1:49	1:36	2:05	1:55	2:01	1:53	0:11
운동 및 신체활동	0:15	0:15	0:18	0:12	0:16	0:15	0:03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5	0:22	0:21	0:25	0:23	0:00
기타	0:41	0:40	0:41	0:39	0:38	0:39	0:01

학교시간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국영수시간(5분▲), 국영수 외(6분▲), 쉬는시간(1분▲) 더 길, 이외에 장소에 따라 학교 교실(18분▲), 급식실(2분▲), 체육관(7분▲), 기타장소시간(7분▲) 모두 더 길며 이러한 차이들은 유의함($p<.001$, $p<.01$.)

[그림 5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시간:분)



<표 11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시간 차이 및 상관관계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시간	학교 국영수 시간	하위지역	5,694	1:46	0:51	-3.954	0.000
		상위지역	1,899	1:52	0:48		
	학교 국영수 외 수업시간	하위지역	5,694	2:03	1:13	-3.205	0.001
		상위지역	1,899	2:09	1:10		
	학교 쉬는시간	하위지역	5,694	0:47	0:17	-3.782	0.000
		상위지역	1,899	0:48	0:19		
장소	학교 교실시간	하위지역	5,694	5:52	1:42	-6.328	0.000
		상위지역	1,899	6:11	1:50		
	학교 급식실 시간	하위지역	5,694	0:17	0:20	-4.714	0.000
		상위지역	1,899	0:19	0:22		
	학교 체육관 시간	하위지역	5,694	0:38	0:52	-5.090	0.000
		상위지역	1,899	0:45	0:55		
	학교 기타시간	하위지역	5,694	0:24	1:27	-2.863	0.004
		상위지역	1,899	0:32	1:44		
구분	시간			장소			
	국영수	국영수 외	쉬는시간	교실	급식실	체육관	기타장소
상관계수	.044**	.036**	.045**	.075**	.057**	.058**	.036**

***p<.001, **p<.01, *p<.05

학교 외 학습시간

- 상위지역이 학교시간이 더 길었던 것에 비해, 학교 외 학습시간의 경우 사교육시간(10분▼), 학원시간(8분▼), 학원 및 과외(국영수)시간(6분▼), 혼자공부시간(7분▼), 학습용 미디어시간(6분▼) 더 낮아 사교육 시간은 하위지역이 더 길

[그림 5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시간:분)



<표 11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사교육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교육시간 ¹⁾	하위지역	5,694	1:40	1:30	4.220	0.000
	상위지역	1,899	1:30	1:27		
학원시간	하위지역	5,694	1:31	1:28	3.547	0.000
	상위지역	1,899	1:23	1:26		
학원/과외 국영수 시간	하위지역	5,694	0:47	1:22	4.405	0.000
	상위지역	1,899	0:41	1:12		
혼자 공부시간	하위지역	5,694	1:20	1:41	2.956	0.003
	상위지역	1,899	1:12	1:34		
학습용 미디어시간 ²⁾	하위지역	5,694	0:47	1:22	3.032	0.002
	상위지역	1,899	0:41	1:12		

주: 1) 사교육시간: 학원, 과외, 학습지, 방송, 온라인 수업시간 전체
2) 학습용 미디어시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

<표 11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시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교육	학원	국영수 (학원/과외)	혼자공부	학습용 미디어
상관계수	-.048**	-.040**	-.048**	-.033**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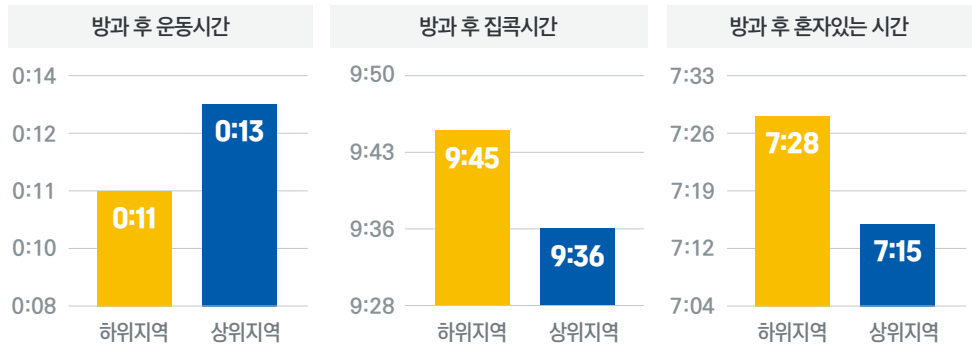
***p<.001, **p<.01, *p<.05

방과 후 시간

- 상위지역 아이들이 하위지역 아이들보다 방과 후 운동시간(2분▲), 방과 후 집콕 시간(9분▼)과 혼자있는 시간(13분▼) 차이를 보임

[그림 5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시간:분)



<표 11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방과 후 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방과 후 운동시간	하위지역	5,694	0:11	0:30	-2.478	0.013
	상위지역	1,899	0:13	0:32		
방과 후 집콕시간	하위지역	5,693	9:45	2:34	2.225	0.026
	상위지역	1,899	9:36	2:29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하위지역	5,694	7:28	2:30	3.181	0.001
	상위지역	1,899	7:15	2:29		

<표 11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방과 후 시간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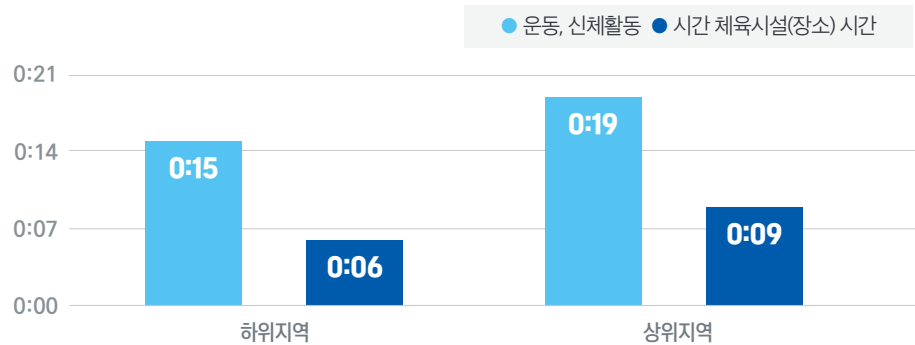
구분	방과 후 운동시간	방과 후 집콕시간	방과 후 혼자있는 시간
상관계수	.029*	-.026*	-.036**

***p<.001, **p<.01, *p<.05

운동시간

- 상위지역 아이들일수록 방과 후 운동시간과 같이 운동, 신체활동 시간은 4분▲, 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 또한 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시간:분)



<표 11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운동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운동, 신체활동 시간	하위지역	5,694	0:15	0:35	-3.665	0.000
	상위지역	1,899	0:19	0:38		
체육시설(장소) 시간	하위지역	5,694	0:06	0:24	-2.988	0.003
	상위지역	1,899	0:09	0:29		

<표 11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운동시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운동, 신체활동 시간	체육시설(장소) 시간
상관계수	.044**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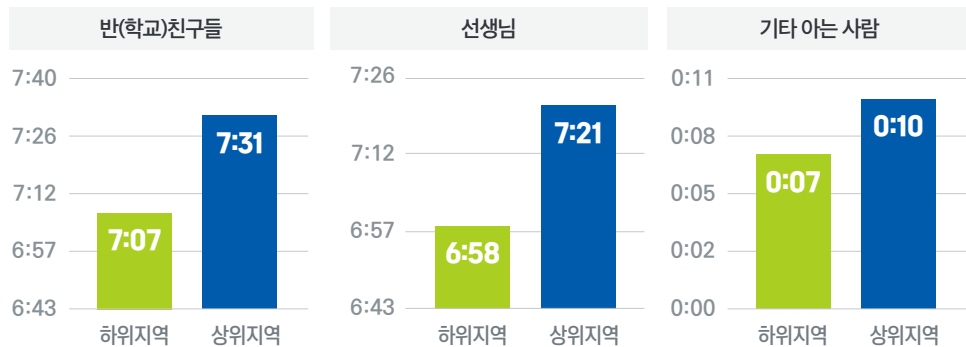
***p<.001, **p<.01, *p<.05

함께한 사람

-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또한, 반(학교)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하위지역(7시간 7분), 상위지역(7시간 31분)으로 24분▲, 선생님과 의 시간 하위지역(6시간 58분), 상위지역(7시간 21분) 23분▲, 기타 아는 사람과의 시간 하위지역(7분), 상위지역(10분)으로 3분▲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또한 상위지역이 더 길

[그림 5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시간:분)



<표 11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 시간 비교

단위(명,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새벽에 혼자 ¹⁾	하위지역	5,694	12:03	5:16	4.982	0.000
	상위지역	1,899	11:21	5:14		
반(학교)친구들	하위지역	5,694	7:07	1:57	-7.760	0.000
	상위지역	1,899	7:31	2:02		
선생님 ²⁾	하위지역	5,694	6:58	1:53	1.249	0.000
	상위지역	1,899	7:21	1:51		
기타 아는사람 ³⁾	하위지역	5,694	0:07	0:40	-2.037	0.042
	상위지역	1,899	0:10	0:49		
	새벽에 혼자	반(학교)친구들	선생님	기타 아는사람		
상관계수	-.057**		.089**	.088**	.026*	

***p<.001, **p<.01, *p<.05

주: 1) 새벽에 혼자: 새벽인 0시부터 새벽3시까지 혼자 있는 시간 양

2) 선생님: 학교, 학원, 과외, 센터의 모든 선생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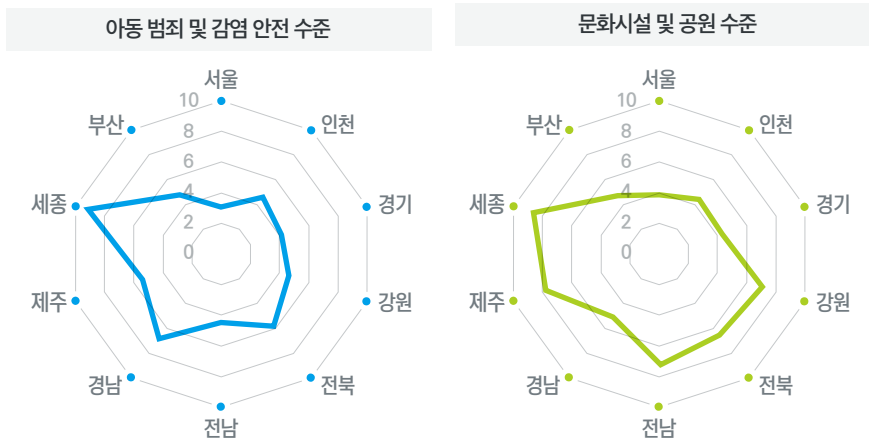
3) 기타 아는사람: 선생님, 가족, 친척, 친구, 온라인 친구, 오프라인 친구, 반 친구 외에 아는 사람

3) 상·하위지역 아동행복지수 촉진·저해 요인

① 지역 인프라 요인

- 상·하위지역의 지역 환경요인을 비교하고자, 각 분야별 인프라 비교 결과, 상위 지역이 경제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인구인프라, 안전인프라 모두에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지역과의 차이가 모두 유의함($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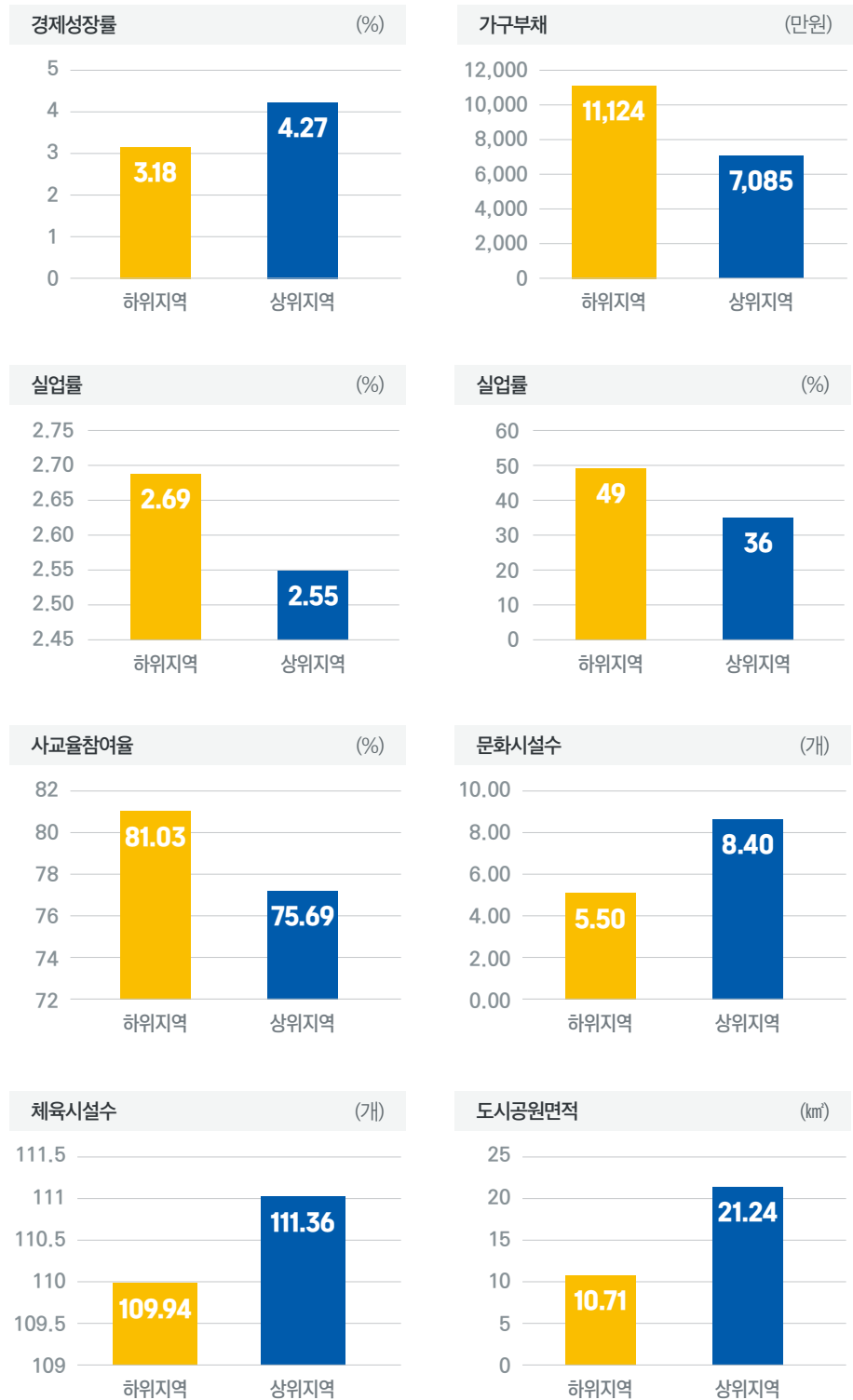
[그림 60] 상·하위 지역별 안전 및 문화 인프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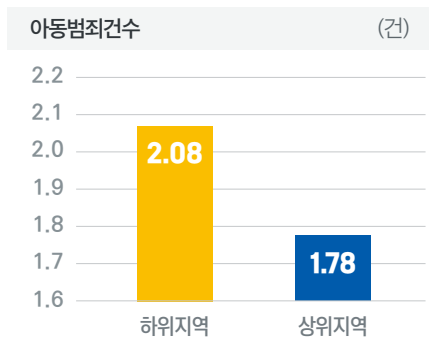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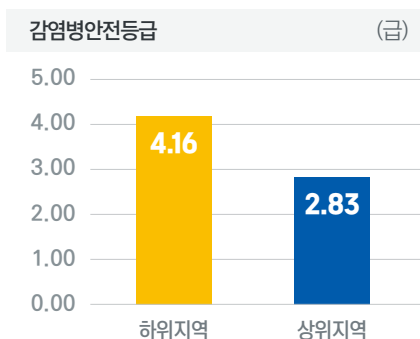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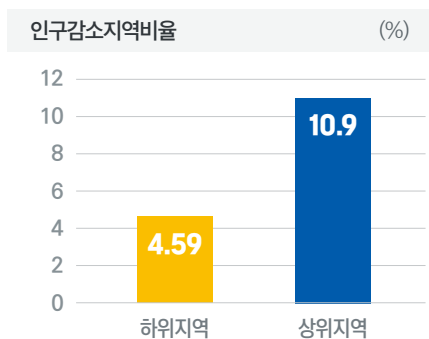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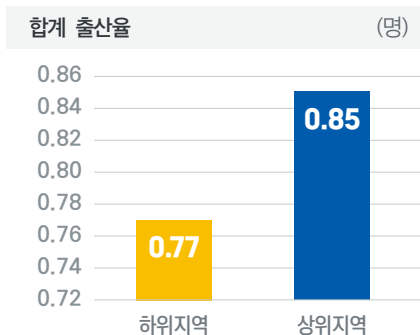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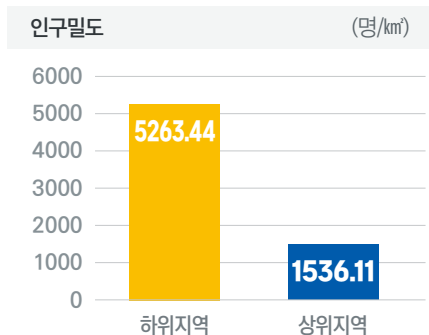


상·하위지역 인프라 비교

- (경제인프라)**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경제성장률(1.09점▲), 가구부채(4,039만원▼), 실업률(0.14%p▼)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1$)
- (교육인프라)** 상위지역이 사교육비(13만원▼), 사교육 참여율(5.34%p▼)으로, 하위지역의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되었음을 알 수 있음($p<.001$)
- (문화인프라)** 상위지역의 문화시설수(2.9개▲), 체육시설수(1.42개▲), 도시공원조성 면적(10.53천㎡▲)으로 더 높으며, 이 차이는 유의함($p<.001$)
- (인구인프라)** 상위지역이 인구밀도(3,727.33km²▼), 합계출산율(0.08명▲), 인구감소지역 비율(6.31%p▲)로 하위지역보다 쾌적한 인구밀도를 보이며, 이 차이는 유의함($p<.001$)
- (안전인프라)** 상위지역이 아동대상 범죄 발생 건수가(0.30건▼), 감염병 등급이(1.33%p▼) 낮아 안전인프라가 하위지역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p<.001$)

[그림 6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세부 항목별)





<표 12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인프라 비교

단위(% , 만원, 개, km², 명, 건, 명/km²)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경제 인프라	경제 성장률 ¹⁾	하위지역	5,694	3.18	1.30	-14.307	0.000
		상위지역	1,899	4.27	3.22		
	가구부채 ²⁾	하위지역	5,694	11,124	2724.23	72.469	0.000
		상위지역	1,899	7,085	1828.71		
	실업률 ³⁾	하위지역	5,694	2.69	0.19	14.802	0.000
		상위지역	1,899	2.55	0.41		
교육 인프라	사교육비 ⁴⁾	하위지역	5,694	49	9.688	66.968	0.000
		상위지역	1,899	36	6.370		
	사교육 참여율 ⁵⁾	하위지역	5,694	81.03	4.11	43.283	0.000
		상위지역	1,899	75.69	4.82		
문화 인프라	문화 시설수 ⁶⁾	하위지역	5,694	5.50	2.80	-26.444	0.000
		상위지역	1,899	8.40	4.49		
	체육 시설수 ⁷⁾	하위지역	5,694	109.94	4.97	-6.254	0.000
		상위지역	1,899	111.36	9.49		
	도시공원 면적 ⁸⁾	하위지역	5,694	10.71	4.89	-38.504	0.000
		상위지역	1,899	21.24	11.58		
인구 인프라	인구밀도 ⁹⁾	하위지역	5,694	5,263.44	6,355.70	39.603	0.000
		상위지역	1,899	1,536.11	1,830.22		
	합계 출산율 ¹⁰⁾	하위지역	5,694	0.77	0.11	-28.080	0.000
		상위지역	1,899	0.85	0.11		
	인구감소 지역 비율 ¹¹⁾	하위지역	5,694	4.59	10.82	-34.058	0.000
		상위지역	1,899	10.90	5.12		
안전 인프라	아동범죄 건수 ¹²⁾	하위지역	5,694	2.08	0.17	66.968	0.000
		상위지역	1,899	1.78	0.31		
	감염병 안전등급 ¹³⁾	하위지역	5,694	4.16	0.68	46.251	0.000
		상위지역	1,899	2.83	1.19		

- 주: 1) 경제성장률(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2) :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 2) 가구부채(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전 가구 평균 가구 부채(만원)
- 3)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행정구역(시도)별 실업률(%)
- 4) 사교육비(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5) 사교육참여율(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초·중·고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 6) 문화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개), [(문화기반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개)
- 7) 체육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21 재구성) : 인구 십만명당 등록·신고 체육시설 업소수 (개), [(체육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 8) 도시공원면적(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2022)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의 조성면적(km²), [(총공원면적(km²))÷도시지역인구(명))×1,000]
- 9) 인구밀도(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 인구밀도(명/km²), [(인구(명))÷(국토면적(km²))]
- 10)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 가임연령(15~49세) 여자인구에 대한 0~4세 유아 인구비(명)
- 11)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2024년 4월 2일 검색, 재구성) : 각 지역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 해당 비율(%), [(상·하위 지역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해당 개수(개))÷(전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개수(개))×100]
- 12) 아동범죄건수(대검찰청 「범죄분석」 2021, 재구성) : 아동인구천명당 아동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대상 범죄) 건수(건), [(총 건수(건))÷(2021아동인구수(명))×1000]
- 13) 감염병 안전등급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 2022) : 상대등급인 지역안전지수의 감염병 분야지수로 가장 안 전한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안전하지 못한 하위 5등급까지 있음, [지역안전 상대등급: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등급)

상·하위지역과 인프라 상관관계

- 상위지역일수록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인프라의 긍정적인 부분(경제성장, 문화시설 수, 체육시설 수, 도시공원면적, 합계출산율)이 더 좋은 상관관계를 가짐($p<.01$)
- 반면, 부정적인 인프라(가구부채, 실업률,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인구밀도, 아동 대상 범죄 건수, 감염병등급)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안전 인프라에서 '상'일수록 더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됨($p<.01$)

<표 12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지역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구분		상관계수
경제인프라	경제성장률	.233**
	가구부채	-.635**
	실업률	-.233**
교육인프라	사교육비	-.532**
	사교육 참여율	-.474**
문화인프라	문화 시설수	.355**
	체육 시설수	.096**
	도시공원면적	.537**
인구인프라	인구 밀도	-.278**
	합계 출산율	.304**
	인구감소지역비율	.271**
안전인프라	아동범죄건수	-.516**
	감염병안전등급	-.566**

*** $p<.001$, ** $p<.01$, * $p<.05$

② 학교/주거/부모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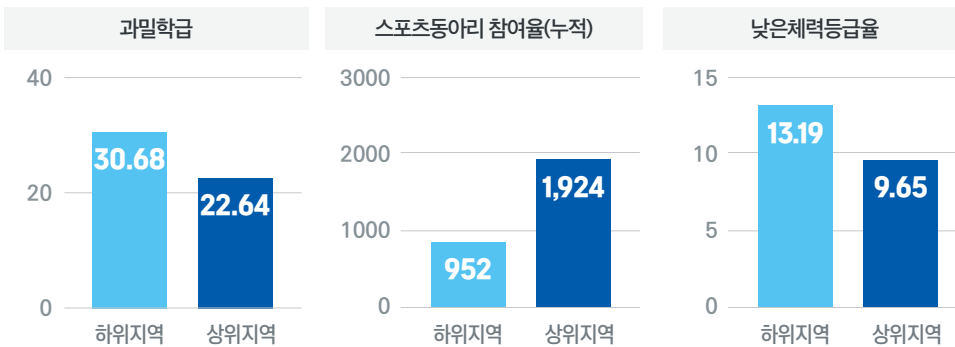
- 상위지역일수록 학교인프라(과밀학급▼, 스포츠 동아리 참여율▲, 낮은체력등급 학생 비율▼)와 주거요인이 더 나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 부모요인도 상위지역일수록 부모의 학업 압박적 양육태도와 방임은 더 낮았고($p<.01$, $p<.05$), 정규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교실(7.16%p▲) 참여율은 더 높은 반면 학원(3.89%p▼), 기타 기관(0.81%p▼) 이용률은 더 낮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도 학업적 이유는 2.32%p▼ 더 낮음

학교요인

- 상위지역이 과밀학급 비율이 더 낮고(8.04%p▼), 스포츠평아리 누적 참여율이 더 많음(971.63%p▲). 하위지역일수록 낮은 체력등급 아이들이 더 많았으며(3.54%p▲) 이 차이는 유의함($p<.001$)

[그림 6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비교

단위(%)



<표 12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과밀학급			비해당	해당	전체	χ^2	유의확률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3,947	1,747	5,694	44.989	0.000
		비율	69.32	30.68	100.0		
	상위지역	빈도	1,469	430	1,899		
		비율	77.36	22.64	100.0		
전체비율		빈도	5,416	2,177	7,593		
		비율	71.33	28.67	100.0		

주: 과밀학급은 교육부 기준 '28명 이상' 학급의 비율로 선정함.

<표 12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교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원, %, 시간: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스포츠동아리 참여율 ¹⁾	하위지역	5,694	952.75	417.07	-106.229	0.000
	상위지역	1,899	1,924.38	317.58		
낮은체력등급율 ²⁾	하위지역	5,694	13.19	2.20	81.460	0.000
	상위지역	1,899	9.65	1.40		

주: 1) 스포츠동아리 참여비율(EDSS 에듀데이터 서비스, 2022 재구성): [(시도별 연간 스포츠동아리 참여학생 누적 인원 수(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명))×100] (%)

2) 낮은체력등급율(EDSS, 2022 재구성): [(시도별 학생체력등급 4등급+5등급 학생 수(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명))×100]

자료: EDSS(에듀데이터서비스)의 경우, 자료는 모집단의 70%를 층화추출하여 제공됨.

*초등저학년포함

<표 12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교요인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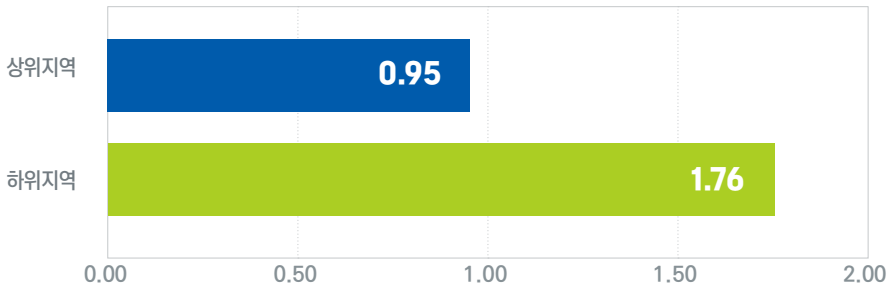
구분	스포츠동아리 참여율	낮은체력등급율
상관계수	.730**	-.603**

***p<.001, **p<.01, *p<.05

주거요인

- 하위지역의 아이들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주택에 현재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8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하위지역 간의 차이는 유의하여 상위지역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p<.001$)

[그림 6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단위(%)



<표 12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주거열악 차이비교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주거열악 ¹⁾	하위지역	5,694	1.76	0.76	46.944	0.000
	상위지역	1,899	0.95	0.61		

주: 1) 주거열악: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지하, 옥상,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에 현재 살고 있다고 응답한 아이들의 지역별 비율

*방임 제외 초등저학년포함

<표 12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주거열악 상관관계 단위(시간분)

구분	비거주용 주택 거주 비율
상관계수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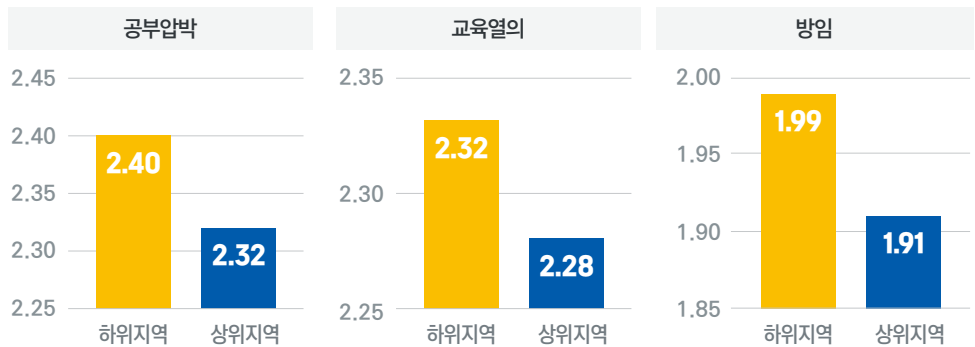
*** $p<.001$, ** $p<.01$, * $p<.05$

부모요인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부모의 공부압박(0.08점▼), 교육열의(0.04점▼), 방임(0.08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p<.01$, $p<.05$)
- 상위지역으로 갈수록 부정적 부모요인이 낮아지는 관계를 가짐($p<.01$, $p<.05$)

[그림 6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단위(점)



<표 12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부모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부압박	하위지역	5,694	2.40	1.00	3.005	0.003
	상위지역	1,899	2.32	0.98		
교육열의	하위지역	5,694	2.32	0.64	2.270	0.023
	상위지역	1,899	2.28	0.64		
방임	하위지역	4,219	1.99	1.04	2.369	0.018
	상위지역	1,393	1.91	0.99		

*방임 제외 초등저학년포함

<표 12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부모요인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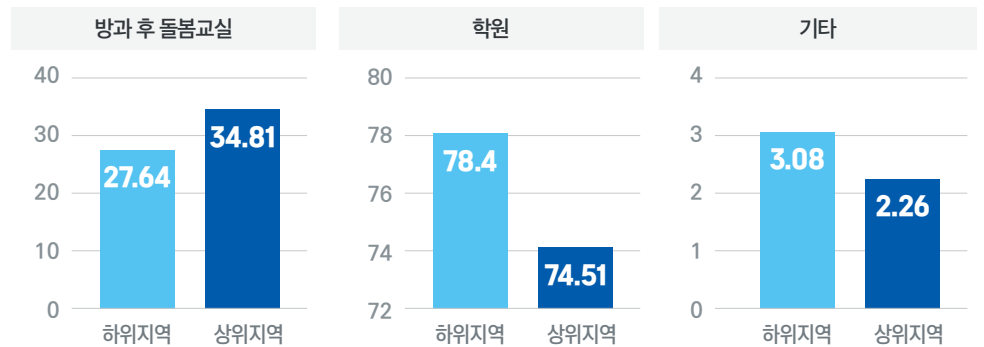
구분	공부압박	교육열의	방임
상관계수	-.034**	-.026*	-.032*

*** $p<.001$, ** $p<.01$, * $p<.05$

기관 요인

- 정규수업 후 아이들이 가는 기관의 각 이용률 비교 결과, 상위지역이 '방과 후 교실'은 7.16%p▲, '학원'에 가는 비율은 3.89%p▼, 기타 기관 이용률 또한 0.81%p▼ 더 낮아 기관 이용 여부는 상·하위지역과 높은 관계가 있음
- 상위지역일수록 '방과 후 돌봄교실'은 더 많이, '학원'과 '기타 기관'은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단위(%)



<표 129>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정규수업 후 기관이용률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방과 후 돌봄교실	하위지역	5,694	27.64	4.13	-73.915	0.000
	상위지역	1,899	34.81	3.48		
학원	하위지역	5,694	78.40	3.16	39.685	0.000
	상위지역	1,899	74.51	3.86		
기타 ¹⁾	하위지역	5,694	3.08	0.50	47.697	0.000
	상위지역	1,899	2.26	0.68		

주: 1)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센터, 학원, 이용기관 없음 외에 '기타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저학년포함

<표 130>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기관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구분	방과 후 돌봄교실	학원	기타
상관계수	.615**	-.449**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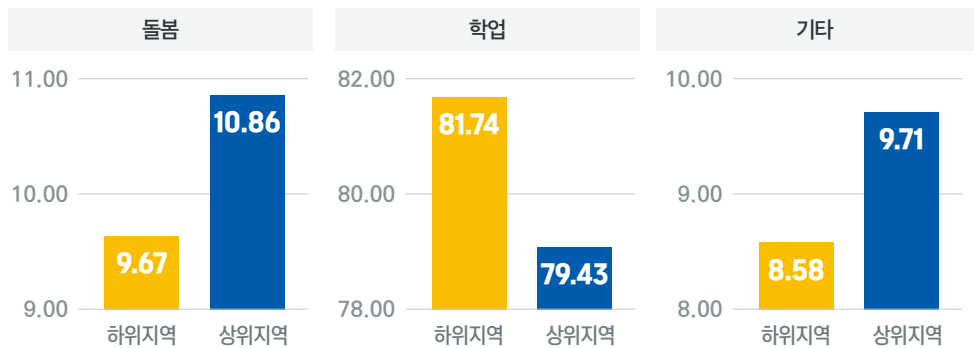
***p<.001, **p<.01, *p<.05

학원 이용이유 : 돌봄 VS 학업

-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돌봄 1.19%p▲, 학업 2.32%p▼으로 하위지역이 학업을 목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림 6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단위(%)



<표 131>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단위(명, %)

			학원 이용 이유(돌봄 VS 학업)			
			돌봄	학업	기타	전체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816	6,896	724	8,436
		비율	9.67	81.74	8.58	100.00
	상위지역	빈도	274	2,004	245	2,523
		비율	10.86	79.43	9.71	100.00

*다중응답 (하위 응답 문항 체크 수 기준): 돌봄(2번: 학교 후 돌봄필요) / 학업(1번: 학업성적, 3번: 선행, 4번: 불안해서, 5번: 학교수업) / 기타(6번: 기타)

학원 이용이유 : 학업

- 학원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각 상·하위지역의 응답은 다음과 같음
-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비해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불안해서)’는 2.82%p▲, ‘선행학습을 위해서’는 3.63%p▲,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5.51%p▲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3.61%p▲ 더 높았음
- 이러한 4가지 이유 모두 돌봄보다는 ‘학업적인’ 이유에 속하나, 특히 학업성적 향상과 학교 수업 보충과 같은 학교 관련 이유로 인해 학원을 다닌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132>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학원 등록이유 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안	하위지역	5,694	13.56	2.59	61.603	0.000
	상위지역	1,899	10.74	1.32		
선행학습	하위지역	5,694	23.64	4.05	36.214	0.000
	상위지역	1,899	20.01	3.69		
학업성적 향상	하위지역	5,694	56.06	5.57	57.916	0.000
	상위지역	1,899	50.55	2.62		
학교수업 보충	하위지역	5,694	27.89	2.98	51.661	0.000
	상위지역	1,899	24.28	2.52		

*초등저학년포함

<표 133>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학원 등록이유 비율 간의 상관관계

구분	불안	선행학습	학업성적 향상	학교수업 보충
상관계수	-.463**	-.369**	-.431**	-.479**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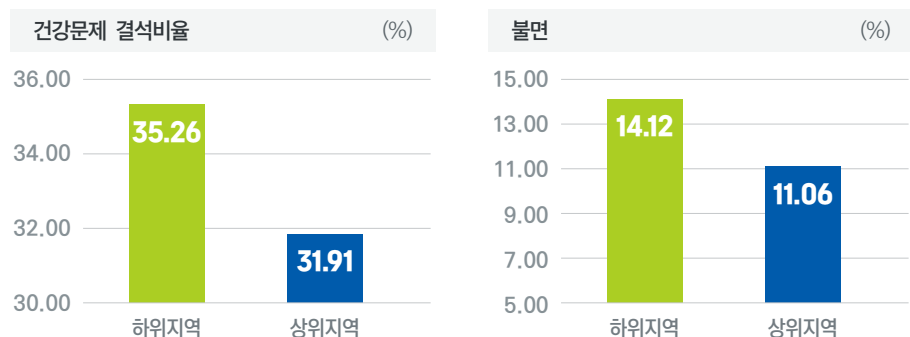
③ 개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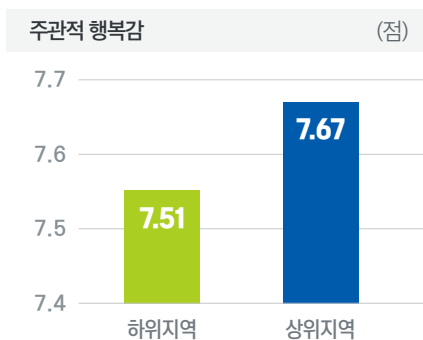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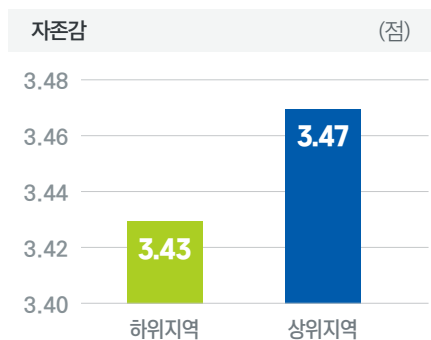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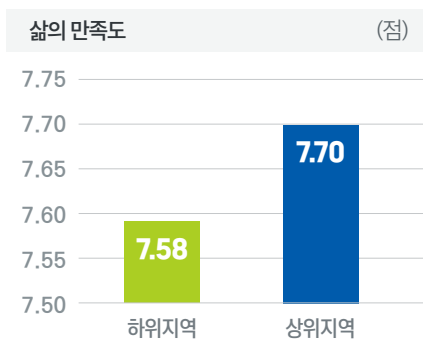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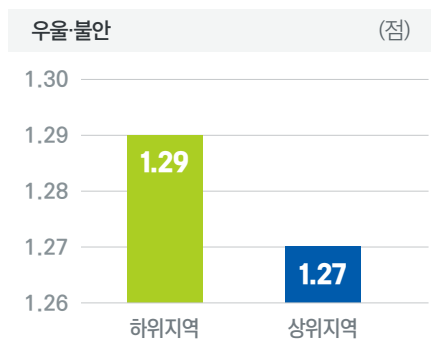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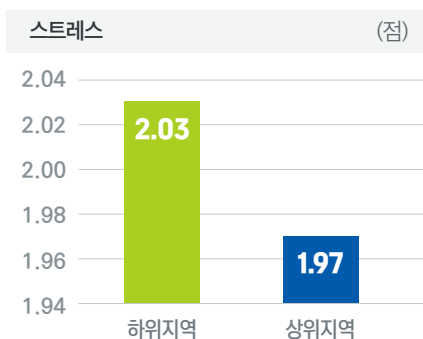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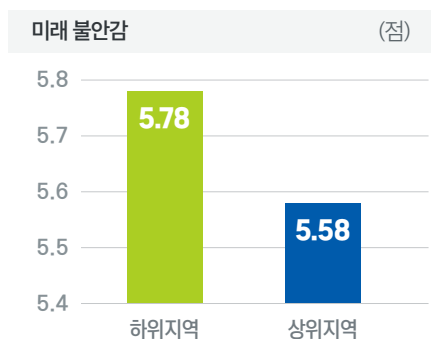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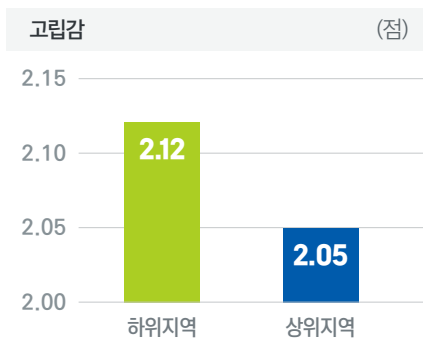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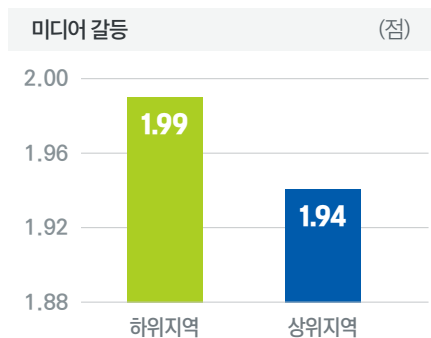
- 상위지역일수록 하위지역보다 긍정 정서(삶의 만족도,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는 높고, 부정 정서(고립감, 미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불안)는 낮으며, 미디어로 인한 갈등을 겪거나, 건강문제로 인한 결석, 불면도 더 낮음. 반면,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에 비해 성범죄(1.2%p▲), 절도(1.18%p▲) 비율 모두 유의하게 높음($p<.01$)

개인 심리·정서요인

- 상위지역 아이들이 하위지역보다 건강문제로 인해 결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3.35%p▼), 불면(3.06%p▼), 부정 정서인 고립감(0.07점▼), 미디어로 인한 갈등(0.05점▼), 미래 불안감(0.20점▼), 스트레스(0.06점▼), 우울·불안(0.02점▼)이 더 낮았음
- 반면, 긍정 정서인 삶의 만족도(0.12점▲), 자존감(0.04점▲), 주관적 행복감(0.16점▲)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하위지역 간 이러한 심리·정서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p<.01$, $p<.05$)
- 이에, 상위지역일수록 긍정정서는 높고, 부정정서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표 134>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개인요인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건강문제 결석비율	하위지역	5,694	35.26	3.41	56.907	0.000
	상위지역	1,899	31.91	1.64		
미디어 갈등	하위지역	4,219	1.99	0.71	2.426	0.015
	상위지역	1,393	1.94	0.70		
고립감	하위지역	4,219	2.12	1.04	2.137	0.033
	상위지역	1,393	2.05	1.03		
미래 불안감	하위지역	4,219	5.78	2.57	2.507	0.012
	상위지역	1,393	5.58	2.56		
스트레스	하위지역	4,219	2.03	0.63	2.934	0.003
	상위지역	1,393	1.97	0.63		
우울·불안	하위지역	4,219	1.29	0.37	1.985	0.047
	상위지역	1,393	1.27	0.36		
삶의 만족도	하위지역	4,219	7.58	1.92	-2.011	0.044
	상위지역	1,393	7.70	1.92		
자존감*	하위지역	5,694	3.43	0.63	-2.380	0.017
	상위지역	1,899	3.47	0.63		
주관적 행복감*	하위지역	5,694	7.51	1.93	-3.024	0.003
	상위지역	1,899	7.67	1.95		

주: 고립감(5점 만점), 미디어 갈등(4점 만점), 미래 불안감(4점 만점), 스트레스(4점 만점), 우울불안(3점 만점),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자존감(4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10점 만점)

*건강 문제 결석, 불면,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은 초등 저학년 포함

<표 135>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개인요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건강 문제 결석	미디어 갈등	고립감	미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자존감*	주관적 행복감*
상관 계수	-.428**	-.032*	-.029*	-.033*	-.039**	-.026*	.027*	.027*	.035**

***p<.001, **p<.01, *p<.05

<표 136>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불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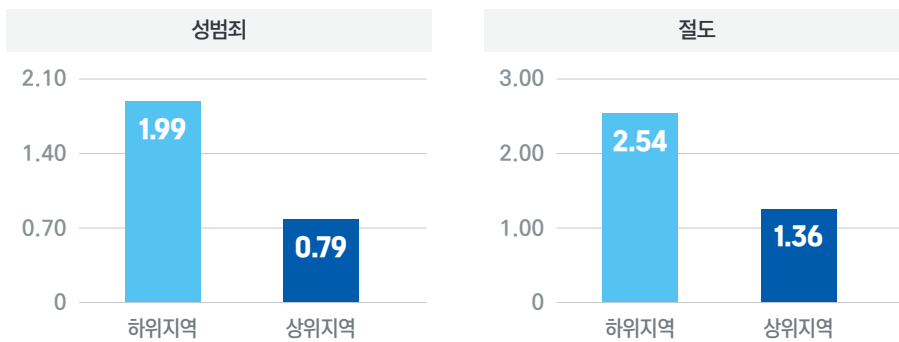
불면			없음	있음	전체	χ^2	유의확률
상·하위 지역	하위지역	빈도	4890	804	5694	11.537	0.001
		비율	85.9	14.1	100.0		
	상위지역	빈도	1689	210	1899		
		비율	88.9	11.1	100.0		
전체 비율		빈도	6579	1014	7593		
		86.6	13.4	100.0			

아동·청소년의 범죄

- 하위지역이 상위지역보다 '성범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1.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지' 또한 1.18%p▲ 더 높아 상·하위 시도와 관계가 있음이 드러남($p<.001$)
- 상위지역일수록 하위지역에 비해 아이들의 성범죄 경험과 절도 경험 응답률 모두 낮음 ($p<.01$)

[그림 6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별 범죄율

단위(%)



<표 137>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단위(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범죄 비율	하위지역	5,694	1.99	0.41	108.835	0.000
	상위지역	1,899	0.79	0.45		
절도 비율	하위지역	5,694	2.54	0.51	69.396	0.000
	상위지역	1,899	1.36	0.68		

<표 138>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

구분	성범죄 비율	절도 비율
상관계수	-.781**	-.676**

***p<.001, **p<.01, *p<.05

3. 미디어 여가와 온라인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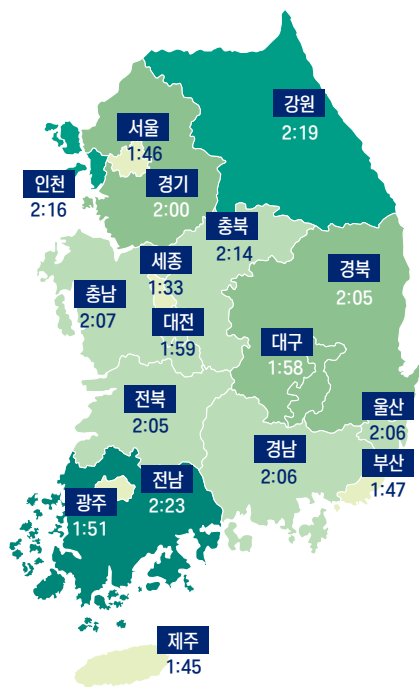
1) 17개 시도 비교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초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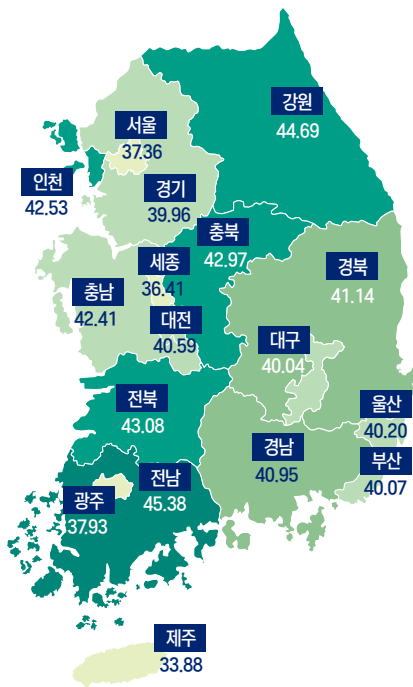
- 평균 미디어 시간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전남(143.18분), 강원(138.56분), 인천(135.65분), 충북(134.16분), 충남(126.91분)
- 전체 여가시간에서 미디어 시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전남(45.38%), 강원(44.69%), 전북(43.08%), 충북(42.97%), 인천(42.53%)
-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충북(5.12%), 강원(4.08%), 인천(3.15%), 충남(2.83%), 서울(2.74%) 순

▶ 일상에서 미디어 시간이 많거나 미디어-여가 비율은 높은 시도가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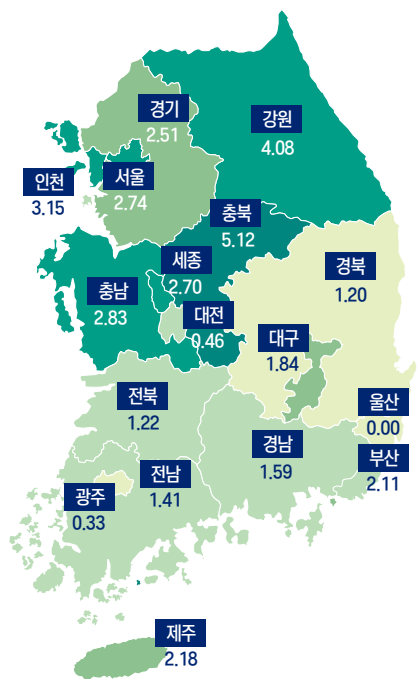
[그림 69] 17개 시도별 미디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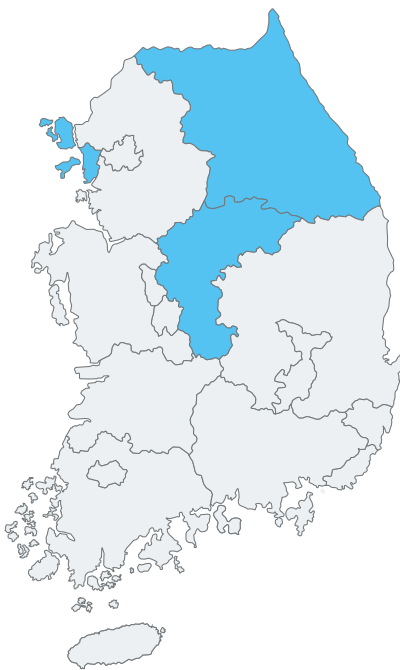
[그림 70] 17개 시도별 미디어-여가 비율



[그림 71] 17개 시도별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그림 72]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중북 시도(강원, 인천, 충북)



2) 지역 규모별 비교

지역 규모별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초저 제외)

- 지역 규모별 평균 미디어 시간은 농어촌 136.22분, 중소도시 120.71분, 대도시 114.37분으로 농어촌이 가장 많음
- 전체 여가시간에서 미디어 시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농어촌 43.22%, 중소도시 40.40%, 대도시 39.26%로 농어촌이 가장 높음
-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농어촌(2.65%), 중소도시(2.33%), 대도시(2.09%) 순

<표 139> 지역 규모별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단위(분, 명, %)

			미디어 시간	미디어-여가 비율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역 규모	대도시	평균/빈도	114.37	.3926	56.28
		표준편차/비율	108.24	.2749	2.09
	중소도시	평균/빈도	120.71	.4040	74.46
		표준편차/비율	109.32	.2692	2.33
	농어촌	평균/빈도	136.22	.4322	21.98
		표준편차/비율	119.83	.2819	2.65

*Stata에서 가중치(aweight)를 부여하여 소수점 빈도 발생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IV

강남권 거주 아동의 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 요약
2.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반적 사항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영향요인 비교
4.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상



강남권 거주 아동의 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 요약

- 하루 시간사용에서 ‘강남권’은 학업시간이 ‘비교군’은 필수와 여가시간이 더 깊
- 아동행복지수는 ‘강남권’이 더 높음. 강남권 아이들의 가정 및 환경 특징 때문으로 보임
- 학업일상과 여가일상에서 ‘강남권’과 ‘비교군’의 생활 차이가 두드러짐

하루 시간사용

- **(필수시간)** 강남권(9시간 58분)보다 비교군(10시간 34분)이 더 깊(36분)
 - 비교군 아동의 수면시간이 더 길기 때문(34분▲)
- **(학업시간)** 강남권(10시간)이 비교군(8시간 40분)보다 더 깊(1시간 20분)
 - 학교수업(22분▲)과 학교수업외 학업(58분▲) 모두 더 길기 때문
- **(여가시간)** 강남권(4시간 2분)보다 비교군(4시간 46분)이 더 깊(44분)
 - 미디어 여가시간(47분▲)과 대면교제시간(15분▲)이 강남권보다 더 긴 편

아동행복지수와 영향요인

- 아동행복지수는 강남권 아동(47.4점)이 비교군 아동(43.7점)보다 더 높음
- 강남권 아동 행복지수가 높았던 영향요인으로 크게 3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음
 - 양육자와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가 좋고, 함께하는 활동이 편리한 환경적 특징
 - 진학·진로 계획의 명확성과 주도성, 공부하는 태도(이유, 목적)의 차이
 - 미디어도 정보습득 등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시간을 통제하며 사용하는 행태

일상과 관계

● (학업시간)

- 평일 공부시간은 강남권(3시간 42분)이 비교군(2시간 44분)보다 더 길
- 평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강남권(127.6분)이 비교군(66.5분)보다 2배 더 많음
- 주말 사교육 비율도 강남권 아동(90%)이 비교군 아동(75.6%)보다 더 높음

● (양육자 교육열의, 교육관여) 강남권이 비교군에 비해 엇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음

- 강남권은 초등 때 교육관여가 집중되며, 이때 공부습관(태도)을 갖추었다고 함

● (여가일상) 미디어시간은 비교군(2시간 39분)이 강남권(1시간 51분)에 비해 더 길

- 방과 후 친구와의 대면 시간도 비교군(93분)이 강남권(51분)에 비해 더 많음

2.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반적 사항

1) 경제·사회·문화 자본을 고려한 강남권 특징

- 지역 간 격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강남권 거주 아동들의 전형적인 대도시 일상을 동일한 수도권 지역이면서도 중소도시 내지는 도농복합적 특성을 보이는 경기도 읍면 지역 거주 아동들의 일상과 질적, 양적으로 비교 고찰함

강남권(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지역

- (인구 배경) 2023년 기준 아동(만0~18세) 총 인구는 7백만429천명으로(7,429,736명) 전체 아동 중 50.2%(3,732,771명)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만 보면 서울(1,124,245명)에 30.1%가 경기도(2,160,355명)에 57.9%가 살고 있음(KOSIS.2023)
- (경제적 수준) 2010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비율이 강남 3구는 1.1%이 나(서울서베이, 2010) 경기도 남·북부 외곽지역(가평, 양평, 연천, 동두천, 안성 등)은 24.4%~34.8%로 보고된 바 있어 같은 수도권이지만 소득격차가 상당히 큰 편(오민수 외, 2012)
- (주택가격) 2023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4,632만원이나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0억 원 이상을 상회하고(매일경제, 2022.04.26.) 경기도 아파트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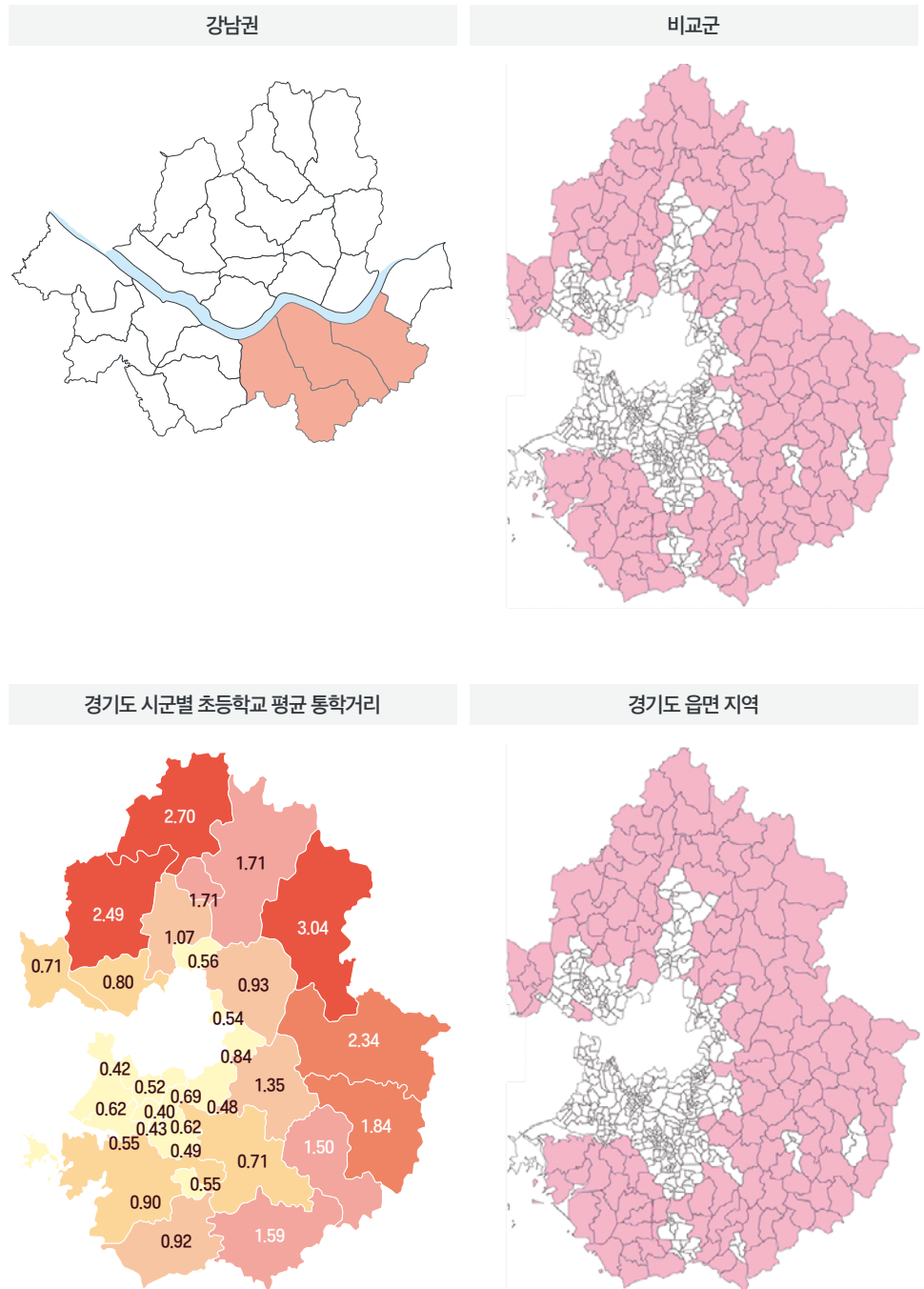
매매가는 5억 1,319만원이나 경기도 읍면 지역은 약 3억~4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어(매일경제, 2023.10.24)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 환경의 차이가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육투자)**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59만6000원) 중소도시(40만1000원) 광역시(39만5000원) 읍면지역(28만2000원) 순으로 높고(통계청, 2020) 서울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읍면지역의 약 2.1배 더 많음.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권(강동·송파·강남·서초구)과 비교군(그 외 서울지역: 29만8천원)의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32만9천원의 차이를 보였고, 경기도 역시 신도시(일산·과천·분당·산본·평촌)와 비신도시(그 외 경기지역: 25만7천원)의 차이가 21만1천원으로 두 배 가량의 차이로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김지경, 2003)
- **(문화 및 여가)**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39.2%), 중소도시(33.4%) 보다 읍면지역의 문화예술관람률이 21.7%로 낮아 읍면지역에서의 문화적 경험 차이가 있음(통계청, 2021)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개념적 재정의

- 일반적으로 '강남 아동'이라고 불리는 이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라는 거주지역으로서의 특징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화적 자본, 자녀 양육방식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특성이 내포된 개념임
- 심층분석을 위해 관련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지역과 아동을 선정하고, 대조적인 생활환경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군을 선정하였음
 - 아동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내에서 강남권과의 비교지역을 선정함
 -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문화, 체육시설 수, 도시공원 수, 교통 등 인프라를 고려함
 - 사교육 참여율, 등교에 걸리는 시간 등 지역적 특성 고려함
 -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도 읍면지역'의 초등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집계됨
 - 거주지역 특성과 가정 생활환경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
 - : 부모 경제 자본으로서 '가구소득 분위'와 문화 자본으로서 '주말 가족의 문화생활'에 대한 현황 값을 참고해 적절한 비교 집단을 구성함
 - 초중고 주요 학교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성별과 학년을 고려함(초6~고1)
 - : 비교 집단으로 정의된 '강남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동이고, '비교군'은 경기도 읍면지역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동임
- 정량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강남권' '비교군'을 개념적으로 재정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정성조사)를 진행하였음

[그림 73] 수도권 내의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구분



<표 140> 강남권, 비교군(경기도 읍면) 아동 그룹의 일반적 사항

단위(명, %)

구분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01	100.0	118	100.0
성별	남자	44	43.6	69	58.5
	여자	58	57.4	49	41.5
학년	초6	22	21.8	34	28.8
	중1	23	22.8	16	13.6
	중2	16	15.8	21	17.8
	중3	22	21.8	30	25.4
	고1	19	18.8	17	14.4
거주시도	서울특별시	101	0.0	0	0.0
	경기도	0	100.0	118	100.0
거주시군구	강남구	36	35.6	0	0.0
	서초구	21	20.8	0	0.0
	송파구	44	43.6	0	0.0
	광주시	0	0.0	9	7.6
	김포시	0	0.0	11	9.3
	남양주시	0	0.0	28	23.7
	안성시	0	0.0	9	7.6
	양주시	0	0.0	1	0.8
	양평군	0	0.0	3	2.5
	여주시	0	0.0	5	4.2
	용인시 처인구	0	0.0	10	8.5
	이천시	0	0.0	4	3.4
	파주시	0	0.0	11	9.3
	평택시	0	0.0	5	4.2
	포천시	0	0.0	3	2.5
	화성시	0	0.0	19	16.1
지역규모	대도시	101	100.0	0	0.0
	읍면	0	0.0	118	100.0
빈곤여부	비빈곤	98	97.0	111	94.1
	빈곤	4	4.0	7	5.9

- 정의된 각 그룹에서 강남권 아동 6명, 비교군 아동 6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섭외해 개별심층 면접을 실시함

<표 141> 강남권, 비교군(경기도 읍면) 각 그룹별 개별심층면접 참석자 프로파일

구분	성명	성별	학년	거주 시도	거주 시군구	거주 읍면동	소득 분위	주말 가족 문화 생활	주말 사교육	공부 시간	미디어 시간
강 남 권	강남1	강00	남자	고1	서울	A구 ▲▲동	8분위	있음	있음	적정 이하	과다
	강남2	권0	남자	초6	서울	B구 ○○동	9분위	있음	있음	과다	적정 이하
	강남3	정00	남자	초6	서울	C구 △△동	6분위	없음	없음	적정 이하	적정 이하
	강남4	박00	남자	중3	서울	C구 ●●동	9분위	있음	있음	과다	과다
	강남5	이00	여자	고1	서울	A구 ◎◎동	9분위	있음	있음	과다	적정 이하
	강남6	도00	여자	고1	서울	B구 ◇◇동	9분위	없음	없음	적정 이하	과다
비 교 군	비교군1	김00	남자	중3	경기	D시 ◆◆읍	9분위	있음	있음	과다	과다
	비교군2	박00	남자	중3	경기	E시 ■■면	7분위	있음	있음	과다	적정 이하
	비교군3	조00	여자	고1	경기	F시 ▽▽면	6분위	없음	있음	과다	적정 이하
	비교군4	김00	여자	중1	경기	I시 ▼▼읍	6분위	없음	있음	과다	과다
	비교군5	이00	여자	초6	경기	J시 ☆☆☆	6분위	있음	없음	과다	과다
	비교군6	김00	남자	고1	경기	K시 ★★읍	6분위	없음	있음	과다	적정 이하

‘강남권’과 ‘비교군(경기도 읍면)’ 그룹별 아동의 전반적인 하루 시간사용

- **(필수)** ‘강남권’(9시간 58분)보다 ‘비교군’(10시간 34분)이 36분▲ 길. 수면시간(34분▲) 차이임
- **(학업)** ‘강남권’(10시간)이 ‘비교군’(8시간 40분)보다 1시간 20분▲ 더 길. 학교수업(22분▲)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외 학업(58분▲) 모두 강남권 아이들이 더 많음. 초고 학년 ≫ 중등 ≫ 고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시간은 더 큰 차이를 보임
- **(여가)** ‘강남권’(4시간 2분)보다 ‘비교군’(4시간 46분)이 평균 44분▲ 긴데, 세부 활동을 보면 미디어 여가시간(47분▲)과 대면교제 시간(15분▲)에서 차이가 나타남

<표 142> ‘강남권’ 그룹 전반적인 시간사용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여부	
		남	여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필수시간	9:58	10:39	9:27	11:24	9:58	8:21	9:56	11:04
수면	7:27	7:57	7:05	8:42	7:28	5:59	7:25	8:37
식사	1:52	2:04	1:43	1:58	1:53	1:45	1:52	1:51
개인 유지	0:39	0:38	0:39	0:44	0:37	0:37	0:39	0:36
학업시간	10:00	9:24	10:28	8:15	10:15	11:13	10:02	9:18
학교수업	6:18	6:11	6:23	5:39	6:10	7:30	6:16	7:11
학교수업 외 학업	3:42	3:13	4:05	2:36	4:05	3:43	3:46	2:07
여가시간	4:02	3:57	4:05	4:21	3:47	4:26	4:02	3:38
대면교제	0:27	0:28	0:27	0:41	0:25	0:20	0:27	0:25
미디어 외 여가	0:23	0:18	0:25	0:34	0:14	0:33	0:22	0:29
미디어 여가	1:51	1:52	1:50	1:52	1:46	2:05	1:51	1:51
운동 및 신체활동	0:10	0:17	0:05	0:05	0:15	0:01	0:11	0:00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9	0:20	0:35	0:20	0:29	0:38	0:28	0:21
기타	0:42	0:42	0:43	0:49	0:38	0:49	0:43	0:32

<표 143> '비교군(경기도 읍면)' 그룹 전반적인 시간사용

단위(시간:분)

	전체	성별		학교급			빈곤여부	
		남	여	초고	중등	고등	비빈곤	빈곤
필수시간	10:34	10:27	10:43	11:31	10:30	8:58	10:31	11:06
수면	8:01	8:03	7:58	8:56	7:56	6:32	7:58	8:32
식사	1:51	1:50	1:53	1:56	1:49	1:51	1:52	1:35
개인 유지	0:42	0:34	0:52	0:39	0:45	0:35	0:41	0:59
학업시간	8:40	8:57	8:17	7:20	9:07	9:33	8:40	8:48
학교수업	5:56	6:01	5:50	4:42	6:19	6:53	5:55	6:21
학교수업 외 학업	2:44	2:56	2:27	2:38	2:48	2:40	2:45	2:27
여가시간	4:46	4:36	5:00	5:09	4:23	5:29	4:49	4:06
대면교제	0:42	0:41	0:43	0:54	0:39	0:29	0:41	0:49
미디어 외 여가	0:18	0:11	0:28	0:22	0:20	0:02	0:19	0:08
미디어 여가	2:38	2:38	2:39	2:36	2:28	3:24	2:43	1:34
운동 및 신체활동	0:11	0:13	0:08	0:14	0:07	0:19	0:09	0:44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19	0:15	0:25	0:23	0:18	0:17	0:20	0:08
기타	0:38	0:38	0:37	0:40	0:31	0:58	0:37	0:43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영향요인 비교

1) 양육자와의 유대와 환경적 인프라의 상호작용

- 2024 아동행복지수는 강남권 아동이(47.4점) 비교군 아동(43.7점)의 지수보다 높음
- 강남권 아동의 아동행복지수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는 주요 특징은 양육자와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에서 비롯됨
- 강남권에서 아동-양육자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 인프라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방과 후 취침 시까지, 가족과 함께 한 평균 시간’은 비교군(1시간 43분)이 강남권(1시간 27분)에 비해 더 길었지만, 정작 고민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상대로 ‘양육자’를 꼽은 비율이 강남권(60.5%)이 비교군(55.3%)보다 높았음. 즉, 강남권 아동에게서 아동-양육자 간의 높은 신뢰도가 나타남
- **(가족여가와 지역 인프라와의 상관성)** 강남권과 비교군의 ‘지역 인프라’ 이용과 관련해 ‘주말에 보호자와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가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강남권이 ‘놀이터’(9.4%p) ‘공원’(27.5%p) ‘산책로’(14.3%p) ‘관람 및 체험시설’(50.8%p) ‘도서관’(10.3%p)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32.6%p) ‘실외 체육시설’(16.2%p) 모두 비교군 보다 이용이 편리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주말 가족 활동에 유리한 지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함
-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인식과 활동)** 강남권-비교군 아동들 모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부족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동시에 표현
 - 강남권 아동들은 가족과의 대화와 유대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가족여행, 장보기와 같은 가족 공동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강습’, ‘베이킹’, ‘게임’ 등 취미활동까지도 양육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비교군 아동들 중에서도 일부 응답자는 가족과의 유대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하기도 함. 특히 학업에 대해 잔소리를 하거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족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 종합하면,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은 비교군 아동들이 더 길지만, 양육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관계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등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는 강남권 아동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즉, 강남권 아동은 양육자와 함께하는 ‘활동과 관계 시간의 질’이 높으며, 이러한 측면이 아동행복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됨

<표 144> 아동행복지수: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비교

단위(점)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2024 아동행복지수(초저 제외)	45.3(42.9)	47.4(45.1)	43.7(41.1)

<표 145> 방과 후 취침 시까지, 함께한 사람

단위(시간:분,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7:14	97.8	7:07	100.0	7:25	100.0
혼자	3:31	90.3	4:45	98.2	3:58	94.4
가족	2:39	85.7	1:27	83.2	1:43	87.9
오프라인 친구	1:00	53.1	0:51	51.1	1:33	75.1
온라인 친구	0:04	5.5	0:04	7.0	0:11	12.1

<표 146> 고민이 있을 때, 대화 나눌 상대

단위(%)

	어머니 & 아버지	그 외	전체
전체	57.1	42.9	100.0
강남권 그룹	60.5	39.5	100.0
비교군 그룹	55.3	44.7	100.0

주: [부가조사 초고이상 문25] 문25.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 중 주로 누구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표 147> ‘놀이터’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 ‘놀이터’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89	10	99
	비율	89.9	10.1	100.0
비교군	빈도	95	23	118
	비율	80.5	19.5	100.0
전체	빈도	184	33	217
	비율	84.8	15.2	100.0

<표 148> '공원'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공원'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97	3	100
	비율	97.0	3.0	100.0
비교군	빈도	82	36	118
	비율	69.5	30.5	100.0
전체	빈도	179	39	218
	비율	82.1	17.9	100.0

<표 149> '산책로'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산책로'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96	3	99
	비율	97.0	3.0	100.0
비교군	빈도	97	21	118
	비율	82.7	17.8	100.0
전체	빈도	193	24	217
	비율	88.9	11.1	100.0

<표 150> '관람 및 체험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관람 및 체험시설'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63	36	99
	비율	63.6	36.4	100.0
비교군	빈도	15	102	117
	비율	12.8	87.2	100.0
전체	빈도	78	138	216
	비율	36.1	63.9	100.0

주: 관람 및 체험시설이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을 의미함

<표 151> '도서관'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88	11	99
	비율	88.9	11.1	100.0
비교군	빈도	92	25	117
	비율	78.6	21.4	100.0
전체	빈도	180	36	216
	비율	83.3	16.7	100.0

<표 152>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75	24	99
	비율	75.8	24.2	100.0
비교군	빈도	51	67	118
	비율	43.2	56.8	100.0
전체	빈도	126	91	217
	비율	58.1	41.9	100.0

<표 153> '실외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빈도, %)

주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가정		우리 동네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강남권	빈도	74	25	99
	비율	74.7	25.3	100.0
비교군	빈도	69	49	118
	비율	58.5	41.5	100.0
전체	빈도	143	74	217
	비율	65.9	34.1	100.0

<표 154> (정성조사)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루 중에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강남1) 뭔가 조언을 얻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런 얘기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내가 무슨 난리를 쳐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강남5) 친구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가족들은 그냥 대화를 안 하면 너무 가족인데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건 너무 이상해서. (강남3) 예전에는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들과 보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점점 줄어서요. (부모님이) 주말에도 나가시긴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다 쉬는 날이 많진 않아요. (중략) 소중한 건 가족하고 보내는 게 소중한 거거든요. 친구보다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강남4)
비교군	(누구와 함께 하면 행복하고 편한지?) 자유롭게 있는 건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어울리거나 활기차게 보내고 싶을 때는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혹시 가족들과 있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비교군2)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건 밥먹으면서 한시간 반? 그때도 얘기 다 하고 중간에 말 없이 밥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그 시간에 대해 본인은 만족하나요?) 너무 오래 있으면 잔소리를 하셔서... 주말에 따로 활동하는 것도 없어요. 주말에는 제가 보통 컴퓨터 방에 들어가있으니까... (그러면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서 본인에게 좀 더 필요한 시간은 뭔가요?) 친구들과 노는 거죠. (비교군3) 소중한 건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친구들은 계속 만날 수 있지만 가족들은 항상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자4) 가족과 저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그냥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많이 안 친하거나 거리가 먼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다가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비교군5)

<표 155> (정성조사)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 보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영화관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몇 주 전에 아빠랑 영화를 보러 다녀왔어요. (중략) 엄마랑은 같이 베이킹을 하거나, 토요일에 엄마랑 같이 기차를 배우러 가는데. 그런 시간이 재밌어요. (중략) 옛날에는 엄청 오래 가족 여행을 많이 가기도 했었고 유럽에 한 달씩 넷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그런 걸 못하니까 진짜 확실히 고등학교 생이 되면서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강남5) 아빠가 컴퓨터 세팅 해 주면서 다 깔고 컴퓨터는 딱히 제한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게임을 좋아하셔서... 물론 가끔 혼내시킨 했는데 게임 하는 거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중략) (아버지와 게임을) 예전에는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즈음에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좋아하는 장르는 비슷한데 취향이 달라서 거의 혼자, 제가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해보고 서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강남1)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내신 때문에 가족여행을 못 가죠. 어릴 때는 (가족여행을) 많이 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 달씩 유럽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가죠. 옛날보다 많이 못 가죠. 요즈음에는 제가 일주일도 빠기 힘들어요. (비교군3) 가족과 밥먹으면서 주로 대화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냐, 친구나 성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말마다 같이 어디를 갔는데 사춘기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더... 같이 가기 싫다고 말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있고, 함께 만든 시간이라 좋았을 것 같아요 계속 했으면...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즉각 하는 편이에요. (비교군6)
비교군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무래도 집 방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가끔씩 필요할 때 찾아가서 수다떠는 것 같아요. 같이 영화도 보러가고, 여행도 주로 가족들과 가는 것 같아요. 마트나 쇼핑몰이나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비교군2) 아버님이랑은 농구하러 가끔 나가요. 어머님이랑은 쇼핑을 같이 갈 때도 있고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 오고 시간 날 때 카페도 가고 아버님이랑 운동이랑 그런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면 어머님이랑 카페나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달에 한번 정도? (중략) 어머님이랑은 쇼핑을 같이 갈 때도 있고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 오고 시간 날 때 카페도 가고 아버님이랑 운동이랑 그런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면 어머님이랑 카페나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비교군5)

2)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한 아동의 주도성

- 강남권 아동들의 아동행복지수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특징은 학업·진로 계획의 명확성과 주도성에 있었음. 강남권 아동과 비교군 아동은 공부하는 태도(이유, 목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임

‘강남권’과 ‘비교군’ 아동의 진학 및 진로를 위한 계획과 주도성 차이

- 강남권 아동들이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본인의 진학 및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강남권-비교군 아동 간의 진로계획의 차이)** 강남권 아동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탐색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군 아동들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음
- (강남권 아동의 진로계획 주도성)** 강남권 아동들은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진로 탐색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아동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주변 지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미리 탐색하고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경우도 있었음
- (비교군 아동의 진로계획)** 상대적으로 비교군 아동들은 나름의 구체적 계획을 가지기보다, 막연하게 ‘공부해야 한다’,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마인드로 막연하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관찰되었음

<표 156> (정성조사)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지금 관심있는 분야가 환경 공학쪽이거든요. 신소재 쪽을 좋아해서 연구원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중략) 그래서 자사고를 준비했는데 떨어졌고, 일반고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다니는 학교가)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예요. 실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강남4) 저는 꾸준히 법 쪽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대학을 가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싶어요. (중략)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변호사, 검사, 판사를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하는 걸까? 뭔가 법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더 힘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서서히 관심을 가졌어요. (강남5)
비교군	대학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SNS 유튜브에서 대학을 만나와도 잘 살 수 있다. 안 살 수 있다. 그런 예시를 알려주고. 실제 사례도 알려주니까요. (중략)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꿈이나 장래희망, 가고 싶은 대학을 못 정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과 나와서 공학 계열 가고 싶은데 아직 생각을 덜 해봐서 아마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교군6) (되고 싶은 게 있다기 보다는...) 성인이 되면 세계 여기저기 여행하고 싶은 건 있어요. (비교군1) 공군 파일럿이 하고 싶은데 군복무 끝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민항기 파일럿. 그걸 하려면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목표는 공군사관학교 아니면 항공대학교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로) 캠프가서 물어봤는데... 전교 1, 2등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교군3) 비행기 조종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요즈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교군5)

<표 157> (정성조사)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학교에 대한 정보도 스스로 찾아봤나요?) 제가 어차피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거든요. 자사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진학) 원서를 썼죠. (부모님 도움 없이) 앞으로는 이대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4) 저는 제가 안 맞으면 아예 못 건디는 스타일이에요. 강제로 영어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2, 3주 버티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물론 중요한 건 부모님이 결정하지만 공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의를 들어도 내가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학원도 내가 어떤 학원을 가고 이런 건 좀 제가 정하려고 했어요. (강남5) 학교에서 진로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업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루를 빼줬는데 그때 아빠 친구분이 변호사라서 법원에도 가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남5)
비교군	저는 그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농어촌 전형이 가능했고, 학교 인원도 많고 제 지역에 고등학교 중에서 그나마 분위기도 가장 좋다고 했어요. (비교군5) (다니는 학교를 선택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 같은 재단이니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사고 고민하기도 했는데 가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비교군1) 이과를 오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 과학, 통합 사회로 배웠거든요. 근데 성적이 나 흥미, 재미를 봤을 때는 과학이 사회보다는 나아서 이과 쪽으로 오게 됐어요. 하지만 뭘 하겠다는 건 아직 없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요?) 네. (비교군6)

공부태도 및 희망하는 직업군

- **(공부태도에 대한 강남-비교군 집단 차이)** 공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강남권 아동들과 비교군 아동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임
 - 강남권 아동들의 경우,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로의 진학이나 진로 계획이 명확하여, 학생으로서의 단기 목표인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으로 공부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비교군 아동 중에도 뚜렷한 목표를 가진 아동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더 두드러졌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 ‘공부를 해놓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와 같이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구체적 진로가 정해져 있든 그렇지 않든, 강남권-비교군 아동 모두 공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
- **(선호하는 직업군)** 정량조사에서 강남권 아동이 전문직을 선호하는 비율은 55.0%로, 비교군 아동(35.2%) 및 전체 조사 아동 평균(41.6%)에 비해 강남권 아동들은 본인의 장래희망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많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임
- **(부모의 직업)** 강남권-비교군 아동부모(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기술직(강남권 54.0%, 비교군 48.3%) 비중이 높음. 다만, 강남권 아동은 사무직-기술직 다음으로 경영직-관리직 비중(21.%)이 높았는데, 이러한 부모 자본이 강남권 아동들의 선호 직업군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58> (정성조사) 공부에 대한 태도

구분	공부시간	주요 내용
		방학인데도 공부만 하다 보면... 볼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부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강남1) (하루 중에 정말 하기 싫은 건?) 공부. 솔직히 학원은 재밌는데 (혼자 공부하는) 1시간 반이 좀 더 싫어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지루하다(느낌이에요.) (중략) 그래도 중학교 와서는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서 학교에 갔다 오면 1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강남3) (평소에 하기 싫었던 활동이 뭐가 있었나요?) 공부하는 거 말고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괴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수업 들을 때. (강남6)
강남권	과다	(앞으로 중학교를 가니까 좀 더 이런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을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요. (공부하는 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할 안 하나 봐요?)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강남2) 공부를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강남4)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앞두고 있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강남5)
비교군	과다	(가장 하기 싫은 건?) 공부하는 것. 시작하고 나면 괜찮은데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할 게 너무 많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래도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니깐 중요할 것 같아요. (비교군1) 뭔가 좀 더 핸드폰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공부하는 시간은 적은 것 같아요. (비교군2) (공부는 해야 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군6) 취미활동 하면 행복하긴 하죠. 하지만 공부를 빠질 수는 없죠. 무조건 하긴 해야 되니까. 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든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고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꿈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해놓고 성적 올려놓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제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으니까... (비교군5)

<표 159> 보호자(아버지) 직업군

단위(빈도, %)

		전체	자유직, 전문직	경영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능직, 작업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무직	해당 없음 (안 계심)
강남권	빈도	100	9	21	54	4	2	-	8	2	-
	비율	100.0	9.0	21.0	54.0	4.0	2.0	-	8.0	2.0	-
비교군	빈도	118	3	9	57	7	17	1	16	2	6
	비율	100.0	2.5	7.6	48.3	5.9	14.4	0.8	13.6	1.7	5.1
전체	빈도	218	12	30	111	11	19	1	24	4	6
	비율	100.0	5.5	13.8	50.9	5.0	8.7	0.5	11.0	1.8	2.8

<표 160> 전문직 관련 직업 희망 비율

단위(%)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전문직 관련 직업 희망 비율	41.6	55.0	35.2

주: [부가조사 초저 문22/초고이상 문40] 문22/문40. 희망하는 직업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장 희망하는 직업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 주세요. - ① 교육 계열(교사 또는 교수), ③ 의료 계열(의사, 간호사 등), ⑨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선택한 비율만 제시

3) 미디어 통제 요인

- 강남권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특징은 미디어를 정보습득 등 목적을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시간을 통제하며 사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점임

- **(미디어 통제)** 강남권 아동들은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정보습득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능동적으로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형태가 두드러짐. 특히, 학년이 올라 갈수록 게임과 같은 여가성 미디어 활동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모습이 나타남
- **(미디어 목적)** 비교군 아동들은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서는 자기 통제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음. 특히 비교군 아동들은 또래와 어울리고자 SNS나 게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아동에 비해 보다 여가적인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보임

<표 161> (정성조사)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핸드폰 게임시간 정해놓고 해요? 언제까지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10시에 자서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전까지 하다가 10시에 자요. 제일 약간 9시는 너무 일찍 자는 것 같고 11시는 너무 늦고 10시가 딱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스스로 정학 규칙이군요?) 네. (강남2)
	(한 번 게임할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할 때 많으면 2시간 정도, 적을 때는 30분만 하기도 하고. (강남3)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 종목 관련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미래에 유망할 것 같으면 관련 기업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강남4)
	유튜버가 지식을 말하는 그런 채널도 봐요. 사회생활에서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요 (강남2)
비교군	중학교 때랑 고1 때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게임은 안 하고 있어요. (강남6)
	(평일에는) 2, 3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은 안하고) PC 게임을 해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한 번 하면 대략 7~8시간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비교군3)
	게임하는 음성 채팅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디스코드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 인스타그램 DM 단체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스타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날 때 차에서 버스에서 잠깐씩 보고요. 릴스를 보기도 하고 애들이랑 DM도 하니까 총 2~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하다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빨리 끊으려고 편입니다. (비교군5)
	(여러 가지 미디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듣기 아니면 게임. (보통 하루에 게임은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많을 때는 주말에 2,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통화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군6)

4. 강남권 거주 아동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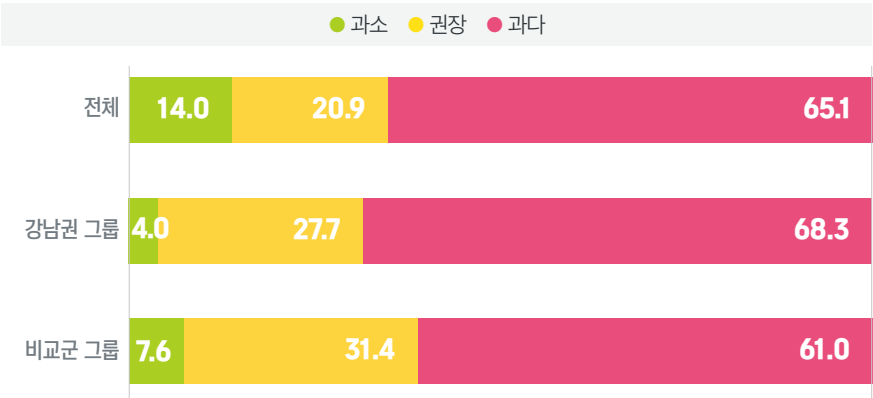
1) 학업 일상

① 공부 시간과 패턴

- 강남권 아동의 공부시간이 비교군의 그룹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주말 사교육 비중 및 개수 역시 비교군보다 강남권 아동에게서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음
 - 강남권 아동의 경우 수업 이외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특히 정성조사에서는 강남권-공부시간 과다그룹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음
-
- **(공부시간)** 공부 시간은 강남권 그룹이 3시간 42분, 비교군 그룹이 2시간 44분으로 강남권 그룹이 비교군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더 길었음
 - 강남권 아동 중 공부시간 과다 그룹에 속한 아동은 68.3%, 비교군 아동 중 공부시간 과다 그룹에 속한 아동은 61%임
 - **(학원과 주말사교육)** 공부시간과 사교육과 관련하여, 강남권-비교군 학생들 사교육 이용방식 및 시간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량 조사에 따르면, 주말 사교육 비중은 강남권 그룹 아동이 비교군 그룹에 비해 높음. 주말 사교육을 1개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강남권 그룹 90.0%, 비교군 그룹 75.6%으로 강남권 아동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주말 사교육 평균 이용 개수도 예체능, 기타를 모두 포함했을 때 강남권 그룹에서 평균 2.4개, 비교군 그룹에서 평균 1.5개로 나타나 강남권 그룹의 평균 이용 개수는 전체 평균 1.8개에 비해서도 높았음
 - 주말에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 중 '학원' 이용 비율 강남권 그룹 73.5%, 비교군 그룹 47.5%로 큰 차이를 보임
 - **(학원 외 공부-혼자 공부하는 경향)**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 강남권-비교군, 공부시간 적정 이하-과다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서 비교군 그룹이 66.5분인데 반해 강남권 그룹이 127.6분으로 2배 가까이 더 길게 나타남

- 정성조사에서 비교군 그룹에 비해 강남권 그룹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음. 흥미로운 점은 공부시간 과다 그룹에 속한 아동 2명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강이나 스터디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강남권-공부 시간 적정 이하 그룹에 속한 아동 4인은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임
- 강남권-비교군과 상관없이 공부시간 과다 그룹 아동에게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 주로 언급하는 경향을 보임. 주로 인터넷 강의, EBS 등을 활용해 혼자 공부한다는 응답이 공통적이었고, 강남권 아동 중 한 아동은 zoom을 켜놓고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공부한다고 응답하여 “따로 또 같이”의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함

[그림 74] 공부시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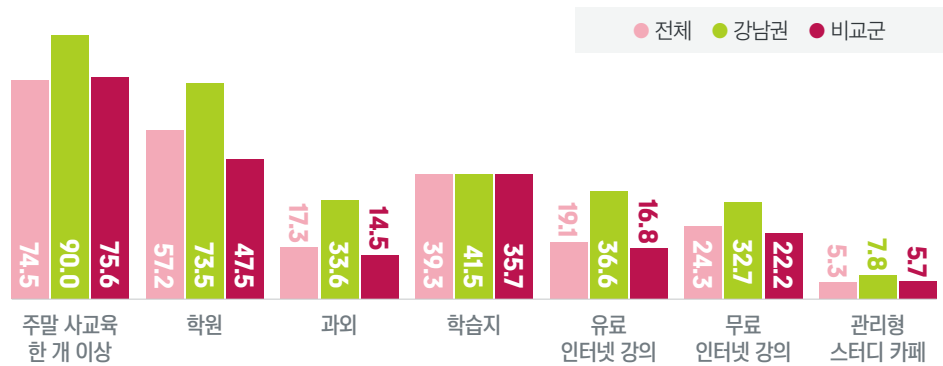


<표 162> 공부시간 단위(시간:분, 명,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공부 시간		2:45		3:42		2:44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공부 시간	전체	10,140	100.0	101	100.0	118	100.0
	과소	1,424	14.0	4	4.0	9	7.6
	권장	2,118	20.9	28	27.7	37	31.4
	과다	6,598	65.1	69	68.3	72	61.0

[그림 75] 주말 사교육

단위(%)



<표 163> 주말 사교육

단위(%)

	주말 사교육 1개 이상	학원	과외 (개인, 그룹)	학습지 (태블릿PC, 종이)	유료 인터넷 강의	무료 인터넷 강의	관리형 스터디 카페
전체	74.5	57.2	17.3	39.3	19.1	24.3	5.3
강남권	90.0	73.5	33.6	41.5	36.6	32.7	7.8
비교군	75.6	47.5	14.5	35.7	16.8	22.2	5.7

주: [부가조사 문2] 문2.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주세요.

<표 164> 주말 사교육 개수

단위(개)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국·영·수·사·과만	예체능, 기타 포함	국·영·수·사·과만	예체능, 기타 포함	국·영·수·사·과만	예체능, 기타 포함
주말 사교육 개수	1.3	1.8	2.0	2.4	1.3	1.5

<표 165>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단위(시간:분)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1:17	2:07	1:06

<표 166> (정성조사) 학원 공부 시간

구분	공부시간	주요 내용
강남권	적정이하	월, 금 영어 (학원) 갔고 3시부터 5시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집에 가요. (영어 학원 숙제는 어때요? 많은 편이에요?) 네. (강남2)
		국영수 학원 다니고, 다 다른 학원 다녀요. (한 과목 당) 3~4시간? 월, 수, 금에 수학 학원 가고 화, 목은 영어 학원 가고 토요일에 국어학원 가요. 6, 7시쯤 학원 가고 끝나면 10시에 와서 씻고 자요. (중략) 제가 학원을 안 다니면 혼자 거의 공부를 안 해서 학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원도 3~4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혼자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이라도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학원이라는 느낌인가요?) 네. (강남6)
		월, 수, 금 다니고 토요일까지 하니까 평균 3, 4시간 정도? (강남1)
비교군	과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2시간 반 정도 지금은 5시간 정도 다녀요 (강남3)
		화, 목은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8시 반에 끝나면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영어 빼고는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비교군1)
		2시 반 정도 (예) 바로 학원 갔다가 5시 (까지 2시간 정도) 수학, 영어 하는 학원 다녔어요. (지금은) 학원을 바꾸면서 수학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영어랑 국어가 딸릴까봐 학업지를 하고 있어요. (비교군2)
비교군	과다	월요일은 학원이 없고, 나머지 요일에는 바로 집에 와서 학원 갈 준비를 해요. (학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수학, 영어 듣고 요일마다 (조금씩 수업시간은) 달라요. (비교군4)
		수학 (학원)은 월, 수만 다니고 영어 (학원)은 다른 요일이라서 수학 다니는 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어요. (영어는) 목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있어요. (학원을 안 가는 요일도 있나요?) 고1 때는 있었는데 2학년 되면서 일요일 빼고 (학원에) 다 가요. (비교군6)

<표 167> (정성조사) 학원 외 공부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포함)

구분	공부시간	주요 내용
적정이하		(어려운 문제는) 혼자 최대한 생각하다가 안되면 별표 치고. (별표 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혼자 숙제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2, 3시간이요. (강남2)
		(인강은) 시험 기간에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이 있다 하면,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이라도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 아니면 딱히 안 봐요.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영상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본다는 얘기 같네요?) 네. (강남6)
강남권		저는 학원이 저랑 안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하는 게 편했어요. EBS를 들었고 메가스터디 패스를 끊어서 이용했던 것 같아요... 미리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강의를 들어봤는데... (강남4)
	과다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줌으로 같이 공부 계획도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스터디 그룹 느낌이지만, 만나서 하긴 그렇고... 혼자 할 땐 감시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서로 감시자가 되어 주는 거죠. 얼굴만 켜고 소리는 꺼놓고 하는 거죠. (강남4)
비교군		인강을 어릴 때부터 사용했어요. 야자를 하고 오는 날은 학교에 10시까지(3시간 정도)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안가는 이유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려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 있어서 하는 말에 웃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나는 오늘 하루 버틸 힘도 없는데 누구 앞에서 웃어주고 있으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농담에 나는 웃을 시간도 힘도 없는데 나는 내가 지금 궁금한 질문이 있으니 Q&A에 올려 필요한 답만 듣고 싶은데 거기서 약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로한 것 같아요. (강남5)
	과다	인강은 이투스랑 대성 켜 듣고... 수학, 국어, 화학, 물리 4과목 정도? 영어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수학과 원래는 학원을 다녔는데, 수학은 학원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어서 인강으로 바꿨거든요. 나머지 과목도 인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개인공부나 숙제는 방과 후 2~3시간 정도? (비교군1)
비교군		예습할 때 EBS나 유튜브로 찾았을 때 나오는 거 많이 봐요. 1시간에서 3시간은 무조건 (공부) 해요. (비교군2)
	과다	인터넷 강의는 (2주에 한 번 정도) EBS 보는 거랑 밀당PT 영어하는 거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비교군3)
		학원을 안 다녀서 그냥 인강을 자주 보거든요. 인강 보면서 개념도 보고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인강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학을 듣고, 굳이 안봐도 되는 강의는 안보거나 아버지랑 같이 하거나, 강의도 정말 가끔 이해가 안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거나 강의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비교군5)

② 양육자의 교육관

- 강남권 양육자의 교육 열의는 비교군 아동들의 양육자에 비해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음
- 강남권 양육자의 교육 관여 수준은 비교군 아동들의 양육자보다 더 높음

양육자의 교육열의

- 양육자의 교육열의 전체 평균 점수와 강남권 그룹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기준 2.3점이었으며, 비교군 그룹의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강남권 양육자의 교육열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강남권-비교군 양육자의 교육 열의가 크게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정성조사에서 강남권-비교군 아동 양육자의 교육열의 내용과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강남권 아동들의 양육자는 비교군 아동들의 양육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교군 아동들의 양육자는 가급적이면 아동이 원하는 쪽으로 지지하는 느낌에 가까우며, 교육을 부모 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키려 하거나 조율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음. 아동이 원할 시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 가까움

<표 168> 양육자의 교육열의 (4점 만점)

단위(점, 4점 만점)

	전체 평균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한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친구나 자녀의 친구 부모님들과 교류한다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 가까운 도서관에 들르는 일이 많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라고 말할 때가 많다	여러 외부 활동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막기 위해 체력단련이나 영양공급에 신경을 쓴다
전체	2.3	2.5	2.2	2.2	1.8	2.7
강남권	2.3	2.4	2.3	2.1	2.0	2.8
비교군	2.2	2.5	2.2	2.1	1.8	2.5

주: [부가조사 초저 문14/초고이상 문21] 문14/문21.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표 169> (정성조사) 양육자의 교육 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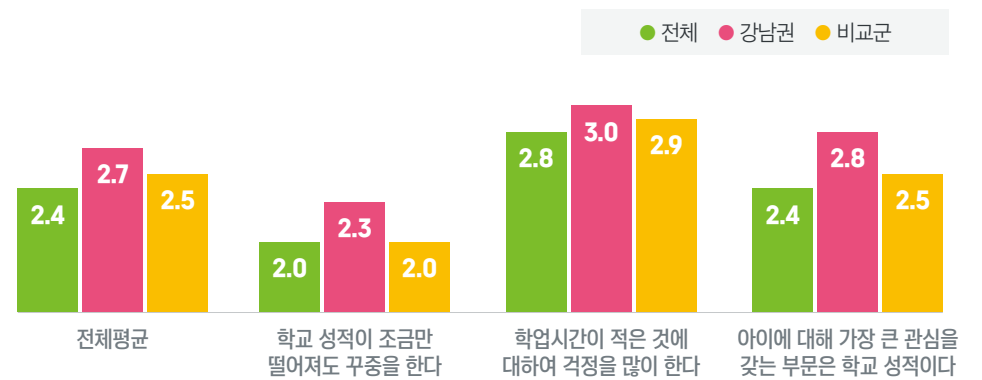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걸) 부모님한테 말하니깐 공부는 해야 된다고는 하시는데... 결국은 다 공부더라고요. (중략) (학원을) 줄여보려고 (부모님을 설득)했는데 이게 최소한이라서 줄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중략)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셔서 한국 공부를 모르셔서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어머니는 4등급까지 올려보자 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1)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다 시키잖아요. 수영이든 피아노든 다 시키잖아요. (부모님이 일을 다 스케줄링 해주셨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강남4) 아빠가 어쨌든 제가 검사가 되는 거 이런 거 궁금하다고 그러면 검찰청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에 궁금증을 가지면 항상 해소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남5)
비교군	공부하는데 관심은 많은데 딱히 러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같은 건 저랑 같이 알아보고요. (비교군1) 부모님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셔서... 아무생각 없고... 지원 해준다고는 말씀 해주시고요. (비교군6) (부모님께서 공부에) 지원 엄청 많이 해주시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라고 해주시고 이거 사고 싶다,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비교군5)

양육자의 교육관여

- **(강남권-비교군 아동부모의 교육관여 차이)** 강남권 그룹의 양육자의 교육 관여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인 2.4점을 상회하는 2.7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군 그룹의 평균 점수는 2.5점으로 상대적으로 강남권 그룹에 비해서는 낮았음
- **(교육 관여의 내용)** 강남권 아동들의 양육자는 아동들의 공부 시간을 통제하고, 학업 계획을 지도 및 관리하는 등 비교군 아동들의 양육자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관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학업의 내용, 시간, 학업과목의 균형, 향후 입시를 대비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여함. 반면, 비교군 아동 양육자들은 아동이 부족한 부분을 요청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로 교육에 관여하며 상대적으로 아동의 재량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음
- **(교육 관여 집중 시기)** 이러한 강남권 아동 양육자의 교육 관여는 초등학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권 아동들은 해당 시기의 영향으로 본인의 학업 시간이나 공부 습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그림 76] 양육자의 교육 관여

단위(점)



<표 171> 양육자의 교육 관여

단위(점, 5점 만점)

	전체 평균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꾸중을 한다	학업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한다	아이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문은 학교 성적이다
전체	2.4	2.0	2.8	2.4
강남권	2.7	2.3	3.0	2.8
비교군	2.5	2.0	2.9	2.5

주: [부가조사 초저 문15/초고이상 문22] 문15/문22.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표 170> (정성조사) 양육자의 교육 관여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하루에 스케줄은) 부모님이 조정해주세요. 보통 학원 어디에 언제 다닐지 정해 주시고... (지금 다니는 학원도 부모님이 정해주셨나요?) 네. (중략)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학원에 주 5일 동안 가니까 거의 다 부모님이 관리를 해줬거든요. (강남1) 아빠가 정해주신 게 있는데 중학교를 올라가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해서 학교에 갔다 오면 1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방학에는 아침 12시까지 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하고요. (강남3) 4학년 겨울방학부터 선행학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했고... 1시간 반 공부는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학원을 다니고 예체능을 다니고 다 스케줄링을 해주셨어요?) 4학년까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리고 학원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니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남4) 엄청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알림장에 체크리스트처럼 몇 시에 뭘 하고 적게 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시간관리가) 당연해진 것 같아요. (강남5)
비교군	(부모님께서 어떤 학원을 다녀보라 아니면 학업지를 해보자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예요?) 제가 먼저 필요해서 말하고 끝는 것도 제가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비교군4) (학업지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학원을 바꾸면서 수학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영어랑 국어가 딸릴까 봐 구문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비교군2) 저희 부모님이 원래 학원을 처음부터 안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랑 많이 다르니까요. (비교군5)

2) 수면 일상

- 수면시간량은 강남권 그룹이 7시간 27분, 비교군 그룹이 8시간 1분으로 나타남
- 강남권 아동의 수면시간은 전체 평균 아동의 수면시간량인 8시간 25분에 비교했을 때, 약 1시간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수면시간 과소집단의 비율도 강남권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불면 경험 비율 역시 강남권 아동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강남권-비교군 간 수면시간 차이)** 수면시간 과소 집단은 강남권 그룹에서 30.7%, 비교군 그룹에서 21.2%로 나타나, 전체 기준인 18.8%보다 높았음. 특히 강남권 그룹은 전체 대비 1.5 배 가량 높게 나타나 강남권 아동들이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불면 이유)** 아동들이 꼽은 불면 이유로는 강남권 그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53.0%)’,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44.5%)’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교군 그룹에서는 ‘늦은 시간 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62.3%)’,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62.2%)’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수면일상, 고학년, 학업시간 간의 관련성)**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강남권-비교군을 막론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시간이 많아지거나, 학원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172> 수면시간

단위(시간:분, 명,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수면 시간	8:25		7:27		8:01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수면 시간 전체	10,140	100.0	101	100.0	118	100.0
과소	1,902	18.8	31	30.7	25	21.2
권장	8,223	81.1	70	69.3	92	78.0
과다	15	0.1	0	0.0	0	0.0

<표 173> 불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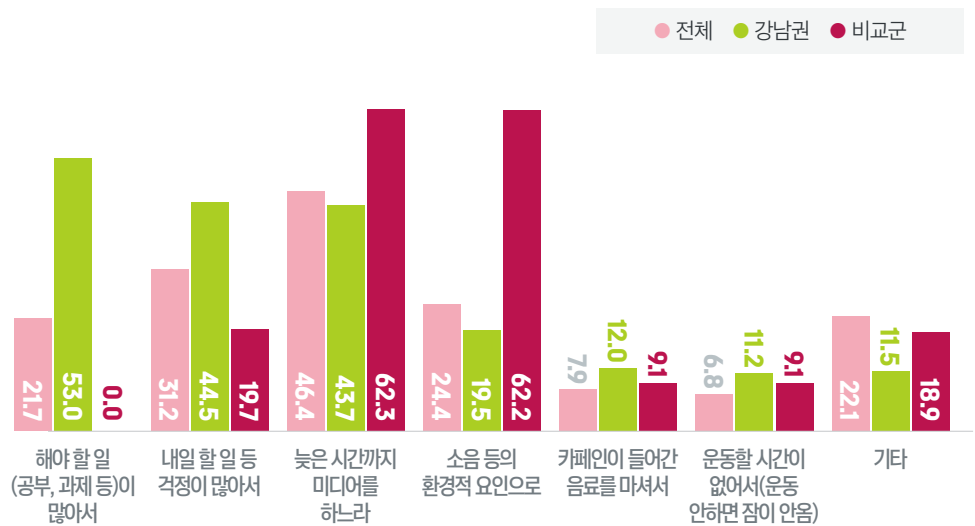
단위(%)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불면 여부	13.1	86.9	18.3	81.7	16.9	83.1

주: [부가조사 문4] 문4.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나요?

[그림 77] 불면 이유

단위(%)



<표 174> 불면 이유

단위(%)

	해야 할 일 (공부, 과제 등) 이 많아서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늦은 시간까지 미디어를 하느라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운동 안하면 잠이 안옴)	기타
전체	21.7	31.2	46.4	24.4	7.9	6.8	22.1
강남권	53.0	44.5	43.7	19.5	12.0	11.2	11.5
비교군	0.0	19.7	62.3	62.2	9.1	9.1	18.9

주: [부가조사 문4-1] 문4-1.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표 175> 수면시간

구분	주요 내용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7시간 가까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잠을 안 자면 생활이 힘든 걸 봤을때... (강남5)
강남권	(가장 필요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부족한가요?) 부족하진 않지만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강남3)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이라 학교 다닐 때는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평소에 가장 하기 싫은 활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강남6)
비교군	저는 (수면시간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졸린 걸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학교를 가면 거의 맨날 졸아서...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줄이 늦게 끝나면 늦게 잘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고2 되면서부터는 일요일 빼고 학원을 다 가요. (비교군6)

3) 여가 일상

- 여가시간의 경우 비교군 아동들의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디어 여가 시간 활용 및 패턴에 있어 강남권 아동 그룹과의 큰 차이를 보였음
- 미디어 시간 사용은 강남권 아동보다 비교군 아동의 사용량이 높음. 특히 게임활동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강남권 아동은 미디어 활용을 상대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을 보임
- 강남권 아동의 일부는 학업유지 및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미디어 외 여가활동 및 운동 시간을 갖는 경우가 관찰됨

여가시간에 대한 사용 전반 현황

- 여가시간의 경우 강남권 4시간 2분, 비교군 4시간 46분으로 비교군 아동들의 여가시간이 더 길었음
- 비교군 아동의 사용시간이 높은 여가 일상 항목은 대면교제 시간(42분), 미디어 여가(2시간 38분), 운동 및 신체활동(11분)이었음

- 강남권 아동의 사용시간이 높은 여가 일상 항목은 미디어 외 여가시간(23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29분), 기타활동(42분)이었음

<표 176> 여가시간 사용 현황

단위(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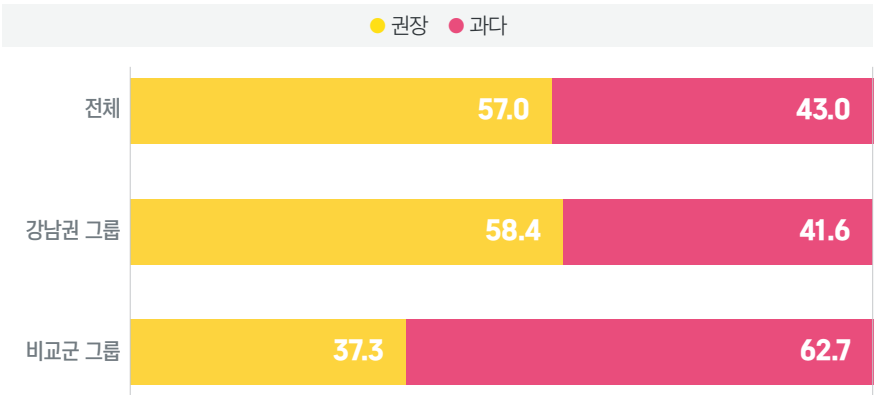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여가시간	4:02	3:57	4:05	4:46	4:36	5:00
대면교제	0:27	0:28	0:27	0:42	0:41	0:43
미디어 외 여가	0:23	0:18	0:25	0:18	0:11	0:28
미디어 여가	1:51	1:52	1:50	2:38	2:38	2:39
운동 및 신체활동	0:10	0:17	0:05	0:11	0:13	0:08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9	0:20	0:35	0:19	0:15	0:25
기타	0:42	0:42	0:43	0:38	0:38	0:37

미디어 여가시간 활용

- 비교군 아동의 동시행동을 고려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3시간 2분, 동시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미디어 사용 시간은 2시간 39분으로 강남권과 비교했을 때, 약 40~50분 정도의 차이를 보임
- 게임 사용시간의 경우 정량조사에서 비교군 그룹이 강남권 그룹보다 2배 이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성조사에서도 게임에 대해 언급하는 아동들에게 게임 시간을 질문하였을 때 비교군 아동들이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강남권 아동들은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정보습득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능동적으로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형태가 두드러짐
- 비교군 아동들은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활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졌음. 특히 코로나 이후 미디어를 통한 여가사용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하는 아동도 있었음
- 성별에 따라 미디어 사용 여가시간의 형태도 달랐는데, 남자 아동의 경우 주로 게임을 이용하는 반면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8] 미디어 여가시간

단위(%)



<표 177> 미디어 여가시간 단위(시간:분,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미디어시간	1:49		1:51		2:39	
	2:10*		2:11*		3:02*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미디어 시간 전체	10,140	100.0	101	100.0	118	100.0
권장	6,728	66.4	69	68.3	56	47.5
	5,776*	57.0*	59*	58.4*	44*	37.3*
과다	3,412	33.6	32	31.7	62	52.5
	4,364*	43.0*	42*	41.6*	74*	62.7*

* 동시행동 미디어시간 포함 시

<표 178> 게임 주행동 시간량 단위(분)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게임 시간량	39.6	33.6	73.0

<표 179> 시간대별 게임이 종료된 행위자 비율

단위(%)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7:00	2.2	1.8	2.6	5.3	5.2	5.4
18:00	3.0	4.1	2.1	4.2	1.7	7.9
19:00	1.9	2.5	1.4	3.5	1.8	6.0
20:00	6.6	13.6	1.4	10.5	16.3	2.4
21:00	7.3	9.3	5.7	8.1	7.9	8.3
22:00	11.5	13.7	9.8	11.2	15.5	5.0
23:00	4.4	0.0	7.6	6.0	6.4	5.4
24:00	2.1	5.0	0.0	8.0	11.3	3.3
17:00~24:00 누적	38.9	49.8	30.7	56.8	66.0	43.7
1:00	0.0	0.0	0.0	2.2	2.1	2.4
2:00	0.7	0.0	1.3	1.5	2.6	0.0
전체 누적	39.7	49.8	32.0	60.6	70.8	46.1

주: 본 시간대에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후 종료되어 더 이상 게임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비율

<표 180> (정성조사)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구분	성별	주요 내용
강남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요즈음 유행하는 게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2~3명 정도 모여서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강남1)
	남자	컴퓨터로 피파온라인을 하고, 대부분 친구들이랑 해요. (강남3) 주말은 공부 계획을 빡빡하게 잡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마땅히 할 게 생각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요즈음에는 점점 갈수록 책도 다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가는 것 같아요. (강남4)

구분	성별	주요 내용
강남권	여자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연락해요.) 카톡보다 DM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 되게 귀여운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공유하기도 해요. (강남6) SNS는 친구들 연락하는 정도? 카톡이나 유튜브를 봐도 20분 내외로 보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까지 그걸 볼 바에는 자겠다. 싶기도 해요.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뜨면 보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바빠서 딱히 메이크업을 할 시간도 없고요. 진짜 지금 할 게 없으면 보는 거지 뭐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남5)
	남자	(평일에는) 2, 3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은 안하고) PC 게임을 해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한 번 하면 대략 7, 8시간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비교군3) 만나게 되면 영화보거나 노래 부르러가지만, 따로 만나지 않으면 같이 PC방이나 집에서 같이 게임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많을 때는 주말에 2, 3시간 하는 것 같고... 혼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통화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축구하고 뛰어 놀았는데 애들이 게임 같은 걸 하면서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게임하는 것 같아요. (비교군6)
비교군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해서 엄청 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다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말에 엄청 몰아서 6, 7시간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SNS는 그냥 보거나 인스타 답장 같은 거 해주거나 그 정도? (비교군5)
	여자	초등학교 때는 아예 전자기기를 거의 모르고 살아서 그랬던 것 같고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온라인이 활성화 됐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중3 때부터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사용에) 맞들린 것 같아요. (비교군1) 인스타그램이 카톡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게시물 올려서 취미 공유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게 더 편해서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제 그림도 자주 올리고... 릴스나 여행 갔을 때 사진 많이 올려요... 친구들이 하루 정도 지나면 하트도 두르고 댓글도 달아요. (비교군2) DM으로 서로 뭐하냐고 계속 연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스토리를 올려서 뭘 했는지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비교군4)

미디어 외 여가시간 활용

- 미디어 외 여가시간의 경우, 비교군 그룹보다는 강남권 그룹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성조사에서 강남권 아동의 미디어 외 여가시간은 가족과 기타를 배우러 다니는 한 아동을 제외하고는, 가만히 누워있기, 음악 듣기, 걷기 등과 같은 스트레스 이완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주된 여가활동으로 언급함. 그러나 비교군 아동은 스포츠, 운동, 악기 배우기, 그림그리기, 팬덤 활동 등 활동성이 있는 여가를 언급하였음

<표 181> 미디어 외 여가시간

단위(시간:분)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미디어 외 여가시간	0:27	0:23	0:32	0:23	0:18	0:25	0:18	0:11	0:28

<표 182> (정성조사) 미디어 외 여가시간

구분	성별	주요 내용
강남권	남자	(여가시간에는 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시간이에요. (왜 가만히 쉬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편해요. 진짜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렇게 충전하는 건가요?) 네. (강남2)
	여자	광화문, 하늘공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받을 때마다 그런 공원에 가서 계속 걸었어요. 걷는 걸 계속 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강남4)
	여자	주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은 자기 전에 틀어 놓고 자서 되게 오래 들어요. 공부하면서 들을 때도 있는데, 자기 전에는 음악에 집중해서 음악만 들어요. (중략) 하지만 이런 하루가 만족스럽진 않아요.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강남6)

구분	성별	주요 내용
	남자	농구도 좋아하는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악기 연주도 많이 해요... 심심하거나 쉬는 시간이면 웬만하면 8, 90%는 기타 잡고 치다가 할 거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 게 제일 기대돼요. 기타랑 드럼이랑 칠 줄 아는데 드럼은 집에 없어서 따로 연습실에 가서 따로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고요. 그리고 기타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나 갑자기 기타가 치고 싶을 때가 있어서 딱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한번 칠 때 3, 40분 치고 다시 할 거 하는 것 같아요 (비교군5)
비교군	여자	유튜브 보고 웹툰도 보고 아니면 관심 있는 걸 찾아보거나 기타도 배우고 다양한 것 같아요. (요새는) 기타를 독학하고 있어요. (비교군1)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친한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며) 어울리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미술학원도) 5학년 1학기 때부터 다녔는데... (그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졌군요?) 네... 이젠 아이패드도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비교군2) 뉴진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단기간에만 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카페에 갈 때 서로 같이 가고요. 그 친구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있을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카페 찾는 것도 재밌고, 카페 안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면서 같이 있기도 하고요. (비교군4)

운동 시간 활용

- 운동 시간은 강남권 그룹에서 평균 10분, 비교군 그룹에서 평균 11분으로 서로 비슷한 수준임
- 강남권-비교군 아동의 운동 시간대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 강남권 그룹은 늦은 저녁인 9시대에 운동을 하는 비중이 높았으며(4.5%), 비교군은 이른 저녁 시간대인 6시(4.7%)~6시 반(5.0%)에 하는 경향을 보임
- 강남권 아동들의 경우 체력 및 학업컨디션 관리를 위해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하지만, 비교군 아동들은 단순히 흥미와 취미 차원에서 운동하는 특성이 나타남. 즉, 강남권 아동들은 운동시간 역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두드러짐

<표 183> 운동 시간

단위(시간:분,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운동 시간	0:16		0:10		0:11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운동 시간 전체	10,140	100.0	101	100.0	118	100.0
과소	8,840	87.2	94	93.1	111	94.1
권장	1,300	12.8	7	6.9	7	5.9

<표 184> 시간대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

단위(%)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7:00	2.7	6.2	0.0	1.9	0.0	4.6
17:30	1.6	3.7	0.0	1.4	0.0	3.3
18:00	0.5	1.2	0.0	4.7	6.1	2.7
18:30	0.0	0.0	0.0	5.0	6.1	3.3
19:00	0.0	0.0	0.0	2.6	4.4	0.0
19:30	0.0	0.0	0.0	1.5	2.6	0.0
20:00	1.6	2.2	1.1	4.0	6.9	0.0
20:30	2.9	4.0	2.1	4.0	6.9	0.0
21:00	4.5	6.1	3.2	4.1	5.2	2.4
21:30	1.6	2.2	1.1	3.8	4.8	2.4
22:00	1.7	2.2	1.4	3.3	3.9	2.4
22:30	0.8	0.0	1.4	1.0	1.8	0.0
23:00	0.8	0.0	1.4	0.0	0.0	0.0
23:30	0.8	0.0	1.4	0.0	0.0	0.0
전체 누적	19.4	27.7	13.2	37.3	48.7	21.0

주: 본 시간대에 10분 이상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사람들의 비율

<표 185> (정성조사)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복싱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복싱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걸 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게 된 거예요?) 네. 운동하려고요. (운동도 여러 종목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중에서 복싱이었어요?) 키도 커야 되고 자기 몸도 지킬 줄 알아야 돼서요. (강남2) 친구들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유산소를 하거나 웨이트를 해요. 1시간씩. 공부할 때도 방해가 되고 체력이 부족해져서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고 키도 더 안 커서 유산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강남4) 운동은 예전에 센터에서 줄넘기나 운동 같은 걸 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밤에 하기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남1)
비교군	아침에 수영을 해요. 월, 수, 금 6시에... (수영하고 바로 학교로 가나요?) 네. (중략) 원래는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을 했어요. 특공무술은 검은띠까지 했고 태권도는 유치원 때 품띠까지 땀고 클라이밍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은 수영만 하고 쉬고 있죠. (비교군3)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시간 날 때 주말 이럴 때... 주중에는 친구들 시간이 다 안 맞으니까... 주말에 친구들 모아서 같이 농구장에 가거나 해요 한 7~8명. (비교군5)

4) 친구들과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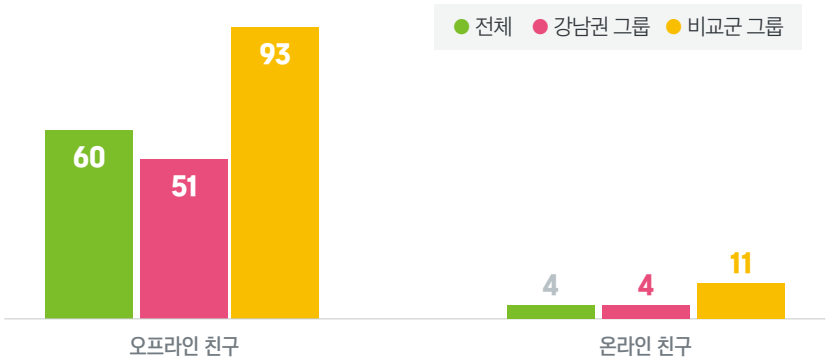
- 친구들과 대면교제를 하는 시간은 비교군 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비교군 아동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높고, 특히 정량조사에서는 고민 시 대화상대로 친구를 꼽은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남
- 정성조사에서 강남권 아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도, 친구와의 깊은 관계맺음을 통해 본인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임

평상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과 관계의 의미

- **(방과 후 친구들과의 일상)** 방과 후 오프라인 친구와 함께 보낸 평균 시간은 강남권 그룹 51분, 비교군 그룹 93분으로 비교군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 한편, 방과 후 온라인 친구와 함께 보낸 평균 시간 또한 강남권 그룹 4분, 비교군 그룹 11분으로 비교군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고민 시 대화상대)** 고민 시 대화상대로 친구나 선후배를 응답한 비율은 강남권 그룹 22.6%, 비교군 그룹 26.6%로 비교군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 강남권 아동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고 깊게 여기고 있었음. 학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강남권 아동들은 비교군 아동들에 비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함.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시간으로 인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느꼈고, 한 아동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오히려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언급함
 - 비교군 아동들은 친구를 본인의 흥미와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설명함. 그렇기에 같은 흥미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친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됨
 - 특이점은 비교군 아동들에게서만 온라인 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음. 한 비교군-남자 아동은 게임을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친구들과 만난다고 응답하였으나, 또 다른 비교군-여자 아동은 현실 친구에게는 하기 어려운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등 관계 지향적인 목적으로 온라인 친구와 만난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온라인 친구관계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함

[그림 79] 방과 후 함께한 사람

단위(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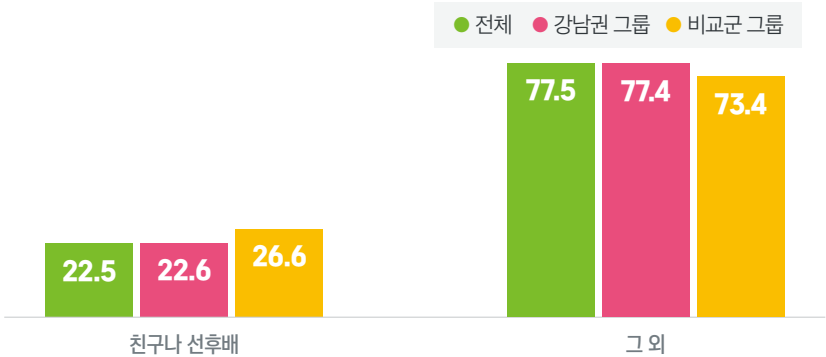
<표 186> 방과 후 함께한 사람

단위(시간:분, %)

	전체		강남권 그룹		비교군 그룹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전체	7:14	97.8	7:07	100.0	7:25	100.0
혼자	3:31	90.3	4:45	98.2	3:58	94.4
가족	2:39	85.7	1:27	83.2	1:43	87.9
오프라인 친구	1:00	53.1	0:51	51.1	1:33	75.1
온라인 친구	0:04	5.5	0:04	7.0	0:11	12.1

[그림 80] 고민 시 대화상대

단위(%)



<표 187> 고민 시 대화상대

단위(%)

	친구나 선후배	그 외	전체
전체	22.5	77.5	100.0
강남권 그룹	22.6	77.4	100.0
비교군 그룹	26.6	73.4	100.0

주: [부가조사 초고이상 문25] 문25.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 중 주로 누구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표 188> (정성조사)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구분	성별	주요 내용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게임 얘기도 하고,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이야기 도 하고...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됐나요?) 네 반은 달라졌어요. (중략)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짧으면 2시간이고 길면 4~5시간?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강남3)
강남권	남자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로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 자주 만나면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딱히 가릴 게 없으니까. (대화 예) 필터 안끼고... (친구 만나는 시간)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친구 만나는 게 2시간이면 학원이 5, 6시간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강남1) 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랑 어디 나가서 노는 경우가 많아서 매일 생각해 보면 하루에 30분 정도? (중략)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부모님이랑 있으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나의 모든 걸 보여주긴 어렵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부모님에 비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강남4)
강남권	여자	동네 친구 한명하고는 그래도 3~4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걸기도 하고 음료수 마시기도 하고 별거 아닌 얘기하고. 진짜 밤에 11시에도 어차피 같은 아파트 동네니까 잠깐 내려와서 나랑 놀자고 짧게 10분, 길어지면 30분 이렇게라도 돌이 잠깐이라도 수다를 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돌이 만나서 그냥 그래 너도 이 정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다 그 정도로 얘기해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남5)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하는 것도 더 편한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도 친구들에게 말하는 편이고요. (강남6)

구분	성별	주요 내용
비교군	공통	친구들이랑 주말에 모여서 같이 놀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서 게임하고 애들하고 노는 것. 친구가 아마 가장 좋고 소중한 것 같아요. (비교군6) 주말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요. 저는 중학교 올라와서 새로 사귄 친구들 다 농구로 친해졌거든요. 새로 친구들 사귄 때는 말 거는 것도 괜찮은데 운동 같이 하면 직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비교군5) 각자 다른 아이돌이나 배우 좋아해도 그 아이돌이나 배우가 한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같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자주하고... 응답자 리저 영상 땀다고 구경하라고 그러고... 다른 가수 좋아하는 친구는 항상 어디선가 옛날 영상을 발굴해와서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들로 친구들과 가깝다고 느끼나요?) 네. (비교군4)
	온라인 (남자)	게임 오픈 채팅방에서 친했던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정작 말할 때는 어차피 못 보는 애니까 좀 더 편한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게임 때문에 만난 애들이니까 게임 얘기만 주로 했어요. 좋았던 점은 현실 친구가 제가 하는 게임을 안 하는데 그 친구가 한다는 점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군6)
	온라인 (여자)	(온라인 친구는) 10명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소문 낼 위험이나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고민도 얘기하기 편해요. (비교군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시간

- 강남권 및 비교군 그룹은 공통적으로 주말에 친구들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함
- 비교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도심', '서울', '시내' 등 거주지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친구들과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거주지역 내 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권 아동들에 비해 공간제약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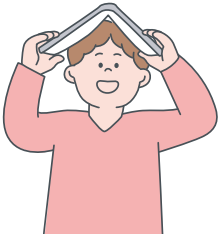
<표 189> (정성조사)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구분	주요 내용
강남권	거의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이 학교랑 학원이니까 혼자 쉬거나 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중략) 일요일에 만나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6~8시간 정도? 카페에 가거나 인생네컷 사진 찍거나 노래방에 가서 놀아요 (강남6) 길거리를 같이 걷기도 하고 강남에 가서 놀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만나는 장소는 지하철 근처? 친구들과하고 같이 가면 노래방이나 보드게임 카페에 가는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거나 하죠. (강남4)
비교군	도심 비슷한 느낌이 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애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락실도 가면서 놀아요. 물론 몇 번 안 갔긴 하지만요. 저 포함해서 3~5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비교군3) 영화관은 집근처에 없어서 인근 시내로 나가요. 버스타고 가면 1시간, 짧으면 30분 걸려요... 주변에 놀만한 곳이 없어서 버스 타고 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죠. 영화관, 노래방이 크게 없어서... (중략)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PC방, 노래방 가는 게 끝... 나가는 데만 1~2시간이니까요. (비교군6) 서울보다는 비교적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백화점도 없고 놀이공원도 없어요. 놀거리가 많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거나 구경 다니는데... 요새는 서울만 가는 거 같아요. (비교군4) 초등학교 때는 되게 시골이라서 놀러 나가면 친구 집밖에 안 갔어요. 정말 할 것도 없고 애들끼리 버스 타고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내에 놀러 나간 게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근데 근처에 초등학교 하나가 더 있는데 개네들은 조금 도시다 보니까 개네들은 자유롭게 어릴 때 놀고 버스 타고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어릴 때는 친구집에서 놀다가 점점 시내로 나가거나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비교군5)

5) 정성조사 참여아동 개별 사례 분석

1 강남1 아동

<표 190> (정량조사) 강남1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1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강OO	• 소득 분위	8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고1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적정이하
	• 거주 시군구	A구	• 미디어 시간	과다

강남1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 학급 석차 : 10/17 (10/26)

📝 석차 비율(상중하) : 중 (중)

📖 성적평가(10점 만점) : 3 (7.1)

강남1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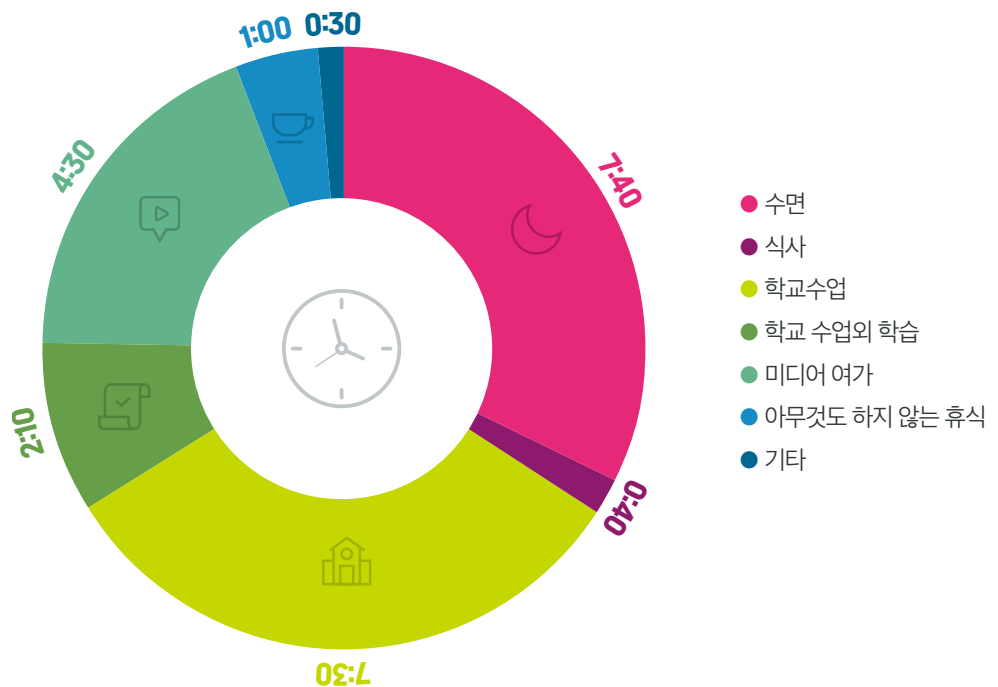
(): 강남권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4 (7.5)	😍 3 (6.8)	😞 17 (13.2)	😎 22 (30.4)	🚫 있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2시간 10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강남권 평균보다 본인의 성적 평가 정도가 낮음. 공부에 관심이 없으며, 공부만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음. 이에 대해 양육자를 설득하고자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양육자는 일정 수준을 요구하며 학원 스케줄 및 하루 일과에 대해 높게 관여하고 있음.
- 주말에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본인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양육자의 관여로 인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미디어 여가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과다 수준임. 친구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위주로 2-3명 모여서 미디어 시간을 보내는 편임.

- 친구들과는 편하게 말을 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하지만 평소 대면교제로 보내는 시간이 없고, 친구와의 대면교제 시간이 더욱 많아지길 희망하고 있음.
- 양육자와의 대화 및 교류시간이 1시간 정도로 길지는 않으나, 아버지와 게임을 통한 교류를 하기도 함. 한 달에 1, 2회 이상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문화 활동이 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은 4점, 주관적 행복감은 3점, 자아존중감은 22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낮음.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으며, 양육자로부터의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음.

[그림 81] (정량조사) 강남1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191> (정성조사) 강남1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아빠가 컴퓨터 세팅 해 주면서 다 깔고 컴퓨터는 딱히 제한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게임을 좋아하셔서... 물론 가끔 혼내시긴 했는데 게임 하는 거 러치는 안 하더라고요. (중략) (아버지와 게임) 예전에는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좋아하는 장르는 비슷한데 취향이 달라서 거의 혼자, 제가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해보고 서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태도	방학인데도 공부만 하다 보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부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이걸 내가 꼭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양육자의 교육열의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걸)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공부는 해야 된다고는 하시는데... 결국은 다 공부더라고요. (중략) (학원을) 줄여보려고 (부모님을 설득)했는데 이게 최소한이라서 줄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중략)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셔서 한국 공부를 모르셔서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어머니는 4등급까지 올려보자 하시는 것 같아요.
양육자의 교육 관여	(하루에 스के줄은) 부모님이 조정해주세요. 보통 학원 어디에 언제 다닐지 정해주시고... (지금 다니는 학원도 부모님이 정해주셨나요?) 네. (중략)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학원에 주 5일 동안 가니까 거의 다 부모님이 관리를 해줬거든요.
미디어 사용 내용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요즘 유행하는 게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2~3명 정도 모여서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로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 자주 만나면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딱히 가릴 게 없으니까. (대화)에 필터 안 끼고... (친구 만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친구 만나는 게 2시간이면 학원이 5, 6시간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② 강남2 아동

<표 192> (정량조사) 강남2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2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권○	• 소득 분위	9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초6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B구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강남2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학업 성적 평가(10점 만점) : 9 (7.1)

강남2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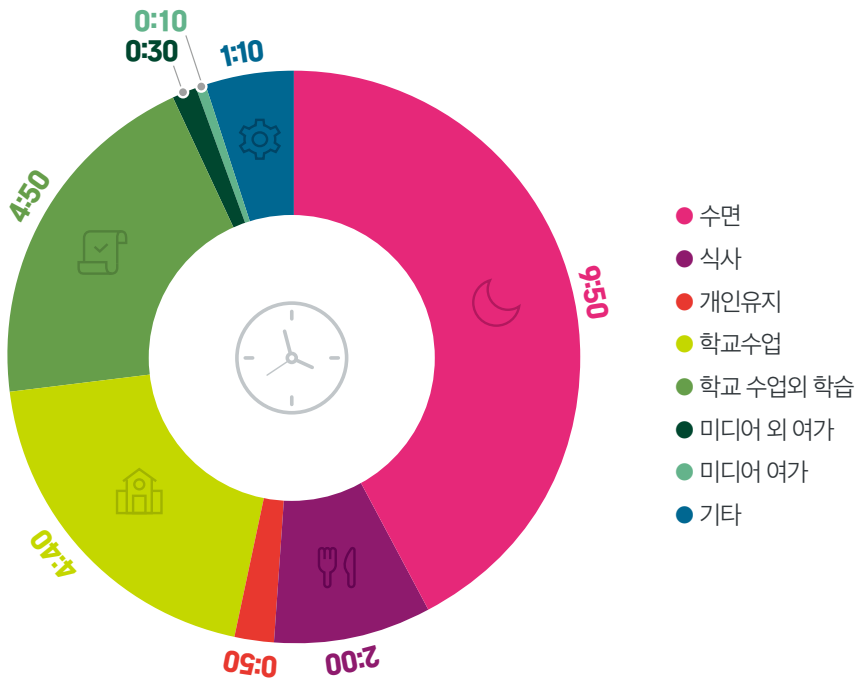
(): 강남권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9 (7.5)	😊 8 (6.8)	😞 10 (13.2)	😡 40 (30.4)	⑩ 없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4시간 50분으로, 과다 수준임. 숙제의 양이 많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지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하루 2, 3시간 정도 혼자 공부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도 최대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등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아 보임. 본인의 학업 성적 평가 정도 또한 강남권 평균보다 높음.
- 양육자의 교육 열의나 관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음.
- 주말에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양육자의 교육 열의나 관여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본인의 공부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이용으로 보임.
- 미디어 여가 시간은 10분 정도로 적정 이하 수준임. 스스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 두고 통제적으로 사용함.

- 여가시간에 미디어를 이용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쉬는 것을 즐김.
- 한 달에 1, 2회 이상의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생활이 있음.
-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가지고 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9점, 주관적 행복감 8점, 자아존중감 40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음.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0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낮으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82] (정량조사) 강남2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193> (정성조사) 강남2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루 중에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공부에 대한 태도	(앞으로 중학교를 가니까 좀 더 이런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을까요?) 공부 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중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요. (공부하는 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힘들어 요.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핸드폰 게임시간 정해놓고 해요? 언제까지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10시 에 자서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전까지 하다가 10시에 자요. 제일 약간 9시는 너무 일 찍 자는 것 같고 11시는 너무 늦고 10시가 딱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스스로 정학 규칙이 군요?) 네.
학원 공부 시간	월, 금 영어 (학원) 갔고 3시부터 5시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집에 가요. (영어학원 숙제는 어때요? 많은 편이에요?) 네.
학원 외 공부 시간	(어려운 문제는) 혼자 최대한 생각하다가 안되면 별표 치고. (별표 쳐서 선생님한테 물 어보는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혼자 숙제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 요?) 2, 3시간이요.
미디어 외 여가 시간	(여가 시간에는 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시간이에요. (왜 가만히 쉬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편해요. 진짜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렇게 충전하는 건가요?) 네.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복싱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복싱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걸 다 스스로 하고 싶 어서 하게 된 거예요?) 네. 운동하려고요. (운동도 여러 종목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중에서 복싱이었어요?) 키도 커야 되고 자기 몸도 지킬 줄 알아야 돼서요.

③ 강남3 아동

<표 194> (정량조사) 강남3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3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정○○	• 소득 분위	6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없음
	• 학년	초6	• 주말 사교육	없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적정이하
	• 거주 시군구	C구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강남3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학업 성적 평가 (10점 만점) : 10 (7.1)

강남3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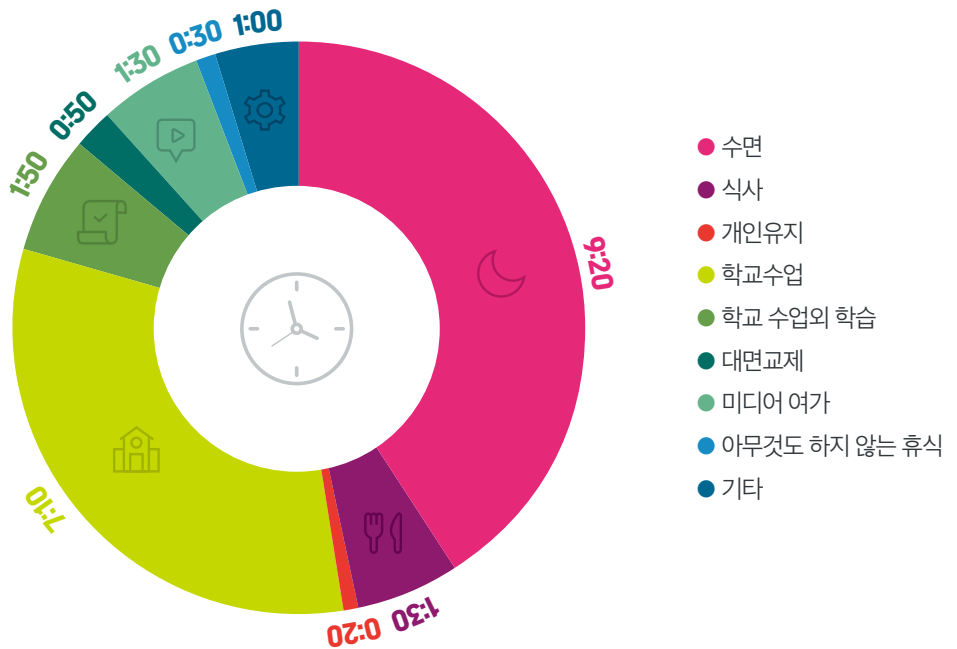
(): 강남권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9 (7.5)	 8 (6.8)	 11 (13.2)	 38 (30.4)	 없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1시간 50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싫어하지만, 양육자의 관여로 하루 1시간 30분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 본인의 학업 성적 평가 정도는 강남권 평균보다 높음.
- 핸드폰 사용 및 공부 시간에 대한 양육자의 관여가 높아, 양육자가 정한 시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주말에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한 달에 1, 2회 이상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문화 활동이 있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적정 이하 수준임. 주로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냄.
- 가족과 하는 특별한 활동 및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음. 가족 및 양육자와의 교류보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9점, 주관적 행복감 8점, 자아존중감 38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음.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1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낮으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83] (정량조사) 강남3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195> (정성조사) 강남3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친구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가족들은 그냥 대화를 안 하면 너무 가족인데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건 너무 이상해서.
공부에 대한 태도	(하루 중에 정말 하기 싫은 건?) 공부. 솔직히 학원은 재밌는데 (혼자 공부하는) 1시간 반 이 좀 더 싫어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이에요.) (중략) 그래도 중학교 와서는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서 학교에 갔다 오면 1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한 번 게임할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할 때 많으면 2시간 정도, 적을 때는 30분만 하기도 하고.
학원 공부 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2시간 반 정도 지금은 5시간 정도 다녀요.
양육자의 교육 관여	아빠가 정해주신 게 있는데 중학교를 올라가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해서 학교에 갔다 오면 1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방학에는 아침 12시까지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하고요. 4학년 겨울방학부터 선행학습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선행학습을 그때부터 했고... 1시간 반 공부는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학원을 다니고 예체능을 다니고 다 스케줄링을 해주셨어요?) 4학년까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사는 건가보다 그리고 학원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니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면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부족한가요?) 부족하진 않지만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컴퓨터로 피파온라인을 하고, 대부분 친구들이랑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게임 얘기도 하고,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이야기도 하고...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됐나요?) 네 반은 달라졌어요. (중략)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짧으면 2시간이고 길면 4~5시간?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④ 강남4 아동

<표 196> (정량조사) 강남4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4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박○○	• 소득 분위	9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중3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C구	• 미디어 시간	과다

강남4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학급 석차 : 1/21 (10/26) 석차 비율(상중하) : 상 (중) 성적평가(10점 만점) : 10 (7.1)

강남4의 감정

(): 강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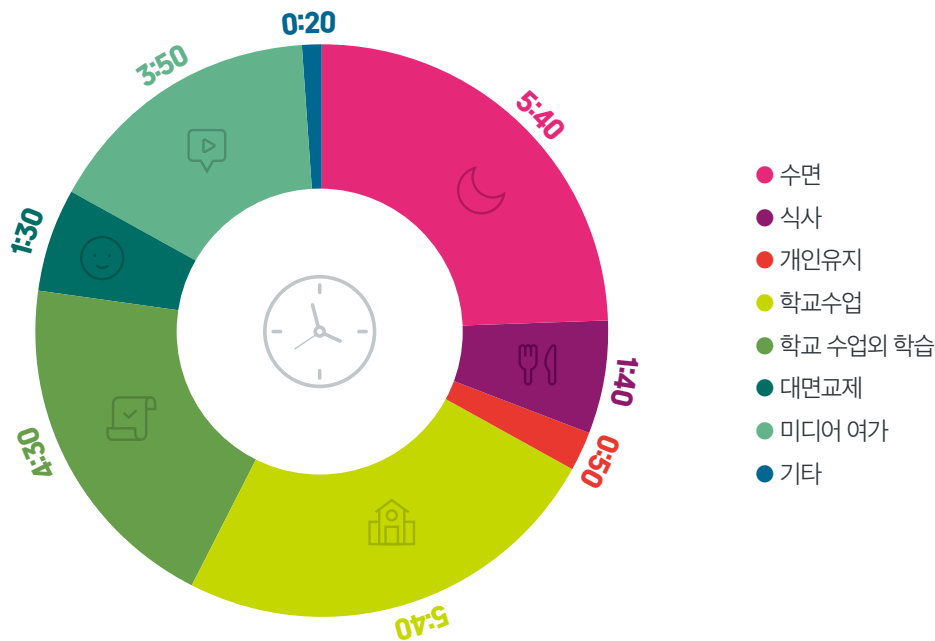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우울·불안
(30점 만점)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10 (7.5) 8 (6.8) 14 (13.2) 30 (30.4) 있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으로, 과다 수준임. 강남권 평균보다 석차 비율 및 성적 평가 정도가 높음. 미래를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단적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혼자 공부함.
- 과거 양육자가 스케줄링에 관여를 많이 함. 현재 아동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음.
- 진학할수록 양육자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함.
- 학업 및 진로에 관한 계획이 명확하며,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실행함.
- 미디어 여가 시간은 3시간 50분으로 과다 수준이며, 주로 유튜브를 시청함.
- 체중감량, 체력증진 등 본인이 세운 목적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10점, 주관적 행복감 8점, 우울 및 불안 정도가 14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으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음.

[그림 84] (정량조사) 강남4 아동 하루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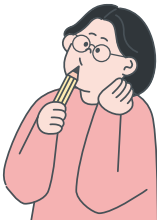
<표 197> (정성조사) 강남4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예전에는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들과 보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점점 줄어요. (부모님이) 주말에도 나가시긴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다 쉬는 날이 많진 않아요. (중략) 소중한 건 가족하고 보내는 게 소중한 거예요. 친구보다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지금 관심있는 분야가 환경 공학쪽이거든요. 신소재 쪽을 좋아해서 연구원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중략) 그래서 자사고를 준비했는데 떨어졌고, 일반고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다니는 학교가)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예요. 실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학교에 대한 정보도 스스로 찾아봤나요?) 제가 어차피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거든요. 자사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진학) 원서를 썼죠. (부모님 도움 없이) 앞으로도 이대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에 대한 태도	공부를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주제	응답내용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 종목 관련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미래에 유망할 것 같으면 관련 기업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학원 외 공부 시간	저는 학원이 저랑 안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하는 게 편했어요. EBS를 들었고 메가스터디 패스를 끊어서 이용했던 것 같아요... 미리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강의를 들어봤는데...
양육자의 교육 열의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다 시키잖아요. 수영이든 피아노든 다 시키잖아요. (부모님이 일정을 다스के줄링 해주셨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주말은 공부 계획을 빡빡하게 잡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마땅히 할 게 생각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요즈음에는 점점 갈수록 책도 다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가는 것 같아요.
미디어 외 여가 시간	광화문, 하늘공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받을 때마다 그런 공원에 가서 계속 걸었어요. 걷는 걸 계속 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친구들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유산소를 하거나 웨이트를 해요. 1시간씩. 공부할 때도 방해가 되고 체력이 부족해져서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고 키도 더 안 커서 유산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랑 어디 나가서 노는 경우가 많아서 매일 생각해 보면 하루에 30분 정도? (중략)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부모님 이랑 있으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나의 모든 걸 보여주긴 어렵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부모님에 비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길거리를 같이 걷기도 하고 강남에 가서 놀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만나는 장소는 지하철 근처?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노래방이나 보드게임 카페에 가는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거나 하죠.

5 강남5 아동

<표 198> (정량조사) 강남5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5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이○○	• 소득 분위	9분위
	• 성별	여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고1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A구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강남5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 학급 석차 : 15/25 (10/26)

📊 석차 비율(상중하) : 중 (중)

📋 성적평가(10점 만점) : 4 (7.1)

강남5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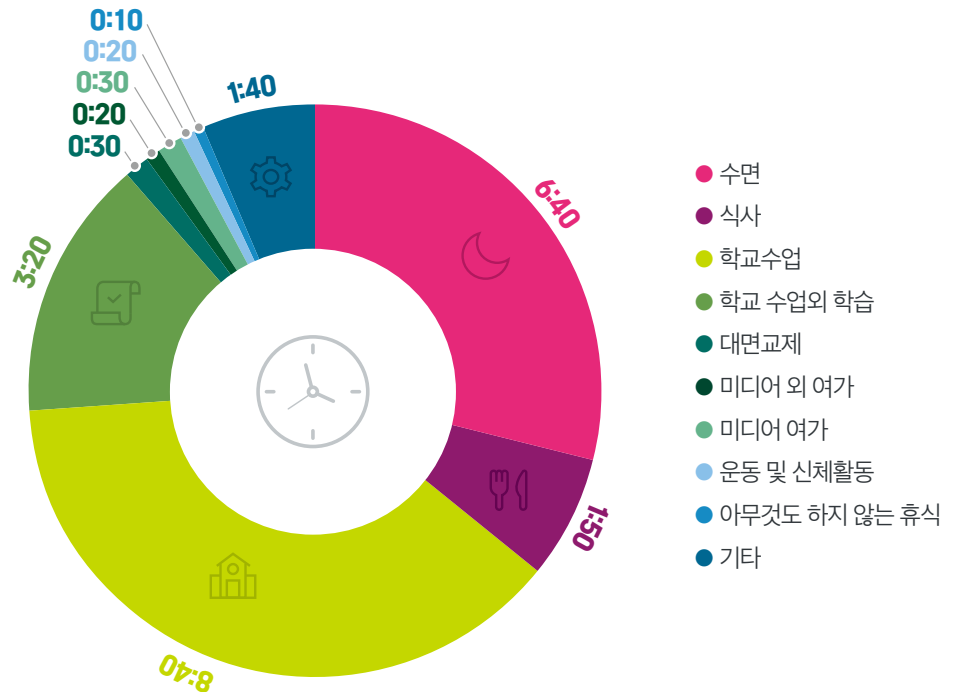
(): 강남권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7 (7.5)	😊 7 (6.8)	😞 16 (13.2)	😡 29 (30.4)	🚫 있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3시간 20분으로 과다 수준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등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과거 어렸을 적 양육자의 시간관리와 관련된 관여로부터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내적 동기로부터 명확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자는 아동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데려다 주는 등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
- 조언 등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이며, 이는 아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양육자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한 달에 1,2회 이상 주말에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베이킹을 하거나, 기타를 배우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을 하고 있음.
- 하루 수면 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수면의 양보다 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선생님 등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피로감을 느끼나, 동네 친구들과과는 적극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7점, 자아존중감 29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낮으며 주관적 행복감 7점, 우울 및 불안 정도 16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음.

[그림 85] (정량조사) 강남5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199> (정성조사) 강남5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뭔가 조언을 얻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런 얘기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엄마가) 내가 무슨 난리를 쳐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 보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랑 영화관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몇 주 전에 아빠랑 영화를 보러 다녀왔어요. (중략) 엄마랑은 같이 베이킹을 하거나, 토요일에 엄마랑 같이 기차를 배우러 가는데, 그런 시간이 재밌어요. (중략) 옛날에는 엄청 오래 가족 여행을 많이 가기도 했었고 유럽에 한 달 씩 넷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그런 걸 못하니까 진짜 확실히 고등학생이 되면 서툰 가게 된 것 같아요.

주제	응답내용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저는 꾸준하게 법 쪽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대학을 가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싶어요. (중략)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변호사, 검사, 판사를 많이 애가하는 편인 것 같아요. 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하는 걸까? 뭔가 법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더 힘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서서히 관심을 가졌어요.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저는 제가 안 맞으면 아예 못견디는 스타일이예요. 강제로 영어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3주 버티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물론 중요한 건 부모님이 결정하지만 공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의를 들어도 내가 어떤 선생님 강의 듣고 학원도 내가 어떤 학원을 가고 이런 건 좀 제가 정하려고 했어요.
공부에 대한 태도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앞두고 있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학원 외 공부 시간	인강을 어릴 때부터 사용했어요. 야자를 하고 오는 날은 학교에 10시까지(3시간 정도)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안 가는 이유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려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 있어서 하는 말에 웃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나는 오늘 하루 버틸 힘도 없는데 누구 앞에서 웃어주고 있으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농담에 나는 웃을 시간도 힘도 없는데 나는 내가 지금 궁금한 질문이 있으니 Q&A에 올려 필요한 답만 듣고 싶은데 거기서 약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로한 것 같아요.
양육자의 교육 열의	아빠가 어쨌든 제가 검사가 되는 거 이런 거 궁금하다고 그러면 검찰청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에 궁금증을 가지면 항상 해소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육자의 교육 관여	엄청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알림장에 체크리스트처럼 몇 시에 뭘 하고 적게 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시간관리가) 당연해진 것 같아요
수면시간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예요. 7시간 가까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잠을 안 자면 생활이 힘든 걸 봤을 때...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SNS는 친구들 연락하는 정도? 카톡이나 유튜브를 봐도 20분 내외로 보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까지 그걸 볼 바에는 자겠다. 싶기도 해요.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뜨면 보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바빠서 딱히 메이크업을 할 시간도 없고요. 진짜 지금 할 게 없으면 보는 거지 뭔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동네 친구 한명하고는 그래도 3~4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걷기도 하고 음료수 마시기도 하고 별거 아닌 얘기하고. 진짜 밤에 11시에도 어차피 같은 아파트 동네니까 잠깐 내려와서 나랑 놀자고 짧게 10분, 길어지면 30분 이렇게라도 둘이 잠깐이라도 수다를 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그냥 그래 너도 이 정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다 그 정도로 얘기해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⑥ 강남6 아동

<표 200> (정량조사) 강남6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강남6	• 거주 읍면동	◇◇동
	• 성명	도○○	• 소득 분위	9분위
	• 성별	여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없음
	• 학년	고1	• 주말 사교육	없음
	• 거주 시도	서울	• 공부 시간	적정이하
	• 거주 시군구	B구	• 미디어 시간	과다

강남5의 학업성적

(): 강남권 평균

 학급 석차 : 13/28 (10/26) 석차 비율(상중하) : 중 (중) 성적평가(10점 만점) : 6 (7.1)

강남5의 감정

(): 강남권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우울·불안
(30점 만점)자아존중감
(4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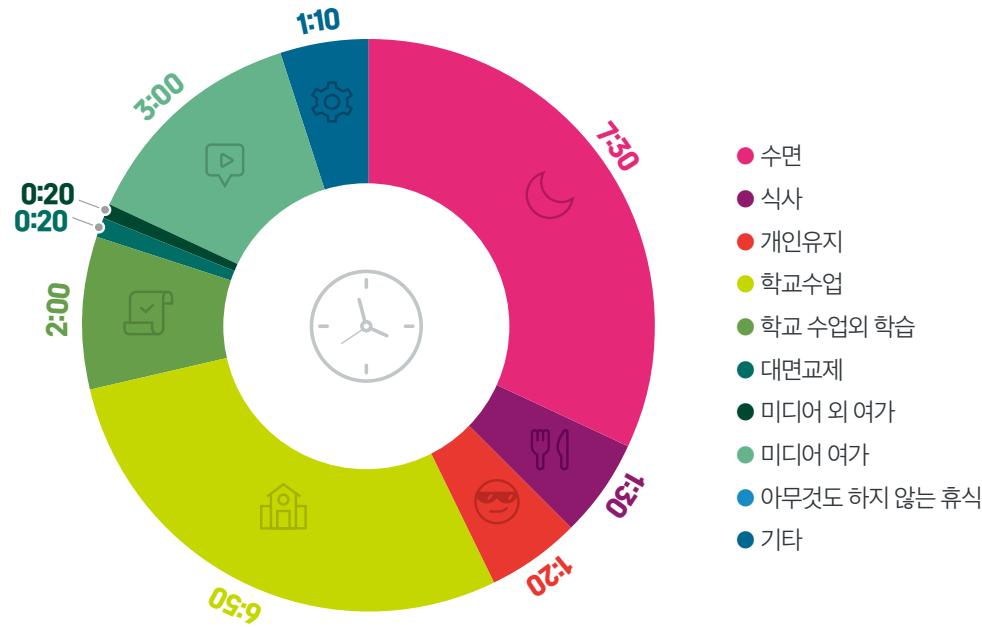
학대·방임 경험

 6 (7.5) 5 (6.8) 10 (13.2) 35 (30.4) 있음 (경험비율58.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2시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공부하는 활동을 평소에 가장 싫어 하며,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순간을 수업 들을 때로 꼽을 정도로 공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석차는 중위권이며, 본인의 성적을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의욕이 부족하여, 학원을 통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3시간으로, 과다 수준임. 시험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위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나, 보통 때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시간을 보냄.
- 수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취미로 음악을 자주 들으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자신이 보내는 하루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관심사가 비슷하고 대화가 편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나, 학교와 학원 시간 때문에 평일에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워 주말에 주로 함께 시간을 보냄.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6점, 주관적 행복감 5점, 우울 및 불안 정도 10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낮음. 자아존중감은 35점으로 강남권 평균보다 높으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음.

[그림 86] (정량조사) 강남6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01> (정성조사) 강남6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공부에 대한 태도	(평소에 하기 싫었던 활동이 뭐가 있었나요?) 공부하는 거 말고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괴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수업 들을 때.
미디어 사용과 여가 시간	중학교 때랑 고1때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게임은 안 하고 있어요.
학원 공부 시간	국영수 학원 다니고, 다 다른 학원 다녀요. (한 과목 당) 3~4시간? 월, 수, 금에 수학 학원 가고 화, 목은 영어 학원 가고 토요일에 국어학원 가요. 6, 7시쯤 학원 가고 끝나면 10시에 와서 씻고 자요. (중략) 제가 학원을 안 다니면 혼자 거의 공부를 안 해서 학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원도 3~4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혼자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이라도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학원이라는 느낌인가요?) 네.
학원 외 공부 시간	(인강은) 시험 기간에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이 있다 하면,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이라도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 아니면 딱히 안 봐요.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영상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본다는 얘기 같네요?) 네.
수면시간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이라 학교 다닐 때는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평소에 가장 하기 싫은 활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연락해요.) 카톡보다 DM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 되게 귀여운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공유하기도 해요.
미디어 외 여가 시간	주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은 자기 전에 틀어 놓고 자서 되게 오래 들어요. 공부하면서 들을 때도 있는데, 자기 전에는 음악에 집중해서 음악만 들어요. (중략) 하지만 이런 하루가 만 족스럽진 않아요.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하는 것도 더 편한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도 친구들에게 말하는 편이고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거의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이 학교랑 학원이니까 혼자 쉬거나 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중략) 일요일에 만나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6~8시간 정도? 카페에 가거나 인스타그램 사진 찍거나 노래방에 가서 놀아요.

7 비교군1 아동

<표 202> (정량조사) 비교군1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1	• 거주 읍면동	◆◆읍
	• 성명	김○○	• 소득 분위	9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중3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D시	• 미디어 시간	과다

비교군1의 학업성적

(): 비교군 평균

📅 학급 석차 : 10/29 (11/28)

📊 석차 비율(상중하) : 중 (중)

📖 성적평가(10점 만점) : 7 (7.4)

비교군1의 감정

(): 비교군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8 (7.7)

😊 8 (7.4)

😞 11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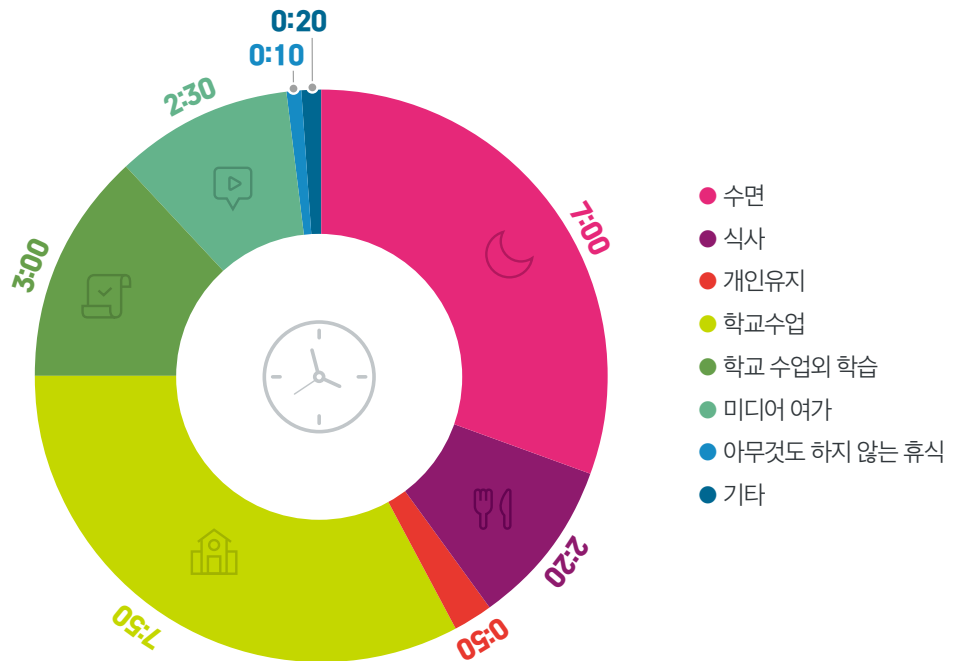
😞 31 (31.0)

👤 있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3시간으로 과다 수준임.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으며, 주말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학급 석차는 중위권이며, 본인의 성적을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성적이 높지 않아 자신없어 하는 모습을 보임.
- 양육자의 교육 열의나 관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과다 수준임. PC게임을 주로 하며 주말에는 7~8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냄.
- 초등학교 때는 1년에 한 달씩 가족과 유럽을 가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음.
- 양육자와 한 달에 1, 2회 이상 함께하는 주말 문화 활동이 있으나 함께 하는 시간 중 양육자의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평소 혼자 하는 PC게임을 좋아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음. 가족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다양한 운동을 했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8점, 주관적 행복감 8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1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음. 자아존중감은 31점이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음.

[그림 87] (정량조사) 비교군1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03> (정성조사) 비교군1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건 밥먹으면서 한시간 반? 그 때도 얘기 다 하고 중간에 말 없이 밥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그 시간에 대해 본인은 만족하나요?) 너무 오래 있으면 잔소리를 하셔서... 주말에 따로 활동하는 것도 없어요. 주말에는 제가 보통 컴퓨터 방에 들어가있으니까... (그러면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서 본인에게 좀 더 필요한 시간은 뭔가요?) 친구들과하고 노는 거죠.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내신 때문에 가족여행을 못 가죠. 어릴 때는 (가족여행을) 많이 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 달씩 유럽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가죠. 옛날보다 많이 못 가죠. 요즈음에는 제가 일주일도 빠기 힘들어요.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공군 파일럿이 하고 싶은데 군복무 끝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민항기 파일럿. 그걸 하려면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목표는 공군사관학교 아니면 항공대학교예요. 근데 그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로) 캠프가서 물어봤는데... 전교 1, 2등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사용과 여가시간	(평일에는) 2, 3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은 안하고) PC 게임을 해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한번 하면 대략 7, 8시간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학원 외 공부 시간	인터넷 강의는 (2주에 한번 정도) EBS 보는 거랑 밀당PT 영어하는 거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평일에는) 2, 3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은 안하고) PC 게임을 해요 (주말에는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한번 하면 대략 7, 8시간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아침에 수영을 해요. 월, 수, 금 6시에... (수영하고 바로 학교로 가나요?) 네. (중략) 원래는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을 했어요. 특공무술은 검은띠까지 했고 태권도는 유치원 때 품띠까 지 땀고 클라이밍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은 수영만 하고 쉬고 있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도심 비슷한 느낌이 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애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락실도 가면서 놀아요. 물론 몇 번 안 갔긴 하지만요. 저 포함해서 3~5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8 비교군2 아동

〈표 204〉 (정량조사) 비교군2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2	• 거주 읍면동	■ ■ 면
	• 성명	박○○	• 소득 분위	7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중3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E시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비교군2의 학업성적

() : 비교군 평균

 학급 석차 : 2/26 (11/28) 석차 비율(상중하) : 상 (중) 성적평가(10점 만점) : 10 (7.4)

비교군2의 감정

() : 비교군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우울·불안
(30점 만점)자아존중감
(4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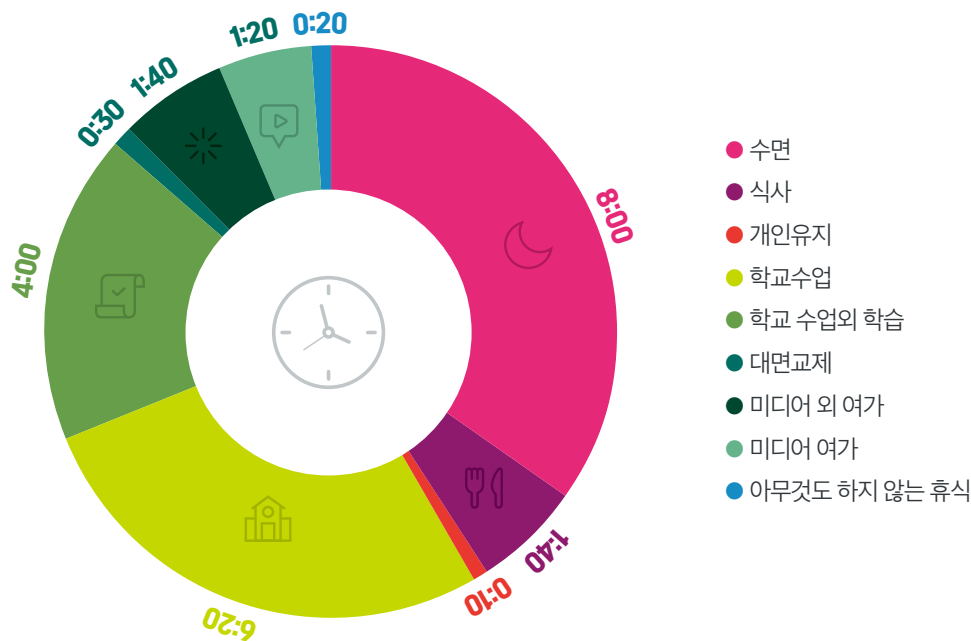
학대·방임 경험

 10 (7.7) 10 (7.4) 11 (13.1) 40 (31.0) 없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과다 수준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학급 석차는 상위권임.
- 장래희망이 있고, 학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 혹은 유튜브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려운 부분은 양육자와 함께 보기도 함. 양육자가 과거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게끔 관련한 부분의 결과로 보임.
-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 아동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한 달에 1,2회 이상 가족과 주말 문화 활동을 가짐. 양육자와 운동,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음. 가족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미디어 시간은 하루 1시간 20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주로 SNS를 하거나 숏폼 동영상을 보며 보냄.

- 운동으로써 주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 친구들과 주말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내기 위해서는 1~2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하여 다양한 활동을 즐기지 못함.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10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자아존중감 40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1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음.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88] (정량조사) 비교군2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05> (정성조사) 비교군2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가족과 저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그냥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많이 안 친하거나 거리가 먼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다가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아버님이랑은 농구하러 가끔 나가요. 어머니랑은 쇼핑을 같이 갈 때도 있고 얼마 전에 둘 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 오고 시간 날 때 카페도 가고 아버님이랑 운동이랑 그런 취미생활 을 공유한다면 어머니랑 카페나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달에 한번 정도?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비행기 조종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저는 그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농여촌 전형이 가 능했고, 학교 인원도 많고 제 지역에 고등학교 중에서 그나마 분위기도 가장 좋다고 했어요.
공부에 대한 태도	취미활동 하면 행복하긴 하죠. 하지만 공부를 빠질 수는 없죠. 무조건 하긴 해야 되니까. 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든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고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꿈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제한적이 잦아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해놓고 성적 올려 놓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제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 지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으 니까...
미디어 사용과 여가 시간	게임하는 음성 채팅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디스코드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 인스타 그램 DM 단체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스타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날 때 차에서 버스에서 잠깐씩 보고요. 릴스를 보기도 하고 애들이랑 DM도 하니까 총 2~3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하다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는데 그때 는 빨리 끊으려고 편입니다.
학원 외 공부 시간	학원을 안 다녀서 그냥 인강을 자주 보거든요. 인강 보면서 개념도 보고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인강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학을 듣고, 공이 안봐도 되는 강의는 안보거나 아버지랑 같이 하거나, 강의도 정말 가끔 이해가 안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유튜브 로 검색해서 보거나 강의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양육자의 교육 열의	(부모님께서 공부에) 지원 엄청 많이 해주시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라고 해주시고 이거 사고 싶다,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양육자의 교육 관여	저희 부모님이 원래 학원을 처음부터 안 보내고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랑 많이 다르니까요.

주제	응답내용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해서 엄청 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다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말에 엄청 몰아서 6, 7시간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SNS는 그냥 보거나 인스타 답장 같은 거 해주거나 그 정도?
미디어 외 여가 시간	농구도 좋아하는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악기 연주도 많이 해요... 심심하거나 쉬는 시간이면 웬만하면 8, 90%는 기타 잡고 치다가 할 거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 게 제일 기대돼요. 기타랑 드럼이랑 칠 줄 아는데 드럼은 집에 없어서 따로 연습실에 가서 따로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고요. 그리고 기타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나 갑자기 기타가 치고 싶을 때가 있어서 딱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한번 칠 때 3, 40분 치고 다시 할 거 하는 것 같아요
운동 내용과 운동 시간을 가지는 이유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시간 날 때 주말 이럴 때... 주중에는 친구들 시간이 다 안 맞으니까... 주말에 친구들 모아서 같이 농구장에 가거나 해요 한 7~8명.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주말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요. 저는 중학교 올라와서 새로 사귀 친구들 다 농구로 친해졌거든요. 새로 친구들 사귄 때는 말 거는 것도 괜찮은데 운동 같이 하면 직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초등학교 때는 되게 시골이라서 놀러 나가면 친구 집밖에 안 갔어요. 정말 할 것도 없고 애들끼리 버스 타고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내에 놀러 나간 게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근데 근처에 초등학교 하나가 더 있는데 개네들은 조금 도시다 보니까 개네들은 자유롭게 어릴 때 놀고 버스 타고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어릴 때는 친구집에서 놀다가 점점 시내로 나가거나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중략)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맨날 PC방, 노래방 가는 게 끝... 나가는 데만 1~2시간이니까요.

9 비교군3 아동

<표 206> (정량조사) 비교군3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3	• 거주 읍면동	▽▽면
	• 성명	조○○	• 소득 분위	6분위
	• 성별	여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없음
	• 학년	고1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F시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비교군3의 학업성적

(): 비교군 평균

 학급 석차 : 8/31 (11/28) 석차 비율(상중하) : 상 (중) 성적평가(10점 만점) : 8 (7.4)

비교군3의 감정

(): 비교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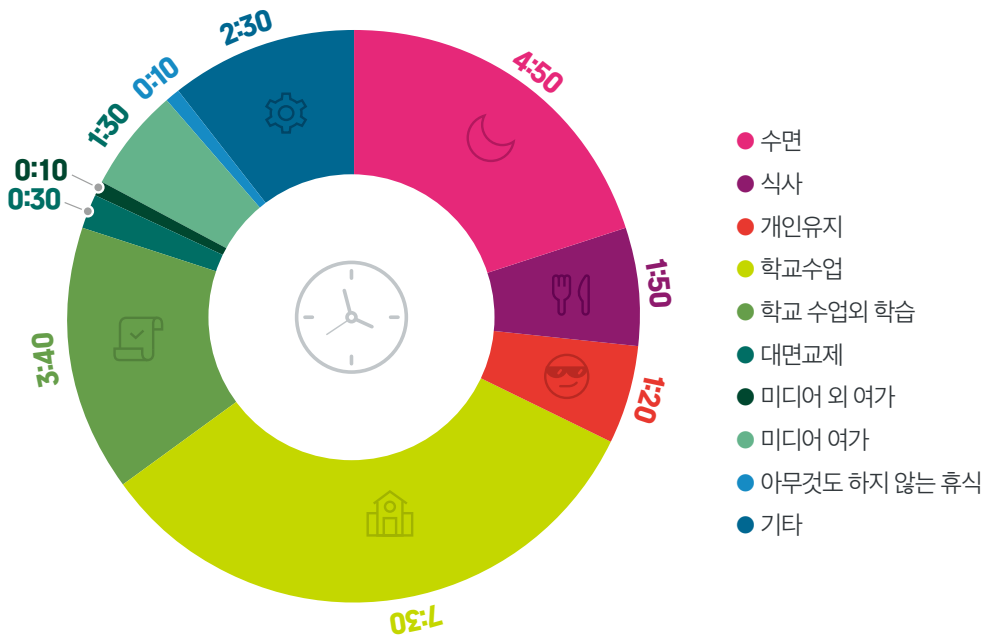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우울·불안
(30점 만점)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6 (7.7) 6 (7.4) 18 (13.1) 27 (31.0) 있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3시간 40분으로 과다 수준임. 공부를 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써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석차 비율은 상위권임.
-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주도성이 낮아 보임. 양육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어 보이나 관여도가 낮아 보임.
- 주말에 가족과 보내는 문화 활동은 한 달에 1,2회 미만으로,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며 마트, 쇼핑몰을 다니고 있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6점, 주관적 행복감 6점, 자아존중감 27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8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음.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음.

[그림 89] (정량조사) 비교군3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07> (정성조사) 비교군3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무래도 집 방문이 다 열려있으니깐 가끔씩 필요할 때 찾아가서 수다떠는 것 같아요. 같이 영화도 보러가고, 여행도 주로 가족들과 가는 것 같아요. 마트나 쇼핑몰이나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되고 싶은 게 있다가 보다는...) 성인이 되면 세계 여기저기 여행하고 싶은 건 있어요.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다니는 학교를 선택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 같은 재단이니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사고 고민하기도 했는데 가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공부에 대한 태도	(가장 하기 싫은 건?) 공부하는 것. 시작하고 나면 괜찮은데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할 게 너무 많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래도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원 공부 시간	화, 목은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8시 반에 끝나면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영어 빼고는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학원 외 공부 시간	인강은 이투스랑 대성 깔고... 수학, 국어, 화학, 물리 4과목 정도? 영어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수학도 원래는 학원을 다녔는데, 수학은 학원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어서 인강으로 바꿨거든요. 나머지 과목도 인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개인 공부나 숙제는 방과 후 2~3시간 정도?
양육자의 교육 열의	공부하는데 관심은 많은데 딱히 터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같은 건 저랑 같이 알아보고요.
양육자의 교육 관여	(부모님께서 먼저 어떤 학원을 다녀봐라 아니면 학습지를 해보자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먼저 필요해서 말하고 끝는 것도 제가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10 비교군4 아동

<표 208> (정량조사) 비교군4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4	• 거주 읍면동	▼▼읍
	• 성명	김○○	• 소득 분위	6분위
	• 성별	여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없음
	• 학년	중1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이시	• 미디어 시간	과다

비교군4의 학업성적

() : 비교군 평균

📖 학급 석차 : 3/28 (11/28)

📊 석차 비율(상중하) : 상 (중)

📝 성적평가(10점 만점) : 9 (7.4)

비교군4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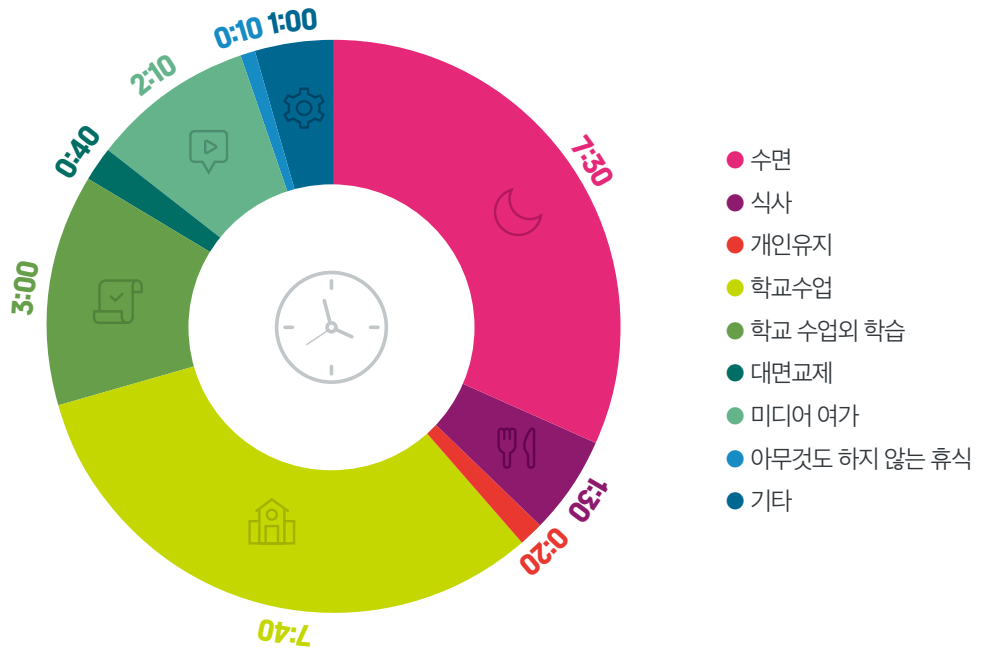
() : 비교군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9 (7.7)	😊 8 (7.4)	😞 11 (13.1)	😡 36 (31.0)	🚫 없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3시간으로 과다 수준임.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주말 사교육을 받고 있음. 학급 석차는 상위권임.
- 양육자의 교육 열의나 관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음.
- 한 달에 1,2회 이상 가족과 보내는 주말 문화 활동이 없음. 친구들과 달리 가족들과 항상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게 많지 않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과다 수준임. 주로 친구들과 SNS 소통을 하며 보냄.
- 친구들과 서로 좋아하는 가수 및 아이돌의 생일 카페에 가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관계를 유지함.
- 거주 중인 동네에는 백화점, 놀이공원 등 놀거리가 많지 않아 주로 서울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과 주말 여가 시간을 보냄.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9점, 주관적 행복감 8점, 자아존중감 36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1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음.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90] (정량조사) 비교군4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09> (정성조사) 비교군4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소중한 건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친구들은 계속 만날 수 있지만 가족들은 항상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게 많지 않으니깐 더 소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학원 공부 시간	월요일은 학원이 없고, 나머지 요일에는 바로 집에 와서 학원 갈 준비를 해요. (학원(시 간)은 몇 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수학, 영어 듣고 요일마다 (조금씩 수업시간은) 달라요.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DM으로 서로 뭐하냐고 계속 연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도 있고 스토리를 올려서 뭘 했는지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미디어 외 여가 시간	뉴진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단기간에만 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생 일카페에 갈 때 서로 같이 가주고요. 그 친구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있을 때도 있어요. 친 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카페 찾는 것도 재밌고, 카페 안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 면서 같이 있기도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응답자 티저 영상 땀다고 구경하라고 그러고... 다른 가수 좋아하는 친구는 항상 어디선가 옛날 영상을 발굴해와서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들로 친구들과 가깝다고 느끼나요?) 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서울보다는 비교적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백화점도 없고 놀이공원도 없어요. 놀거 리가 많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거나 구경 다니는데... 요새는 서울만 가는 거 같 아요.

⑪ 비교군5 아동

<표 210> (정량조사) 비교군5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5	• 거주 읍면동	☆☆읍
	• 성명	이○○	• 소득 분위	6분위
	• 성별	여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있음
	• 학년	초6	• 주말 사교육	없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J시	• 미디어 시간	과다

비교군5의 학업성적

() : 강남권 평균

 학업 성적 평가(10점 만점) : 10 (7.4)

비교군5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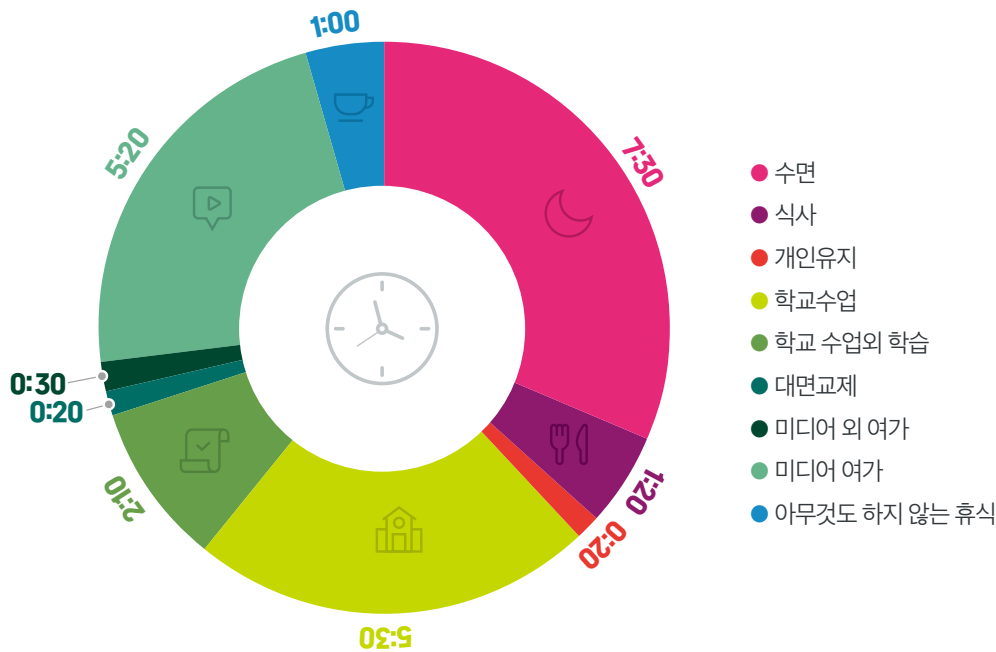
() : 비교군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 3 (7.7)	😊 4 (7.4)	☹ 24 (13.1)	😊 22 (31.0)	☹ 없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2시간 10분으로, 과다 수준임. 핸드폰을 보는 등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의 공부 시간이 적은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본인의 학업 성적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함.
- 학원 및 학습지를 이용 중이며,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음.
- 학습지의 경우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육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양육자의 교육 관여 정도는 낮아 보임.
- 한달에 1,2회 이상 가족과 보내는 문화 생활이 있음.
-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과다 수준임. SNS를 통해 교류하면서 주로 시간을 보냄.

- 친구들과 아이돌이나 배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는 편임. 소문을 낼 위험이나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친구와도 관계를 형성하고 편하게 교제하고 있음.
-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3점, 주관적 행복감 4점, 자아존중감 22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으며 우울 및 불안 정도는 24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음.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91] (정량조사) 비교군5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11> (정성조사) 비교군5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관계 및 의미	(누구와 함께 하면 행복하고 편한지?) 자유롭게 있는 건 혼자 있는게 편한데, 어울리거나 활기차게 보내고 싶을 때는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혹시 가족들과 있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태도	뭔가 좀 더 핸드폰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공부하는 시간은 적은 것 같아요.
학원 공부 시간	2시 반 정도(예) 바로 학원 갔다가 5시(까지 2시간 정도) 수학, 영어 하는 학원 다녔어요. (지금은) 학원을 바꾸면서 수학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영어랑 국어가 딸릴까 봐 학습지를 하고 있어요.
학원 외 공부 시간	예습할 때 EBS나 유튜브로 찾았을 때 나오는 거 많이 봐요. 1시간에서 3시간은 무조건(공부)해요.
양육자 교육 관여	(학습지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학원을 바꾸면서 수학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영어랑 국어가 딸릴까 봐 구문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인스타그램이 카톡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게시물 올려서 취미 공유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게 더 편해서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제 그림도 자주 올리고... 릴스나 여행 갔을 때 사진 많이 올려요... 친구들이 하루 정도 지나면 하트도 두르고 댓글도 달아요.
미디어 외 여가 시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친한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며) 어울리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미술학원도) 5학년 1학기 때부터 다녔는데... (그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졌군요?) 네... 이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각자 다른 아이돌이나 배우 좋아해도 그 아이돌이나 배우가 한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같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자주하고... (온라인 친구는) 10명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소문 낼 위험이나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고민도 얘기하기 편해요.

12 비교군6 아동

<표 212> (정량조사) 비교군6 아동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내용

	• 구분	비교군6	• 거주 읍면동	★★읍
	• 성명	김○○	• 소득 분위	6분위
	• 성별	남자	• 주말 가족 문화생활	없음
	• 학년	고1	• 주말 사교육	있음
	• 거주 시도	경기	• 공부 시간	과다
	• 거주 시군구	K시	• 미디어 시간	적정이하

비교군6의 학업성적

() : 비교군 평균

 학급 석차 : 15/30 (11/28)  석차 비율(상중하) : 중 (중)  성적평가(10점 만점) : 6 (7.4)

비교군6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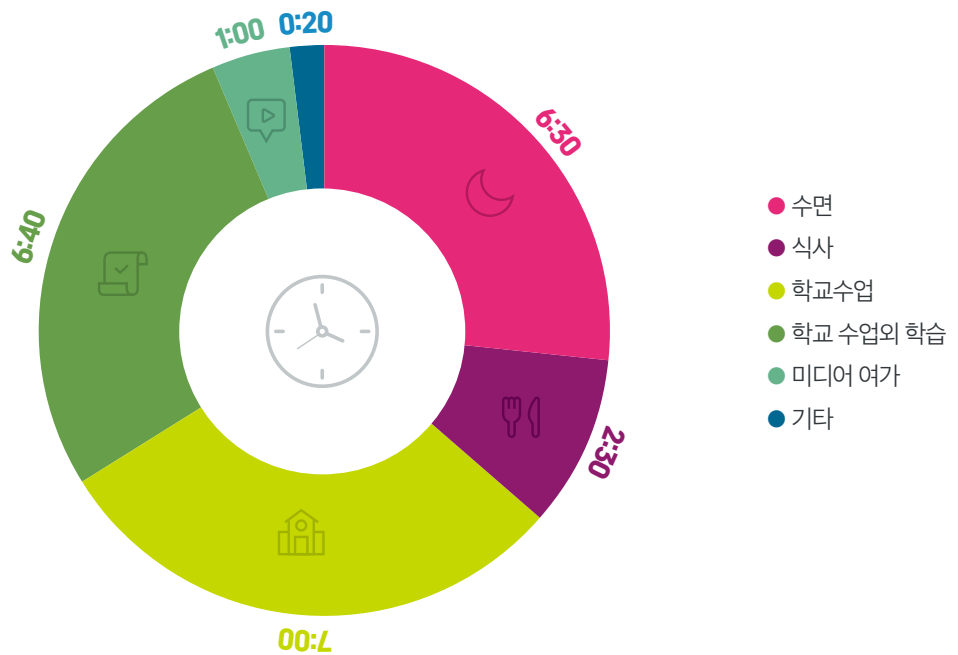
() : 비교군 평균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10점 만점)	주관적 행복감 (10점 만점)	우울·불안 (30점 만점)	자아존중감 (40점 만점)	학대·방임 경험
 7 (7.7)	 8 (7.4)	 10 (13.1)	 38 (31.0)	 없음 (경험비율41.8%)

-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으로 과다 수준임.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학급 석차는 중위권이며, 본인의 성적을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함.
- 진학 및 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양육자의 교육 열의 및 관여는 낮아 보이나 아동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관심은 있어 보임.
- 한 달에 1,2회 이상 가족과 보내는 문화 활동이 없으나,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 과거에는 주말마다 가족 활동을 했으나 사춘기를 보내며 활동이 줄어들게 되었음.
- 미디어 여가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적정 이하 수준임. 주로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게임을 하며 보냄.

- 관심 주제가 같고, 이야기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게임을 통해 온라인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기도 했음.
- 친구들과의 주말 여가활동을 위해 30분~1시간의 이동 시간이 필요함.
- 주관적 행복감 8점, 자아존중감 38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높으며 일상에서의 편안한 감정 7점,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0점으로 비교군 평균보다 낮음.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없음.

[그림 92] (정량조사) 비교군6 아동 하루 생활시간



<표 213> (정성조사) 비교군6 아동 발화내용

주제	응답내용
양육자와의 문화 활동	가족과 밥먹으면서 주로 대화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냐, 친구나 성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말마다 같이 어디를 갔는데 사춘기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가게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더... 같이 가기 싫다고 말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있고, 함께 만든 시간이라 좋았을 것 같아요 계속 했으면... 그래도 하고 싶은애기 있으면 즉각하는 편이에요.
진학 및 진로 계획의 명확성	대학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SNS 유튜브에서 대학을 안나와도 잘 살 수 있다. 안 살 수 있다. 그런 예시를 알려주고. 실제 사례도 알려주니까요. (중략)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꿈이나 장래희망, 가고 싶은 대학을 못 정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과 나와서 공학 계열 가고 싶은데 아직 생각을 덜 해봐서 아마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성	이과를 오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 과학, 통합 사회로 배웠거든요. 근데 성적이 나 흥미, 재미를 봤을 때는 과학이 사회보다는 나아서 이과 쪽으로 오게 됐어요. 하지만 뭘 하겠다는 건 아직 없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요?) 네.
공부에 대한 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과 여가 시간	(여러 가지 미디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듣기 아니면 게임. (보통 하루에 게임은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많을 때는 주말에 2,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통화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학원 공부 시간	수학(학원)은 월, 수만 다니고 영어(학원)는 다른 요일이라서 수학 다니는 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어요. (영어는) 목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있어요. (학원을 안 가는 요일도 있나요?) 고1때는 있었는데 2학년 되면서 일요일 빼고 (학원에) 다 가요.
양육자의 교육 열의	부모님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셔서... 아무생각 없고... 지원 해준다고는 말씀 해주시고요.

주제	응답내용
수면시간	저는 (수면시간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졸린 걸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학교를 가면 거의 맨날 졸아서...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줄이 늦게 끝나면 늦게 잘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고2 되면서부터는 일요일 빼고 학원을 다 가요.
미디어 사용 내용과 특징	만나게 되면 영화 보거나 노래 부르러가지만, 따로 만나지 않으면 같이 PC방이나 집에서 같이 게임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많을 때는 주말에 2, 3시간 하는 것 같고... 혼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통화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축구하고 뛰어 놀았는데 애들이 게임 같은 걸 하면서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게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친구들이랑 주말에 모여서 같이 놀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서 게임하고 애들하고 노는 것. 친구가 아마 가장 좋고 소중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온라인)	게임 오픈 채팅방에서 친했던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정작 말할 때는 어차피 못 보는 애니까 좀 더 편한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을 이야기 한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게임 때문에 만난 애들이니까 게임 얘기만 주로 했어요. 좋았던 점은 현실 친구가 제가 하는 게임을 안 하는데 그 친구가 한다는 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 여가	영화관은 집 근처에 없어서 인근 시내로 나가요. 버스타고 가면 1시간, 짧으면 30분 걸려요... 주변에 놀만한 곳이 없어서 버스 타고 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죠. 영화관, 노래방이 크게 없어서...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1. 요약
2. 초록우산 지원 시설거주 아동 일반적 사항
3. 시설거주 아동의 생활시간과 일상
4. 생활시설이라는 환경이 주는 맥락 속에서의 아동 일상
5. 시설거주 아동이 맺는 주변인과의 관계
6.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1. 요약

- 2024년 생활시간조사 대상 중 지역별[강남권-비교군(강남구 제외 서울, 경기, 인천)] 및 빈곤 여부(빈곤-비빈곤)에 따른 집단 아동과 비교했을 때, 시설거주 아동은 필수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은 길게 확보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학업시간은 짧은 것으로 조사됨

하루 시간사용

- **(필수시간)** 수면시간 평균 9시간 20분, 개인유지시간 53분
- 강남권-비교군, 빈곤-비빈곤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학업시간)** 학업시간 평균 7시간 23분
- 강남권-비교군, 빈곤-비빈곤 집단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 **(여가시간)** 여가시간 평균 4시간 23분
- 미디어 여가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1시간 36분) 타 집단(강남권 제외)에 비하면 미디어 여가시간의 비중은 오히려 적은 편

일상생활

- 시설거주 아동은 시간 자체를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생활지도교사의 관리를 경험하지만, 학습 및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경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시설거주 아동은 공동생활 및 공간공유로 인해 사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공간적·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함
- 시설거주 아동은 짜여진 여가활동을 즐기고 익숙하게 여기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적 이면서도 개인적 활동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음

관계

- 시설거주 아동은 시설 안에서의 관계보다는 시설 바깥에서의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관찰됨

학업 및 진로

- 시설거주 아동 중 상당수는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표현했을 뿐, 구체적 학업·진로 계획을 표현한 아동은 없었음
- 시설거주 아동에게는 실질적 진로선택보다는 시설퇴소와 자립이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른 나이에 직업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엿보임
- 시설거주 아동의 이 같은 진로선택에는 시설 내 함께 생활하는 아동 및 교사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됨

2. 초록우산 지원 시설거주(양육시설·그룹홈) 아동 일반적 사항

1)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생활 시간

- 2024년 생활시간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초록우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거주 아동의 시간사용을 별도로 조사하여 측정함
- 시설거주 아동의 필수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은 평균 12시간 14분으로 조사됨. 이 중 시설거주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은 일일 평균 9시간 20분으로 나타났고, 타 아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수면시간이 길었음
- 시설거주 아동의 학습시간은 일일 평균 7시간 23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남권-비교군(강남구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아동의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빈곤-비빈곤 집단 아동의 학습시간보다도 크게 낮음

일상생활 시간

- **(수면)** 시설거주 아동의 수면시간은 일일 평균 9시간 20분으로 측정됨. 시설아동은 강남권 아동 평균 8시간 13분, 비교군 아동 평균 8시간 24분에 비교했을 때 수면시간을 더 길게 사용함
- **(학업)** 시설거주 아동의 학업시간은 일일 평균 7시간 23분임. 강남권 아동 9시간 25분, 비교군 아동 8시간 33분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는 빈곤 집단 아동의 학업시간 8시간 9분에 비해서도 30분 낮음
- **(여가)** 시설거주 아동의 여가시간은 4시간 23분으로 이 중 미디어 여가활동 시간의 비중이 1시간 36분으로 가장 높음. 이는 강남권 vs 비교군, 빈곤 vs 비빈곤 비교와 유사한 경향임. 즉 강남권 아동에 비해 시설거주 아동의 미디어 여가시간은 높으나, 비교군 집단인 빈곤 vs 비빈곤집단의 미디어 여가시간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음
- **(여가시간)** 시설거주 아동이 집단에 비해 미디어 외 여가시간(36분)과 기타 여가시간(42분)이 더 높음. 한편, 시설거주 아동의 (친구 등과의) 대면교제 시간(49분)은 강남권 아동(41분)에 비해서는 약간 높으나, 비교군아동(51분), 빈곤아동집단(53분), 비빈곤아동집단(51분)과 비교해봤을 때는 낮은 편임.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님

<표 214> 시설거주 아동의 전반적인 시간 사용

단위(시간:분)

	전체	시설 아동	지역별*		빈곤여부		성별		학교급			
			강남	비교군	빈곤	비빈곤	남	여	초저	초고	중	고
필수시간	10:59	12:14	10:50	10:59	11:04	10:58	11:03	10:55	12:23	11:41	10:20	8:57
수면	8:25	9:20	8:13	8:24	8:30	8:24	8:32	8:18	9:39	9:05	7:51	6:32
식사	1:55	2:01	2:01	1:56	1:55	1:55	1:56	1:54	2:02	1:59	1:51	1:46
개인유지	0:39	0:53	0:36	0:39	0:39	0:39	0:35	0:43	0:42	0:37	0:38	0:39
학업시간	8:34	7:23	9:25	8:33	8:09	8:37	8:30	8:38	7:10	7:47	9:27	10:22
학교수업	5:49	5:26	5:52	5:40	6:09	5:47	5:51	5:47	4:54	5:01	6:31	7:14
학교수업 외 학습	2:45	1:57	3:33	2:53	2:00	2:50	2:39	2:51	2:16	2:46	2:56	3:08
여가시간	4:27	4:23	3:45	4:28	4:47	4:25	4:27	4:27	4:27	4:32	4:13	4:41
대면교제	0:52	0:49	0:41	0:51	0:53	0:51	0:50	0:53	1:14	1:00	0:34	0:32
미디어 외 여가	0:27	0:36	0:28	0:29	0:28	0:28	0:23	0:32	0:40	0:29	0:19	0:20
미디어 여가	1:49	1:36	1:14	1:49	2:05	1:47	1:52	1:46	1:18	1:46	2:05	2:13
운동 및 신체활동	0:16	0:18	0:14	0:15	0:18	0:16	0:21	0:11	0:20	0:19	0:14	0:12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0:23	0:22	0:26	0:24	0:23	0:23	0:22	0:24	0:18	0:21	0:24	0:31
기타	0:40	0:42	0:42	0:40	0:40	0:40	0:39	0:41	0:37	0:37	0:37	0:53

*여기서의 강남권은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 지역 거주 아동을 말하며, 비교군은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아동의 수치를 집계한 것

2) 시설거주 아동의 생활상을 고려한 심층분석(정성조사)

- 가정과 대조적인 집단 양육 환경의 차이가 아동의 일상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설 거주 아동의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생활맥락에 대한 개별심층인터뷰를 병행함. 정성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기술하되 풍부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 정량조사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음

시설거주 아동 대상 정성조사의 목적과 조사 설계

- 초록우산 지원 시설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별심층면접(IDI, In Depth Interview)을 진행하여, 일반아동과는 양육 환경이 전혀 다른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과 행복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 생활시간조사에 참여한 시설거주 아동 총 214명의 특성은 전체 조사자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표 3> 참고). 남녀성비, 학년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자의 표집 경향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단 지원기관의 위치 특성상 거주 시도 및 지역 규모에 있어서 경기도-중소도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215> 시설거주 아동 그룹의 일반적 사항 (전체 조사자 대비)

단위(명, %)

구분		전체		시설아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0,140	100.0	214	100.0
성별	남자	5,135	50.6	110	51.4
	여자	5,005	49.4	104	48.6
학년	초1~초5	5,459	53.8	111	51.9
	초6	886	8.7	19	8.9
	중1	823	8.1	18	8.4
	중2	667	6.6	17	7.9
	중3	674	6.7	21	9.8
	고1	793	7.8	17	7.9
	고2	838	8.3	11	5.1

구분		전체		시설아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거주시도	서울특별시	2,046	20.3	33	15.4
	경기도	2,746	27.1	165	77.1
	기타	5,348	52.6	16	6.5
지역규모	대도시	4,645	45.8	33	15.4
	중소도시	4,416	43.6	148	69.2
	농어촌	1,079	10.6	33	15.4

- 2024 아동행복지수 정량조사에 참여했던 시설거주 아동 214명 중 초록우산 지원기관이면 서 수도권에 있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8명을 선정함
- 시설거주 아동을 정성조사를 위한 개별심층면접은 2024년 3월 9일(토)부터 3월 16일(토)까 지 오프라인(초록우산 내 회의실)과 온라인(Zoom)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
- 면접질문은 강남-비교군 아동의 정성조사 항목과 거의 유사하게 질문을 구성하여, 크게는 평상시 아동의 시간활용패턴, 사회적 관계, 주변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였음
- 정성조사를 위해 선별된 총 8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 여 각각 4명이었고, 거 주지역은 경기 3명, 서울 5명이었음
-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인터뷰 참여시점 기준 초등학교(6학년)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임. 진술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회고적 인터뷰를 지향하였으므로 연령대가 높은 아동을 섭외함
-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시간과 관련해서는 공부시간⁴⁾ 수준은 과다 5명, 적정이하 3명, 미디어 활용시간⁵⁾ 수준은 과다 6명, 적정 이하 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 있음

4) 공부시간의 과다 기준은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 120분 이상, 중학교 150분 이상, 고등학교 180분 이상이며, 적정 이하는 초등학교 30분 미만, 중학교 60분 미만, 고등학교 90분 미만임

5) 미디어 활용시간 과다와 적정이하의 구분 기준은 2시간 기준임

- 개별심층면접에 참여한 고등학생 5명 중 4명은 특성화고(직업계고) 재학 중이었고, 이 중 3명이 제과제빵, 1명은 영상편집 전공이었음. 실제 시설거주 아동 정량조사자 214명 중 고등학생은 28명이었는데, 이 28명 중 11명은 일반계고-자사고 재학 중이었으며, 17명은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포함)에 재학 중이었음. 시설거주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 특성이 일반아동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가 적절하게 그 특성이 반영되어 모집되었다고 보여짐
- 개별심층면접 참여자 중 시설 측에서 발달문제 등으로 인해 지적·학습능력이 낮다고 보고한 대상은 총 4명이었음. 응답아동이 연구자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없었지만, 진술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216> 시설아동그룹 개별심층면접 참석자 프로파일

구분	성별	학년*	학교유형	거주 지역	공부시간	미디어 시간	거주 기간	시설 유형 (세부)	비고
시설 아동1	남	초6 (초5)	초등학교	경기	과다	과다	13년	생활 시설	베이비박스 통한 시설입소
시설 아동2	여	고2 (고1)	특성화고	경기	적정이하	과다	10년	생활 시설	아동학대 분리입소, 학습능력 낮음
시설 아동3	남	고1 (중3)	특성화고	서울	과다	과다	미공개	생활 시설	-
시설 아동4	남	중3 (중2)	중학교	서울	적정이하	과다	14년	생활 시설	특수학급
시설 아동5	여	고3 (고2)	특성화고	서울	과다	과다	4년	생활 시설	아동학대 분리입소, 다문화가정자녀
시설 아동6	여	중2 (중1)	중학교	서울	적정이하	과다	미공개	그룹홈	ADHD, 놀이치료중
시설 아동7	여	고1 (중3)	특성화고	서울	과다	적정이하	미공개	그룹홈	ADHD, 놀이치료중
시설 아동8	남	고2 (고1)	인문계고	경기	과다	적정이하	미공개	생활 시설	-

* (학년): 조사대상자 추출 시 기준

3. 시설거주 아동의 생활시간과 일상

1) 시설거주 아동의 생활시간

- 시설거주 아동은 강남권, 비교군(경기도 읍면) 아동에 비해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설아동의 공부시간(수업 외)과 수면시간은 생활시간조사 전체 수치에 대비했을 때 그 차이가 월등함
- 시설거주 아동의 미디어 활용시간 수준은 강남권-비교군(경기도 읍면) 아동에 비해 낮은 수치고, 이는 전체 조사자에 대비해서도 낮은 수치임. 다만, 시설아동의 미디어 활용시간과 공부시간의 양이 유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생활시간

- **(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시설거주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은 일일 평균 9시간 2분으로 추정. 동일한 연령대 강남권 아동 평균 7시간 47분, 비교군 아동 평균 8시간 2분과 비교했을 때 약 1시간~1시간 15분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여타 집단에 비해 높은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부)**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시설거주 아동의 순수 공부시간(학원, 자기학습 등) 평균은 1시간 52분으로, 동년배 강남권 아동 3시간 46분, 비교군 아동 2시간 34분에 비하면 약 42분~1시간 54분가량 적게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디어)**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시설거주 아동의 평균 미디어 활용시간은 1시간 49분임. 이는 강남권 아동 평균 1시간 22분보다는 길고 비교군 아동 평균 2시간 26분에 비교했을 때 약 37분 정도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됨
- **(운동)** 시설거주 아동의 운동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임. 특히, 강남권-비교군 아동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하루 확보되고 있는 운동시간량이 많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표 217> 시설아동 그룹 주요 시간사용 비교 [강남권 vs 비교군(경기도 읍면)]

단위(명, %)

시간구분**(초저학년 제외)		시설아동	강남권*	비교군*
수면시간		9:02	7:47	8:02
공부시간(수업 외)		1:52	3:46	2:34
미디어 시간	동시행동O	1:49	1:22	2:26
	동시행동x	2:01	1:42	2:55
운동시간		0:17	0:13	0:13

* 여기서 강남권, 비교군은 상술한 구분과는 다르게 정성조사에 적용된 기준으로, 강남권은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 지역 거주 아동을 말하며, 비교군은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경기) 지역 내 읍면지역 집단을 비교군으로 선정한 집단임

** 해당 표에서 표기된 생활시간은 필수, 학업, 여가시간 내에서 핵심적으로 비교할 만한 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시간을 살펴본 것으로, 정성조사 대상기준에 맞춰 초저학년을 제외한 수치임

4. 생활시설이라는 환경이 주는 맥락 속에서의 아동 일상

1) 시설거주 아동의 시간 및 활동 제약과 변화

- 시설거주 아동의 시간사용 패턴은 아동의 주도성에 비롯된 것이 아닌, 시설 및 생활지도 교사의 관리감독 하에 짜여져 있는 생활패턴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은 시간제약 또는 활동제약에 초점을 두고 시설(생활지도교사)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 및 활동 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시설거주 아동은 스스로 자신이 활동을 통제하는 형태로 자신의 일상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시설거주 아동은 기상시간, 귀가시간, 저녁식사시간, 외출시간, 핸드폰 반납시간, 취침시간 등 규정되어 있는 생활시간 속에서 생활함. 학년별, 생활시설 교사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생활시간이 규범처럼 규정되어 있기에, 주도적인 생활보다는 짜여져 있는 생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시설거주 아동이 시설을 통해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활동은 미디어활동임. 정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거주 아동의 초등학생 집단(응답자 전체 130명)의 게임시간은 “0시간”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80%(104명)를 차지함. 정성조사에 응답한 아동들의 의견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핸드폰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규칙이 미디어 사용시간 측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게임과 같은 활동이 과도해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보호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관계맺기 및 소통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생활지도교사가 아동의 시간 제약을 두는 것 이상의 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이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고학년이 된 이후에 무분별하게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표 218> 시설아동의 시간 및 활동 제약과 변화

하위주제	세부 내용
규정되어 있는 생활시간	(친구 만나고 놀다가 밤 되면 집으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주로 10시에는 들어와야 해요. (시설아동3)
	핸드폰 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찍 자죠. 10시에 내요. 그리고 삼촌 있을 때는 9시에 내요. 이모 있을 때는 10시에 내고 그래서 삼촌은 좀 빨리 내게 해요. (시설아동4)
	학교나 학원 갈 때 빼고는 핸드폰을 안 써요. (함께 생활하는 이모한테 핸드폰을 줘야 하나요?) 네. 근데 ○○이모 있을 때는 9시까지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시설아동6)
스마트폰 활동제한과 한계	자는 시간이 10시반만 되어도 좋겠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10시예요. 중학생부터는 10시, 고2까지는 11시라고 알고 있어요. 고3은 상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시설아동1)
	초등학교 때는 다 폰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학교에서만 이야기 하고... (시설아동8)
	(평일에는 인스타하고 이런 시간이 적고, 주말에는 좀 많겠네요?) 네. 중학교랑 지금은 이런 게 비슷한데,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썼어요. (시설아동2)
	중학교때랑은 완전 다르죠. 중학교 2학년때부터 핸드폰을 썼어요. (쓰는 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것 같나요?) 크게 늘었죠. 새벽 2시까지 해요. 그냥 이것저것 쓰는 거 봐요. (시설아동4)

2) 시설거주 아동의 공동생활과 공간사용의 양상

- 시설거주 아동은 공동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함
- 시설거주 아동은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구성원들과의 생활에 맞춰나가고 적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둠
- 시설거주 아동은 생활시설보다 시설 외 외부공간을 더 사적공간으로 여길 수 있음

- 응답자 중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음. 몇몇 아동은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굴거나(시설아동2), 자신의 방을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시설아동6)과 같이 본인만의 사적영역이 침해받는다고 느껴질 때 어려움을 크게 인식함. 그 밖에도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시설아동7), 함께 쓰는 공간을 청소하지 않는 모습(시설아동2) 등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함
-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남녀아동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맞춰가는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보임.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몇몇 아동은 눈치껏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본인이 알아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 조치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말하기도 함
-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기에,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을 편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함. 오히려 PC방이나 친구네 집과 같은 외부공간이 시설보다 더 편하다고 말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그렇기에 하루빨리 시설을 퇴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아동도 있었음

<표 219> 시설거주 아동의 공동생활과 공간사용의 양상

하위주제	세부 내용
불편함 없는 공동생활 (남)	초등학교 애들은 방 따로 있고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잘 때만 여기서 자고 놀 때는 거실이나 초등학교 애들 방에서 놀아서 방에서는 잠만 자요 (종락) 방안에 쓰레기 보이면 그 쓰레기 버린 애한테 치우라고 하면 개가 치우긴 하더라고요. 불편한 건 없어요. (시설아동3) 방을 7명에서 같이 써요. (연구자-같은 방 쓰는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시설아동8)

하위주제	세부 내용
부딪히며 맞춰가는 공동생활 (여)	잘 때 동생들이랑 같이 자는데 동생 잠고대 때문에 별로예요. 돌면서 차고, 때리고 고골고.. 피곤해요. (시설아동7) (주로 어떤 걸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요?) 여러 가지로... (중략) 남의 방 들어왔다고 그러거나... 화장실 문 마음대로 열었다고... (시설아동6)
눈치껏 맞추는 공동생활	(시설 선생님이) 핸드폰 너희 초딩들도 가지고 싶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눈치 보여 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 전부 눈치보고 그래가지고... 한 명만 말해도 다 따라갈 것 같긴 한데... 그때 한 동생이 말했거든요? 근데 개도 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 내려” 이랬어요. (시설아동1) 친구가 잘 안 치우는 그게 있어서 가끔씩 제가 치우고 청소기 밀고, 공부할 때는 시끄러우면 제가 이어폰 끼는데 지금은 노이즈캔슬링 그거 있으니까 그거 끼고 공부해요. (시설아동2)
시설보다 바깥이 편함	(24시간을 오롯이 하고 싶은걸 한다면?) TV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집에서 하고 싶어요 (○○이네 집이 더 편할까 같아요?) 네. (시설아동6) 동생 2명이랑 방을 같이 쓰는데, 많이 귀찮아요. 나 속상할 때 방에 누가 있을 때... (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 방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중략) 애가 너무 징징거릴까 봐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10시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PC방에 나가거나... 뭐 어디든 못 가겠어요? (중략) (연구자-본인에게 소중한 공간은?) 없어요. 내 공간이 없으니까요. (시설아동5) 방에 있는 게 약간 좀 그래요... (중략) 옛날에는 게임만 계속해서 밖에 나가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게 더 좋아졌어요. (중략) 혼자 나가서 뭐 어디 앉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시설아동4)
퇴소 하고 싶은 욕구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아서... (중략) 재미 없고 지루한 것도 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리고 하루가 빨리 지나면 빨리 어른 될 수 있어서... 어른이 되면 빨리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시설아동4) 집은... 그냥 쉬는 공간이긴 한데, (시설을) 빨리 나가고 싶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설아동5)

3) 시설거주 아동의 개인 여가활동과 미디어활동

- 시설거주 아동의 개인 여가활동으로는 미디어활동 이외 별다른 활동이 관찰되지 않음
- 미디어활동은 대체로 소극적 미디어활동에 그침
- 일부 아동에게서 학교 내에서 단체로 하는 스포츠활동에 대해 언급한 예도 있으나, 개인의 신체단련을 위해 운동하는 경우는 없었음

- 시설거주 아동 중 일부는 일반아동과 유사하게 목적성 있는 미디어 활동(예: 학습, 팬덤활동, 취미영상보기 등)을 하는 아동도 있었음
- 미디어시간 과다사용으로 보고된 시설거주 아동의 경우 특별한 목적이나 흥미 없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보거나 습관적으로 SNS를 보는 소극적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운동, 체력단련 등과 같은 신체적 여가활동에 대해 언급한 아동은 거의 없었음.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놀이 차원에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 일부 학년이 낮은 아동의 경우 학원을 학습이나 배움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여가나 친구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음. 시간을 때우려고 하거나(시설아동4), 친한 친구가 학원에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다니게 된 경우(시설아동1) 등이 이에 해당됨

<표 220> 시설거주 아동의 개인 여가활동과 미디어활동

하위주제	세부 내용
	유튜브도 있고 틱톡이나 쇼츠 봐요. 아이돌 좋아해서...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인데 얼굴 공개 안 하고 필터 써서 하는 아이돌이에요. (중략) 하루 종일 핸드폰하는 게 아니라 할 거는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시설아동2)
수동적인 미디어활동	그냥 이것저것 뜨는 거 봐요. 친구한테 장난치고 깔깔 웃고 그런 채널? (시설아동6)
	집에 와서 누워서 SNS를 보거나 그래요. 유튜브도 잘 안하고, 인스타그램 짤을 주로 봐요. (중략) 친구들이 그냥 올린 글 보기? (시설아동8)
	유튜브나 릴스는 봐요. 쇼츠나 추천 뜨는거? (시설아동3)

하위주제	세부 내용
부족한 신체활동	근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키가 많이 작아서 줄넘기나 배드민턴 위주로... (시설아동2) 학교에서는 자주하는데 학교 안 갈 때는 아주 가끔? (본인이 몸쓰는 활동을 하러 가진 않 나요?) 네. 학교에서 다 같이 할 때는 괜찮는데 굳이 찾아서 하진 않는? (시설아동3) 학교에서 축구해요. 점심시간에... 축구랑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 (시설아동8)
학원에 가는 이유	(태권도 학원을 왜 가요?) 그냥제가 심심하고 놀 것도 없으니까... (시설아동4) (태권도 학원은)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갔는데, 하다보니 재미있더라고 요. 거의 친한 친구들은 다 가는 거 같아요. (시설아동1)

4) 시설거주 아동의 단체여가활동과 공동 활동이 주는 의미

- 시설거주 아동들은 시설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 형식의 단체활동으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음
- 시설거주 아동들은 시설을 벗어나 새롭고 사적인 공간에 가서 개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했던 경험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기억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시 격리시설에 입소했던 몇몇 시설거주 아동은 혼자 공간을 사용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기도 함
- 다수의 조사아동이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여가활동으로 놀이공원 방문과 캠프(1박 여행)를 꼽았음. 즉, 일상적인 여가보다는 프로그램 형식의 단체 여가 활동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음.
- 특히, 1박 캠프의 경우 시설을 벗어나 좋은 곳에서 자고 온 경험이 이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임
- 흥미로운 점은 시설거주 아동이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것임.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생활 자체가 아동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일부 아동들은 혼자 방을 쓸 수 있고 활동이 자유로웠다는 점이 오히려 좋았다고 응답하기도 함.
- 그 밖에도 함께 격리하면서 학업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즐겁게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함

<표 221> 시설아동의 단체여가활동과 공동 활동이 주는 의미

하위주제	세부 내용
놀이공원 가기	(연구자-시설에서 주로 외부활동을 하면 월 주로 해요?) 놀이공원에 갔던 게 기억나요. 롯데월드랑 어린이대공원... (시설아동3)
	작년에 태권도 학원에서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중략)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는 키가 안 돼서 무서운 걸 많이 못 탔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많이 풀려서요. (중략) 재미있는 거 라면 서 소리 지르다가 목청이 나갔어요. 무섭기도 한데, 재미있기도 했어요. (시설아동1)
다 같이 가는 여행이 주는 의미	(연구자-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면?) ○○와 같이 에버랜드에 갈거예요. 도깨비바람도 타고... (시설아동7)
	가끔 어디로 놀러 가거나 몇 박 며칠로 단체로 놀다 오기도 해요 (중략) 나가서 잘 때는 안 에 애들이 많으니까 같이 놀 수 있어요. (시설아동3)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있었어요. 수영장 있고 펜션 지하에 노래방 기기가 있었어요. (중략) (연구자-앞으로 기회가 되면 활동을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딱히 안 가 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설아동8)
	제주도에 가서 수영장 가고, 수영장이 호텔 안에 있었어요. 수영하고 바깥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 (시설아동6)
혼자 있으니까 좋았던 격리시설	스키캠프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스키캠프랑... 거기서 자고 온거... (중략) 아무래도 여행 이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서... 제가 길치인데 길을 잃을까봐 걱정도 되고. (시설아동2)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학교도 학원도 안 가고 혼자 있으니까 좋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아 았어요. (연구자-격리 풀려서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겠네요?) 약간 살짝? (시설아동3)
	혼자 있는 건 좋았는데 밖에 왔다 갔다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 유 튜브랑 TV랑 번갈아가면서 신나게 봤죠. (시설아동5)

하위주제	세부 내용
단체격리의 기억	가면 뭐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시켜줬고요. 또 남자끼리만 모여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 장난감이 엄청 많이 쌓여있었던 말이에요. 놀이치료실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막 놀고. 축구게임이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재미있게 하고, 과일도 엄청 많이 주고, 늦게 재워주고... 그리고 이불 두껍게 깔아서 막 씨름하고 레슬링 하면서 영상도 찍고... (시설아동1)
	(코로나때 격리 시설에 가서) 아주 행복했어요. 공부도 안하고, 핸드폰만 하고 밥도 알아서 주고. 아프긴 했었는데 3일 뒤에 아픈 게 싹나아서 언니랑 계속 놀았어요. (시설아동6) (코로나때 격리 시설 간 친구들 이야기 하면서) 걔네들은 어디 갔지... 되게 좋은 데 갔다고 했어요. 가서 TV 보고 팝콘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는 밥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격리 시설에 가서 TV 보고 놀았다는 얘기 들어보면 부럽기도 했겠어요?) 네. (시설아동7)

5. 시설거주 아동이 맺는 주변인과의 관계

1)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 시설거주 아동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사귀 친구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음
- 시설거주 아동은 강남권-비교군(경기도 읍면) 아동과는 다르게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시설거주 아동은 친구와의 활동을 통해 시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정적 체험활동을 뛰어넘어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었음

- 시설거주 아동은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난 개인 시간에도 모두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였음
- 강남-비교군 학생들과 유사하게 시설거주 아동 역시 학원 스케줄이 안 맞을 때 교우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일도 있었음.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강남-비교군 아동과는 다르게 학업 스케줄로 인해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기보다는,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전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가까웠음. 특히, 특성화고를 진학한 응답자의 경우, 인문계고를 진학한 친구들과 생활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함
- 조사에 참여한 시설거주 아동들에게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친해지는 모습도 포착되었지만, 친구들이 하는 활동·취미를 보고 비슷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흥미를 따라가는 모습도 함께 관찰되었음
- 일부 시설거주 아동들은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겪게 된 에피소드,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 함께 놀러 갔던 일들을 인상적인 경험으로 설명해주기도 했음. 시설거주 아동들은 시설 내 단체체험활동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개인적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신기하고 신선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표 222> 친구들과의 관계와 의미

하위주제	세부 내용
학교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	학교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선배 언니들이랑도 좋고 후배는 아직 없지만 후배들 모으면 더 분위기가 밝아질 것 같고 친구들이랑 진짜 잘 지내요. 같이 등교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종락) 같이 영상 만들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시설아동2) 고 1때 알게 된 친구인데, 원래는 다른 반이었는데 같이 축구 여러 번 하다가 친해지고 놀러 다니고 2학년 되고 같은 반이 돼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다같이 당구도 쳐요. (종락) 그냥 뭐가 그냥 서로 잘 맞다는 그런 거? (시설아동8)
학원스케줄로 인한 교우관계 어려움	4학년 때까지는 많이 놀 수 있었는데 5학년 되니까 교시도 늘어나고 학원도 한 개 추가 되어서 놀 시간이 거의 없고, 수요일에만 1시간 정도 놀 수 있어요. (시설아동1) 저희 방 말고 다른 방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인 애가 있어요. 개량 많이 친해요. (종락) 학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자주 보진 못하고 주말에 가끔 봐요. (시설아동2) (연구자-아무대로 학교 친구들이랑은 시간이 안 맞아요?) 같이 게임하자고 하면 하는 애들도 있고 학원가는 애들도 있어서요. (시설아동3) 3학년 때는 1교시 끝날 때마다 한 교시 끝날 때마다 찾아가고 2학년 때는 그냥 ○○이한테 가고 지금 3학년 때 같이 수영장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학교가 달라 못 만나는게) 아쉬워요. 학원도 다녀야 하고 방학 때는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시설아동7)
비슷한 흥미와 활동	최근에 친구들이 디스코드 하자고 해서 깔았어요. (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가 잘 되나 봐요. (종락) PC방 같이 가서 게임하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하다가 떠들고 그래서... 밥도 시켜먹고... 친구들 다 게임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아동3) 원래는 다른 반이었는데 친해졌어요. 같이 축구 여러 번 하다가 친해지고 놀러 다니고 2학년 되고 같은 반이 돼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시설아동8)

하위주제	세부 내용
친구들을 통한 일상의 경험과 확장	친구 생일에 시간 되는 사람 모이고 친구 생일이 빨간 날이나 주말일 때만 만나고 평일에는 안 만나요. 그리고 연락을 하죠. 몇 시에 만나서 한강 가자 서울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략) 서울은 한강밖에 안 가봤어요. 애들이 다 가자는 곳이 한강이라서... (시설아동2)
	○○이네 집에 놀러가면, 고양이 만지고 부모님이 브라우니 만들어 주셔서 먹고 유튜브 보다가 오기도 했어요. (시설아동6)
	주말에는 친구집 가거나 그러기도 해요. 제 친구 중예요. 아빠가 나무로 뭘 만드시는 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담벼락에 나무 이렇게 해서 사다리처럼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테라스도 나무에 만들어놓고 신기했어요. (시설아동1)

2)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거주 아동과의 관계

- 시설거주 아동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 아동들에 대해서는 친구만큼 중요하게 언급하거나 애착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음
- 그럼에도 일부 시설거주 아동들은 가장 오래 생활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동년배 시설아동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으며, 함께 생활하는 시설거주 아동들의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관찰되었음

- 본인들이 친하다고 언급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과 관련된 질문에 비중있게 언급한 조사참여자지는 많지 않았음. 같이 산다고 해서 꼭 가까운 관계라고 규정하기 어렵듯, 시설거주 아동들 역시 함께 생활하는 아동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고 가족과 유사한 관계 역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아동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싸우면서 기분 상할 때(시설아동2)도 있고, 여러 일상적인 갈등에 노출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몇몇 아동의 경우처럼 시설에서 오래 함께 생활한 친구가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친하게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음
- 함께 지내는 동료·선배 아동들은 시설아동들에게 친밀한 관계로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시설아동들의 생활과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인 것으로 보여짐. 특히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형이 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 한다거나(시설아동1, 시설아동3) 함께 종교 생활을 하며 친밀함(시설아동7)을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었음

<표 223>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거주 아동과의 관계

하위주제	세부 내용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겪는 갈등	가끔씩 의견이 안 맞다 보면 싸우고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일찍 자고 싶어하는데 저는 잠이 안 와서 TV 보고 있다가 친구가 깨달라고 했는데 저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소리, 밝기 줄여줬는데 친구가 자기 자고 싶다고 끄면 안 되냐고 싸우기도 하고 (시설아동2) 이불 넘어오지 말라고도 싸우고... 잘 때 계속 뭐라고 말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잠을 좀 설치겠네요? 조용히 잠잘 때 잠자고 싶을텐데...) 네. (시설아동6)
가장 오래된 친구	동갑인 여자애가 두 명있는데, 제일 친해요. 여기 시설에 왔을 때 처음부터 같이 왔대요. 서로 격려할 때도 있는데요. 막 놀릴 때도 있어요. 막 넘어지면요. 옆에서 울든 아니든 엄청 크게 웃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해요. (시설아동1) 같은 시설에 다니는 친구인데 저랑 동갑이라서 초, 중, 고를 같이 나왔어요. 엄청 절친한 친구입니다. (시설아동3)
함께 생활하는 선배(형, 언니)의 영향력	유치원 때 레고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따라 했었던데요. (종약) 그 형은 레고 접었어요. 고1 되니까 안해요. (시설아동1) 발로란트라는 게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는데 형들이 하길래 저도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었어요. 롤도 형들이 하는데 제가 옆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깐 시켜주더라고요. (시설아동3) 언니랑 같이 교회에 가서 가끔 만나고 가끔 ○○ 언니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연구자- 언니 사는 집 가봤더니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침대랑 큰 인형이요. (시설아동7)

3) 기타 주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 (생활지도교사와의 관계) 일부 시설 아동은 생활지도교사와 큰 친밀감을 느끼거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생활지도교사를 대하는 양가적 모습이 관찰됨
 - 학교 선생님 및 원가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아동은 많지 않았음
-
- 생활지도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아동의 경우, 본인이 즐겁다고 느끼는 일상·여가활동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다는 입장과 자신의 고민을 흔쾌히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음
 - 생활지도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응답아동의 경우, 아동 자신을 선생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함
 - 학교 교사와의 관계를 언급한 아동은 거의 없었음. 다만 시설아동6의 경우 최근 그룹홈 생활을 세심히 물어보는 담임 선생님이 대해 언급하였고, 담임선생님을 좋은 어른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원가족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설아동7, 시설아동5의 경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음. 일례로, 방학 때만 되면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고 그룹홈에 복귀하는 참여자7은 할머니 댁에 가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 좋지만, 할머니 자체에 대한 친밀함을 느끼진 못했고, 5년 동안 멀리 떨어져 연락만 주고받는 시설아동5의 경우 엄마를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심리적 의존은 컸던 경우도 있었음

<표 224> 기타 주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하위주제	세부 내용
생활지도교사와의 관계	○○쌤은 자주 데리고 나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쌤은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세요. (시설아동1)
	선생님들과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저희 방 담당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사무실로 내려가서 자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과요. (고민이 있으면 논의도 할 수 있는?) 네. (시설아동3)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어른에게 말해야 하면 누구한테 말해야 할거 같아요?) 그 룬흠 이모한테 말하면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시설아동6)
학교교사와의 관계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많이 불편해요. 애들이 징징거리니 개만 챙기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 잘 안해요. (중략) 알바하는 매니저님한테 오히려 이야기 하는 편이에요. 1년 동안 봤으니까 친해진 것 같고 고민 잘 들어주시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시설아동5)
	생활지도 뭐 담당 선생님이랑 아니면 대체 선생님이랑 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많이 해요. 그냥 관계는 없어요. 서로 얘기하는 거죠. 다 말할 수는 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픈데 괜찮아 보이는데 안가도 된다고 얘기할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시설아동4)
학교교사와의 관계	선생님은 체육 쌤인데... 저랑 상담했는데... 여기(그룹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힘들때나 그럴 때 선생님한테 말해도 된대요. 그룹홈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달래요. (시설아동6)
원가족과의 관계	(연구자-친한 어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모들. 할머니는 진짜 가끔 와서 자주 연락 하지도 않아서 아닌 것 같아요. (시설아동7)
	엄마랑 안지낸지 5년이 넘었죠. 여행을 가면 엄마랑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엄마 고향이 베트남이에요. (중략) 내년에도 가기로 했어요. (시설아동5)

6.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

1) 학업에 대한 흥미와 태도

- 시설거주 아동에게서 학업 및 공부에 대한 본인만의 뚜렷한 입장이 관찰되지 않았음. 이는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관리, 진로관리와 같은 자립기술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동에 입장에서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개인의 욕구나 적성에 의한 관리로 느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일부 시설거주 아동은 공부를 하고 싶진 않지만, 막연하게 해야 된다고 느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특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 특성화고를 간 학생들은 학업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표현함. 이는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의 비중이 낮아 오히려 중학교 때에 비해 학업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만 충실해도 따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시설 내 생활지도교사를 통해 숙제지도나 학습지도를 한다는 내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음. 다만, 학생의 진로를 추천해주거나(시설아동2) 생활지도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격증 준비를 돕는 수준(시설아동7)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여짐. 대체로 시설아동의 학습활동은 생활지도교사의 관리보다는 학원이나 학습멘토링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일부 시설에서 학습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던 아동의 경우 학원과 같은 별도의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학습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개입(예: 인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음

<표 225> 학업에 대한 흥미와 태도

하위주제	세부 내용
	(가장 하기 싫은건?) 공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기가 싫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서 할 걸 찾아야죠. (시설아동8)
공부에 대한 막연한 생각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데(회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삼성에 가면 돈을 그렇게나 잘 번대요. (시설아동1) 돈은 일단 벌어야 되고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때론 힘들다고 느끼죠. (시설아동5)
학업이 힘들지 않은 이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서... (전공 공부도) 가끔씩 하는 거라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시설아동2) 중3때 딸린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중3 전에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특성화고라 더 괜찮더라고요. (연구자-공부 부담이 많이 없나요?) 네. (시설아동3)
학업에 있어서 시설교사의 영향력	저희 (시설) 선생님한테 영상 편집하는 거 재밌는데 고등학교 관련된 거 있냐고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영상과 있으니까 가보는 거 어떠냐고 추천해주셨어요 (시설아동2) 제빵 시험 이모가 도와주셔서 좋았어요. 제빵 필기 아직 못 땀는데 이모 한 분이 옆에 와서 같이 문제 읽고 이게 뭔지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시설아동7) 수학이 제일 싫고 그 다음이 영어예요. (연구자-점수를 올리려고 학원에 다녀요?) 영어랑 수학은 그냥 이모가 필수 과목이라고 다니래요. (만약에 안 다닐 수 있다면?) 안 다니고 싶을 거 같아요. (시설아동5)
공부와 관련된 활동	학원 가는 날에는 5시에 끝나고 밥을 먹거나 숙제를 하다가 학원을 6시까지 가요. 지금은 화, 수, 토, 일요일 가고 있어요. (시설아동8) 태권도, 영어, 수학학원은 맨날 맨날가요. (시설아동1) 멘토링 선생님한테 월요일에는 수학, 수요일에는 국어 배워요. 금요일에는 수학 학원을 가요 (시설아동7)
학습문제가 있는 아동의 학습지원 부재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아예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설아동2) 학교 숙제, 학원은 태권도만 가서, 공부하는 학원 안 가요. 공부가 힘들어서. 재능(학습지) 숙제만 해요. (시설아동4)

2) 진로선택과 자립의 경계에 선 시설거주 아동

- 정성조사 인터뷰에 응한 고등학생 5명 중 4명이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기술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음
- 정량조사에서 시설거주 아동의 과반수가 특성화고에 진학했다고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에서 인문계고를 진학한 재단지원 아동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직업계고 진학문제와 시설거주 아동의 자립이슈가 상호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볼 수 있음

- 특성화고 진학자 4명 중 2명의 시설거주 아동이 집중력 및 학습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이었고, 이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3명의 시설거주 아동이 제과제빵 전공자라는 특징이 있었음
- 일례로, 시설아동5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원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과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미성년 아동의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나 아동의 근로활동에 대한 세부 관리가 시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보임
- 응답 아동의 상당수는 퇴소한 선배들의 모습을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었으며, 퇴소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막연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대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표 226> 진로선택과 자립의 경계에 선 시설거주 아동

하위주제	세부 내용
학교생활과 취업교육	컴퓨터학원 다녀요. 1학년은 자격증 관련 학원 다녔었고 지금은 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시설아동2) 화, 목요일은 제빵학원 가야 돼서 집에 들렀다가 가고 금요일은 바로 수학학원 가고 월요일에는 집에 와서 (학습) 멘토링하고요. (중략) 7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식빵 거의 만들었고 버터롤, 단팥빵, 슈크림빵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시설아동7)
자립준비	(주말 아르바이트는 왜 해요?) 보컬 학원 다니려고요. (시설에서 학원을 지원해주진 않나봐요?) 네. 성대가 탄탄하고 노래를 잘한대요. 한 1년 넘게 다녔어요. (그럼 1년동안 알바를 했어요?) 네. 1년 3개월. (중략) 학원비 내고 200만원 모았어요 알바비로, 20만원씩 적금해서. (시설아동5)
선배를 보며 느끼는 점	형들이요. 항상 이래요. “지금부터 빨리 공부해야 돼 안그러면 형처럼 후회한다” 이래요. 그럼 제가 “30년 산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많이 산 사람처럼 말하냐” 그래요. (시설아동1) 알바 가는 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같이 살던 시설) 오빠들이 나갔잖아요. (중략)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생활하는 건 따로 사니까 잘 모르구요. 그냥 언니들이 돈이 부족해서 찢찢 매는게 보기 싫어서... (시설아동5) (대학 간 형들을 보니) 일단 집에 일찍 일어나서 7시 반에 나가고... 겁나 힘들 것 같아요. (시설아동8)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VI

시사점

1. 아동행복지수와 관련 영향 요인 분석
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4.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5. 종합 제언



VI 시사점

1. 아동행복지수와 관련 영향 요인 분석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겪는 수면 부족과 불면

: 아동·청소년 ‘24시간 균형 생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전문가 양성

-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중 13%가 불면을 겪고 있다(초저 9.2%, 중등 11.0%, 중등 15.3%, 고등 18.7%). 그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29.4%)’ ‘소음 등의 환경적인 이유(24.4%)’, ‘해야 할 일’이 많아서 (17.1%),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9.7%)’를 꼽음

- 불면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부정적 자해경험, 자살생각, 우울불안,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등 심리·정서 위험률이 더 높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5분(초등 저학년 포함)으로 25%가 과소수면에 해당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부시간이 늘면서 수면시간은 줄어듦(초등 저학년 9시간 39분, 초등 고학년 9시간 5분, 중학생 7시간 51분, 고등학생 6시간 32분)
- 미디어 시간, 학업시간, 부족한 운동시간은 수면시간과 연관성이 깊어, ‘수면시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고선강, 2017, Dumuid et al., 2022, Sampasa-Kanyinga et al., 2022)

- 캐나다는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운동지침 가이드라인(24-hour movement guidelines)’을 개발함. 호주와 뉴질랜드도 캐나다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24시간 균형생활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의 운동 및 수면시간을 제안함(Okely et al., 2022)^{6) 7)}

6)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health-promotion/healthy-living/physical-activity/24-hour-movement-guidelines-children-youth.html>. (2024.04.14.인출)

7) 캐나다 24시간 운동지침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https://csepguidelines.ca/guidelines/children-youth/>. (2024.04.14.인출)

- 캐나다 24시간 운동 지침 가이드라인: 운동시간은 '가벼운 신체활동' 하루 1시간 이상, '땀 흘리는 신체활동'은 최소 60분/주 3회 권장. 수면시간은 5~13세(9~11시간), 14~17세(8~9시간)으로 특히 수면 및 기상시각이 일정해야 할 것을 강조(Mark et al., 2016).
- 공중 보건국 및 전문가 협회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간균형을 맞추도록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평가와 도움을 주는 전문가 양성함(Amy et al., 2016).
- 지역사회에서는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수행하도록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스크린 사용을 제한하며, 최대한 앞서 보내는 시간이 적도록 권고함(Amy et al., 2016)

- 영국은 'The Sleep Charity'라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수면을 돕는 법인 자선단체와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인 NHS, 영국공중보건국 PHE와 연계해, '국가 수면 헬프라인'을 운영하며 성인 외에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8) 9)}

- 아동 7~12세는 10~12시간, 청소년은 8~9시간 이상 잘 것을 권고하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도록 수면 전화상담 시스템을 운영함. 수면 문제 원인(학업 스트레스 등) 해결, 수면 일기 워크북 등을 불면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건강 및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면 워크숍'을 열어 사춘기 수면패턴이 바뀌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면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함
- 그 밖에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을 해결하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기 아이들이 수면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고 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8) 영국 수면 NGO 단체 홈페이지, <https://thesleepcharity.org.uk/>. (2024.04.14.인출)

9) 영국 요크셔 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rk.gov.uk/SleepAdvice>. (2024.04.14.인출)

-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24시간 균형 생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24시간 가이드라인’과 영국의 ‘국가 수면 헬프라인’ 운영과 같이 몇몇 국가들은 민간과 연계하거나, 국가가 주도해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24시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동시간과 점점 줄어드는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전문 기관을 설치 및 양성해 아동·청소년의 24시간 균형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의 사교육 중심 생활에서의 변화 노력

: 공교육의 보완, 사교육 ‘목적’ 인식 변화 필요

-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하루 중 학업시간으로 8시간 34분. 학교 수업 외 학습은 초등 저학년이 2시간 17분으로 가장 짧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이 더 길어져, 고등학생은 하루 평균 3시간 33분으로 집계됨
- 2022년 OECD 평균 공공 의무교육시간 보면 초등교육 연간 총 4,830시간, 중등교육은 총 2,748시간임. 이에 반해 한국의 초등교육시간이 총 3,930시간, 중등교육은 2,526시간으로 보고됨(OECD, 2022)
- 즉, OECD 평균 공교육 의무교육시간에서는 한국의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는 한국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해 더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함
- 사교육은 공교육이 다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학부모의 두려움과 학생들의 초조함 등을 이용한 사교육 기관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 등으로 인해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최항석, 2022)

- 한국 사교육의 문제점은 ‘목적’에 있음. 학습의 목적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행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종철, 2023)
- 이번 조사 결과, 선행학습을 위하여 주말에도 우리나라 아이들 중 57.3%가 학원을 다님. 또 가족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공부를 주제로만 대화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압박이 평균 이상인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는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45.95점)에 비해 1.79점 낮았음
- 안타깝게도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불안을 더 느끼고 자살 생각도 2%p 더 높음
- 뚜렷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 없이 압박 속에서 공부한다면,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여러 실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 입시를 위한 사교육 몰입보다 자기주도적 사고와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함(EBStory, 2023.08.19.)

3) 법적 개선 과제

- 교육부는 2023년 6월 공정한 입시체제와 사교육카르텔 근절, 공교육 입시컨설팅, 에듀테크 도입, 늘봄학교 등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수요 흡수를 주요 골자로 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제도와 환경의 혁신이 아닌, 사교육 대체제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것. 그럼에도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교육 경감 대책’ 재검토를 시사함
- 이와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2014년 제정 당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정됨

-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초·중·고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함)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 하지만 입법 목적에는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기에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법률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개정해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근본적으로 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덕난, 유지연, 2022)

-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에게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6조). 대부분의 시도에서 5시부터 22시까지는 공통적으로 교습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24시까지를 인정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범국가적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과도한 과외학습을 방지할 수 있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초록우산, 2023)

2.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 ‘아동일상행복도시’의 지역·학교·가정 여건 확인

- 아동행복지수: 상위 vs 하위

- (상위 5곳) 세종(49.8점), 제주(48.6점), 부산(47.2점), 전남(46.5점), 경남(46.2점) (하위 5곳) 경기(44.8점), 서울(44.8점), 강원(44.5점), 전북(43.9점), 인천(43.7점)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세종시 이남) 지역에서 아동행복지수가 더 높음.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의 다양한 생활영역(지역·학교·가정)에서의 차이와 특징을 확인함

- 아동행복지수 상·하위지역의 생활영역(지역·학교·가정) 차이와 특징 비교

-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지역들이 경제, 교육, 문화, 안전 등 지역 여건 지표도 더 좋은 편이었음

- (지역여건) 저출산 제고 위한 모니터링 정책 지표로서 지역별 아동행복지수 활용 필요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이 하위지역들보다 가구부채(4,039만원▼), 실업률(0.14%p▼), 사교육비(13만원▼), 문화시설수(2.9개▲), 체육시설수(1.42개▲), 도시공원조성 면적(10.53천m²▲), 아동대상 범죄 발생 건수(0.30건▼)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남
-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지표들이기도 하며(박선권, 2020) 실제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상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아 아동행복지수와 지역 출산율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따라서 지자체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서 아동행복지수도 활용될 수 있음

- (학교여건) ‘학교’가 다양한 관계와 경험을 쌓는 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학교 여건 개선 필요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율이(8.04%p▼) 더 낮음

- 과밀학급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집단의 만남이 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이승미, 2003). 또 학급 규모가 클수록 교사 신뢰가 낮아짐(이숙정, 2006). 이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음(교육부, 2022)
-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결과, 1위인 세종시 0%, 17위인 인천시 29.8%로 큰 차이가 있었음. 또 ‘오늘 학교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응답한 학생비율 역시 인천(51.8%)이 세종(65.8%)보다 14%p 더 낮음
- 학생과 교사와 관계는 학교생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박종모, 박세원, 2020) 각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급당 학생 감축’ 정책 추진이 필요함. 1위 지역인 세종시는 이미 ‘학급당 20명 배치’ 정책을 초등 1학년(2022년), 초등 2학년(2023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과밀학급 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과밀학급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의 격차가 크므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문 장소별 시간(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이 더 긴 편으로 나타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이 방과 후 ‘운동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긴 반면,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나 ‘집콕 시간’은 하위지역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히 갈 곳이 없다(25.1%)’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갈 곳이 없다’라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안전하게 다양한 경험과 친구와의 상호작용하는 누리는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시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 개선 필요함

-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일수록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 돌봄교실’을 더 이용함. 또 방과 후에 ‘돌봄 센터’ 시간이 긴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볼 때, 앞으로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활성화도 중요함

- 교육부는 2023년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함. 2024년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이상,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함(교육부, 2024)
- 초등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해 초등돌봄교실도 지속 확대되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신청 인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대기인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내 돌봄 공간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저학년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이덕란, 2020)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 종사자의 처우 등 미흡함. 따라서 학교·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의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가정여건) 적절한 ‘사교육’ 시간과 더불어 양질의 ‘회복 시간’ 확보 필요

- 아동행복지수 하위지역은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사교육)’과 ‘미디어 여가시간’이 더 길
 - 세부적으로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은 사교육시간은 10분 짧고 학원시간도 8분 적음, 그 외에 학원 및 과외(국영수)시간 6분, 혼자공부시간 7분, 학습용 미디어시간 6분 등 모든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음. 반면,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들은 방과 후 ‘운동시간’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길
 - 특히 아동행복지수 1위 지역인 세종시는 17위인 인천시보다 여가시간 중 ‘대면교제 시간’이 평균 23분 더 길고, ‘미디어 여가시간’은 평균 38분 더 짧음
- 상위지역에서 방과 후 ‘미디어 여가’보다 ‘운동’이나 ‘대면하는 교제’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은 적절한 공부 시간 이후, ‘일상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이들 행복에 중요함을 시사함
- 이러한 ‘회복의 시간’은 인지발달 외의 사회, 정서, 신체 등 종합적인 아동발달에 꼭 필요함.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성취를 이룬 후에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학습 외의’ 다양한 시간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되어야 함
-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아동행복지수가 높고 전반적인 심리·정서도 좋음. 따라서 주말도 문화생활이나 여가선용이 가능하도록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인프라 구축도 중요함

2) '아동일상행복도시' 제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 2023년 11월 기준, 전국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거나 추진 중임. 아동친화도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참여와 권리,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가지 평가 영역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자체의 아동권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양적, 질적 정보를 얻고 있음
- 하지만,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에 놀이 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등 시간 관련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의 균형 있는 일상생활(생활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은 부재함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러한 환경을 아동이 '시간'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실제로 행복을 체감하며 살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아동행복조사 등 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아동행복지수 상위지역은 주관적 행복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발달이 하위지역 아동보다 모두 높았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에서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초록우산 ‘아동일상행복도시’ 제안

- 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에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수적인 균형 있는 생활시간을 점검하는 ‘아동일상행복도시’ 연계를 제안함
-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확보 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아동이 불균형한 생활시간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 학교생활의 어려움, 비행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아동권리를 ‘시간’을 통해 되찾아 아동이 권리와 일상행복을 함께 누리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마다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시간 등 주요 생활시간의 권장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지역 아동이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권장 비율이 낮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둘째, 지자체에서는 권장 생활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개인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아동일상행복도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함
 - 셋째,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확보를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 및 민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넷째, 지역별 전문기관에서는 거버넌스 구축만이 아니라 ‘아동 생활시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수면시간이나 운동시간 등에 대한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생활시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에 파견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역 내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으로 학교에 아동 생활시간의 중요성과 운동 및 수면시간 개선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함
 -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 생활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해 보호자가 아동의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업이나 미디어에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데 동참하여 가정에서부터 균형 있는 일상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

3.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와 일상 비교

1) 강남권 거주 아동의 생활시간 특징과 아동행복지수 차이

- 2010년 한 조사에서, 강남에 살지 않는 비거주 응답자 117명 중 93명이 강남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대답함. 강남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도시 인프라가 잘 발달 돼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도시 구획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녹지대가 많고 좀 더 유리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강남과 비교군은 주거지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며, 서로 비슷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집해 산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이에 강남의 부유층이 한국의 준거집단이 되어 강남 대 비교군이라는 구도는 사회적 계층을 나누고 구별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음(구해근, 2022).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vs 비교군 아이들의 일상과 아동행복지수를 비교함

- 사교육 중심 생활이 일반적인 강남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로 본 일상’은 불균형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비교군 아이들보다 아동행복지수 균형이 좋았음

- 하루 시간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필수시간은 비교군이 더 긴데(36분▲) 강남권 아이들은 평균 수면시간이 더 짧기(34분▼) 때문임. 학습시간은 강남권이 더 길며(1시간 20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강남권 vs 비교군의 학습시간 차이는 더 커짐. 여가시간은 비교군이 더 긴데(44분▲) 비교군 아이들이 강남권에 비해 미디어 여가시간(47분▲)과 대면교제 시간(15분▲)에서 차이를 보임

- 특히 ‘학습 일상’을 중심으로 강남권 vs 비교군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교육시간 차이가 큼. 사교육 시간은 강남권(3시간 42분)이 비교군(2시간 44분)보다 더 길고, 주말 사교육도 더 많이 하며, 평일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비교군(66.5분)에 비해 강남권은 2배 가까이 더 많은 127.6분으로 집계됨
- 예상대로 사교육시간은 강남권 아이들이 월등히 높으나 일상균형을 측정하는 ‘아동행복지수’는 오히려 비교군(43.7점)보다 강남권(47.4점)이 더 높았음. 그 이유를 정성조사 심층 인터뷰로 살펴보았는데,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첫째, 양육자 신뢰와 다양한 가족활동으로 인한 좋은 가족 유대관계가 강남권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 양’ 자체는 비교군 아이들이 더 긴 편이나 고민을 상담하거나 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표현은 강남권 아이들에게서 더 두드러져 여가시간 사용에 있어 미디어시간 중심인 비교군에 비해 강남권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사교육 후, 회복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강남권은 양육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 시간의 질’을 통해 아동의 일상균형이 좋아짐
 - 둘째,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계획과 주도성의 차이가 강남권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됨. 강남권 아이들이 비교군에 비해 더 구체적인 본인의 진학 및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강남권 아이들은 구체적인 진로 탐색 과정을 경험한 반면 비교군 아이들은 진로가 여전히 명확하지 못해 막연하게 ‘대학을 가야한다’ ‘공부해야 한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 강남권은 더 나아가 주변 지인을 통해 본인 주도로 원하는 진로를 미리 탐색하고 간접 체험하도록 부모가 돕는 데서 차이를 보임. 이는 공부에 대한 태도와 선호하는 직업군에도 영향을 미침. 즉, ‘사교육 시간’이 비교군에 비해 1시간 20분이 나 더 긴 편이지만 강남권은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공부에 임하고 있어 아동의 일상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셋째, 미디어 사용시간에 있어서도 강남권 아이들은 ‘필요한 정보습득’이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자기 통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진 반면 비교군 아이들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 자기 통제적인 모습을 덜 보였고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혹은 SNS와 게임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가 강남권 아이들의 아동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2) 강남권 거주 아동의 아동행복지수 증진 방안

- ‘2023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이 늘어남
 -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2017년(1만6000명) 순유입이후 7년 연속 순유입 추세로 2019년(8만3000명), 2020년(8만8000명)에는 8만명 이상 순유입을 기록함. 지난해 인구 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이 전체 이동 사유 비중의 80%에 해당함(경향신문, 2024.01.30.)
- 그러나 수도권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말에 함께할 수 있는 ‘근린환경’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면에서는 비수도권에 비해 열악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이후,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017년 2,657개에서 2022년 3,145개로 500개(18.37% 증가)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기준, 수도권 44.27개 지방 77.80개로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함
 - 특히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대도시 60.7%, 중소도시 59.2%, 읍면지역 50%로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예술 관람률도 낮음(문화체육관광부, 2022)
- 따라서 수도권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주말에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서비스는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 편리한 ‘근린환경 여건’ 구축 필요: 다양한 경험 기회의 접근성 보장

- 이번 조사에서, 강남권 그룹의 아이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없는데 반해 비교군의 아이들은 ‘도심’, ‘서울’, ‘시내’ 등 거주지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해서 현재 거주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불편을 표현함. 정량조사에서도 동네시설 이용 만족도에 강남권은 3.2점 비교군 2.7점으로 차이를 보임
- 서울을 중심으로 거주지역 특성별 학생의 학업성취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의 가정 배경 변인 등을 통제해도 사교육 시설의 수와 고위직과 전문직 종사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짐(이재연, 2011)

- 거주지역의 생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예컨대, 지역 내 복지 시설, 도서관, 관람·체험시설, 체육관 같은 아이들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근린환경 여건이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이재연, 2011)
- 즉, 학교·병원·기관 같은 물리적 근린환경과 이웃·이웃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의 사회적 근린환경의 여건은 아동에게는 중요한 환경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린환경 조성에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임

• 자기 주도적 ‘생활 설계’ 권장 필요: 목표가 분명한 공부생활, 여가생활

- 이번 조사에서, 강남권 아이들은 본인이 주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진로 탐색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교군 아동들은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제3자에 의해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즉, 강남권 아이들은 본인의 진학 및 진로 계획을 구체적인 탐색과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교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학습의 분명한 목표설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에(박승배, 2019), 강남권 아이들이 비교군 아이들에 비해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도 목적을 가지고 자기관리적 측면에서 통제하며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보고서(2020)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심화된 주된 이유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64.92%)를 꼽음(EBStory, 2023.08.19).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겠으나 무엇보다 사교육 의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시 말해, 단기간에 성적향상의 효과를 내고 싶어 사교육 수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울 수 없고,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약해져 학습격차로 이어진다고 생각됨(이종철, 2023)
- 안타깝게도 진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우리나라의 모든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공교육과 학원 사교육 모두 상당한 시간을 학습에 소비하고 있음.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 및 꿈의 목표를 명확히 해, 한국의 입시위주의 경쟁에 끌려다니기보다 본인의 진로계획에 따라 주도적 생활설계를 세우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함

- 또 아동·청소년의 진로 및 꿈이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꿈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처럼(정익중 외, 2018), 지역과 학교 그리고 부모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지지해주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함
 - 예를 들어, 획일적인 대학 입시중심의 교육체계에서 꿈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 진로에 대한 사례관리적 지원과 상담적 접근이 더욱 요구됨(정익중 외, 2018)
-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이 있어도, 평소 부모님의 잦은 간섭과 자기주도적 결정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집에서 쉬는 등 단순하고 의존적인 여가 활동에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자녀들이 발달에 유익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다양한 경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조언하고 지도하며 능력을 키워주어야 함

• 그러나 강남권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는 ‘미래 불안’에도 관심이 필요함

- 강남 부유 중산층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자식이 잘되어서 부모와 같은 계급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인맥을 동원해 자녀가 스펙을 쌓는 일을 도움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좁고 경쟁은 너무 치열해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님. 여기에 강남권 중산층 부모들의 불안이 있음. 즉, 자녀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 결과는 불확실한 까닭에 부모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항상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음(구해근, 2022)
- 이러한 부모들의 불안은 강남권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보임. 이번 조사 결과 중, ‘최근 1년간 미래에 대한 불안(예: 진로, 진학, 취업 등)을 얼마나 느꼈나요’란 질문에 강남권 아동은 6.3점(10점 만점)으로 비교군(5.6점)에 비해 0.6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전체 평균(5.1점)보다 1.2점 더 높게 나타남. 미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친구 관계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 방과 후 비교군 아이들은 친구들과 93분을 함께 보내는 반면 강남권 아이들은 51분으로 매우 짧았고 학업 시간으로 인해 친구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스스로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마음을 토로함
 - 반면 비교군 아이들에게 친구란 본인의 흥미와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였음. 비슷한 흥미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고 그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끈끈해지며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밝힘
- 강남권 아이들의 겪는 미래 불안감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과 조바심이 내재해 있음. 따라서 친구는 어려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취미를 함께 즐기는 존재란 점을 알게 될 때, 불안감도 조금 잦아들 수 있을 것임
 - 이에 강남권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공부에 방해된다는 식의 죄책감을 주지 말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일상시간'을 권장해 불안감을 낮춰 주는 지도가 필요함

4.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 비교

1) 시설보호 아이들에게 다양한 일상경험 제공 필요

- (일상경험의 제약과 공통된 시설거주 아동의 문화) 시설거주 아동들은 제약된 경험 속에 이들 고유문화 및 정서가 공유되고 있음

- 초등학생 때는 시간 및 활동과 관련해 보호받는 일상을 살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시간 자율성은 도리어 늘어남. 다만, 아동 행동에 대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시간과 활동을 관리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시설거주 아동의 여가와 일상경험에서 일괄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일정한 생활제약이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가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임. 보호아동의 경우 생활공간 내에서 본인이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TV시청, 음악듣기와 같이 고립된 여가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Quarmby et al., 2019)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 시설거주 아동은 또래 관계, 특히 함께 사는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퇴소한 선배들은 직접적인 조언이나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해주지는 않았으나, 시설거주 아동 본인이 퇴소한 선배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의식화하는 것으로 보임

- (주변인을 통해 경험하는 일상경험의 가능성) 시설거주 아동은 주변인과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시설거주 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으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음

- 친구네 집에 가서 보호자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보고 놀아보는 경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기회, 친구와 함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여가생활을 즐겨볼 수 있는 일상 등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한 시설거주 아동은 생활지도교사의 집에 놀러 가 '선생님이 직접 해주신 밥을 먹었던' 기억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교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끈은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일상적 활동이 일반아동에게는 별다른 것 없는 일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의 일상-관계 경험이 부재한 시설거주 아동에게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단체활동의 기능과 한계) 시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부 캠프나 행사는 시설거주 아동들에 다채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꼽아볼 수 있음

- 그러나 시설거주 아동의 단체활동의 경험은 일반아동들이 겪는 일상적 경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이들이 공통되게 말한 단체활동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단체놀이 활동 즉, 평상시 해보지 못하는 특별하고 재미있던 놀이 활동에 가까움
- 일례로 강남아동이 말하는 여행은 여행을 통해 가족과 추억을 쌓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관계적 경험으로 설명되는 반면, 시설거주 아동의 여행(캠프)은 단체로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고, 놀다 올 수 있는 특수한 놀이 경험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대조적이었음

-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생활수준 회복을 위한 경험 제공 방안 필요

- 그간의 시설거주 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보호와 돌봄 권리에 논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에,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과 생활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가 천명하는 아동의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임
 - 시설거주 아동은 자립이라는 중대한 생애 과업을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아동이자 학생으로 대한민국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상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일차적으로 양육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 하에 이들이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함.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놀이나 활동 그 자체가 아니며, 활동을 통해 아동은 내적 효능감과 친밀감, 긍정적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음(Csikszentmihalyi, 1997)
 - 따라서 시설거주아동 역시 일상경험을 통해 자기선택권을 실현하면서도, 본인의 노력과 인내를 최대한 발휘해 보는 의미있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임(Stebbins, 2007)

- 일상생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관계적·정서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설거주아동은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지만, 이들 역시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아동이며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Cunningham, 2013)
- 따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일상적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을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관계적 지지망이 필요함(Häggman-Laitila et al., 2018; Höjer & Sjöblom, 2009). 이는 일상경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방향성 조정에도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2) 법적 자립지원이 갖는 의미와 현실에서의 적용 어려움

- (자립지원 관련 법률과 직업교육 간 관련성)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진로가 조기취업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우려됨
- 시설거주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은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 39조는 아동복지시설에게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시설아동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에 근거해 총 8대 영역(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 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떠나기)을 일상 속에서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 이 과정에서 자칫 시설거주아동의 자립목표가 조기 취업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엿보임. 일례로, 시설거주아동 정량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 28명 중 11명(39.3%)이 특성화고 진학자였다는 점, 정성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중 3인이 동일한 전공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학습문제와 자립문제의 충돌) 아동의 행복과 자립의 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될 우려점이 엿보임

- 시설거주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경험과, 심리·정서·인지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현실적으로 적절한 사회화 및 학습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특성화고 진학이 고려될 수 있음. 학습문제 및 자립 이슈와 관련한 문제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음(안선영·장원섭, 2019; 정선욱 외, 2019)
 - 무엇보다 아동 입장에서 특성화고의 수업 특성상 아동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워주지 않는다는 점이 당장의 이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음. 또한 아동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순간, 생활시설이 개입하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지원계획(직업교육 수행 및 취업계획 수립)이 세워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시사점) 개별화된 자립지원의 구체적 방향 필요

- 시설거주아동은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흥미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활동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은 표준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아동이 독립했을 때 갖춰나가야 할 생활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시설거주아동이 퇴소를 위해 당장 취업을 목표로 두는 것을 넘는 개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의 차원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학습지원과 생활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제안들을(허민숙, 2018; 이상정 외, 2019)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2인의 사례와 같이 아동이 경험하는 인지·심리·정서적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의 개별화된 치료와 보호가 보장되면서도 이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자립지도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퇴소 이후의 독립생활이 '자립'으로 명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함. 시설아동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자립'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시설 내 자립계획과 퇴소 이후 5년간의 자립지원이 상호 연계되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제언

1) 중앙정부

- “아동복지”에서 “아동권리”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

● 아동권리 기반의 법체계 조성

- 아동권리접근법(Child Rights Approach)이란 아동권리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아동권리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과 실천, 정책과 프로그램 추진에 아동권리의 기준과 원칙(특히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을 적용하는 개념임. 특별히 아동권리접근법은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이행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둠(UNICEF, 2014)
- 그러나 국내의 아동 관련 법체계는 법 제명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아동복지”의 틀에 기초함. 「아동복지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협약상 권리 조항이 상당수 반영되어 오긴 했지만, 모든 아동의 기본적 자유와 삶의 질 보장의 기초 법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실정임. 「청소년 기본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등 현재 시기의 청소년 권리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의 기본권이 가시화되지 않으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권한 규정이 아동의 행위 주체성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음
- 법령이 인권 인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법체계 전반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요청됨. 아동기본법(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제정이 아니어도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명과 구조, 개별 조항의 전부개정 작업도 가능한 방안임.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때에도, 국내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 민법, 형법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제는 필수적임. 법령에 투과되는 아동관의 변화는 정책과 사업의 실천 방식 전환에 기여할 것임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유엔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유엔 인권권고의 이행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구축·운영을 권장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5년 제7차 보고를 예정하는 현재까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과에서 “아동권리증진, 아동권리 등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제8조 제8항 제19호)를 정하고 있을 뿐임
-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 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협약의 이행점검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 아동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관의 위계상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행정부 외에 ‘당사국’으로 통칭되는 입법부·사법부, 지방정부 단위의 협약 이행점검 체계도 없음. 한편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은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의 고유한 역할로 당사국의 이행 촉진에 요청되는 후속조치 모니터링이라 볼 수 없음
- 균형잡힌 아동의 일상에는 아동권리에 기초해 해석되고 조력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아동권리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를 “국제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으로 구체화하면서 메커니즘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참여기구 법제화를 통한 의견청취 권한 명시, 타 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상시 협력하는 전담부서 지정 등의 구조적 개선을 제안함

● 아동권리교육 제도화

● 인권에 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 2011년 채택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은 인권교육훈련이 1)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2)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rough Human Rights), 3)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함.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육의 경험 자체로 인권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수면시간 부족, 과도한 사교육, 부모와 교사의 인식, 가정과 시설의 주거 여건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차이 등은 근본적으로 아동이 속한 환경의 영향이며, 아동을 둘러싼 이들의 태도와 인식 속에 특정 환경이 조성됨. 아동기의 발달적 특수성과 아동권리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아동에 대한 접근법(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권리교육은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함.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고 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4조)”고 규정함.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침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아동 대상 인권교육이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계획·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교육의 양적·질적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외 기관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음

●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 개정

- 아동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경로에서 누구나 아동의 권리를 알고 실천하는 태도는 전 사회적인 아동의 삶을 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아동기부터 다양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는 특정 종사자의 경우 아동권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종사자의 자질, 전문성 향상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무교육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와 내용을 아는 것, 인권규범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상 “아동권리교육(아동인권교육)”을 명확히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교육기관 종사자도 필수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확장하는 논의를 제안함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제도 개혁

● 공교육 강화,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보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인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엔데믹 이후로 다시금 급격한 상승세를 보임. 공교육 내 선행학습 관행이 다소 줄었더라도 “공교육 실질화 및 사교육 경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음. 방과후 학교, EBS 교재 구입 등도 교육 목적의 가계 부담에 해당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것만으로 실제 공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평가도 찾아볼 수 없음.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은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아닌, “사교육 대체제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됨(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03.14).

- 한편, 2023년 사교육비 상승률(19%)은 물가 상승률(3.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제15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으며, 자습시간을 추가하거나 특강 등으로 수업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있는 등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세계일보, 2023.07.02).
- 전반적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공교육정상화법 전반에 “(공)교육과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교육권 실현에 있다”는 점을 명료히 하는 등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함. 또한, 학원의 교육과정과 진도 공시 등의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업 보충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사교육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습시간과 교습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공교육 과정(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만 적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사교육 과정에도 적용하여 선행교육에 대한 범사회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 유보통합 이행, 보육과 교육의 경계 완화

-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제28조 제1항). 개정 「정부조직법」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교육부, 2024.01.22)
- 지역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분포,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역량, 운영형태와 보육료·교육비 및 정부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발생했던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 발달 단계별로 일관된 공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변화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돌봄(care)”과 “교육(education)” 서비스 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항상 아동 최상의 이익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돌봄(educare)의 개념은 때때로 포괄적 서비스로의 이동 신호가 되기도 하며, 영유아기에 대한 조화롭고, 전체적이며, 다부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CRC/C/GC/7/Rev.1, para. 30).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계로 도입된 늘봄학교는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완화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인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사례로 할 수 있으며, 그 경로에서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잘 채우는 노력이 절실함. 여기에는 지식 전달 및 집단활동에 치중하는 구시대적 교육 관념을 넘어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교육의 이념을 적극 해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거주 전환 로드맵 수립

●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국정과제 이행 평가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한국의 제5·6차 심의에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였고(CRC/C/KOR/CO/5-6, para. 32(a),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추진과제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46-5)”을 채택함. 이에 따라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설정” 연구, 2023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지원” 연구가 차례로 진행됨

- 국정과제는 정부의 5개년 정책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운영 3년 차가 되는 현시점에 그 수행 과정과 진전을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함. 국정과제에 따른 인적·물적·재정적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방향성과 적절성 평가를 통해 아동권리 관점의 세부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탈시설에 대한 확장된 논의와 개념 명료화

- 현재 국정과제로 발표되고,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보호아동”을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으로, “탈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이외의 보호조치”로 좁혀 해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시설의 소규모화는 공동생활가정을 배제하지 않으며, 전문화·다기능화는 일시보호시설의 유지, 보호치료시설과 같은 특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을 유지하는 형태임

- 이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아닌 거주,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추구하는 탈시설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탈시설 이행을 위해서는 가정환경 보호, 시설의 기능변환, 가정박청소년을 포함한 보호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자립 지원체계 등이 수반되어야 함. 즉, 현재 국정과제에 언급된 “보호아동”, “탈시설”에 대한 확장적 해석과 명료화가 반드시 필요함
-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과정에 아동·청소년으로 분절된 법체계의 통합과 개편, 위기청소년·가정박청소년을 아우르며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재정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유형에 ‘생활시설’ 단계적 폐지 계획, 필요시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대안적 주거모델 개발 등도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거주 전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논의라 할 것임

● 통합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 현행의 자립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절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이 어떤 기관이나 서비스를 처음 접하느냐에 따라 자립 지원의 수준이나 정도가 달라짐. 보건복지부의 경우, 자립 지원 서비스는 대체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조치 중이거나 보호종료 이후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함. 2024년 4월부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이 신설되며 가정박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포함, 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지원, 자립지원적금, 경제·금융교육 등)을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기존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규정에 근거함)
- ‘자립’이란 ‘독립’이나 ‘혼자 살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애과정에서 살아갈 역량과 마음가짐을 갖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 가정박청소년은 원가정의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미약하다는 점에서 발달과업상 ‘자립’을 달성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온전히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살아갈 준비에 요구되는 공적 지원과 자원의 규모는 더 커야 함. 그리고 이때의 ‘공적 지원’은 부처의 체계나 정책 틀에 갇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자립 욕구와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시설 거주 여부, 시설 거주 기간, 퇴소 시기와 이유 등을 불문하고, ‘권리주체성’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모든 유형의 시설보호·가정형 보호아동(비공식 친족돌봄 포함), 지원대상아동, 가정박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이 하나의 자립지원체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고,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이 과정은 앞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의 맥락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기반 거주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정책 논의도 주요한 과제라 할 것임

2) 지자체

• 일관된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

-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증진이 ‘아동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일상에서 아이들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생활 보장이 ‘아동권리’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모든 아이들의 ‘일상 행복 권리’로서 지역별·상황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어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아동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반드시 필요함

●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정책영향평가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에 관한 다양한 부처가 협력을 도모하며 아동정책에 대한 공동의 목표,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음(류정희, 2016).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처음 마련되었고,¹⁰⁾ 현재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9-2024)이 시행 중이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음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점검으로 뒷받침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연계성·보완성을 도모하고 있음(제8조)

10)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분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모니터링 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CRC/C/KOR/CO/3-4, paras.14-15).

-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사전 보완과 평가에 따른 확인 과정임(이양희 외, 2019).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은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정책이며, 평가 결과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아동권리 주류화를 도모함. 아동정책영향평가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권고에 기초하여 2016년 「아동복지법」에 도입되었으며(제11조의2), 2019년,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아동권리보장원, 2021)
 -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의 총칙에 이어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사항은 중앙과 광역·기초의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되는 구조임. 즉, 중앙에서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연도별 평가와 검토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실질화·구체화됨.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연계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각 절차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를 알 수 있음(김시아·조소연, 2023)
 - 아동권리의 지역별·상황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역할과 더불어 범국가적 협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같은 목표(미션, 비전, 세부목표)를 바라보면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실태의 진단, 개선에 필요한 각 단위의 역할 모색이 요구됨. 이때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광역과 기초의 관계를 평가하고 재구조화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규모와 분포, 나아가 지자체장의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등이 아동의 삶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면서 지속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틀과 의미를 보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됨
- 권한을 갖춘 총괄 ‘협의체’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과 연계 증진
-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듯, 모든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아동은 현존하는 시민·주민으로서, 출생의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임. 보육과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 혹은 양육가정 지원 외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통안전, 재난예방과 대응, 도시의 녹지화, 주거 등 각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음. 각종 산업 및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장래에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신체적 특성을 유념하여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도 예로 들 수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학교폭력 대응체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로 구성됨. 대체로 지자체 전담부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관계자, 경찰, 학부모나 학계·현장 활동가 등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며, 다학제·다부문 접근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다양한 관계기관의 연계는 더 넓은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참여나 이해를 촉진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음
- 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이 꾸려져 있지만, 상시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바이며, 월 1회 형태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더라도 능동적인 협력과 결속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주제별·단위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위원회끼리 정보 공유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에도 아동·청소년 전담기구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이때의 협의체는 분과 운영을 통해 특정 부서의 업무나 이슈를 전담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현행법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상위기구로 기능할 수도 있겠음.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하든, 부처에 따라 쪼개지는 업무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아동에게 발생하는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 활성화에 집중하는 권한 있는 기구(예로, 감사관과 같은 독립 권한을 갖춘 상위기구)가 되어야 함. 전담기구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특별히 지방자치에서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존재하는 교육청, 자치경찰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공고화 등은 협의체의 주요 목표이자 기능이 될 것임

•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성 확보 및 균형 도모

●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 및 협력

- 현행의 아동·청소년 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달리 구분하지 않고, 열거하는 형태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구성되어야 하는데, 각 심의사항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달리 역할이나 기능에 차등을 두지 않음. 그러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에 직접적인 책무를 수행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각 지역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해석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광역과 기초의 업무 분장 없이 일률적으로 각 위원회의 역할이 규정된 결과, 정책 조정을 위한 공적 체계가 불명확하며, 관련 부서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실정임

- 관련법 개정도 점진적으로 수반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아동정책에 대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경험을 누적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퇴소를 심의하되, 아동의 원가정(교류하는 친인척 포함) 혹은 적을 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 사례결정위원회 간의 소통과 연계를 조력하는 역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시·도의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임. 시·도는 시·군·구에서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더불어, 시·군·구에서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촉구하는 역할, 혹은 시·군·구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시·도 단위에서 집중하는 정책 대상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를 추적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음. 해당 사항이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과 결부되면서, 각자의 독립적 권한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된 논의가 필요함

● 시민사회 협력 강화

-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법 최초로 조약기구에 “관련 있는 전문기구(other competent bodies)”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제45조 제2항), 위원회도 운영 초기부터 NGO, NPO, CSO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촉구해 왔음(CRC, n/d). 시민사회는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지역사회에 특화된 정책적 시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분야별, 지역별, 층위별 지역사회의 연대는 기초에서 광역, 중앙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누적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주요한 기제가 됨
- 한편으로, 지자체의 시민사회 협력은 형식적·장식적 수준의 아동 참여를 넘어, 아동참여가 주류화되는 변화를 이끄는 기회로 작용함. 아동과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과 소통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아동권리 관점 내재화를 조력함. 또한, 시민사회는 각 지역의 주요한 인권의제를 선도하는 조직으로서, 폭넓은 사안에 아동의 관점을 녹여내는 경로로 활용됨. 즉,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광의의 주민참여를 실천하는 것이자, 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 감수성 증진, 실질적 의미의 아동 참여를 증진하는 다각적인 의미가 있음. 아동정책 추진에 있어 아동단체를 포함한 범시민 단위의 소통 체계,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자 목적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의 혁신적 대안양육 시도

-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사회가 갖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대안양육을 시도해 볼 여지가 더 큼. 여기에는 풀뿌리 시민사회 조직, 주민참여의 가능성, 지자체에 대한 신뢰와 소통체계, 공교육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등이 포함됨
- 예를 들자면, 민간의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된 그룹홈은 1997년 전국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되었고, 서울시에 설치된 광역 단위의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전문인력 양성과 대체인력 파견, 기관 협력·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양육의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 평가됨(전민경, 유혜인, 2022). 서대문구는 2023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서대문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위·수탁 계약』 및 『구세군서울후생원 기능전환을 위한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은 공간을, 인력과 예산은 법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전종설 외, 2023). 만 16세 전후의 일정 연령에 이른 청소년에게 수퍼비전이 수반되는 전환주거를 제공하는 해외사례도 확인됨(허민숙, 2021)
- 보다 지역사회 밀착형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계획되고 추진되는 경험은 변화를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전술하였듯,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보호아동 가정현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거주 아동과 유관기관의 현황, 분포, 역동을 잘 파악하고, 그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대안을 구상하는 움직임이 필요함

3) 시도 교육청

• 가칭 “열린 학교” 운영 도모

● 학교와 가정의 신뢰 회복

- 2023년 7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의 추락과 침해, 그와 더불어 학생인권 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2024년 7월 기준 충남과 서울은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경기도는 조례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 가운데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일종의 배제를 선언하는 법규가 마련기도 하였음

- 그러나 “교권”의 개념은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의 지위(권한)”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교사의 학생교육권(수업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나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의 발현, 또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및 그 토대 위에서의 기초적 단계의 전문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이라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헌재 2021. 5. 27. 2018헌마1108)”이라 설시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음. 교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권의 의미는 교원의 직무상 안전과 존엄을 요구하는 ‘노동권’의 보장이며,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같으며,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에 비추어 이들의 인권이 대립된다고 볼 수도 없음. 교권의 보호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맥락에서 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강화로 설명되어야 하고, 교사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협력하는 가정과 학교의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최근에 문제시되었던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은 가정과 학교 간의 신뢰 부족, 팬데믹의 여파로 학생은 물론 교원의 상호적응 경험이나 숙련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실태에 가장 집중하는 학습 관련 통계와 정책은 교육권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인 알 권리에만 집중하는 실태를 방증함(김희진, 2023.11.03.).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학력에 초점을 두는 통계는 교육 시스템보다 학습자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사회 공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중추적인 교원의 역할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는 현실이 위기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하였음(UNHRC, 2023a: para. 25, 98-100)

-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적, 제도적 도입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상호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급함. 학생의 학업 수준, 사회 적응, 전인적 발달은 가정과 학교 각각의 역할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역할로 달성될 수 있음. 가칭 “열린 학교”는 그 소통을 중개하고 조력하는 구심점으로서, ‘아동’ 중심의 접근을 통해 교사의 직무상 권한을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식을 가정에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임.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모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의 보호자로서 기능하는 역할로 재설정하도록, 각 학교별 ‘열린 소통’을 지지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어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선행교육, 사교육, 각종 민원 등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될 것임

● 교육의 목표 재고

- 중등의 경우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학교성적을 3위로 나타낼 정도로 연령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학업성적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경향은 비교군 아동보다 강남권 아동이 더 높았음. 이와 같은 경쟁 중심, 학업성취도 중심의 학교문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 대한 학습을 부차적인 과제로 남겨두는 한계가 있음. 성과를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는 여건 속에서, 아동의 일상적 목표는 소위 ‘사회적 성공’으로 수렴되고, 온전히 자신의 세계관을 인식하는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게 됨
- “열린 학교”의 “열렸다”는 취지는 통제되고 일관된 방향만을 바라보지 않는 학교문화를 상징하려는 표현임. 신자유주의 체제의 각자도생 사회는 소득격차, 지역격차를 더 크게 벌리며,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때의 주체는 개인임. 고유한 개인의 존재성은 행복의 수준이나 방식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그렇다면 학교는 “가치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 장소”에 특수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함
- 이와 관련해, 2009년 경기도를 기점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명칭을 달리해 운영되는 혁신학교를 참고할 수 있겠음.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아래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윤리적 생활공동체 형성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경기도교육청, 2020),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임. 혁신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를 일부 살펴보면, 혁신학교 학생은 시기별로 학교행복감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혁신학교 학생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류영철, 신윤경, 2020; 김민웅, 임용순, 2013). 혁신학교의 학생이 비혁신학교 학생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으며(김위정, 2016),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혁신학교 학생의 참여권 보장 정도가 비혁신학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보고도 주목할 만함(김상원 외, 2020). 비혁신학교 학생보다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성장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중요한 함의를 가짐(김민규, 박세진, 2019; 서민희, 전경희, 2018)

-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삶을 응시하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더 붙여 사고할 수 있는,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제공되는 곳이어야 할 것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익숙해진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요청됨

• 아동 친화적인 학교 환경조성 및 모니터링

● 비차별이 실천되는 공간

- 학교는 아동기에 필수적인 장소에 해당함.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아동이 거쳐가는 곳이자,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함. 따라서 학교는 사회화 과정에 핵심적인 곳으로서 '인권'에 기반한 상호관계를 학습하는 토대여야 함. 이때의 가장 기초는 '비차별'로서, 학생들 사이는 물론, 학생과 교원, 학생과 학교 관리자 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가치임. 비차별의 실천은 여전히 학생이라는 신분을 명목으로 "유예된 선택"을 당연시하는 시각을 극복하는 노력이기도 함(공현, 2020). 아동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그만큼 활동의 장이 확장되는 경험은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능동적인 태도에도 기여할 수 있음. 학교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이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됨
- 인권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부문에 아동을 당사자로 고려하는 비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이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도 중요함(UNCRC, 2009: para. 75). 아동의 참여(협약 제12조)는 완전한 인격 발달과 아동의 변화하는 역량(evolutionary capacity)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협약 제6와 양립하며 제29조에 포함된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함(UNCRC, 2009: para. 79). 즉, 아동의 행복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의 비차별 실천은 참여와 의견청취의 권리 보장과 병행되어야 함. 2023년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과 권리(the crucial role and rights of teachers)에 초점을 둔 보고서에서 "교육과정은 항상 인권을 준수하고 고정관념이 없어야 하며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적합할 필요를 분명히 함. 이는 교육환경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인 디지털화의 영향이 가져올 수 있는 학생의 고립,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대응 방법이 된다고 밝혀, 학생의 권리주체성, 당사자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은 학교 안팎의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음(UNHRC, 2023b: paras. 19-21)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공립학교에 한하여 특정 사항(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함(제59조의4 제2항).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사전적·과정적 조력을 제공할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으로 교육법제를 보완한다면, 교육의 목표가 아동과 모두의 인권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상 수준의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학교 구조와 운영 방식

- 어떠한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정부, 교사, 교사단체 및 노동조합, 학부모, 모든 수준의 지역사회 간에 좋은 관계와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야 함. 학교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학교 밖의 사회적 삶에서 형성된 삶의 태도와 가치를 학교에서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즉,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적 환경은 그 지역의 특성, 각 가구집단의 특수성 등을 유념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분리될 수 없음.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밖의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방식으로 연계된다는 시각이 요구됨

- 아동의 자존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지수 등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가정환경과 학교, 지역사회로 연결된 아동의 삶의 터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특별히 지역사회라는 물리적 특성, 타고난 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격차는 공통의 ‘교육환경’을 거치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더욱이 중요함. 이때,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는 가정환경을 비롯해 아동의 관계망과 능동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될 수 있음

- 초저출생 시대, 지방소멸의 시대에서 학교는 아동의 ‘일생’에 집중하는 가장 주요한 기관임. 따라서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를 구성원으로 두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복지,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인프라의 한 축이 되는 학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교육부, 17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 체계에서 학교의 역할을 적극 재해석함으로써, 지역별 아동의 행복지수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함

참고문헌



국문 문헌

- KOSIS(2023).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경기도교육청. (2020). 혁신학교 이해자료: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고선강. (2017). 아동의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특성과 아동의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141-159.
- 공현. (2020). 유예된 존재들. 교육공동체벗.
- 김민규, 박세진. (2019).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7(2), 149-174.
- 김민웅, 임용순. (2013). 혁신학교 중학생의 정의적 요인에 관한 단기 종단적 비교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101-121.
- 김상원, 김명량, 김나영, 김희진, 노운영, 정병수, 홍의표 외 3인. (2020).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시교육청·국제아동인권센터.
- 김시아, 조소연. (2023).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계·통합 방안.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Brief 제3호.
- 김영철. (2018).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사교육(및 여가시간)과 학생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 경제학연구, 66(2), 45-86.
- 김위정. (2016).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김정은, 류진석. (2018).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과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4(4), 123-146, 10.18859/ssrr.2018.11.34.4.123.
- 김지경. (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현, 이미나. (2020).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사례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4), 53-67.

- 영철, 신윤경. (2020).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비교를 통한 혁신학교 성과분석: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연구*, 28(2), 43-69.
- 류정희. (2016).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33, 6-18.
- 문수경, 이무영. (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복지연구*, 6(3), 19-33.
- 박승배. (2019). *교육과정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년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6). 우리에게 놀권리가 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휴식·여가·놀이·오락·문화예술에 관한 아동의 권리. 17.
- 서민희, 전경희. (2018). 초등단계 혁신학교 재학 경험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9(1), 1-21.
- 서울서베이. (2010). 서울연구원. 원자료 분석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VII: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민수, 성은미, 유정원, 정수화, 주재연, 문해주, 안미연, 권혜영. (2012).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 경기복지재단
- 오성배, 장은지. (2018). “학교풍토가 중학생의 지역 간 학습역량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남지역과 비교군지역을 중심으로.” *역량개발학습연구*, 13(3): 55-76.
- 윤필현, 임정훈. (2020). “학습목표 모호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학습태도의 매개효과와 학업빛어내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255-282.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양희, 정병수, 김미성, 김상원, 김희진, 이승미, 강수철 외. (2019). *아동정책영향 평가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국제아동인권센터·도로교통공단·보건복지부.
- 이재연. (2011). 서울시 거주 지역 특성별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종철. (2023). 사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가정, 70, 10-14.
- 전민경, 유혜인. (202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전종설, 정선옥, 김진숙, 강희주, 윤은영, 주희진. (2023). 서대문구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선옥,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김지은, 임혜리.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 (2022).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 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보건사회연구, 42(1), 299-315.
- 정익중, 조윤희, 오은찬. (2018). 빈곤-비빈곤 아동청소년집단별행복감에 이르는 꿈 관련 변인 탐색: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2, 209-236.
- 최항석. (2022). 사교육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실현에 관한 연구. 사교육연구, 2(2), 1-14.
- 통계청.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통계청.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1).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영문 문헌

- Amy E. Latimer-Cheung, Jennifer L. Copeland, Jonathon Fowles, Lori Zehr, Mary Duggan, and Mark S. Tremblay. (2016). The Canad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and Metabolism. 41(6 (Suppl. 3)): S328-S335. <https://doi.org/10.1139/apnm-2016-0086>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New York: Harper Collins.

- Cunningham, M. J., & Diversi, M. (2013). Aging out: Youths' perspectives on foster care and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Qualitative Social Work*, 12(5), 587-602.
- Dumuid, D., Olds, T., Lange, K., Edwards, B., Lycett, K., Burgner, D. P., ... & Wake, M. (2022). Goldilocks Days: optimising children's time use for health and well-being.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6(3), 301-308.
- Haggman-Laitila, A., Salohekkila, P., & Karki, S. (2018). Transition to adult life of young people leaving foster care: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5, 134-143.
- Hojer, I., & Sjoblom, Y. (2010).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Sweden. *Child & family social work*, 15(1), 118-127.
- Mark S. Tremblay, Valerie Carson, Jean-Philippe Chaput, Sarah Connor Gorber, Thy Dinh, Mary Duggan, Guy Faulkner, Casey E. Gray, Reut Gruber, Katherine Janson, Ian Janssen, Peter T. Katzmarzyk, Michelle E. Kho, Amy E. Latimer-Cheung, Claire LeBlanc, Anthony D. Okely, Timothy Olds, Russell R. Pate, Andrea Phillips, Veronica J. Poitras, Sophie Rodenburg, Margaret Sampson, Travis J. Saunders, James A. Stone, Gareth Stratton, Shelly K. Weiss, and Lori Zehr. (2016). Canad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egration of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Sleep.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and Metabolism*. 41(6 (Suppl. 3)): S311-S327. <https://doi.org/10.1139/apnm-2016-0151>
- OECD. (2022). Compulsory Instruction Time In General Education 2022. In hours,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 Okely, A. D., Ghera, D., Loughran, S. P., Cliff, D. P., Shilton, T., Jones, R. A., ... & Tremblay, M. S. (2022). A collaborative approach to adopting/adapting guidelines. The Austral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for children (5-12 years) and young people (13-17 years): An integration of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sleep.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9(1), 2.
- Quarmby, T., Sandford, R., & Pickering, K. (2019). Care-experienced youth and positive development: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value and use of leisure-time activities. *Leisure Studies*, 38(1), 28-42.

- Sampasa-Kanyinga, H., Lien, A., Hamilton, H. A., & Chaput, J. P. (2022). Canadian 24-h Movement guidelines, lif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702162.
- Stebbins, R.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UNHRC. (2023). *Securing the right to education: advances and critical challenges(A/HRC/53/27)*.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 UNICEF. (2014). *Child Rights Education Toolkit: Roo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UNICEF Private Fundraising and Partnerships Division.



기사 및 웹페이지

- EBSstory. (2023.08.19). 1부 사교육의 진실: 사교육 현안 특집-교육의 재발견. 네이버 블로그. 방송일: 2023년 4월 19일. <https://blog.naver.com/ebsstory/223187492658>
- mbc뉴스. (2024.04.07.). [공약검증] ‘사교육 잡기’는 공감···“정책 적용 방식도 중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7150_36515.html
- UN CRC. n/d. Wording Methods.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CRC/WorkingMethodsCRC.doc>
- 교육부. (2024.01.22.). [설명자료] 유보통합 ‘유아학교’ 3월 첫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9&boardSeq=9778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17&opType=>
- 김희진. (2023.11.03.). [동향2]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라진 신뢰”: 최근의 교권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하여.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cat=291&p=1950743&paged=3>
- 뉴시스. (2024.03.15.). “아이가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경북형 온종일 놀봄학교 호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29589?sid=102>

- 매일경제. (2022.04.26.). 강남 3구 평균 매매가 20억..5년새 비강남과 격차 두 배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301411>
- 매일경제. (2023.10.24.). “집값이 기막혀”...집 싸서 경기도 가는 서울 사람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7143>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03.14.).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Jt9&bmode=view&idx=18440367&t=board&category=4qZ53o3387>.
- 신한일보. (2023.04.25.). [사설] 저출산 해법, 사교육비 절감에서 찾자.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0>
- 세계일보. (2023.07.02.). 수업시간 부풀리고 항목 추가하고... 교습비 올리기 ‘꼼수’ 난무. <https://m.segye.com/view/20230702512663>.
- 세종매일. (2024.04.14.). 세종시교육청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한다’. <https://www.y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409>
- 조선일보. (2024.04.04.). 놀봄학교 한 달...학원비 月 40만원 감.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4/03/WRSTG6F4Z5CDXJLZECGSEWOOUU/>

부록

<표 227> 지역 인프라 원점수 단위(% , 만원, 개, km², 명, 건, 명/km²)													
시 도 별	경제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인구 인프라			안전 인프라	
	경제 성장률 ¹⁾	가구 부채 ²⁾	실 업 률 ³⁾	사 교 육 비 ⁴⁾	사 교 육 참 여 율 ⁵⁾	문화 시설 수 ⁶⁾	체육 시설 수 ⁷⁾	도 시 공 원 면 적 ⁸⁾	인구 밀도 ⁹⁾	합계 출산율 ¹⁰⁾	인구 감 소 지 역 ¹¹⁾	아 동 범 죄 건수 ¹²⁾	감 염 등 급 ¹³⁾
서울 특별시	1.6	11,838	2.7	63	84.8	4.8	110.8	4.7	15,560.7	0.593	0.00	2.18	5
부산 광역시	2.6	8,325	3.1	43	80.1	4.3	103.4	17.3	4,272.8	0.723	11.30	1.81	4
대구 광역시	1.7	8,232	3.1	46	80.2	4	107.9	7.2	2,673.7	0.757	9.68	1.56	4
인천 광역시	6	9,745	3.2	42	77.3	4.3	115.4	13.6	2,801.3	0.747	2.68	2.21	3
광주 광역시	1.7	6,478	2.5	40	76.3	5.5	127.4	12.4	2,931.9	0.844	4.75	1.23	2
대전 광역시	4.5	8,352	2.8	41	77.9	4.2	119.5	12.4	2,730.7	0.842	38.44	2.29	3
울산 광역시	-0.5	7,094	3.4	37	78.2	4.1	117.4	10.3	1,044.9	0.848	0.00	2.17	2
경기도	3.6	12,140	2.6	47	81.9	4.5	106	11.2	1,344.9	0.839	1.00	2.09	4
강원 특별 자치도	3	5,410	2.8	32	72.6	16	122.3	15.8	90.8	0.968	42.39	1.54	5
충청 북도	4.5	5,983	2.3	32	72	8.9	117.4	13.7	219.4	0.871	10.26	1.76	2
충청 남도	2.5	6,207	2.6	31	70.2	9.1	109.6	11.5	265.9	0.909	16.52	2.24	3
전북 특별 자치도	2.1	6,288	2.5	30	69.8	10.8	119.9	24.6	219.8	0.817	28.61	1.68	3



시 도 별	경제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인구 인프라			안전 인프라	
	경제 성장률 ¹⁾	가구 부채 ²⁾	실 업 률 ³⁾	사 교 육 비 ⁴⁾	사 교 육 참 여 율 ⁵⁾	문화 시설 수 ⁶⁾	체육 시설 수 ⁷⁾	도 시 공 원 면 적 ⁸⁾	인구 밀도 ⁹⁾	합계 출산율 ¹⁰⁾	인 구 감 소 지 역 ¹¹⁾	아 동 범죄 건수 ¹²⁾	감염 등급 ¹³⁾
전라 남도	-1.9	5,146	2.2	28	67.3	13.4	118.5	26.4	143.3	0.969	17.84	1.93	4
경상 북도	1.7	5,248	2.6	32	73.8	8.9	105.8	16.4	137.7	0.930	29.60	1.45	3
경상 남도	4.6	6,111	2.5	32	74.9	7.2	110.7	15.8	311.2	0.838	11.49	1.64	2
제주 특별 자치도	4.6	5,776	1.9	35	74.8	19.3	136.8	16.6	365.6	0.919	0.00	2.54	1
세종 특별 자치시	3.3	13,936	2	47	83.9	6.8	100.3	63.3	822.9	1.121	0.00	1.01	1

주: 1) 경제성장률(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2) :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

2) 가구부채(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전 가구 평균 가구 부채(만원)

3)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행정구역(시도)별 실업률(%)

4) 사교육비(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5) 사교육참여율(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 : 초·중·고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6) 문화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개), [(문화기반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개)

7) 체육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21 재구성) : 인구 십만명당 등록·신고 체육 시설 업소수(개), [(체육시설수(개))÷(주민등록인구(명))×100,000]

8) 도시공원면적(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2022)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의 조성면적(km²), [(총공원 면적(km²))÷도시지역인구(명))×1,000]

9) 인구밀도(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 인구밀도(명/km²), [(인구(명))÷(국토면적(km²))]

10)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 가임연령(15~49세) 여자인구에 대한 0~4세 유아 인구비(명)

11)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2024년 4월 2일 검색, 재구성) : 각 지역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 해당 비율(%), [(상·하위 지역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해당 개수(개))÷(전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개수(개))×100]

12) 아동범죄건수(대검찰청 「범죄분석」, 2021, 재구성) : 아동인구천명당 아동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대상 범죄) 건수(건), [(총 건수(건))÷(2021아동인구수(명))×1000]

13) 감염병 안전등급(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 2022) : 상대등급인 지역안전지수의 감염병 분야지수로 가장 안전한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안전하지 못한 하위 5등급까지 있음. [지역안전 상대등급: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등급)

<표 228> 시도별 과밀학급 학생 비율 및 학급당 학생 수 평균

단위(명, %)

시도별		과밀학급 ¹⁾ 에서 공부하는 학생비율		전체	학급당 학생 수	
		비해당	해당		평균	표준편차
서울특별시	빈도	1,283	277	1,560	23.33	5.15
	비율	82.2	17.8	100.0		
부산광역시	빈도	462	122	584	23.97	4.72
	비율	79.1	20.9	100.0		
대구광역시	빈도	354	111	465	24.20	4.63
	비율	76.1	23.9	100.0		
인천광역시	빈도	420	178	598	24.89	5.15
	비율	70.2	29.8	100.0		
광주광역시	빈도	273	43	316	23.45	4.40
	비율	86.4	13.6	100.0		
대전광역시	빈도	222	72	294	23.57	5.34
	비율	75.5	24.5	100.0		
울산광역시	빈도	202	43	245	23.49	4.81
	비율	82.4	17.6	100.0		
경기도	빈도	1,749	1,165	2,914	26.05	5.26
	비율	60.0	40.0	100.0		
강원 특별자치도	빈도	220	56	276	22.60	6.20
	비율	79.7	20.3	100.0		
충청북도	빈도	255	57	312	23.37	5.55
	비율	81.7	18.3	100.0		
충청남도	빈도	263	179	442	25.38	6.04
	비율	59.5	40.5	100.0		
전북 특별자치도	빈도	275	71	346	23.33	5.50
	비율	79.5	20.5	100.0		



시도별		과밀학급 ¹⁾ 에서 공부하는 학생비율		전체	학급당 학생 수	
		비해당	해당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	빈도	265	77	342	23.45	5.25
	비율	77.5	22.5	100.0		
경상북도	빈도	419	54	473	23.28	4.18
	비율	88.6	11.4	100.0		
경상남도	빈도	518	178	696	24.55	5.02
	비율	74.4	25.6	100.0		
제주 특별자치도	빈도	104	53	157	25.33	4.82
	비율	66.2	33.8	100.0		
세종 특별자치시	빈도	120	0	120	22.12	4.02
	비율	100.0	0.0	100.0		
전체	빈도	7,404	2,736	10,140	24.47	5.27
	비율	73.0	27.0	100.0		

주: 1) 교육부 기준 과밀학급(28명 이상)

<표 229>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연간 누적 학생 수 및 비율

단위(명, %)

시도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¹⁾ (연간 누적 인원, 70% 총화추출)	시도별 학생 수 ²⁾ (70% 총화추출)	누적 학생 비율 ³⁾
서울특별시	2,546,901	564,811	450.93
부산광역시	4,417,383	204,878	2,156.10
대구광역시	2,934,999	167,865	1,748.43
인천광역시	2,339,601	207,965	1,125.00
광주광역시	416,174	116,457	357.36
대전광역시	2,000,126	106,469	1,878.60
울산광역시	641,306	87,291	734.68
경기도	10,685,062	1,014,632	1,053.10
강원특별자치도	788,082	100,221	786.34
충청북도	879,378	113,981	771.51
충청남도	2,017,592	162,579	1240.99
전북특별자치도	2,787,166	126,393	2205.16
전라남도	1,968,930	126,039	1562.16
경상북도	3,407,778	175,137	1945.78
경상남도	5,208,238	247,782	2101.94
제주특별자치도	958,824	56,005	1712.03
세종특별자치시	406,249	37,722	1076.96

주: 1)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 수는 2022년 한 해간 스포츠 클럽에 참여한 총 학생 수로 '누적 학생 수'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스포츠 클럽 모두 포함하며, EDSS 자료로 70% 총화추출된 자료를 사용함.

2) EDSS 자료는 70% 총화추출 자료로 시·도별 '100% 전체 학생 수'와는 다름, 본 자료는 EDSS의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학생 수를 활용했기에, EDSS 상 70% 총화추출 된 2022년도 '전체 학생 수'를 활용함.

3) [(시도별 학생체력등급 4등급+5등급 학생 수(명))÷(시도별 전체 학생 수(명))×100]



<표 230> Compulsory Instruction Time (의무교육시간) In General Education 2022

단위(시간)

‘In hours,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구분	시간			
국가	Primary	Primary Total	Lower Secondary	Lower Secondary Total
OECD 평균	805	4830	916	2748
벨기엘	507	2028	736	2208
크로아티아	473	1892	663	2652
폴란드	558	2232	754	3016
라투비아	584	3504	778	2334
헝가리	679	2716	803	3212
터키	720	2880	843	3372
핀란드	660	3960	808	2424
슬로베니아	682	4092	766	2298
에스토니아	661	3966	823	2469
한국	655	3930	842	2526
오스트리아	705	2820	930	3720
슬로바키아	677	2708	823	4115
스웨덴	714	4284	869	2607
그리스	747	4482	811	2433
체코	687	3435	888	3552
EU25 평균	738	3690	876	3504
브라질	800	4000	800	3200
일본	778	4668	890	2670
독일	724	2896	896	4480
이탈리아	904	4520	990	2970
루마니아	720	3600	1001	4004
아이슬란드	729	5130	839	2517
리투아니아	644	2576	842	5052

구분	시간			
국가	Primary	Primary Total	Lower Secondary	Lower Secondary Total
스위스	799	4794	963	2889
포르투갈	874	5244	818	2454
노르웨이	753	5271	874	2622
스페인	792	4752	1057	3171
룩셈부르크	924	5544	854	2535
아일랜드	903	5418	918	2754
프랑스	864	4320	968	3872
칠레	1028	6168	1066	2132
캐나다	922	5532	925	2775
이스라엘	918	5508	976	2928
네덜란드	940	5640	1000	3000
미국	974	5844	1021	3069
콜롬비아	1000	5000	1200	4800
코스타리카	1147	6882	1120	3360
덴마크	1000	7000	1200	3600
호주	1000	7000	1000	4000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23(OECD)

*에스핑 안데르센 복지국가 유형 참고. 흰색=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분홍색=자유주의 복지국가/노란색=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초록색=아시아 국가 (한국_자유주의&일본=자유+보수주의 국가)



1-1. 사전설문(양육자대상)

아동행복지수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록우산과 함께 전국의 초·중·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생활 현황과 심리·정서, 학습 등 발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록우산의 연구이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이수진 팀장 ☎ 02-398-0131

실사기관  박건춘 프로 ☎ 02-3014-0757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⑬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2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거주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남	② 부산 ⑧ 경기도 ⑭ 경북	③ 대구 ⑨ 강원도 ⑮ 경남	④ 인천 ⑩ 충북 ⑯ 제주	⑤ 광주 ⑪ 충남 ⑰ 세종	⑥ 대전 ⑫ 전북
거주 지역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SQ1. 귀하께서 양육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에 취학 중인 아동(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그렇다 ()명
2. 아니다

[▶ SQ2로 이동](#)

[▶ 설문중단](#)

SQ2. 귀하께서 양육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 아래 생년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생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1. 2005년생 ▶ 설문중단 | 2. 2006년생 |
| 3. 2007년생 | 4. 2008년생 |
| 5. 2009년생 | 6. 2010년생 |
| 7. 2011년생 | 8. 2012년생 |
| 9. 2013년생 | 10. 2014년생 |
| 11. 2015년생 | 12. 2016년생 |
| 13. 위 생년에 해당하는 아동 없음 ▶ 설문중단 | |

SQ2-1. 아래 생년에 해당하는 아동이 각각 몇 명 있습니까?

1. 2006년생 ()명
2. 2007년생 ()명
3. 2008년생 ()명
4. 2009년생 ()명
5. 2010년생 ()명
6. 2011년생 ()명
7. 2012년생 ()명
8. 2013년생 ()명
9. 2014년생 ()명
10. 2015년생 ()명
11. 2016년생 ()명



SQ2-2. 귀하의 아동은 몇 학년입니까? 제시된 생년을 확인하여 응답하신 후, 해당하는 아동의 이름을 응답해주십시오.

2023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동순번	출생연도	아동의 학년	아동의 이름
1			
2			
3			
4			
5			
6			
7			
8			
9			
10			

<보기> 아동의 학년

- | | | |
|-------------|-------------|---------------|
| 1. 초등학교 1학년 | 6. 초등학교 6학년 | 10. 고등학교 1학년 |
| 2. 초등학교 2학년 | 7. 중학교 1학년 | 11. 고등학교 2학년 |
| 3. 초등학교 3학년 | 8. 중학교 2학년 | 12. 고등학교 3학년 |
| 4. 초등학교 4학년 | 9. 중학교 3학년 | 13. 학교 다니지 않음 |
| 5. 초등학교 5학년 | | |

SQ2B. 가정위탁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떤 가정위탁 유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찬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SQ2-3. 귀하께서는 앞서 응답해주신 아동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
4.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
5. 성인 형제·자매
6. 아동양육시설 선생님
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선생님
8. 기타 ()



법정대리인 동의 및 아동 정보 확인

- SQ3부터 아동확인8-4 까지는 앞서 응답해주신 아동의 수만큼 아동마다 입력해주세요.

로테이션 번호	아동 번호	아동 이름
1		

SQ3. 초록우산에서는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아동행복지수]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귀하의 아동이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동의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 웹/모바일 방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휴대전화/메일 가능)
- 만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 참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 보호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님 등 보호자)께서 동의하신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는 아동만 진행하며, 설문은 기본조사 및 시간일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일지 조사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평일 1일간 생활시간을 작성하게 됩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설문은 양육자님께서 아동을 대신하여 대리응답을 해주셔야 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은 아동 스스로 본인이 설문을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 [SQ3 으로 이동](#)

▶ [설문종단](#)

SQ3-법정대리인. 아동의 조사참여에 대해 안내 문자를 드리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SQ3-1. 사례비 지급과 아동행복지수 조사의 진행을 위해, 귀하께서 양육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이름, 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개인정보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사례비 지급, 추후 진행되는 아동행복지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이용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사례비 지급 및 아동행복지수 조사 진행 문자 발송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동행복지수 조사 진행 관련) 이름, 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례비 지급 관련) 이름,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조사 종료 후 3개월까지
- 사례비 지급 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주)기프트레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만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한국리서치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알려드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 아동확인1 로 이동](#)

[▶ 설문종단](#)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기본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확인1. 아동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아동확인2. 아동의 태어난 연도와 월은 어떻게 되나요?

				년			월
--	--	--	--	---	--	--	---



아동확인4. 아동은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나요?

- [illegible]

아동확인5. 아동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어디로 가나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집(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곳)
2.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
3. 학원
4. 돌봄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5. 기타 ()

아동확인6. 아동이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주세요
시오.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 |
|-----------------------------------|-------------|
| 1.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 | ▶ 아동확인8로 이동 |
| 2. 학원 | ▶ 아동확인7로 이동 |
| 3. 돌봄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 아동확인8로 이동 |
| 4. 기타 () | ▶ 아동확인8로 이동 |
| 5. 없음 | ▶ 아동확인8로 이동 |

아동확인7. 아동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1.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2. 학교 후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해서
3. 선행 학습을 위해
4.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불안해서)
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6. 기타 ()

[아동행복지수] 조사는 2023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휴대전화번호 또는 메일로 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시간에 편하신 장소에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응대 해주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아동확인8-1. 아동의 휴대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 조사참여 문자를 받을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정확하게 번호를 기입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본 조사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이지만, 아동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양육자님 또는 보호자님의 연락처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아동확인8-2. 아동의 이메일로도 조사 참여 링크를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이메일 없음 ☐

아동확인8-3.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설문은 양육자님께서 아동을 대신하여 대리응답해주셔야 합니다.
- * 대리응답해주시실 양육자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정확하게 번호를 기입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아동확인8-4. 귀하의 이메일로도 조사 참여 링크를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이메일 없음 ☐



가구 일반사항

문1.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 아동양육시설 선생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선생님께서는 문10 으로 가십시오.

문2. 귀택의 세대유형은 아동을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양부모가정이란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양쪽 부모가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 | | |
|-----------|-----------|-----------|
| 1. 한부모 가족 | 2. 조손 가족 | 3. 미혼모 가족 |
| 4. 양부모 가족 | 5. 기타 () | |

문3. 귀택은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4. 귀택은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모두 몇 명의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총 가구원 수	명
---------	---

문4-1. 귀택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자녀 수	명
--------	---

문5. 귀댁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0. 900만원 이상 |

문6. 아동의 남자양육자(아버지/보호자)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 ▶ 문7로 이동 |
| 2. 경영/관리직 | ▶ 문7로 이동 |
| 3. 사무/기술직 | ▶ 문7로 이동 |
| 4. 판매/서비스직 | ▶ 문7로 이동 |
| 5. 기능/작업/단순노무직 | ▶ 문7로 이동 |
| 6. 농/림/어/축산업 | ▶ 문7로 이동 |
| 7. 자영업 | ▶ 문7로 이동 |
| 8. 전업주부 | ▶ 문7로 이동 |
| 9. 학생 | ▶ 문7로 이동 |
| 10. 무직 | ▶ 문6-1로 이동 |
| 11. 기타 () | ▶ 문7로 이동 |
| 12. 해당없음(남자양육자(아버지/보호자) 안 계심) | ▶ 문7로 이동 |

문6-1. 현재 실직이나 무직인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 | | |
|----------|----------------------------|
| 1. 1년 미만 | ▶ 문6-2로 이동 |
| 2. 1년~2년 | ▶ 문6-2로 이동 |
| 3. 3년 이상 | ▶ 문6-2로 이동 |



문6-2.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 | | |
|-------------|----------|----------|
| 1. 매우 좋지 않다 | 2. 좋지 않다 | |
| 3. 보통이다 | 4. 좋다 | 5. 매우 좋다 |

문7. 아동의 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 ▶ 문8로 이동 |
| 2. 경영/관리직 | ▶ 문8로 이동 |
| 3. 사무/기술직 | ▶ 문8로 이동 |
| 4. 판매/서비스직 | ▶ 문8로 이동 |
| 5. 기능/작업/단순노무직 | ▶ 문8로 이동 |
| 6. 농/림/어/축산업 | ▶ 문8로 이동 |
| 7. 자영업 | ▶ 문8로 이동 |
| 8. 전업주부 | ▶ 문8로 이동 |
| 9. 학생 | ▶ 문8로 이동 |
| 10. 무직 | ▶ 문7-1로 이동 |
| 11. 기타 () | ▶ 문8로 이동 |
| 12.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 ▶ 문8로 이동 |

문7-1. 현재 실직이나 무직인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 | | |
|----------|----------------------------|
| 1. 1년 미만 | ▶ 문7-2로 이동 |
| 2. 1년~2년 | ▶ 문7-2로 이동 |
| 3. 3년 이상 | ▶ 문7-2로 이동 |

문7-2.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 | | |
|-------------|----------|----------|
| 1. 매우 좋지 않다 | 2. 좋지 않다 | |
| 3. 보통이다 | 4. 좋다 | 5. 매우 좋다 |

문8.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개월간 평균으로 응답)

※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0. 900만원 이상

문9. 현재 거주 중인 주택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고시원

2.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3. 반지하

4. 지하

5. 옥상(옥탑방 등)

6.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

7. 보기에 해당사항이 없음

문9-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면적은 몇 평입니까?

면적 ※3.3㎡(제곱미터)=1평	평
-------------------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운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0.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1. 주택지역

2. 아파트지역

3. 상가·회사지역

4. 공장(단)지역

5. 농산어촌지역

6. 기타



문10-1. 우리 동네에 있는 각 시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나요?

종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놀이터				
2. 공원				
3. 산책로				
4.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				
5.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6.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7. 실외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				

문10-2. 우리 동네는 아동이 아플 때 소아청소년과 이용이 편리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아동행복지수 조사의 대상자 선정 조사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양육자님께서 아동을 대신 하여 대리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사는 이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은 [가로모드]로 하여 참여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행복지수 조사의 대상자 선정 조사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은 아동 스스로 본인이 설문을 모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입력해주셨던 아동의 휴대폰 번호로 본 조사가 발송됩니다.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사전설문(만15세이상아동대상)

아동행복지수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록우산과 함께 전국의 초·중·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생활 현황과 심리·정서, 학습 등 발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록우산의 연구이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이수진 팀장 ☎ 02-398-0131

실사기관  박건춘 프로 ☎ 02-3014-0757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⑬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2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주소	()사·도 ()구·군 ()동·읍·면					
거주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남	② 부산 ⑧ 경기도 ⑭ 경북	③ 대구 ⑨ 강원도 ⑮ 경남	④ 인천 ⑩ 충북 ⑯ 제주	⑤ 광주 ⑪ 충남 ⑰ 세종	⑥ 대전 ⑫ 전북
거주 지역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SQ1. 초록우산에서는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아동행복지수]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주시오.

- 조사는 본인만 진행하며, 설문은 기본조사 및 시간일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일지 조사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평일 1일간 생활시간을 작성하게 됩니다.
- 본 설문은 본인 스스로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조사 참여를 희망합니다
2.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SQ1-1 로 이동](#)

▶ [설문종단](#)

SQ1-1. 아동행복지수 조사의 진행을 위해, 귀하의 이름, 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개인정보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추후 진행되는 아동행복지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이용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사례비 지급 및 아동행복지수 조사 진행 문자 발송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동행복지수 조사 진행 관련) 이름, 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례비 지급 관련) 이름,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조사 종료 후 3개월까지
- 사례비 지급 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주)기프트레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만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한국리서치가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태어난 년월, 성별, 학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알려드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 [문1 로 이동](#)

▶ [설문종단](#)



기본인적사항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기본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1. 귀하께서 태어난 연도와 월은 어떻게 되나요?

				년			월
--	--	--	--	---	--	--	---

문2. 귀하께서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3 으로 이동](#)

[▶ 설문중단](#)

문3. 귀하의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1. 중학교 1학년
2. 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4. 고등학교 1학년
5. 고등학교 2학년
6. 고등학교 3학년
7. 대학생

[▶ 설문중단](#)

[▶ 설문중단](#)

[▶ 문4 로 이동](#)

[▶ 문4 로 이동](#)

[▶ 문4 로 이동](#)

[▶ 설문중단](#)

[▶ 설문중단](#)

문4.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문5. 귀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함	
----	--

문6. 귀하는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문7. 귀하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어디로 가나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1. 집
2.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
3. 학원
4. 돌봄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5. 기타 ()

문8. 귀하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주시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1.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
2. 학원
3. 돌봄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4. 기타 ()
5. 없음

[▶ 문10 으로 이동](#)

[▶ 문9 로 이동](#)

[▶ 문10 으로 이동](#)

[▶ 문10 으로 이동](#)

[▶ 문10 으로 이동](#)

문9. 귀하가 학원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1.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2.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 선행 학습을 위해
4. 주위에서 다 하고 있어서(불안해서)
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6. 기타 ()



가구 일반사항

문10.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 아동양육시설 선생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선생님께서는 문10 으로 가십시오.

문11. 귀댁의 세대유형은 아동을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양부모가정이란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양쪽 부모가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 | | |
|-----------|-----------|-----------|
| 1. 한부모 가족 | 2. 조손 가족 | 3. 미혼모 가족 |
| 4. 양부모 가족 | 5. 기타 () | |

문12. 귀댁은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13. 귀댁은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모두 몇 명의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총 가구원 수	명
---------	---

문13-1. 귀하의 형제자매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한 총 형제자매 수	명
------------------	---

문14. 귀댁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0. 900만원 이상 |

문15. 귀하의 남자양육자(아버지/보호자)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 ▶ 문16로 이동 |
| 2. 경영/관리직 | ▶ 문16로 이동 |
| 3. 사무/기술직 | ▶ 문16로 이동 |
| 4. 판매/서비스직 | ▶ 문16로 이동 |
| 5. 기능/작업/단순노무직 | ▶ 문16로 이동 |
| 6. 농/림/어/축산업 | ▶ 문16로 이동 |
| 7. 자영업 | ▶ 문16로 이동 |
| 8. 전업주부 | ▶ 문16로 이동 |
| 9. 학생 | ▶ 문16로 이동 |
| 10. 무직 | ▶ 문15-1로 이동 |
| 11. 기타 () | ▶ 문16로 이동 |
| 12. 해당없음(남자양육자(아버지/보호자) 안 계심) | ▶ 문16로 이동 |

문6-1. 현재 실직이나 무직인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 1. 1년 미만
- 2. 1년~2년
- 3. 3년 이상

[▶ 문15-2로 이동](#)[▶ 문15-2로 이동](#)[▶ 문15-2로 이동](#)

문15-2. 현재 귀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1. 매우 좋지 않다
- 2. 좋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좋다
- 5. 매우 좋다

문16. 귀하의 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자유/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프리랜서 등)
- 2. 경영/관리직
- 3. 사무/기술직
- 4. 판매/서비스직
- 5. 기능/작업/단순노무직
- 6. 농/림/어/축산업
- 7. 자영업
- 8. 전업주부
- 9. 학생
- 10. 무직
- 11. 기타 ()
- 12. 해당없음(여자양육자(어머니/보호자) 안 계심)

[▶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6-1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7로 이동](#)

문16-1. 현재 실직이나 무직인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 1. 1년 미만
- 2. 1년~2년
- 3. 3년 이상

[▶ 문7-2로 이동](#)[▶ 문7-2로 이동](#)[▶ 문7-2로 이동](#)



문16-2. 현재 귀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 | | |
|-------------|----------|----------|
| 1. 매우 좋지 않다 | 2. 좋지 않다 | |
| 3. 보통이다 | 4. 좋다 | 5. 매우 좋다 |

문17.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개월간 평균으로 응답)

※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0. 900만원 이상 |

문18. 현재 거주 중인 주택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1. 고시원 | 2.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
| 3. 반지하 | 4. 지하 |
| 5. 옥상(옥탑방 등) | 6.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 |
| 7. 보기에 해당사항이 없음 | |

문18-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면적은 몇 평입니까?

면적 ※3.3m(제곱미터)=1평

평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9.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1. 주택지역

2. 아파트지역

3. 상가회사지역

4. 공장(단)지역

5. 농산어촌지역

6. 기타

문19-1. 우리 동네에 있는 각 시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나요?

종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놀이터				
2. 공원				
3. 산책로				
4.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				
5.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6.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7. 실외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				

문19-2. 우리 동네는 내가 아플 때 소아청소년과 이용이 편리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아동행복지수] 조사는 2023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휴대전화번호 또는 메일로 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시간에 편하신 장소에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20-1.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는 무엇입니까?

* 조사참여 문자를 받을 아동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정확하게 번호를 기입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문20-2. 귀하의 이메일로도 조사 참여 링크를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이메일 없음 ☐

아동행복지수 조사 참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 아동행복지수 본 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이어서 참여가 가능하며, 휴대폰은 [가로모드]로 하여 참여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시간일지

아동행복지수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록우산과 함께 전국의 초·중·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생활 현황과 심리·정서, 학습 등 발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록우산의 연구이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이수진 팀장 ☎ 02-398-0131

실사기관  박건춘 프로 ☎ 02-3014-0757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⑬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2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거주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남	② 부산 ⑧ 경기도 ⑭ 경북	③ 대구 ⑨ 강원도 ⑮ 경남	④ 인천 ⑩ 충북 ⑯ 제주	⑤ 광주 ⑪ 충남 ⑰ 세종	⑥ 대전 ⑫ 전북
거주 지역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활동 코드	장소/이동수단 코드
1. 수면 2. 식사 3. 학교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 4. 학교 수업 ② 그 외 과목들 5. 학교 수업 ③ 쉬는 시간 6. 기타 학교 수업 ④ 창의 체험,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7. 학원/과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 8. 학원/과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 9.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① 국어, 수학, 영어 10. 학습지/방송, 온라인 수업 ② 그 외 과목들 11. 혼자 공부하기(숙제, 학습지, 태블릿PC, 문제집 풀기, 시험공부) 12. 책(종이, 전자) 읽기(만화책, 잡지, 신문, 웹툰 등) 13. 운동 및 신체활동 14.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대화하기 15.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16.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낮잠, 멍 때리는 시간) 17. 게임(PC,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등) 18. 영상 시청(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케이블/ 공중파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19. 대화 및 연락(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20. 가족과 만나 함께하거나 대화하기 21. 씻기, 화장실 등 개인 위생 및 개인 유지 22. 기타(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1. 집 2. 학교 ① 교실 3. 학교 ② 급식실 4. 학교 ③ 체육관, 운동장 5. 학교 ④ 기타 6. 돌봄 관련 센터(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 학원 8. 독서실/도서관(공부하는 장소) 9. PC방, 전자오락실 10. 노래방, 찜질방, VR 체험카페 11.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 12. 식당/편의점/카페 등 13. 기타 야외(동네 공터, 공원, 길거리, 골목길 등) 14. 그 외 기타 장소 15. 걸어서 16. 대중교통 17. 자동차 18. 기타교통(자전거, 학원 승합차나 학원 버스 등)
	함께한 사람 코드
	1. 혼자 2. 가족 및 친인척(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3. 친한 친구 4. 그냥 아는 친구 5. 온라인 친구 6. 반 친구들 7. 선생님(학교/학원/과외/센터돌보미 선생님 등) 8. 그 외 아는 사람

문1. 귀하는 별도로 지정된 요일 하루를 시간일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이 아닌 이전 날짜 중 가장 최근에 학교를 갔던 ○요일은 언제였습니까?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의 날짜를 응답해주세요.
-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평일 하루를 선택해주세요.

2023년 월 일

문2. 앞서 응답한 ○월 ○일 ○요일은 학교를 등교한 날이 맞습니까?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응답해주세요.

- 예
- 아니오

문3. 귀하는 ○월 ○일 ○요일 전날 밤에 밤 12시 전에 잠들었습니까?

- 예
- 아니오

[▶문3-1 로 이동](#)

[▶문3-2 로 이동](#)

문3-1. (문3 1.예 응답자만) ○월 ○일 ○요일 전날 밤에 언제 잠들었습니까?

1. 오후 _____ 시 _____ 분

[▶문4-1 로 이동](#)

문4-1. ○월 ○일 ○요일에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1. 오전 _____ 시 _____ 분

[▶문5 로 이동](#)



문3-2. (문3 2.아니오 응답자만) ○월 ○일 ○요일 전날 밤에 언제 잠들었습니까?

1. 오전 _____ 시 _____ 분

▶문4-2 로 이동

문4-2. ○월 ○일 ○요일에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1. 오전 _____ 시 _____ 분

▶문5 로 이동

문5. 앞서 응답한 ○월 ○일 ○요일 밤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잠을 잤습니까?

1. 잠을 잔 장소 (장소/이동수단 코드 1~22에서 1개 선택)

2. 잠을 잘 때 함께 한 사람 (함께한 사람 코드 1~8에서 최대 2개 선택 가능)

문6. ○월 ○일 ○요일 학교에 몇시에 왔나요? 기숙사에 사는 경우, 기숙사에서 나온 시간으로 응답해주세요.

1. 오전 _____ 시 _____ 분

문7. ○월 ○일 ○요일은 학교에서 몇 교시까지 수업이 있었나요? 0교시, 방과후 돌봄, 방과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조례시간, 청소시간, 종례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1. _____ 교시

문8. ○월 ○일 ○요일의 시간표를 작성해주세요.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 0교시, 방과후 돌봄, 방과 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조례시간, 청소시간, 종례시간을 제외하고 각 교시의 수업시간과 수업과목을 입력해주세요. 수업시간은 10분 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고, 쉬는시간은 제외해 주세요.
- 과목 및 장소 코드는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 문7에서 응답한 교시 수만큼 응답해 주세요.

<보기> 과목 코드		<보기> 장소 코드
1. 국어	7. 체육	2. 학교 ① 교실 4. 학교 ③ 체육관, 운동장
2. 수학	8. 미술,	
3. 영어	10. 음악	
4. 사회	11. 창의적 체험활동	
5. 과학	12. 기타-교과목(한문, 제2외국어 등)	
6. 역사	13. 기타-비교과목(스포츠클럽 등	

1. 1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2. 2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3. 3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4. 4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5. 5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6. 6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7. 7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8. 8교시: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과목 장소:

문9. ○월 ○일 ○요일 학교 수업 및 자습은 몇시에 끝났나요? 방과후 돌봄, 방과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조례시간, 청소시간, 종례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1. 오전 시 분



문10. ○월 ○일 ○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하셨나요? 먹은 식사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아침식사 ▶문10-1 로 이동
2. 점심식사 ▶문10-2 로 이동
3. 저녁식사 ▶문10-3 으로 이동

문10-1. ○월 ○일 ○요일 아침식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나요?

- 아침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아침식사를 하였다면, 아침 8시 0분부터 아침 8시 20분까지 라고 입력해주세요.

1. 아침 _____ 시 _____ 분부터 아침 _____ 시 _____ 분까지

문10-2. ○월 ○일 ○요일 점심식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나요?

- 낮 12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였다면, 낮 12시 0분부터 낮 12시 20분까지 라고 입력해주세요.

1. 낮 _____ 시 _____ 분부터 낮 _____ 시 _____ 분까지

문10-3. ○월 ○일 ○요일 저녁식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나요?

- 오후 6시부터 6시 2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오후 6시 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라고 입력해주세요.

1. 오후 _____ 시 _____ 분부터 오후 _____ 시 _____ 분까지

이어지는 시간일지 문항에서 앞서 응답해주신 시간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주로 한 행동, 행위장소/이동수단, 함께 한 사람 중 비어있는 칸이 없도록 모두 확인하고 선택하여 응답해주세요.

 0월 0일 0요일 새벽 0시 ~ 아침 6시

- 시간일지는 학교를 다니는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의 날짜를 응답해주세요.
- 행동 입력시 주의사항
 - 보기 항목에 없는 그 외의 행동은 '기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동시에 한 행동	문15	문16
		주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한 행위 장소 또는 이동수단을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대화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001	새벽0시					037
002	10					038
003	20					039
004	30					040
005	40					041
006	50					042
007	1시					043
008	10					044
009	20					045
010	30					046
011	40					047
012	50					048
013	2시					049
014	10					050
015	20					051
016	30					052
017	40					053
018	50					054
019	3시					055
020	10					056
021	20					057
022	30					058
023	40					059
024	50					060
025	4시					061
026	10					062
027	20					063
028	30					064
029	40					065
030	50					066
031	5시					067
032	10					068
033	20					069
034	30					070
035	40					071
036	50					072
	6시					



🕒 〇월 〇일 〇요일 아침 6시 ~ 낮 12시

- 시간일지는 학교를 다니는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의 날짜를 응답해주세요.
- 행동 입력시 주의사항
 - 보기 항목에 없는 그 외의 행동은 '기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동시에 한 행동	문15	문16
		주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한 행위 장소 또는 이동수단을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대화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아침6시						
037	10					037
038	20					038
039	30					039
040	40					040
041	50					041
042	7시					042
043	10					043
044	20					044
045	30					045
046	40					046
047	50					047
048	8시					048
049	10					049
050	20					050
051	30					051
052	40					052
053	50					053
054	9시					054
055	10					055
056	20					056
057	30					057
058	40					058
059	50					059
060	10시					060
061	10					061
062	20					062
063	30					063
064	40					064
065	50					065
066	11시					066
067	10					067
068	20					068
069	30					069
070	40					070
071	50					071
072	12시					072

🕒 〇월 〇일 〇요일 낮 12시 ~ 저녁 6시

- 시간일지는 학교를 다니는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의 날짜를 응답해주세요.
- 행동 입력시 주의사항
 - 보기 항목에 없는 그 외의 행동은 '기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동시에 한 행동	문15	문16
		주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한 행위 장소 또는 이동수단을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대화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073	낮12시					073
	10					074
074	20					075
075	30					076
076	40					077
077	50					078
078	1시					079
079	10					080
080	20					081
081	30					082
082	40					083
083	50					084
084	2시					085
085	10					086
086	20					087
087	30					088
088	40					089
089	50					090
090	3시					091
091	10					092
092	20					093
093	30					094
094	40					095
095	50					096
096	4시					097
097	10					098
098	20					099
099	30					100
100	40					101
101	50					102
102	5시					103
103	10					104
104	20					105
105	30					106
106	40					107
107	50					108
108	6시					



🕒 〇월 〇일 〇요일 저녁 6시 ~ 밤 12시

- 시간일지는 학교를 다니는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 시험(기말고사, 모의고사)보는 날, 학교행사(현장학습, 체육대회 등)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평일 하루의 날짜를 응답해주세요.
- 행동 입력시 주의사항
 - 보기 항목에 없는 그 외의 행동은 '기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동시에 한 행동	문15	문16	
		주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한 행위 장소 또는 이동수단을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대화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109	저녁6시						109
110	10						110
111	20						111
112	30						112
113	40						113
114	50						114
115	7시						115
116	10						116
117	20						117
118	30						118
119	40						119
120	50						120
121	8시						121
122	10						122
123	20						123
124	30						124
125	40						125
126	50						126
127	9시						127
128	10						128
129	20						129
130	30						130
131	40						131
132	50						132
133	10시						133
134	10						134
135	20						135
136	30						136
137	40						137
138	50						138
139	11시						139
140	10						140
141	20						141
142	30						142
143	40						143
144	50						144
	12시						

● ○월 ○일 ○요일 밤 12시 이전에 잠들지 않은 경우, 이후 새벽시간에 대하여 아래 시간일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 ○월 ○일 ○요일 다음 날 새벽 0시 ~ 새벽 4시

- ○월 ○일 ○요일 밤12시 전에 잠들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추가로 응답해주세요.
- 행동 입력시 주의사항
 - 보기 항목에 없는 그 외의 행동은 '기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동시간, 아르바이트 등
 -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동시에 한 행동	문15	문16
주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한 행위 장소 또는 이동수단을 선택합니다.	주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대화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
새벽0시	001 10				001
	002 20				002
	003 30				003
	004 40				004
	005 50				005
1시	006 1시				006
	007 10				007
	008 20				008
	009 30				009
	010 40				010
2시	011 50				011
	012 2시				012
	013 10				013
	014 20				014
	015 30				015
3시	016 40				016
	017 50				017
	018 3시				018
	019 10				019
	020 20				020
4시	021 30				021
	022 40				022
	023 50				023
	024 4시				024
	025 10				025
	026 20				026
	027 30				027
	028 40				028
	029 50				029
	030				030



- 시간일지의 1.주로 한 행동 에서 ‘6.기타 학교 수업 ④ 창의 체험,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을 한 번이라도 응답한 경우만 문11 로 가십시오.

문11. ○월 ○일 ○요일 동아리 활동을 했나요?

1. 동아리 활동을 했다
2.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문12. ○월 ○일 ○요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나요?

1. 나누었다
2. 나누지 않았다

문13. ○월 ○일 ○요일 학교에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나요?

1. 나누었다
2. 나누지 않았다

문14. ○월 ○일 ○요일 부모님(보호자)와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나요?

1. 나누었다
2. 나누지 않았다

문15. ○월 ○일 ○요일 학습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을 위의 시간일지에 모두 V표시해 주세요.

문16. ○월 ○일 ○요일 대화용(교제용)으로 사용한 미디어 시간을 위의 시간일지에 모두 V표시해 주세요.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3-1. 부가조사(초1~초3대상)

아동행복지수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록우산과 함께 전국의 초·중·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생활 현황과 심리·정서, 학습 등 발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록우산의 연구이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이수진 팀장 ☎ 02-398-0131

실사기관  박건춘 프로 ☎ 02-3014-0757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⑬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2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거주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남	② 부산 ⑧ 경기도 ⑭ 경북	③ 대구 ⑨ 강원도 ⑮ 경남	④ 인천 ⑩ 충북 ⑯ 제주	⑤ 광주 ⑪ 충남 ⑰ 세종	⑥ 대전 ⑫ 전북
거주 지역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주말 생활

문1. 아동이 주말에 보호자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나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2회	거의 매주
1. 집에서 미디어 활동(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게임, 인터넷 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집에서 보드게임 활동(종이접기, 레고, 퍼즐 등)	①	②	③	④	⑤
3. 외출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및 관람 (연극·영화·연주회·전시회·박물관 관람, 도서관, 미술활동, 악기 연주, 사진촬영 등)	①	②	③	④	⑤
4. 여행(캠핑, 국내 및 해외 여행 등의 나들이)	①	②	③	④	⑤
5. 외식	①	②	③	④	⑤
6. 사회활동(보상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7. 휴식(수면,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	①	②	③	④	⑤

문2. 아동이 주말에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주세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 수강여부 없음과 다른 교과목, 예체능, 기타 항목과 함께 중복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수강여부			
	없음	교과목 관련 (국,영,수,과,사)	예체능	기타
1. 학원	①	②	③	④
2. 과외(개인, 그룹)	①	②	③	④
3. 학습지(태블릿PC, 종이)	①	②	③	④
4. 유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5. 무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6. 코칭 선생님이 상주하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	①	②	③	④

문3. 아동이 주말에 학원 가는 것을 제외하고 학교 선후배 혹은 친구와 실제로 만나서 함께 여가 활동(취미활동, 운동, 쇼핑, 노는 것 등)을 하나요?

1. 예

문4. 아동은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나요?

- 1. 예
- 2. 아니오

▶문4-1 로 이동

▶문5 로 이동



문4-1. 아동이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모두 골라주세요.

1.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2. 해야 할 일(공부, 과제 등)이 많아서
3.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4.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게임, 채팅, 유튜브 시청, SNS 탐방, 웹툰 등)
5.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6.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7. 기타 ()

문5. 다음은 시간 사용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평소 나는	그렇다	아니다
1. 아이의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2. 아이가 공부를 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3. 아이의 신체활동이나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4. 아이가 미디어 사용을 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일상생활

문6. 평소 아동은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집콕(집안에만 있으면서 시간 보내기)을 선호하나요?

1. 예 [▶문6-1로 이동](#)
2. 아니요 [▶문7로 이동](#)

문6-1. 나의 자녀가 집콕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1. 친구랑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서 | ▶문6-2 로 이동 |
| 2. 용돈이 부족해서 | ▶문7 로 이동 |
| 3. 딱히 갈 곳이 없어서 | ▶문7 로 이동 |
| 4. 가족(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 ▶문7 로 이동 |
| 5.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 ▶문7 로 이동 |
| 6. 가족(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 ▶문7 로 이동 |
| 7. 기타 () | ▶문7 로 이동 |

문6-2. 나의 자녀가 친구랑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인터넷게임, 휴대전화 게임을 마음껏 하기 위해
2. 전화, 채팅, SNS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하기 위해
3. 기타 여가활동(동영상, 만화, 잡지,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을 마음껏 하기 위해
4. 기타 ()

문7. 아동이 평소 학교를 가는 날에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나요?

- | | |
|-------|----------------------------|
| 1. 있다 | ▶문7-1 로 이동 |
| 2. 없다 | ▶문8 로 이동 |

문7-1. 아동이 평소 학교를 가는 날에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면, 주로 언제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 |
|-------|-----------------------------|
| 1. 아침 | ▶문7-3 으로 이동 |
| 2. 점심 | ▶문7-3 으로 이동 |
| 3. 저녁 | ▶문7-2 로 이동 |



문7-2. (문7-1에서 3.저녁 응답자만)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저녁식사를 한다면, 주로 어느 곳에서 먹나요?

- | | |
|---------------------|------------------------|
| 1. 집 | 2. 학교(그 주변) |
| 3. 학원·독서실·도서관(그 주변) | 4.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
| 5. PC방, 전자오락실 | 6. 편의점 |
| 7. 기타 장소 | |

문7-3. (문7에서 1.있다 응답자만) 아동이 혼자 밥을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 1. 매우 만족 | 2. 약간 만족 | |
| 3. 보통 | 4. 약간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문8. 해당 아동은 하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간식이나 밥을 먹나요?

- | | |
|------|--------|
| 1. 예 | 2. 아니오 |
|------|--------|

문9. 귀하는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
| 1. 매우 나쁘다 | 2. 나쁘다 | 3. 좋다 | 4. 매우 좋다 |
|-----------|--------|-------|----------|

문10. 아동이 2023년 11월에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이 얼마나 되나요?

- | | | |
|----------|----------|-----------|
| 1. 전혀 없음 | 2. 1~2일 | |
| 3. 3~5일 | 4. 6~10일 | 5. 11일 이상 |

문11. 현재 아동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 아래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	cm	몸무게	kg
---	----	-----	----

 아동의 학교(학업) 생활

문12. 다음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문12-1.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반은 총 몇 명인가요? _____ 명

문12-2. 아동 학년의 반 수는 총 몇 반까지 있나요? _____ 반

문13. 가장 최근 진행한 학교 시험에서 받았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1을 가장 낮은 수준,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아동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떠했나요?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4.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친구나 자녀의 친구 부모님들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3. 아이에게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 가까운 도서관에 들르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아이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라고 말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5. 아이의 여러 외부 활동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막기 위해 체력 단련이나 영양공급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문15.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꾸중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학습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문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현재 아동이 월~금요일 중(주말 제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고 있는 교육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수강여부			
	없음	교과목 관련 (국,영,수,과,사)	예체능	기타
1. 학원	①	②	③	④
2. 과외(개인, 그룹)	①	②	③	④
3. 학습지(태블릿PC, 종이)	①	②	③	④
4. 유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5. 무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6.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7. 학교 밖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키움센터, 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관계(학교, 친구, 가족)

문17. 아동은 학교를 좋아하나요?

- 1. 좋아하지 않는다
- 2. 약간 좋아한다
- 3. 대체로 좋아한다
- 4. 매우 좋아한다

문18. 아동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 1. 열심히 한 적 없다
- 2. 가끔 열심히 한다
- 3. 대부분 열심히 한다
- 4. 항상 열심히 한다

문19. 아동은 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친구들과의 관계					
2. 선생님과과의 관계					
3. 가족과의 관계					

문20. 평소 아동은 가족(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 1. 그렇다
- 2. 아니다



문20-1. 가족(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게임, 인터넷, 모바일
2. 공부, 성적, 장래희망
3. 외모
4. 연예인, 방송
5. 나의 기분이나 생각
6. 학교생활
7. 교우관계
8. 가족

문20-2. 하루 중 가족(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 10분~30분 미만
2. 30분~1시간 미만
3. 1~2시간 미만
4. 2~3시간 미만
5. 3시간 이상

문21. 아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1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었던 적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1. 전혀 없었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아동의 진로, 권리

문22. 아동이 희망하는 직업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장 희망하는 직업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교육 계열(교사 또는 교수) 2. 공무원 3. 의료 계열(의사, 간호사 등) 4. 운동선수 또는 관련 직업 5. 미술 관련 직업(화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등) 6. 음악 관련 직업(가수, 성악가, 연주자 등) 7. 엔터테인먼트(아이돌, 배우, 모델, 유튜버, 연예인, 방송인 등) 8.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 9.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 군안경찰 11. 창업(CEO, 요식업, 카페 등의 자영업 사장님) 12. 임대업(건물주, 오피스텔 등 임대업자) 13. 투자 전문가(주식, 코인 등) 14. 부모님 사업(가업) 물려 받기 15. 기타 ()	

문23. 귀하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1.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2. 이름만 들어보았다
3.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4.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주관적 웰빙 : 보호자(부모님)이 보시기에 나의 자녀가 어떠하였는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24. 아동은 최근 1년간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을 얼마나 경험했나요?

	전혀 편안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편안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5. 최아동은 근 1년간 미래에 대한 불안(예: 진로, 진학, 취업 등)을 얼마나 느꼈나요?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불안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6. 아동은 어제 얼마만큼 행복했나요?

	전혀 행복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행복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7.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만족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아동의 생각 :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여, 아동의 생각을 응답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28.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껴지나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로 골라주세요.



10. 매우 행복해요

9.

8.

7.

6.

5. 보통

4.

3.

2.

1.

0.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문29.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항상 그렇다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3-2. 부가조사(초4~고2대상)

아동행복지수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록우산과 함께 전국의 초·중·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생활 현황과 심리·정서, 학습 등 발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초록우산 아동행복지수」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록우산의 연구이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이수진 팀장 ☎ 02-398-0131

실사기관  박건춘 프로 ☎ 02-3014-0757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⑬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2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주소	()사·도 ()구·군 ()동·읍·면					
거주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남	② 부산 ⑧ 경기도 ⑭ 경북	③ 대구 ⑨ 강원도 ⑮ 경남	④ 인천 ⑩ 충북 ⑯ 제주	⑤ 광주 ⑪ 충남 ⑰ 세종	⑥ 대전 ⑫ 전북
거주 지역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응답자는 문1 로 가십시오.

선문1. 다니고 있는(또는 휴학하거나 중퇴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 | |
|--|----------------------|
| 1. 일반 고등학교 | 2. 자율형 공립/사립학교 |
| 3. (특목고) 예술 고등학교 | 4. (특목고) 체육 고등학교 |
| 5. (특목고) 과학 고등학교 | 6. (특목고) 외국어/국제 고등학교 |
| 7. (특목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 |
| 8. (특목고)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등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 | |
| 9. (특성화고)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등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 | |
| 10. (기타학교)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 |
| 11. (특수학교) 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 |
| 12. 방송통신 고등학교 | |



주말 생활

문1. 주말에 보호자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나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1~2회	거의 매주
1. 집에서 미디어 활동(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게임, 인터넷 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집에서 보드게임 활동(종이접기, 레고, 퍼즐 등)	①	②	③	④	⑤
3. 외출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및 관람 (연극·영화·연주회·전시회·박물관 관람, 도서관,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①	②	③	④	⑤
4. 여행(캠핑, 국내 및 해외 여행 등의 나들이)	①	②	③	④	⑤
5. 외식	①	②	③	④	⑤
6. 사회활동(보상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7. 휴식(수면,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	①	②	③	④	⑤

평소 나는	그렇다	아니다
1.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2. 공부를 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3. 신체활동이나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4. 미디어 사용을 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문7로 이동

▶문7로 이동



문6-2. 내가 친구랑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인터넷게임, 휴대전화 게임을 마음껏 하기 위해
2. 전화, 채팅, SNS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하기 위해
3. 기타 여가활동(동영상, 만화, 잡지,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을 마음껏 하기 위해
4. 기타 ()

문7. 평소 학교를 가는 날에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7-1 로 이동](#)

[▶문8 로 이동](#)

문7-1. 평소 학교를 가는 날에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면, 주로 언제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1. 아침
2. 점심
3. 저녁

[▶문7-3 으로 이동](#)

[▶문7-3 으로 이동](#)

[▶문7-2 로 이동](#)

문7-2. (문7-1에서 3.저녁 응답자만) 방과 후 혼자 저녁식사를 한다면, 주로 어느 곳에서 먹나요?

- | | |
|---------------------|------------------------|
| 1. 집 | 2. 학교(그 주변) |
| 3. 학원·독서실·도서관(그 주변) | 4.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
| 5. PC방, 전자오락실 | 6. 편의점 |
| 7. 기타 장소 | |

문7-3. (문7에서 1.있다 응답자만) 혼자 밥을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1. 매우 만족 | 2. 약간 만족 |
| 3. 보통 | 4. 약간 불만족 |
| 5. 매우 불만족 | |

1. 예

2. 아니오

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좋다 4. 매우 좋다

1. 전혀 없음	2. 1~2일
3. 3~5일	4. 6~10일
5. 11일 이상	

키	cm	몸무게	kg
---	----	-----	----



건강(정서, 행동)

문12. 다음은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문13. 다음은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1. 외롭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2.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①	②	③
3.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4.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①	②	③
5.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6.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7.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②	③
8.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9.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10.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문14.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예	아니오
1. 술·담배	①	②
2. 마약류 복용	①	②
3. 무단결석·가출	①	②
4.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놀리거나 조롱, 따돌림, 폭력, 협박, 갈취)	①	②
5.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기	①	②
6. 성관계, 성폭행·성희롱	①	②
7.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온라인 도박/게임 포함)	①	②
8.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폭언하기	①	②

문15. 지난 1년간 고의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문16. 지난 1년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 [▶문16-1 로 이동](#)
- [▶문17 로 이동](#)

문16-1.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 학교 성적 때문에
2.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3.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때문에
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5.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6.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문17. 우울하거나 과격한 행동, 충동적인 자살 생각 등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와 상의(상담)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학교(학업)생활 및 스트레스

문18. 다음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문18-1. 우리 반은 총 몇 명인가요?

총 _____ 명

문18-2. 우리 학년의 반 수는 총 몇 반까지 있나요?

총 _____ 반

문19. 가장 최근 진행한 학교 시험에서 받았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1을 가장 낮은 수준,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학업 성적은 어떠했나요?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1. (중고등학생만 응답) 2023년 1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은 어떠했나요?

반 전체인원 중 _____ 등

문20.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문제	①	②	③	④
2. 가정불화(나와 부모님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부모님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 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21.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보호자(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친구나 내 친구 부모님들과 교류하신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 가까운 도서관에 들르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라고 말할 때가 많으시다	①	②	③	④
5. 여러 외부 활동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막기 위해 체력단련이나 영양공급에 신경을 쓰신다	①	②	③	④



문22. 다음 각 문항에 평소 본인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보호자(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 학습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현재 내가 월~금요일 중(주말 제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고 있는 교육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수강여부			
	없음	교과목 관련 (국,영,수,과,사)	예체능	기타
1. 학원	①	②	③	④
2. 과외(개인, 그룹)	①	②	③	④
3. 학습지(태블릿PC, 종이)	①	②	③	④
4. 유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5. 무료 인터넷 강의	①	②	③	④
6.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7. 학교 밖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키움센터, 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문24.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학업 성적, 시험, 숙제

2. 부모님(보호자)과의 갈등(대화가 안 됨, 의견충돌, 간섭)

3. 진로(대학입시)

4. 진로(취업)

5. 친구와의 갈등(동성 친구, 이성 친구)

6. 외모(몸무게)

7. 외모(키)

8. 외모(얼굴 생김새)

9. 용돈 부족

10.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살 수가 없음

11.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없음

12. 기타(보기에 해당사항이 없음)

문25.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 중 주로 누구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 이야기(상담)할 사람이 없다

2. 아버지(혹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보호자)

3. 어머니(혹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보호자)

4. 형제/자매

5. 함께 사는 어른(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

6. 친구나 선후배

7. 학교 선생님(담임이나 상담선생님)

8.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선생님

9. 기타 ()



문26. 지난 1년 이내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나는	예	아니오
1. 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피해(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등)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온라인에서 학교폭력 피해(저격, 카톡감옥, 와이파이어들, 불법촬영물 유포 등)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문2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PC,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3.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 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문29. (중·고등학생만 응답)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 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2.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3. 알고는 있으나 참여해보지는 않았다
- 4.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문29-1.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1~2회	거의 주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 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6학년 응답자는 문31 로 가십시오.

문30. (중·고등학생만 응답) 우리 학교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 하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관계(학교, 친구, 가족)

문31. 나는 학교를 좋아하나요?

- | | |
|-------------|------------|
| 1. 좋아하지 않는다 | 2. 약간 좋아한다 |
| 3. 대체로 좋아한다 | 4. 매우 좋아한다 |

문32. 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 | | |
|---------------|--------------|
| 1. 열심히 한 적 없다 | 2. 가끔 열심히 한다 |
| 3. 대부분 열심히 한다 | 4. 항상 열심히 한다 |

문33.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나요?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3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나요?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35. 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친구들과의 관계					
2. 선생님과과의 관계					
3. 가족과의 관계					

문36. 다음은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보호자(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평소 나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1. 그렇다
2. 아니다

문37-1. 가족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게임, 인터넷, 모바일
2. 공부, 성적, 장래희망
3. 외모
4. 연예인, 방송
5. 나의 기분이나 생각
6. 학교생활
7. 교우관계
8. 가족

문37-2. 하루 중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 10분~30분 미만
2. 30분~1시간 미만
3. 1~2시간 미만
4. 2~3시간 미만
5. 3시간 이상



문38.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① 일주일 한번 이상	② 한 달에 두세 번	③ 한 달에 한 번	④ 일 년에 3~5번	⑤ 일 년에 한두 번	⑥ 지난 일 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음	⑦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벨트, 머리빗,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이나 맨손으로 나를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를 큰소리로 비난하거나 욕하고 위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를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9.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1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었던 적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1. 전혀 없었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진로, 권리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문40. 희망하는 직업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장 희망하는 직업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 주세요.

1. 교육 계열(교사 또는 교수)
2. 공무원
3. 의료 계열(의사, 간호사 등)
4. 운동선수 또는 관련 직업
5. 미술 관련 직업(화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등)
6. 음악 관련 직업(가수, 성악가, 연주자 등)
7. 엔터테인먼트(아이돌, 배우, 모델, 유튜버, 연예인, 방송인 등)
8.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
9.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 군인·경찰
11. 창업(CEO, 요식업, 카페 등의 자영업 사장님)
12. 임대업(건물주, 오피스텔 등 임대업자)
13. 투자 전문가(주식, 코인 등)
14. 부모님 사업(가업) 물려 받기
15. 기타 ()

문41. 여러분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1.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2. 이름만 들어보았다
3.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4.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주관적 웰빙 : 보호자(부모님)이 보시기에 나의 자녀가 어땠는지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42. 최근 1년간 일상에서 편안한 감정을 얼마나 경험했나요?

	전혀 편안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편안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3. 최근 1년간 미래에 대한 불안(예: 진로, 진학, 취업 등)을 얼마나 느꼈나요?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불안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4.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나요?

	전혀 행복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행복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5.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항상 만족함									
전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아동의 생각 :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여, 아동의 생각을 응답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46.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껴지나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로 골라주세요.



10. 매우 행복해요

9.

8.

7.

6.

5. 보통

4.

3.

2.

1.

0.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문47.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항상 그렇다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 2024-2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 발 행 일 2024년 12월
- 발 행 인 황영기
- 편 집 인 노충래
- 발 행 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초록우산빌딩
- 전 화 02-398-0131~0134
-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가 모여,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가 됩니다.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TEL 1588-1940 FAX 02-756-4256